발 간 등 록 번 호
11-1371029-000210-01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해외 한국자료실 지원 개선방안 연구

국립중앙도서관

해외 한국자료실 지원 개선방안 연구

2020. 12. 15

국립중앙도서관

- 참여 연구진 -

연구책임자	권나현	명지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공동연구자	이효경	미국 워싱턴주립대학 사서부장
공동연구자	서지영	캐나다 브리티시콜롬비아대학교 아시아학부 강사
공동연구자	이한슬	명지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조교수
연구보조원	최유진	미국 텍사스주립대학교 박사과정
연구보조원	임기령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석사과정
보조원	김경현	명지대학교 문헌정보학과 학부과정

제 출 문

국립중앙도서관 관장 귀하

본 보고서를 국립중앙도서관의 「해외 한국자료실 지원 개선방안 연구」에 관한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0년 12월 15일

▌연 구 기 관 :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 권나현 (명지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공동연구자 : 이효경 (미국 워싱턴주립대학 사서부장)

서지영 (캐나다 브리티시콜롬비아대학교 아시아학부 강사)

이한슬 (명지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조교수)

▌연구보조원 : 최유진 (미국 텍사스주립대학교 박사과정)

임기령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석사과정)

▌보조원 : 김경현 (명지대학교 문헌정보학과 학부과정)

본 보고서는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국립중앙도서관의 연구용역 의뢰를 받아 수행한 연구의 결과입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국립중앙도서관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힙니다.

〈목 차〉

Ⅰ. 서론 ····· 1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3
2. 연구의 범위 ····· 6
3.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7
4. 연구 결과의 활용 및 기대 효과 ····· 15

Ⅱ. 해외 한국자료 수요 환경 분석 ····· 17

1. 해외 한류 정보수요 동향 분석 ····· 19
2. 해외 한국학 연구 동향 ····· 26

Ⅲ. 해외 한국자료실(WOK) 현황 분석 ····· 39

1. 국립중앙도서관의 사업관리 현황 분석 ····· 41
2. 해외 한국자료실(WOK) 운영기관 현황 분석 ····· 56

Ⅳ. 사례 조사 ····· 107

1. 국내 유관기관 해외 지원 사업 사례 ····· 109
2. 해외 자국학 지원 사례 ····· 131

Ⅴ. 해외 한국자료 이용 및 수요 조사 ····· 151

1. 연구 설계 및 조사 과정 ····· 153
2. 해외 한국자료실(WOK) 이용 및 수요 조사 ····· 161
3. 해외 한국자료 수요 조사 ····· 194

Ⅵ. 해외 한국자료실(WOK) 지원 사업 개선 방안 모색 ····· 223

1. 정책고객 중심의 해외 한국 자료 지원과 서비스 제공 방안 ····· 225
2. 현행 사업 및 운영 방식의 타당성 검토 ····· 235
3. 유관 기관과의 차별성 확보 및 협업 방안 ····· 257
4. 효율적인 사업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 및 매뉴얼 제안 ····· 274

Ⅶ. 해외 한국자료 지원 및 이용 활성화 방안 ····· 311

1. 국립중앙도서관의 해외 한국자료 지원 사업 효율화 방안 ····· 313
2. 중장기 발전을 위한 전략 모델 ····· 326
3. 국립중앙도서관 해외 한국자료 지원 사업의 중장기 발전 로드맵 ····· 332
4. 연구 요약 ····· 336
5. 결언 ····· 338

■ **참고문헌 ····· 342**

■ **부 록 ····· 351**

부록1. WOK 운영기관 30개관 개요 ····· 353

부록2. 인터뷰 가이드 ····· 383

부록3. 이용자 설문지 ····· 393

〈표 목차〉

〈표 III-1〉 국립중앙도서관 WOK 설치 현황 (2020. 10. 기준) ····· 42
〈표 III-2〉 국립중앙도서관 설치 WOK 대륙별·도서관 유형별 분류표 ····· 43
〈표 III-3〉 국립중앙도서관 설치 WOK 대륙별·도서관 유형별 요약표 ····· 44
〈표 III-4〉 국립중앙도서관 WOK 사업 문화프로그램 지원 사례(2019년) ····· 46
〈표 III-5〉 n년도 WOK 사업 연간 진행 일정 ····· 48
〈표 III-6〉 WOK 신규 설치기관 선정기준 ····· 49
〈표 III-7〉 자료목록 작성 방식 ····· 51
〈표 III-8〉 국가지식자원공유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디지털 자료 현황(2020. 10. 기준) ····· 55
〈표 III-9〉 WOK 설치 현황 ····· 56
〈표 III-10〉 WOK 실태조사 참여율 ····· 57
〈표 III-11〉 WOK 실태조사 설문 응답 기관 ····· 58
〈표 III-12〉 WOK 실태조사 설문지 구성 ····· 59
〈표 III-13〉 WOK 실태조사 설문지(2017-2019) 응답 내용 정리 ····· 60
〈표 III-14〉 WOK 지원 자료 현황 ····· 63
〈표 III-15〉 2017년도 설문조사 내 한국학 프로그램 ····· 69
〈표 III-16〉 설문조사 참여 기관 특성: 2020년 설문조사 결과 ····· 70
〈표 III-17〉 한국관련 장서 규모 : 2020년 설문조사 결과 ····· 72
〈표 III-18〉 2020년도 설문조사 한국자료실 홍보 홈페이지 주소 ····· 79
〈표 III-19〉 2020년도 설문조사 자체 기관 내 한국자료 예산 ····· 85
〈표 III-20〉 2020년도 설문조사 한국자료실 운영 개선을 위한 제안 의견 ····· 88
〈표 IV-1〉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출판 및 영상 관련 사업(2020. 10. 기준) ····· 125
〈표 IV-2〉 국회도서관 '한국의 창' 사업 대상 국가 및 기관 ····· 129
〈표 IV-3〉 일본국제교류기금의 해외지사 운영현황(2020. 10. 기준) ····· 133
〈표 V-1〉 전체 조사 설계 ····· 153
〈표 V-2〉 1차 설문지 조사 내용 ····· 158
〈표 V-3〉 응답자 연령대 ····· 163
〈표 V-4〉 응답자 신분 ····· 164
〈표 V-5〉 한국에 대한 관심 수준 ····· 165
〈표 V-6〉 한국 관련 업무 경험 유무 ····· 167

〈표 V-7〉 한국어 학습 경험, 계획 유무 ····· 169
〈표 V-8〉 한국에 대한 관심 발전 단계에 대한 인식 ····· 170
〈표 V-9〉 한국 관련 관심 분야 ····· 170
〈표 V-10〉 주 이용 정보원 ····· 173
〈표 V-11〉 선호하는 자료 유형 ····· 174
〈표 V-12〉 이상적인 한국자료실에서 기대하는 서비스(순위 나열) ····· 175
〈표 V-13〉 WOK 인지 경로 ····· 178
〈표 V-14〉 대상자 지역별/신분별 분류표(총 26명) ····· 195
〈표 V-15〉 그룹별 자료 관심/주제 영역 분류표 ····· 196
〈표 V-16〉 정보원 유형 ····· 198
〈표 V-17〉 2차 인터뷰 분석 대상자 소속 ····· 213
〈표 VI-1〉 신규기관 선정기준과 절차 개선방식 ····· 280
〈표 VI-2〉 자료실 설치와 자료/인력제공 개선 방식 ····· 283
〈표 VI-3〉 실태조사와 평가 개선방식 ····· 285
〈표 VI-4〉 평가대상별 평가기준과 평가방식 ····· 287
〈표 VI-5〉 지원 연장 및 종료 개선방식 ····· 288
〈표 VI-6〉 문화행사 프로그램 지원 개선방식 ····· 289
〈표 VI-7〉 홍보 및 안내 개선방식 ····· 290
〈표 VI-8〉 지난 3년간 설문지 조사 응답기관 ····· 295
〈표 VI-9〉 지난 3년간 설문에 한 번도 응답하지 않은 기관 ····· 296
〈표 VI-10〉 WOK 자료실의 연도별 자료 신청 여부와 수량(권) ····· 301
〈표 VI-11〉 WOK 자료실별 장서 규모 및 신청 현황 ····· 302
〈표 VI-12〉 WOK자료실의 2019년도 자료 유형별 신청 내역 ····· 303
〈표 VI-13〉 유럽 내 WOK 자료실 10개 기관 ····· 306
〈표 VI-14〉 유럽 내 한국학 거점 대학교 ····· 307
〈표 VI-15〉 아시아 지역 내 WOK자료실 ····· 308
〈표 VII-1〉 사업의 명칭, 목적, 목표, 사업 관리를 위한 7대 추진 원칙 ····· 315
〈표 VII-2〉 한국자료 수요자 특성에 따른 범주 분류 ····· 317
〈표 VII-3〉 “해외 한국자료 지원 사업(Window on Korea)” 중장기 발전 로드맵 ····· 332

〈그림 목차〉

[그림 Ⅲ-1] WOK 담당사서의 한국어 능력: 2020년 설문조사 결과 ····· 71
[그림 Ⅲ-2] 2020년도 설문조사 주제별 관심 자료 ····· 73
[그림 Ⅲ-3] 2020년도 설문조사 한국자료실 일일 이용자수 ····· 74
[그림 Ⅲ-4] 2020년도 설문조사 한국자료실 일일 이용자료 권수 ····· 74
[그림 Ⅲ-5] 2020년도 설문조사 한국자료실 이용자그룹 ····· 75
[그림 Ⅲ-6] 2020년도 설문조사 자료의 목록현황 ····· 76
[그림 Ⅲ-7] 2020년도 설문조사 한국자료실 대출과 참고서비스 현황 ····· 76
[그림 Ⅲ-8] 2020년도 설문조사 국립중앙도서관 원문데이터베이스 이용여부 ····· 77
[그림 Ⅲ-9] 2020년도 설문조사 국립중앙도서관 원문데이터베이스 이용의 문제점 ····· 78
[그림 Ⅲ-10] 2020년도 설문조사 한국자료실 홍보 홈페이지 여부 ····· 78
[그림 Ⅲ-11] 2020년도 설문조사 한국자료실 상호대차 현황 ····· 80
[그림 Ⅲ-12] 2020년도 설문조사 전자자료에 대한 잠재요구 ····· 80
[그림 Ⅲ-13] 2020년도 설문조사 한국자료실 자료지원 만족도 ····· 81
[그림 Ⅲ-14] 2020년도 설문조사 현금 자료 지원 ····· 82
[그림 Ⅲ-15] 2020년도 설문조사 한국자료실 간의 네트워킹 ····· 83
[그림 Ⅲ-16] 2020년도 설문조사 한국자료 관련한 재교육 필요성 ····· 83
[그림 Ⅲ-17] 2020년도 설문조사 국립중앙도서관의 해외한국학사서워크숍 ····· 84
[그림 Ⅲ-18] 2020년도 설문조사 국립중앙도서관 외 기관에서의 지원여부 ····· 85
[그림 Ⅲ-19] 2020년도 설문조사 한국자료실의 궁극적 목적 ····· 86
[그림 Ⅲ-20] 2020년도 설문조사 한국자료실 만족도 ····· 87
[그림 Ⅲ-21] 2020년도 설문조사 한국자료실 운영상 문제점 ····· 87
[그림 Ⅳ-1]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한국학 지원 사업(2020. 10. 기준) ····· 111
[그림 Ⅳ-2] 이탈리아문화원 내 이탈리아자료실 소장 자료의 예 ····· 146
[그림 Ⅴ-1] WOK 이용자 및 한국자료 수요자 조사 과정 ····· 154
[그림 Ⅴ-2] 전체 응답자 국적 분포 ····· 161
[그림 Ⅴ-3] 응답자 거주 국가 분포 ····· 163
[그림 Ⅴ-4] 한국에 처음 관심을 가지게 된 연도 ····· 166
[그림 Ⅴ-5] WOK 비이용자 관심 분야 TOP 3 ····· 168
[그림 Ⅴ-6] WOK 이용자 관심 분야 TOP 3 ····· 168

[그림 V-7] WOK 이용자 비이용자 한국어 수준 ····· 169
[그림 V-8] 한국에 대한 현재 자신의 관심 단계 ····· 171
[그림 V-9] 사서/직원에게 기대하는 것 ····· 176
[그림 V-10] WOK 인지 경로 ····· 178
[그림 V-11] WOK 최초 이용 연도 ····· 179
[그림 V-12] WOK 이용 빈도 ····· 180
[그림 V-13] WOK 평균 이용 시간 ····· 180
[그림 V-14] WOK 이용 목적 ····· 181
[그림 V-15] 한국자료실에서 주로 이용하는 자료 분야 ····· 182
[그림 V-16] WOK에서 사서나 직원에게 도움 받은 경험 ····· 183
[그림 V-17] WOK에서 사서나 직원에게 도움 받은 내용 ····· 183
[그림 V-18] WOK 이용 만족도 ····· 184
[그림 V-19] 한국자료실 항목별 이용 만족도 ····· 185
[그림 VI-1] 국립중앙도서관의 조직도와 국제교류홍보팀 업무 분담(2020. 10. 기준) ····· 239
[그림 VI-2] 국립중앙도서관 국제교류홍보팀 업무 개편 제 1안 ····· 242
[그림 VI-3] 국립중앙도서관 국제교류홍보팀 업무 개편 제 2안 ····· 243
[그림 VI-4] 국립중앙도서관 국제교류홍보팀 업무 개편 제 3안 ····· 245
[그림 VI-5] 국립중앙도서관 국제교류홍보팀 업무 개편 제 4안 ····· 246
[그림 VI-6] 국립중앙도서관 국제교류홍보팀 업무 개편 제 5안 ····· 247
[그림 VI-7] 북미 한국학도서관 컨소시엄 홈페이지 ····· 292
[그림 VI-8] 대만 TRCCS 중국학 자료센터 홈페이지 ····· 292
[그림 VII-1] 효율적 사업 관리를 위한 7대 추진 원칙 ····· 316
[그림 VII-2] 사업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전략모델 ····· 326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범위
3. 연구의 내용 및 방법
4. 연구 결과의 활용 및 기대 효과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국립중앙도서관은 대한민국의 국가대표 도서관으로서 국내에서 생산된 지식정보자원의 수집, 보존과 효과적인 활용을 유도하고 국가의 지식문화발전에 기여하는 사명을 갖고 있다. 이를 위해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 수집한 지식정보자원의 효과적인 활용 창구를 마련하여 국내외에 제공하며, 해외도서관과의 교류 및 협력 업무를 수행한다(도서관법, 2020). 해외 한국자료실(Window on Korea, 이하 WOK)의 설치 및 운영 지원 사업은 국립중앙도서관의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기획된 주요 국제교류 사업으로, 해외에 한국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증진시키고, 한국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설치되었다. 이 사업의 효율성 제고는 한국문화 확산과 해외 한국학 발전의 핵심적 토대를 구축하는 일이다.

- 최근 한국문화와 한국학 연구에 세계적인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은 해외의 한국에 대한 정보자원 수요자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를 위해 현재와 미래의 잠재적 수요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해외 주요도서관들과의 교류협력을 통해 서비스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유기적 협력 체계는 한국학 연구와 한류문화 발전을 선도하는 시너지 효과를 가져 오는 동시에 국내 유관기관들과의 차별화 전략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국립중앙도서관의 해외 한국자료실 설치 및 운영 지원 사업과 관련된 국내외 지원과 운영 그리고 이용 현황에 대해 종합적으로 점검

하면서, 향후 사업 추진방향을 도출하고 국립중앙도서관의 한국학과 한국자료 지원사업의 개선 방안과 이용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 국립중앙도서관의 해외 한국자료실은 2006년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이미지위원회의 6대 역점과제로 선정되어 2007년에 해외홍보문화원이 주관하는 시범사업으로 실시되었고 2008년부터 국립중앙도서관으로 이관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2020년 현재 전 세계 총 27개국에 30개관을 설치, 운영하여 한국 관련 자료를 해외 도서관에 제공하고 있다.

- 2007년 첫 설치 이후 14년이 경과한 현재, 한국자료실 설치를 둘러싼 환경은 급격히 변화하였다. 인터넷에서의 각종 디지털 자료가 지식정보 유통과 이용에서 주류로 자리 잡은 것은 물론, 한류문화의 전 지구적 확산과 함께 한국에 대한 관심이 세계적으로 커짐에 따라 한국에 관한 정보자료 수요 역시 크게 증가하고 있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의 KF통계센터(2020)에 의하면 전 세계 한국어학, 한국학 전공 개설 대학은 107개국 1,390개교에 달한다. 한국어에 대한 수요 역시 한류라는 이름으로 한국 문화콘텐츠가 세계로 확산되면서 급증하였다. 일례로, 한국어능력시험(TOPIK) 지원자가 1997년 2,692명에서 2019년 375,871명으로 20년 동안 140배 가까이 증가하였고(한국어능력시험, 2020), 매년 15% 이상 증가하는 이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 한국 언어와 문화에 대한 관심은 한국학 연구의 증가로 이어진다(이영준, 2020)는 점에서, 결과적으로 한류를 통해 증가한 한국문화, 한국어, 한국학 연구에 대한 관심을 제대로 지원할 양질의 정보자료 제공의 중요성이 더 커진 상황이다.

- 현재 해외 한국자료실 서비스는 크게 해외 한국학연구(학술), 한국대중문화(비

학술), 한국어(교육), 문화행사프로그램(행사)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설치된 국가의 문화적 특성이나 도서관의 성격에 따라 소비되는 서비스 콘텐츠가 다르기 때문에, 제한된 자원으로 한국자료실을 지원할 때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여 다각화하고 맞춤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추어 국립중앙도서관의 원문DB 제공서비스를 포함한 디지털화된 자료 서비스가 확충되어야 하며, 해외 한국자료의 원스톱서비스 창구로서 국내 서비스 포스트와 연결시키는 작업도 수반할 필요성도 증가되는 상황이다.

- 한편, 국내 여타 유관기관에서도 한류의 확산과 함께 유사한 한국관련 자료 지원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한국국제교류재단(2020)은 “코리아 코너”와 같이 해외 일반인들의 한국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제고하고자 해외 대학, 도서관 등에 한국문화 복합홍보 공간을 개설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자칫 불필요한 중복 현상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유관 기관 간의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건설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 이처럼 해외 한국자료실을 둘러싼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은 해외 한국자료 지원서비스의 방향성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현재의 지원정책과 사업관리 체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지원컬렉션의 운영 및 이용현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개선점을 도출하여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는 국립중앙도서관의 WOK 지원체계를 포함한 한국자료 지원사업의 개선방안과 해외 한국자료 이용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2. 연구의 범위

본 연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현황 조사: WOK의 운영 현황 및 요구 조사를 통해 WOK 지원 사업 방식의 타당성 검토 및 개선점을 도출한다.
  - WOK 지원사업의 지원 내용과 관리 방식의 타당성 검토를 토대로 사업의 내실화 방안을 모색한다.
  - WOK 26개관과 종료된 4개관에 대해 운영현황과 이용현황을 전수조사하고 운영의 개선방안을 도출한다.
  - 한국자료 수요자의 요구 및 만족도 조사를 토대로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콘텐츠 제공 및 이용 활성화 방안을 고찰한다.

- 사례 조사: 국내 유관기관의 해외 한국자료 지원 사업 및 해외기관의 모범 사례를 조사,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한다.
  - 국내 유관기관의 한국자료 지원 사업 사례를 조사함으로써 한국자료실의 차별화 전략과 기관 간 시너지를 높일 수 있는 생산적 협력방안을 제시한다.
  - 해외 자국학 지원기관의 모범사례를 조사하여 사업개선 방안을 도출한다.

- 개선 방안: WOK 지원사업의 개선점 및 중장기 발전방안을 제안한다.
  - 현행 한국 자료 지원 방식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개선점을 도출한다.
  - 효율적 사업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 및 매뉴얼을 제안한다.
  - 정책고객 중심의 해외 한국 자료 지원 및 서비스 제공 방안을 제안한다.
  - 유사 사업과의 차별화 전략과 시너지를 올릴 협력 방안을 제안한다.
  - 국가대표도서관의 역할에 맞는 해외 도서관 지원사업의 중장기 발전 방안과 구체적 실행 전략을 제안한다.

3.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 연구 내용

(1) 해외 한국자료 수요 환경 분석

- 현재 한국자료실의 운영 및 이용 실태 현황 분석에 앞서 본 연구의 배경이 되는 한국학 연구와 한류문화에 대한 수요 환경을 개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해외 한국학 연구 및 한류 문화 확산 환경과 해외 한국자료 수요 변화 등 한국자료 지원 사업 환경을 문헌조사와 관계자 인터뷰를 통해 재검토하였다. 이러한 해외 한국 자료지원 사업에 대한 구조적 접근을 통해 전체적인 윤곽을 파악한 후, 현재 지원사업의 구체적 현황에 대한 본격적 문헌조사와 실제 해외 한국자료 수요자에 대한 사례조사를 실시하였다.

(2) 현황조사

- WOK 지원 사업 고도화를 위한 사업 현황 조사를 사업 지원기관, 자료실 운영기관, 자료 수요자 등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수행하였다.

① 사업 지원기관의 관리현황 조사

- 해외 한국자료실 사업의 정책과 관리 현황 등 국내 사업 관리 체계와 지원방식의 타당성을 문헌조사와 현재 업무담당자와의 세 차례 면담을 통해 검토하고 효율적 사업관리를 위한 개선점을 도출하였다.

- 세부 조사 내용
  - 기관 선정, 운영 관리, 실태조사, 평가 및 지원 연장 등 일련의 사업

관리 현황
- 신규 기관 선정 기준과 절차, 재외공관과의 협력
- 자료선정 방식과 지원의 효율성과 적절성
- 재외문화원, 재외공관과 연계한 문화 행사 프로그램 지원 현황
- 한국자료실 운영 실태 및 애로사항
- 사업 종료기관 관리 현황
- 국립중앙도서관 원문자료 활용을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현황

② WOK 운영기관 현황 조사

- WOK 운영 현황을 전수 조사하여 전체 WOK의 운영 실태는 물론 국가별 및 기관 유형별 특성과 문제점 그리고 개선점을 파악하여 WOK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 세부 조사 내용
  - WOK 자료실 홈페이지 분석 및 설문조사를 통해 제공 자료, 인력, 시설, 서비스, 이용대상 및 이용 현황 등을 중심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WOK 26개관의 운영 현황을 전수 조사
  - WOK 지원이 종료된 4개 기관에 대해 담당자 면담을 통해 종료 사유, 문제점 및 애로사항 조사를 토대로 운영 개선을 위한 필요 사항 등을 파악
  - 해외 한국 공관 관계자(대사관 및 영사관, 한국문화원) 면담을 통해 지원 및 협력 현황을 조사

(3) 한국 자료 수요자 요구 조사

① 해외에서 한국학 연구 또는 한류 문화에 대한 관심으로 한국자료실을 이용하거나 한국자료에 대한 수요를 가진 사람들의 정보요구를 해외에서 한국자료 이용 경험이 있는 외국인들과 개별 면담을 수행하였고, 2차례에 걸친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함으로써 정보 수요자 측면에서의 WOK

이용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였다.

② 세부 조사 내용

- WOK 이용자들의 구체적인 한국자료실 이용 실태, 요구, 만족도, 자료실 이용에서의 문제점과 애로사항 파악
- 국립중앙도서관의 WOK 서비스를 넘어 일반적인 해외 한국자료 이용자들의 정보 요구 및 기대, 애로사항 파악

(4) 사례조사

국내외 해외 지원 사업 사례를 조사하여 국립중앙도서관의 WOK의 차별화 및 협력 방안을 도출하여 사업의 개선 및 발전 방안을 도출하였다.

① 국내 유관기관의 해외 한국자료 지원 사업 조사

-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국제교류재단, 세종학당재단, 한국문학번역원, 국회도서관 등 해외 한국자료 지원사업과 국제교류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국내 5개 기관의 사업현황(조직, 인력, 예산, 현지 운영현황 등) 및 지원 체계(지원 내역, 수요기관의 역할, 관련 시스템 등), 사업 관리방법 등을 문헌 조사, 홈페이지 분석, 관계자 심층면담 등을 통해 조사하여 효율적인 사업관리 체계를 벤치마킹하였다.

- 특히, 한국자료실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유관 기관 사업을 조사하여 기관 간 불필요한 중복사업과 누락된 사업, 협업 가능한 사업들을 발굴하여 WOK의 차별성을 모색하였다.

② 해외 자국학 지원 사례 조사

- 외국의 자국학 증진을 위한 자료지원 사업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일본, 중국, 대만, 독일, 이탈리아 사례를 조사하였다.

- 외국의 자국학 지원 사업 현황(조직, 인력, 예산, 현지 운영현황 등) 및 지원 체계(지원 내역, 수요기관의 역할, 관련 시스템 등), 사업 관리 방식을 문헌 조사, 홈페이지 분석, 중국학, 일본학 사서 등을 대상으로 대면 또는 온라인으로 심층면담을 진행하여 해외 모범 사례로부터 효율적인 사업관리 체계를 벤치마킹하였다.

⑸ 개선방안 도출

앞에서 수행한 현황분석과 사례조사 내용을 종합 분석하여 국립중앙도서관이 타 기관과의 차별화 및 협력의 시너지를 제고하면서 WOK 지원 사업의 내실화와 이용 활성화를 유도하는 개선 방안을 네 가지 측면으로 도출하였다.

- 첫째, 정보 이용자 중심의 해외 한국 자료 지원과 서비스 제공 방안 제시
- 둘째, 현행 해외 한국 자료실 운영 방식의 타당성 검토 및 개선점 도출
- 셋째, 유사기관과의 차별성 확보 및 협업 방안 제안
- 넷째, 국립중앙도서관의 효율적인 해외 자료지원 사업 관리(기관선정, 운영관리, 실태조사, 평가 및 지원 연장 등)를 위한 가이드라인 및 매뉴얼 제안

⑹ 결론 도출

대한민국 국가도서관의 역할에 부합하는 해외 한국 자료 지원 및 이용 활성화

방안을 포함한 국립중앙도서관의 해외 자료 지원사업의 중장기 발전방안 및 구체적 실행 전략을 제안하였다.

2) 연구 방법

각 연구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 방법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였다.

(1) 해외 한국자료 수요 환경 분석

- 해외 한국학 연구 및 한류 문화 확산 환경과 해외 한국자료 수요 변화를 문헌연구와 심층 면담을 통해 분석하였다.

(2) 사업 관리 체계 현황 분석

- 국립중앙도서관의 WOK 운영 기록을 분석하는 한편 업무담당자 면담을 통해 사업 관리 현황을 다각적으로 파악하였다.

(3) WOK 현황 파악

- 현재 운영 중인 WOK 26개관의 홈페이지 및 각종 발간 자료를 토대로 자료실 기본 운영현황, 각 기관이 국립중앙도서관에 제출한 사업보고서, 자료실 개실 행사 사진 등의 홍보 자료, 도서관 목록 검색창을 통한 기증자료 목록 실태 등을 분석하였다.
- WOK를 대상으로 실시된 지난 3년간의 설문조사 내용을 재분석 하였다.
- WOK 26개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응답한 16개관(응답률 67%)의 응답을 토대로 전반적인 운영 및 이용 실태를 분석하였다.

- 운영 종료 4개관 관련자 면담을 위해 이메일, Zoom을 이용한 실시간 화상면담 및 현지 방문조사를 실시하였다.
- 2020년 설문조사에 응답한 WOK 담당자 중 후속 인터뷰에 응한 5인의 사서와 Zoom을 활용하여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참여한 기관은 베를린 자유대학, 이탈리아 라 사피엔차 대학, 필리핀 아테네오 대학, 베트남 호치민 인문사회대학,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도서관 등이다.
- WOK 설치 및 지원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해외 한국 공관(대사관, 한국문화원)을 대상으로 관계자와의 면담을 실시하였다. 이메일, Zoom을 이용한 실시간 화상면담을 통해 종료 사유, 문제점 및 애로사항 조사를 토대로 지속 운영을 위한 필요사항 등을 파악하였다. WOK가 설치되어 있는 해외 공관에 심층 면담을 위한 공문을 발송한 결과 응답한 4개 기관의 담당자를 면담하여 국립중앙도서관과의 협력 내용과 운영 및 이용 관련 특이사항, 사업의 애로사항 및 사업 발전을 위한 제안 등을 파악하였다. 참여한 해외 공관은 총 4개관으로 헝가리 한국문화원, 필리핀 한국문화원, 베트남 한국문화원, 우즈베키스탄 대사관이었다.

(4) 수요자 요구조사

- 현재 설치되어 있는 WOK 이용자의 이용 경험 및 만족도를 파악하는 한편, 해외에서 한국학 연구자료 및 한류 정보를 찾는 보다 폭넓은 이용자에 대한 한국자료 수요 파악을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 조사대상 선정 및 표집방법: WOK를 특성별로 유형화하여 각종 온라인 및 오프라인 커뮤니티를 활용하여 조사 대상 모집한 결과, 한국자료 이용 경험이 있는 26명과 대면, Zoom, 이메일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개별 면담을 수행하였다. 또한 2차례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각기 467명과 73명으로부터 응답을 받았다. 1차 설문조사에서는 주로 정량화 할 수 있는 질문이 포함되었고, 2차 설

문조사에서는 1차 설문에 응답한 참여자중 후속 인터뷰에 응한다고 희망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개방형 질문의 정성적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인터뷰와 설문조사는 모두 2020년 9월 중순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되었다. 사용된 조사도구는 한국어와 영어로 작성된 온라인, 오프라인 인터뷰 가이드 및 구조화된 설문지이다.

(5) 국내 유관기관 조사

- WOK와 유사한 국내 해외지원사업을 파악하고 그들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와의 차별성 확보 및 협력 방안 제안을 위하여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세종학당재단, 한국문학번역원, 한국국제교류재단, 국회도서관 등의 국내 5개 유관 사업 기관들의 홈페이지와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관계자를 심층면담하였다.

(6) 외국 자국학 지원기관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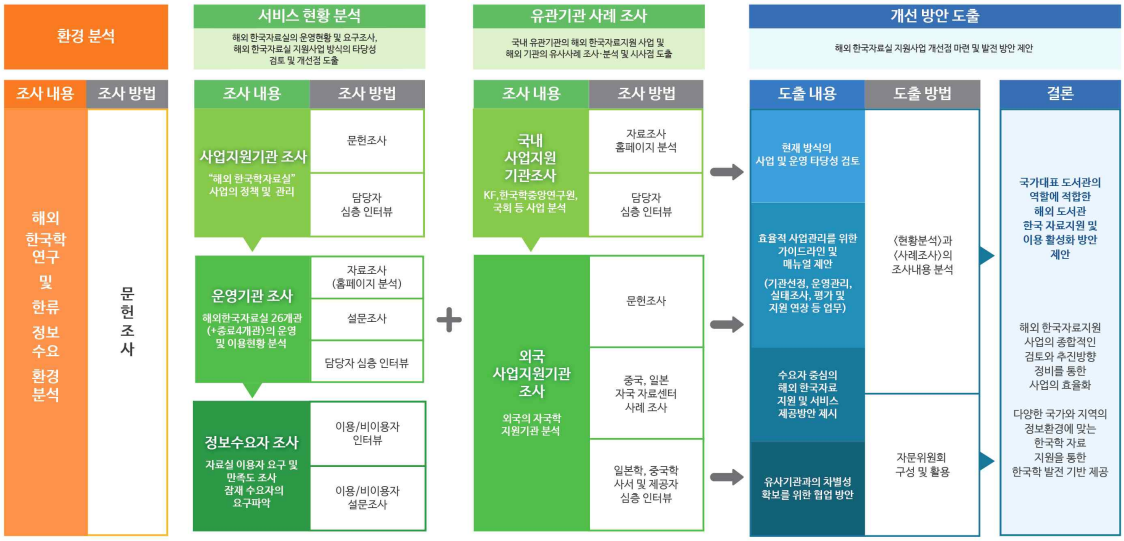
- 외국의 자국학 지원을 위한 자료 지원 사업 사례 조사를 위해 문헌 조사와 기관 홈페이지를 분석하고, 일본, 중국, 대만, 독일, 이탈리아 등 5개국의 사례 조사를 위해 방문조사 또는 온라인 방식으로 관계자와 심층면담을 수행하였다.

(7) 전문가 자문위원회 구성 및 활용

- 연구 및 관련사업 분야에서 10년 이상 경험을 가진 한국학 연구자, 해외 한국학 사서, 유관 지원기관 담당자 등 대표성 있는 각 분야 전문가 4인을 대상으로 자문위원을 구성하여 조사 내용, 조사 항목, 결과 제시 등 연구 전반의 주요 내용을 검토 받는데 활용하였다. 특히 해외 한국자료 지원 사업의 개선방

안, 이용 활성화 방안, 국가대표도서관의 역할에 맞는 해외 도서관 지원사업의 중장기 발전방안 및 구체적 실행전략에 대한 자문의견 수렴을 통해 연구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3) 연구 수행 계획



4. 연구 결과의 활용 및 기대 효과

- 본 연구 결과는 국립중앙도서관이 2007년 이래 14년간 실시해 온 해외 한국 자료지원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과 향후 사업추진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국립중앙도서관의 한국학 지원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본 연구 결과는 타 기관의 유사 사업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중복 사업과 상대적으로 효율이 낮은 사업을 파악함으로써 국립중앙도서관의 한국 자료 지원 사업의 차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또한, 협업할 수 있는 국내외 기관을 발굴하고 유기적 협조체계를 제안함으로써 국가 차원의 한국학 육성사업의 시너지와 효율성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본 연구의 결과는 국립중앙도서관이 해외 주요 도서관들과의 유기적 협조 체계를 토대로 국가 및 지역별 다양한 정보 환경과 수요에 맞춤형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한국자료 지원방안을 도출함으로써 국립중앙도서관이 한국학 발전과 한국문화 확산의 거점이 되는 공고한 기반을 구축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Ⅱ.
해외 한국자료 수요 환경 분석

1. 해외 한류 정보수요 동향 분석
2. 해외 한국학 연구 동향

Ⅱ. 해외 한국자료 수요 환경 분석

1. 해외 한류 정보수요 동향 분석

- 1990년대 말 이후 “한류”라 지칭되는 한국 대중문화 콘텐츠의 확산은 한국에 대한 세계적 관심의 증가를 가져왔으며 이에 상응하여 양적, 질적인 면에서 해외에서의 한국자료 수요에 큰 변화가 있어 왔다. 이러한 한류 문화의 양산과 향유 및 소비를 둘러싼 환경의 변화에 대한 분석은 향후 국립중앙도서관의 해외 한국 자료 지원 사업을 위한 배경적인 지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해외 한류 정보 수요 동향을 관련 문헌과 한국관련 정보이용자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 살펴보았다.

- 문헌조사에서는 한국국제교류재단 연차보고서,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KOFICE)에서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한류백서〉 보고서 시리즈, 한류관련 정보와 트렌드를 제공하는 잡지 〈한류 나우〉를 기초 문헌 자료로 활용하였다. 관련 개별 학술자료를 검색하기 위해 한글자료에 대해서는 “한류,” “해외한국학,” “한국어교육,” “케이팝,” “K-culture” 등의 검색 키워드를 설정하고, 영문자료 검색을 위해서는 “K-pop wave” 와 “Hallyu Studies”와 같은 검색어를 적용하였다.

- 한편, 이용자들의 직접적인 목소리와 경험을 통해 해외 한류 정보 수요 동향 및 해외 한국학 연구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해외 한국자료 이용자를 대상으로 개별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개별 심층 인터뷰는 2020년 9월 20일부터 10월 31일까지 수행하였는데, 해외에서 한국자료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해외 또는 한국거주 학부생, 한국학 전공 대학원생, 한국학 연구자 등 총 26명이 참

여하였다. 참여자의 출신국을 지역별로 보면, 아시아 13명, 유럽 7명, 북미 7명이 참여하였다. 인터뷰 방식은 대면인터뷰, 비대면 화상인터뷰, 서면 인터뷰를 한국어 또는 영어로 진행하였다. 개별 인터뷰 시간은 참여자별로 약 30분에서 1시간 정도 소요되었다.

- 해외에서 한류에 대한 관심은 문화 상품으로서의 한류 콘텐츠에의 접근, 한국어에 대한 관심, 나아가 한국에 대한 지식 및 한국학 전반에 대한 학문적 수요 등과 연계된다. 또한 이러한 단계별 과정의 연관성은 한국에 대한 다양한 층위의 정보와 자료에 대한 요구, 그리고 이에 호응하는 다양한 방식의 자료 지원 플랫폼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 해외에서의 한국에 관한 정보와 자료에 대한 접근은 각 시기마다 한국이 국제사회와 관계 맺는 특수한 지정학적 조건, 사회역사적 상황의 변화와 상응하여 이루어져 왔다. 가령, 1950년-60년대 해외에서 한국어 및 한국에 대한 정보의 수요는 냉전 시기 남북한의 분단 현상과 그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전략적으로 필요한 요소들이었고 또한 재외동포들의 경우에는 디아스포라의 생존 방식 속에서 자신의 모국어와 문화를 지키려는 노력과 관련된다. 하지만 1990년대를 거치면서 폭발적으로 증가한 한국/한국어/한국학에 대한 관심은 과거와는 다른 사회역사적 의미를 갖게 된다. 한국의 경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세계 각국과의 교역이 증가하면서 한국어 학습자가 급증하였을 뿐 아니라, 1990년대 말 이후 한류의 영향 속에서 한국 문화 콘텐츠를 스스로 누리는 소비자가 증가하는 현상은 한국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획득하게 되는 동기나 방식에 큰 변화가 야기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이전에는 사회정치적 맥락 속에서 배태된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한국이라는 브랜드가 세계의 다양한 문화권 속으로 유입되었다면, 2000년대 이후 한류의 확산을 기점으로 세계 각지의 사람들이 한국 문화를 스스로 찾아서 즐기고 있으며, 한국으로의 유학이나 취업 목적

등 현실적 동기 외에 개인의 문화 향유를 위해 자기 주도적으로 한국어 공부를 선택하고 한류 관련 정보와 콘텐츠를 탐색하고 소비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어 주목된다(이영준, 2020).

- 이러한 맥락에서 해외에서 한류의 소비와 연계된 한국에 대한 관심과 정보, 지식에 대한 수요는 기존의 문헌이나 여타 인쇄자료들에 의존했던 방식을 넘어서 인터넷을 기반으로 배포되는 각종 전자자료, 여러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전파되는 영상자료, 음원자료, SNS와 가상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유통되고 있다. 가령, 한국 국제문화교류진흥원(2020)에서 최근 실시한 한국 한류실태 조사에 의하면, 드라마나 K-pop 등의 한국 동영상 콘텐츠는 '온라인·모바일 플랫폼'으로 접하는 비율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이어 'TV', '오프라인'의 순으로 소비되고 있었다. 주로 이용하는 온라인·모바일 플랫폼은 'Youtube'로, 전 동영상 콘텐츠 분야에서 이용률이 80% 내외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Netflix'가 활용되는 것으로 밝혀졌다(미주권역의 경우 타권역에 비해 'Netflix'의 접촉 비중이 60~70% 가량으로 매우 높음). '음악'의 경우에도 '온라인·모바일 플랫폼'이 1순위 경로이며, 'Youtube', 'Spotify', 'Facebook' 순으로 많은 응답자들이 이용한다고 조사된 바 있다(김용락 외, 2020).

- 아시아의 경우, '드라마', '영화', '예능'의 경우, '온라인·모바일 플랫폼'과 'TV'의 접촉 수준이 비슷하다. '드라마' 의 경우에는 'TV' 이용이 71.6%로 '온라인·모바일 플랫폼' 이용을 앞선다. 주로 이용하는 온라인·모바일 플랫폼은 'Youtube'이며, 타 권역과 달리 이이치이(iQiyi, 중국의 동영상 사이트)의 이용률이 높게 나타났다. 유럽의 경우에도 주로 '온라인·모바일 플랫폼'(Youtube)을 이용하며, 'Netflix'가 2순위, 그 다음으로 'Facebook', 'Instagram',

‘Amazon Prime Video’ 등의 응답이 높았고, 드라마나 예능에서는 ‘Facebook’을, 영화나 애니메이션에서는 ‘Amazon Prime Video’를 비교적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양상은 중동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 주로 ‘온라인·모바일 플랫폼’을 통해 한국의 동영상, 음악 콘텐츠를 접하고 있었다. 가장 많이 이용하는 온라인·모바일 플랫폼은 'Youtube'(전 분야에서 90% 가량)였고, 드라마, 예능, 영화에 대한 ‘Netflix’ 이용률도 약 50% 정도로 높았으며, ‘Facebook’의 이용률은 이보다 약간 낮은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음악의 경우, ‘Youtube’를 통한 이용이 91.9%로 압도적으로 높으며, 그 외의 플랫폼들은 30%대로 유사한 이용률을 보였다(김용락 외, 2020). 한편 영화의 경우, 이제 TV를 더 이상 보지 않는 변화된 환경 속에서 극장 관객 수가 정체되는 반면 유튜브, VOD, OTT 서비스의 이용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었다. 영화가 TV 드라마 시리즈의 경계, ‘숏 폼 Short-form’ 콘텐츠의 장벽을 넘어서 OTT 플랫폼으로 유통되는 환경, 즉 “영화의 종합 콘텐츠화”가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성민 외, 2019, p.91).

- 소위 인터넷 시대, 빅데이터 시대라 불리는 동 시대에 한류는 기술(technology)을 매개로 초국가적 차원에서 대중문화 콘텐츠가 세계 각국의 다양한 문화 소비자들에 의해 매우 활발히 유통되면서, 해외에서 한국에 관한 정보와 자료에 접근하는 다양한 방식들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또한 한류 콘텐츠는 문화 상품으로서뿐 아니라 한국어 학습을 위한 자료로서도 긴요하게 활용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드라마와 K-pop을 통해 한국문화를 접했던 외국의 젊은이들이 콘텐츠 소비를 넘어서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해 보다 깊이 이해하고자 하는 단계로 나아가게 되는데, 한국어 교육과정에서 한류 콘텐츠는 효율적인 한국어 학습을 위한 도구로 널리 활용되고 있었다. 특히 한국 전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문화권에서 처음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접하게 될 때 더 많은 환경적 제약에 부딪히게 된다. 예컨대 동유럽국가와 같은

비영어권 국가에서 대중문화 콘텐츠를 통해 다양한 상황에 맞는 적절한 언어 사용 용례를 습득하며 살아있는 언어를 경험하는 것은 매우 보편적이다(김훈태, 2020). 이렇게 한류 콘텐츠가 한국에 대한 정보와 지식의 확보, 어학능력의 획득, 문화전달의 도구로 기능하는 현상은 영상과 음원자료, 영화, 드라마 등의 대중예술 자원이 언어 및 문화 교육 영역과 결합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양상을 보여줄 뿐 아니라, 한류를 매개로 한 해외 한국어 교육의 확산, 나아가 한국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와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해외 한국학의 발전과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지점을 보여준다.

- 한편, 해외 한류의 소비자들이 선택하고 있는 정보 자료 이용의 새로운 형식들에 부응하여 도서관과 같은 전문 자료 제공기관들은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를 지원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현재 한류에 열광하는 10대들을 현재와 미래의 한국자료 이용자로 상정한다면 그들을 위한 정보 서비스의 형식과 내용이 보다 확장될 필요가 있다. 관련한 실례로 미국 LA 공공도서관(Los Angeles Public Library)의 한류관련 자료 지원 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 한류 팬들로 구성되는 10대 도서관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각종 프로그램을 만들어온 사서이자 프로그램 전문가 Dora Ho는 젊은 도서관 이용자들을 위해 현재의 K-pop 동향을 이해하고, 그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를 공급해 오고 있다. 즉, 도서관에서도 K-pop의 대중적 인기를 활용하여 프로그램들(“K-pop library program”)을 개발하였는데, 예를 들어, K-pop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a K-pop trivia session), K-pop 음악 맞추기 콘테스트(name-that-tune contest) 댄스프로그램 등이 그것이다. 현재 도서관보다 출판업자나 비즈니스 업계의 상인들이 더 활발하게 K-pop 자료들을 유통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도서관이 온라인 정보원들을 적극 활용하여 K-pop 팬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K-pop 관련 정보들을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도구들을 개발하고, Skype 또는

Google+ Hangouts을 포함한 각종 온라인 소프트웨어와 K-pop 관련 상용 앱(apps)과 연계하여 K-pop 관련 자료와 도서관 이용자를 매개하고 있다. 또한 학교 교사와 공공도서관 또는 학교도서관 사서들이 협력하여 수업 커리큘럼에서 이러한 앱들을 결합시키는 방법을 개발하여 10대 이용자들에게 다양한 정보원을 제공하는 사례도 있다. 이때 사서들은 10대 학생들과 교사에게 프로젝트와 관련된 기술을 공유하고 소개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공공도서관 사서들은 10대 이용자들이 개발한 앱들을 보여주는 커뮤니티 이벤트를 함께 지원하기도 한다(Ho, 2012). 최신 K-pop 자료들을 10대 K-pop 이용자들과 공유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이러한 LA 공공도서관 사례는 해외에서 한국 문화 관련 정보자료와 콘텐츠가 어떠한 방식으로 요구되고 공급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면서, 자료 제공자로서 도서관이 학교 교육 담당자,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자, 문화 소비자의 경계를 넘어 동시대 대중문화를 소비하고 유통시키는 새로운 경로임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해외에서 한국정보/자료를 얻는 방식의 변화를 보여주는 사례로, 본 연구에서 해외 한국관련 정보 탐색 경험이 있는 한국에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수행한 심층면담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한류에 대한 자료는 보통은 바이두(Bidu, 중국검색엔진), 네이버, (가장 좋은 것은 한국 사이트)를 이용, 한국어 학습을 예능프로그램 통해서 배운다(책에는 잘 쓰지 않는 관용어들이 많았는데, 예능프로그램은 사람들이 일상에서 쓰는 어휘들이나 표현들을 많이 써서 유용하다). 한국학 연구를 위해 학교 도서관을 많이 이용 그러나 한국정보는 바이두나 구글에서(네이버) 검색하고 교차로도 검색을 하기도 한다. 선호하는 한국자료 유형은 음원, DB, 전자 잡지이다 (#15, 중국, 서울 A대 디지털미디어학과 학부 유학생)

중국에서 한국자료 검색은 주로 인터넷 검색을 하고 사이트의 댓글 참조한다. 종이책, 동영상 자료도 찾을 계획이다. 네이버 검색 자주 이용하며 온라인, 전자책을 선호한다 (#17, 중국, 서울 A대 경영학과 학부 유학생)

한국정보는 대부분 인터넷을 통해서 검색한다. 처음엔 한국대사관을 통해서 찾아보고 그 다음은 한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의 생활에 대한 유튜브를 이용한다. 자료는 완전하지 않지만 대체로 만족한다. 한국 생활과 같은 정보를 인터넷에서 찾는데, 제대로 업데이트 되지 않아서 틀린 정보가 있어 어려움이 있다 (#10, 프랑스, 서울 A대 아동학과 학부 교환학생)

관심사에 대한 정보요구는 온라인으로 충분히 만족한다. 음식이나 비자 절차 같은 것도 인터넷을 통해서 충분히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한류의 경우, 인터넷 소셜미디어, 유튜브, 인스타그램을 통해 찾을 수 있고, 한국어학습의 경우, 수업듣기 전에 혼자서 온라인으로 공부한다. 그러나 혼자서 쉽지 않아 언어센터에서 수업을 들었다. 소셜미디어, 유튜브 친구, 페이스북 그룹(한국에 사는 외국인)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교류하고 있으며, 미래에는 어떤 매체를 이용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만족한다 (#11, 프랑스, 서울 A대 영문과 석사과정 교환학생)

한류로 인해 한국에 관심을 가졌다. 고등학교 때(2012년), '꽃보다남자'라는 드라마를 보기 시작, 한국어도 배워야겠다고 생각했다. (지금은) 한국이 고향같이 느껴지고 익숙해져 드라마를 보지 않는데, 예전에는 드라마, 조선시대의 문화(전통적인 의복-한복), 음식에 관심이 많았다.... 한류가 한국의 가장 잘한 프로젝트라고 생각한다. 한류 덕분에 한국을 알게 되고 오고 싶어하고, 배우고 싶어한다.... 드라마를 50개 정도 보고 한국어 공부하다가 세종학당으로 가서 배웠다. 처음에는 터키에 있는 한국기업에 취업하고 싶었는데, 이제는 여기가 편해져서 한국에서 일하고 싶다.... 터키에 있을 때 처음에는 영어로 된 한국 관련 블로그, 유튜브를 이용하였다. 터키에서 한국자료/정보를 찾을 때, 과거에는 블로그 인터넷 자료를 많이 보았고, 소셜도 많이 이용한다. 저는 이미 인스타 2만명의 팔로워가 있는 인플루언서이며 유튜브 채널에도 만명 구독자가 있다 (#9, 터키, 서울 A대 국제무역전공 학부 교환학생).

2. 해외 한국학 연구 동향

- 한류 확산으로 인해 한국 문화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한국에 대한 정보 자료에 대한 수요 변화가 생기고 있다. 본 장에서는 한국에 대한 관심이 해외 한국학이라는 학술적 영역에 끼치는 영향과 그 연관성에 대하여 관련 문헌과 해외 한국학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수행한 심층 인터뷰를 통해 파악하였다.

- 해외 한국학의 역사에 관한 한 조사에 의하면, 1903년부터 2004년까지 약 100년간 전 세계 900여 개의 학위 수여기관에서 한국 또는 한국인을 주제로 한 박사학위논문이 10,368편 생산되었다(이정현, 2009). 약 100여 년 동안 해외 지역에서 한국학은 점진적으로 발전해왔지만, 2000년대를 기점으로 한류의 확산이 해외 한국학 학술영역에 어느 정도로 영향을 끼쳤는지, 또 그러한 변화가 그 이전 100년간 축적된 한국학 연구의 흐름 속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현재 해외 한국학 동향과 함께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 가시적으로 파악되는 해외 한국학 연구의 증가와 주제상의 변화는 해외 한국학의 학문적 계보 및 세대론과 관련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해외 한국학 연구자들의 계보 속에서 1세대는 1960년대 한국학의 초석을 마련한 연구자 세대, 2세대는 1970년대 말, 1980년대에 활발하게 활동하며 한국학의 수준을 높이고 저변을 확대해 나간 연구자들, 3세대는 1990년대, 2000년대 포스트모더니즘의 확산과 학제간 연구, 장르를 가로지르는 문화연구를 주도했던 연구자들이라 범주화할 수 있다(윤은하, 2013). 이러한 분류 속에서 현재의 상황은 해외 한국학에서의 4세대의 등장을 조심스럽게 제기하는데, 이들은 2010년대 이후 한류의 급속한 확산 속에서 한류 문화콘텐츠(드라마, 영화, K-pop 등 K-culture

전반)를 학술적 대상으로 삼거나, 초국가적인 차원에서 한국 문화 콘텐츠를 향유하는 소비자, 한류 팬덤 문화, 한류를 매개하는 미디어를 연구하고 분석하는 연구자들을 일컫는다.

- 이러한 해외 한국학 영역의 학술적 지형 변화와 새로운 징후들을 감지함으로써 지역적으로 확산되어 가는 한국 자료의 수요와 학술영역에서 요구되는 새로운 정보지원 플랫폼에 대한 윤곽을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는 이후의 해외 한국자료 지원의 방향을 조정하고 새로운 서비스 전략을 세우는데 주요한 단서들을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즉, 자료의 유형별(문서, 이미지, 동영상 자료, 음원 자료 등), 주제별(예: 한국 관련 자료 전반과 아울러 한류관련 주제별 배분 등), 자료의 형식과 플랫폼에 있어 새롭게 대두되는 정보 유형에 대한 수요를 파악할 수 있게 해 줄 것이다.

-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2010년에 발행한 「Korean Studies Abroad」와 한국국제교류재단에서 2007년 발행한「해외한국학백서」를 바탕으로 한 분석에 의하면, 약 10년 이전의 해외 한국학의 현실을 엿볼 수 있다. 해외 한국학 대학(연구소, 학회 제외) 313개를 기준으로, 31개에 해당하는 박사학위 배출 대학의 국가적인 분포도는 북미주 9개교, 일본 7개교, 유럽 지역 7개교 등으로 서구권 국가에 편중된 분포를 보이고 있었다. 또한 47.6%의 대학에 한국어 과정만 개설되어 있고 인문학적인 관심으로 확장되지 못하였다는 것은 한국학에서 한국어의 중요성을 말해주는 동시에, 한국학이 제대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시사한다(곽수민, 2012). 이 연구는 서구권 중심의 해외 한국학 발전과 지원의 편중 현상을 문제 제기하며, 중국, 러시아나 동남아시아의 한국학의 수요와 역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많은 재원으로 미미한 효과를 내는 서구권 지원에 비해 적은 재원으로 큰 파급효과를 가질 수 있는 비서구권에

관심을 두고 육성 정책을 마련할 것을 주장하였다.

- 그러나 보다 최근 동향을 보면, 한류의 영향으로 인해 한국학이 해외 현지에서 자생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이 해외 한국학의 확산을 위한 도화선이 되고 있음이 주목된다. 한국국제교류재단(2020)에 따르면, 현재 한국학 강좌가 운영되는 해외 대학은 107개국 1,395곳, 석박사 학위가 수여되는 곳이 39개국 101개 대학에 이르고 있고 지금도 계속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019년 기준 국내 대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 수는 6만 5천여 명인데, 그 중 석사학위 과정생은 2만 3천여 명, 박사학위 과정생은 1만여 명이 넘으며 이들이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가 다시 한국학을 발전시키는 선순환 시스템이 정립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세계에 보급하는 세종학당은 2018년 기준으로 57개국에 172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수강생 수는 6만여 명에 달하며 온라인 회원 가입자는 무려 16만 7천여 명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높은 통계 수치는 한국교육원 현황에서도 확인된다. 2018년 3월 현재 18개국에 41개 한국교육원이 설치되었으며, 7만여 명이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다. 세계 66개국 177개 대학에서 856개의 한국학 강좌를 지원하고 있는 한국국제교류재단(KF)을 포함하여 정부 각 부처에서 다각도로 한국학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2019년 한해 한국어능력시험(TOPIK) 응시자가 375,871명이며 2007년 이후 누적 지원자가 250만 명에 이른다는 사실로 인해 가히 한국학의 르네상스가 도래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이영준, 2020).

- 한편 해외 한국학 동향에 대한 기존 연구 가운데, 해외 한국학 연구의 양적, 질적 현황을 살핀 연구가 있다. Yoon과 Kang(2017)은 2004년부터 2016년 여름까지 영어로 출판된 학술지 논문과 단행본을 대상으로 Korean Wave,

Hallyu, Korean pop culture, K-pop 등의 키워드를 설정하여 비학술적 글쓰기와 북리뷰를 제외하여 검색한 결과, 동료 심사를 받은(peer-reviewed) 학술지 논문 76편, 18권의 영어로 쓰인 한류 관련 단행본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 영화는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분석 결과, 저자들은 연구 출판물의 수가 급증하는 기점을 2011년에서 2013년으로 보고, 이를 한류가 아시아를 넘어 북미와 유럽에까지 보다 광범위하게 확산된 시점과 맞물리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 한편, Hong(2019) 역시 1990년대 말부터 한류가 하나의 전 지구적 문화적 현상일 뿐 아니라 국제 학계에서 학술 주제로 관심을 끌어왔음에 주목하여 영어로 출판된 한류 연구물의 지형을 탐색하였다. 저자는 세계적인 학술 저널 웹데이터베이스인 Web of Science에서 각 논문의 저자, 저널, 키워드와 같은 추출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2004년부터 2016년까지 국제학술지에 출판된 217편의 학술논문을 검색하여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앞의 Yoon과 Kang(2017)과 같은 시기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한국영화를 포함한 보다 광범위한 한류의 영역을 조사하기 위해 총 26개의 키워드(Hallyu/Korean wave, Korean drama, K-pop, Korean musical, Korean fan, Korean film, Korean music video, Korean TV, Korean broadcasting, Korean media, Korean game, Korean star, Korean idol, Korean celebrity, Korean brand, Korean animation, Korean fashion, Korean cosmetics, Korean beauty, Korean food, and Korean tourism을 설정하였고, 그 결과 713편의 논문을 검색했다. 그 중 한국의 대중문화에 관한 주제와 한국의 팝 문화 콘텐츠에 노출된 해외 대중들이 포함된 연구로 범위를 좁힌 결과 총 127개 국제 학술지에 수록된 총 217편의 논문을 추출하였다. 저자는 이들 논문을 대상으로 주요 개념들이 다른 개념들과 어떻게 연관되는지도 탐색하였다.

- 분석 결과, 2012년과 2014년 사이에 논문의 양이 극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싸이의 강남스타일의 인기 이후, SNS, 유튜브를 통한 K-pop 인기가 확산되면서 학술적인 흥미가 더욱 증가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또한, 한류 확산 전반기(2004-2010)와 후반기(2011-2016) 사이의 중심 키워드의 변화에도 주목하였는데, 가장 현저한 변화는 소셜미디어의 새로운 출현과 K-pop 주제 관련 연구의 극적인 증가였으며, 한류 확산의 주된 채널로 인터넷의 영향력이 크다고 보았다.

- 한편, 분석한 217편 논문의 63.4%가 한국인 저자였지만, 일본, 대만, 라오스, 베트남 등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외국인 연구자들도 한류가 어떻게 자국 문화 속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있었다. 저자는 이러한 외국 학자들의 참여는 글로벌한 시각에서 한류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고 한류 연구의 영역을 확장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보았다.

- Hong은 한류가 중국에서 한국 드라마와 노래들과 함께 시작하여, 그 대중적 인기는 다른 장르로 그리고 다른 국가로 확장되었다고 주장한다. 지역적으로 보면, 2000년대 초반까지는 동아시아, 동남아시아에 제한되었으나, 그 이후 중동, 유럽, 북미, 남미, 아프리카까지 전 세계로 확장되었다. 지난 20년 동안 한류의 확산이 해외 한국학 영역에 양적으로 질적으로 주목할 만한 연구물들을 산출하는데 기여했는지 그 연관성이 파악되었다. 특히 지역적으로 볼 때 한류 학술연구 역시 초기에 동아시아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북동, 남동 아시아, 미국, 호주, 페루에 이르기까지 보다 넓은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음이 분석되었다. Hong의 분석에 따르면, 2000년대 초기 여러 아시아 국가들에서 한국 드라마의 성공으로 한류의 탄생과 발전의 시발점이 되었던 한류 1.0 세대와 2000년대 중반, K-pop의 인기로 보다 넓은 지역으로 확장된 한류 2.0 세대, 그리

고 2011년에, 문화체육관광부가 “한류 3.0 정책”을 공표하면서 한류를 국가의 문화산업으로 포함시키며 한국 문화 전반을 K-culture 라고 지칭하게 된 한류 3.0 세대, 그리고 다중채널네트워크(Multi Channel Networks, MCN)와 같은 IT 기술을 통한 “K-style”의 확산에 정부와 미디어의 역할이 더 커진 한류 4.0 세대를 지나오면서, 한류 콘텐츠의 역사는 혁신을 거듭해왔다. 아울러 주목할 바는 싸이와 BTS의 성공에서 보이듯이 SNS나 온라인 비디오 공유 플랫폼과 같은 미디어가 한류의 증식에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는 점, 즉 한류의 전 지구적 영향력과 한류에 미디어가 개입하는 양상은 그 자체로 학술적 주제가 되어 현재 많은 한류 관련 연구물들이 생산되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 전 세계적으로 “한류 문화의 활발한 소비”가 “한국어 학습”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한국학 연구” 발전의 토대가 되는 사례들이 확인된다. 먼저 중국의 경우, 한중 수교 25년 동안 한국학 연구는 그 규모와 질, 연구 범위 등에서 아주 많은 변화와 진화가 있었다. 통계에 따르면, 주제별로 볼 때 2000년 이전의 10년의 연구 성과에서는 정치, 철학, 종교, 경제의 순으로 되었던 것이 2000년 이후에는 경제, 정치, 어문학의 순으로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학의 급속한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중국학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그리 높지 않은데 미국이나 일본 관련 연구에 비해 크게 뒤떨어진 상태로 파악되었다(장성일, 2018). 그러나 보다 최근 중국에서의 한류 관련 학술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영어권에 못지않은 연구 결과물들이 생산되고 있다. 한류의 핵심 수용국인 중국에서 2000년에서 2014년까지 발표된 한류 관련 학술문헌의 시기별, 학문분야별 수량과 연구주제를 분석한 연구를 살펴보면, 한류관련 학술문헌은 총 784편으로 검색된다. 이 가운데 학술지게재 논문이 676편(86.2%), 학위논문이 108편(13.8%)이었다. 한류 관련 학술논문은 2000년에는 단 2편이었으나, 2006년에는 106편으로 급증한다. 이는 중국내 한류 인기의 상승이 학술적 연

구의 양에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음을 보여 준다. 2006년을 기점으로 한류 관련 논문이 급증한 현상에 대해 연구자들은 2005년 한국드라마가 중국 전역에서 엄청나게 인기를 끌면서 학술적 관심이 함께 급증한 것으로 해석한다. 2000년대 중반 이후 항한류의 영향으로 중국내에서는 한류드라마 및 콘텐츠에 대한 소비가 정체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한류 관련 학술연구는 오히려 정점을 이루었으며, K-pop의 영향으로 다시 한류가 재점화되면서 2011년에 다시 증가하여 한 해 동안 82편의 한류 관련 논문이 발표되어 한류에 대한 학술적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고 보았다(이귀옥, 손승혜, 강필임, 2016).

- 베트남의 경우, 한국 문화 열풍(hàn lưu)은 한국의 대중가요와 드라마의 초국가적 인기 속에서 관심을 받아왔으며, 동시에 언어학, 사회학, 음악학, 방송통신학 등 다양한 학술적 관점에서도 논의되어 왔다. 베트남에서의 한류 연구를 고찰한 장윤희(2018)는 베트남의 다양한 한류콘텐츠 수용과정을 주목하면서 현지인의 시각에서 한류를 분석한 연구와 한류를 통해 자국 문화를 성찰하는 연구로 발전하는지를 추적하였다. 1994년과 1995년에 호치민 대학교와 하노이 인문사회과학대학의 동방학부에 한국어학과가 각각 설립되었고, 2000년대 초에 한국어학과가 한국학과로 승격하면서 한국어 교육의 규모와 입지는 확대되었다. 한국 대중문화와 한류에 대한 베트남인의 연구는 2000년대 후반 한국학과를 졸업한 베트남 학생들의 연구로 그 성과가 나타나는데, 2000년대 말부터 2010년대에 이르기까지 한국에서 학위과정을 밟고 있는 베트남 유학생들에 의해 상당수의 한류 관련 학위논문이 작성되었다.

- 베트남 한류 연구는 한국과 베트남 현지에서 각기 다른 목적, 주제, 내용, 방법론으로 시작되었다. 베트남인 신진학자들의 등장은 경험과 이해에 바탕을 둔 본격적 한류 연구를 가능케 하였고, 현지에서의 한류 인식과 영향력을 살피는

문화인류학적 접근을 가능케 하였다고 보았다. 또한, 베트남 학자들과 한국학자들의 협업적 연구물은 한류와 관련된 다양한 문화 요소와 이들의 산업적 혹은 상업적 관련성을 밝히는 학제간 융합적 결과물을 양산하고 있다고 보았다(장윤희, 2018). 이러한 베트남의 사례는 해외에서 한류의 유행이 현지에서 학술 차원의 한국 대중문화 연구 확산의 계기가 될 뿐 아니라 한류를 양국의 동시대적 사회문화 교류의 현상으로 보거나 한류를 수용하는 과정을 성찰하고 자국의 문화 속에서 한류를 재창조하는 베트남 현지의 담론 생산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유럽의 경우는 이탈리아의 베네치아 카포스카리대학, 루마니아의 바베쉬-보여이대학, 북유럽의 라트비아대학에서 한국어를 가르친 경험이 있는 김훈태(2020)의 연구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이들 세 대학의 한국학 전공 운영 기간은 순서대로 각각 8년, 11년, 7년 정도이다. 유럽 대학에서 한국학 전공을 설치하기 시작한 시기는 한류가 본격적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기 시작한 2000년대 중반 이후이다.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유럽의 젊은이들의 한국어에 대한 수요 증가와 한국학 전공 개설 역사는 약 10년 전후로, 특히 한국학 전공의 정원과 지원자가 급속도로 증가한 시기는 한류 현상이 아시아 지역을 넘어 유럽과 미주까지 본격적으로 확산된 6~7년 전부터라 볼 수 있다. 이는 BTS(2013년 데뷔)와 EXO(2012년 데뷔)와 같이 전 세계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아이돌 그룹이 데뷔했던 시기와 거의 맞물려 있음에 주목할 만하다. 또한 발트 지역에 세종학당이 2014년경부터 설치된 점에서도 한류 콘텐츠의 인기와 관심이 본격적으로 유럽, 특히 동유럽으로 확장된 시기와 거의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세종학당의 경우는 한류 콘텐츠라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어 중국의 어학기관인 공자학당보다 현지 젊은이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활발한 활동을 더 기대할 수 있다고 한다. 세종학당에서 한국어를 좀

더 일찍 체계적으로 배우고 한국문화를 경험한 것은 학생들이 고등학교 졸업 후 현지 대학에서 한국학을 전공으로 선택하는 하나의 계기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유럽의 대학에서 한국학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들 대부분은 입학 전부터 이미 한국어에 대한 기초지식을 습득한 상황이거나 한국문화에 어느 정도 익숙해져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세종학당 같은 전문 기관에서 교육받은 후 대학에서 한국학을 전공하게 될 때, 장차 한국 전문가로 성장할 가능성도 커진다고 보았다(김훈태, 2020).

- 이와 같이 동유럽 사례를 통해 해외에서의 한류의 확산이 한국어학습의 열풍을 가져오고 그것이 한국학 연구로 이어지는 연결 고리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단계적 발전이 유럽의 전역에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만은 아님을 프랑스의 예를 통해 엿볼 수 있다. 프랑스의 K-pop 열기 이면의 현실적 문제들을 간파하고 있는 한 저널 리뷰(목수정, 2020)는 2013년 BTS의 등장과 두 번에 걸친 BTS의 프랑스 공연을 통해 K-pop 팬덤은 절정에 이르렀고, 2018년과 2019년 두 번의 공연 이후 프랑스 K-pop 팬은 백만을 넘어서고, 파리에 있는 국립동양어대학(INALCO) 한국어학과에도 K-pop, K-드라마의 영향으로 매년 많은 신입생들이 모여들었다. 그러나 3학년이 되면 1학년 때 있던 학생의 10~20%만이 남게 되는데, 이는 한류에 대한 열정이 학문으로서의 한국학 연구의 기반으로서 바로 뿌리내리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을 드러낸다. 이 리뷰에 따르면, 2019년 발간된 프랑스출판조합(SNE)의 보고서에 의하면 프랑스 출판계가 번역 출간한 해외 출판물의 언어별 순위 1위는 영어(64%), 2위 일본어(12%), 3위 독일어(6%), 4위 이탈리아어(4%), 5위 스페인어(3%)였고 한국어는 순위권에 존재하지 않는 점을 들면서, K-pop, K-drama 같은 한국의 소프트 파워가 붐을 일으키고 있지만, 영상과 SNS로 소통하는 특정 세대에게서만 그 힘이 발휘되고 있음을 보여준

다(목수정, 2020). 이렇게 한류가 한국학으로 이어지기 힘든 현실적 장애와 간극이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유럽과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유통되는 한류의 문화적 힘이 제도적인 영역으로 뿌리내리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고 많은 지원이 수반되어야 한다. 그 중 학술 연구를 가로막는 큰 요인 중의 하나는 연구에 필요한 정보자원에 대한 접근의 어려움과 외국인이 읽을 수 있는 정보자원의 부족이다. 이러한 장애 요인들의 내용을 고찰하며 한국 자료 지원을 고도화하는 것은 이러한 간극을 메우는 중요한 작업이 될 것이므로, 정부/국가 차원의 지원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 한류가 현재 해외 한국학 연구에 어떤 기여를 하고 있으며 해외 한국학 학술 지형 변화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로, 본 연구에서 수행한 심층면담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16, 미국. Tarleton State University 영문학과 교수

- 영문학과에 소속되어 있는 교수이면서 한국 관련 다양한 연구를 활발하게 진행(K-drama에 재현된 입양문제나 광주항쟁 등 한국의 사회적, 정치적 이슈들, 한국문학 등)하고 있으며 현재 한류 관련된 단행본을 편집 중이다.
- 영문학과 수업에서 한국관련 주제를 강의(Korean poetry in translation, Korean literature, 동시대 소설가 한강의 작품 포함)하고 있다. 한국학과가 아닌 영문학과에서 한국 관련 주제의 수업을 개설한 사례를 보여준다.
- 한국학 또는 아시아학 전공자가 아닌 연구자가 한류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한류 콘텐츠를 연구의 영역으로 포함시키고, 한국사회와 역사, 정치에 대한 이슈들로 확장하여 한국 연구를 심화시켜 나가는 연구 현상을 보여준다.

  "현재, 아시아학/한국학이 아닌 분야에서 한국의 문화적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커뮤니케이션 학자들(미디어 연구), 사회학, 심리학 등에서 팬덤과 커뮤니티를 연구하고 있고, 문학이나 영문학 학자들이 언어, 서

사, 문학을 탐색하고 있다. 나는 한국관련 학문이 점차 번성하고 있음을 확신할 수 있다. 나와 같은 경우(미국의 영문학과 소속되어 있으면서 한국학을 연구)는 일반적인 예는 아니지만, 컨퍼런스를 가보면, 얼마나 이러한 현상이 늘어가고 있는지 알 수 있다."

(2) #26,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 석사학위 과정생

- 한국의 대중예술, 미디어와 서구 관객의 상호작용에 대한 관심이 있으며, 연구대상은 K-pop 퍼포먼스 비디오, K-pop 가수들의 인터뷰, YouTube, VLive, Weverse 등을 통한 팬덤 활동이다.
- 한류가 학술 연구에 100% 영향을 준 사례로, 자신의 한류의 경험과 관심을 학문적인 세팅 속에서 위치시키고자 한다.
- 한류의 확산 이후에, 연구자가 그 영향을 받아 한류의 내용과 형식을 연구대상으로 삼는 해외 한국학의 새로운 지형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 아시아학이나 한국학이 아닌 영화학(Film Studies)에 소속되어 한류 콘텐츠 즉 K-pop(BTS) 뮤직 비디오와 팬덤을 연구하는 예를 보여준다.
- 석사논문을 위해 이용하는 주된 자료의 형식과 자료 이용 플랫폼이 이전의 인쇄자료 중심의 인문학 및 문화 사회연구의 형식과는 전혀 다른 사례를 보여준다.

  : 비디오 공유 플랫폼/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인 Youtube, Netflix, Viki(싱가포르 동영상 콘텐츠 플랫폼), VLive(한국의 네이버 영상스트리밍 사이트), 위버스 Weverse(한국의 Bighit Entertainment에서 만든 모바일 앱 및 웹 플랫폼으로 K-pop 밴드와 뮤지션을 위한 멀티미디어 콘텐츠 및 아티스트 대 팬 커뮤니케이션 호스팅을 전문으로 함), 소셜미디어 플랫폼(twitter), 그리고 책, 저널, e-book,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DVD 등을 이용한다.

Ⅲ.
해외 한국자료실(WOK) 현황 분석

1. 국립중앙도서관의 사업관리 현황 분석
2. 해외 한국자료실(WOK) 운영기관 현황 분석

Ⅲ. 해외 한국자료실(WOK) 현황 분석

1. 국립중앙도서관의 사업관리 현황 분석

1) 사업관리 현황

가) 해외 한국자료실 설치 현황

- 국립중앙도서관 해외 한국자료실(Window on Korea, 이하 WOK) 설치 및 운영 사업은 2006년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이미지위원회의 6대 역점과제로 선정되어 2007년에 해외홍보문화원이 주관하는 시범사업으로 실시되었고, 2008년부터 국립중앙도서관으로 이관되었다. 2007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1~4개(평균 2.28개) 해외 도서관을 선정하여 현재까지 총 27개국 30개관에 설치되었다. 2020년 10월 기준 WOK 사업이 진행 중인 도서관은 총 24개국 26개관이며, 4개관은 운영 종료된 상태이다. 설치연도에 따라 정리한 설치 현황은 〈표 III-1〉과 같다.

- 다음으로 이를 대륙별, 도서관 유형별로 분류한 결과는 〈표 III-2〉 국립중앙도서관 설치 WOK 대륙별·도서관 유형별 분류표, 〈표 III-3〉 국립중앙도서관 설치 WOK 대륙별·도서관 유형별 요약표를 통해 파악해 볼 수 있다.

〈표 III-1〉 국립중앙도서관 WOK 설치 현황 (2020. 10. 기준)

번호	선정 년도	국가	기관명
1	2007	태국	국립도서관
2		베트남	하노이 국립도서관
3		독일	베를린자유대학 도서관
4		미국	뉴욕 플러싱 퀸즈도서관
5	2008	중국	상해 장녕도서관*
6		러시아	국립도서관(RSL) 동양센터
7		몽골	국립도서관
8	2009	카자흐스탄	국립아카데미도서관
9		폴란드	돌노쉬롱스키 주립도서관
10		인도네시아	국립도서관*
11	2010	이란	국립도서관
12		터키	국립도서관
13		이집트	국립도서관*
14	2011	스페인	말라가대학 도서관
15		벨기에	루벤카톨릭대학 도서관
16		덴마크	코펜하겐대학 도서관(다문화지역학부)
17	2012	필리핀	아테네오대학 도서관
18		멕시코	콜멕스대학 도서관
19		영국	옥스퍼드대학 도서관
20	2013	인도	델리대학 도서관
21		베트남	인문사회과학대학 도서관
22	2014	UAE	아부다비국립도서관*
23		우즈베키스탄	국립도서관
24	2015	엘살바도르	엘살바도르대학 도서관
25		중국	북경대학 도서관
26	2016	미얀마	양곤외국어대학 도서관
27	2017	이스라엘	히브리대학 인문사회과학도서관
28	2018	이탈리아	로마 라 사피엔차대학 동양학부도서관
29	2019	러시아	국립도서관
30		헝가리	ELTE대학교 도서관

* 노란색 음영 표시된 곳은 2020년 10월 기준 종료된 기관임

〈표 Ⅲ-2〉 국립중앙도서관 설치 WOK 대륙별·도서관 유형별 분류표

	아시아/중동		유럽/러시아/북미·남미	
	국가	**도서관명**	**국가**	**도서관명**
국립도서관	태국	국립도서관	러시아	국립도서관 동양센터
	베트남	하노이국립도서관		국립도서관(상트)
	몽골	국립도서관		
	카자흐스탄	국립아카데미도서관		
	인도네시아	국립도서관		
	이란	국립도서관		
	터키	국립도서관		
	이집트	국립도서관		
	UAE	아부다비국립도서관		
	우즈베키스탄	국립도서관		
대학도서관	필리핀	아테네오대학 도서관	독일	베를린자유대학도서관
	인도	인도델리대학교	스페인	말라가대학도서관
	베트남	인문사회과학대학교	벨기에	루벤카톨릭대학도서관
	중국	북경대학교	덴마크	코펜하겐대학 (북유럽아시아연구소도서관)
	미얀마	양곤 외국어 대학교	멕시코	콜멕스대학도서관
	이스라엘	히브리대 인문사회과학도서관	영국	옥스포드대학교
			엘살바도르	엘살바도르대학교
			이탈리아	라사피엔차대 동양학부도서관
			헝가리	ELTE대학교
공공도서관	중국	상해 장녕도서관	미국	뉴욕 플러싱 퀸즈 도서관
			폴란드	돌노쉬롱스키 주립도서관

〈표 III-3〉 국립중앙도서관 설치 WOK 대륙별·도서관 유형별 요약표

	아시아/중동	유럽/러시아/북미·남미	합계
국립	10 (33%)	2 (7%)	12 (40%)
대학	6 (20%)	9 (30%)	15 (50%)
공공	1 (3%)	2 (7%)	3 (10%)
합계	17 (57%)	13 (43%)	30 (100%)

- 먼저 대륙별로 분석해보면, 총 30개관 가운데 아시아/중동 지역에 17개 도서관(57%), 유럽/러시아/북미·남미에 13개 도서관(43%)에 WOK가 설치되어, 아시아/중동 지역에 상대적으로 조금 더 많이 설치된 경향을 알 수 있다. 다만, 아프리카와 오세아니아 지역은 WOK가 아직 설치되지 않은 지역으로 남아 있다. 2020년 10월 현재 운영 중인 WOK 26개관을 기반으로 분석해보면, 아시아/중동 지역에 13개(50%) 운영 중이고, 유럽/러시아/북미·남미에 13개(50%) 자료실이 운영되고 있어 대륙별로 비교적 고른 분포로 운영 중이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24개국 가운데 2개 이상의 WOK를 운영 중인 국가는 베트남(2개: 하노이 국립도서관, 인문사회과학대학교 도서관)과 러시아(2개: 국립도서관 동양센터, 상트 국립도서관)이다.

- 도서관 유형별로 보면, 설치된 총 30개 WOK 중 대학도서관 15개(50%), 국립도서관 12개(40%), 공공도서관 3개(10%)로, 대학도서관과 국립도서관에 주로 설치되어 있다. 2020년 10월 기준 운영 중인 총 26개 기관 가운데에서는 대학도서관 15개(57%), 국립도서관 9개(35%), 공공도서관 2개(8%)이다. 설치된 30개 한국자료실 가운데 2020년 10월 기준으로 운영 종료된 4개관은 모두 국·공립 도서관임이 주목된다. 운영 종료 기관들의 특성에 대해서는 제 6절 사업 종료기관 관리 현황에서 보다 상세히 설명하였다.

나) 자료실 설치 및 운영 지원

- 국립중앙도서관 WOK 지원 사업은 연 3억의 예산으로 운영된다. 해외 주요도서관에 한국자료실 설치를 위한 지원은 초기 설치비용 지원, 자료 제공, 인력 파견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진다(국립중앙도서관, 2019).

  - **설치비용 지원**: 설치비용은 서가뿐만 아니라, 컴퓨터, 열람용 책상과 의자, 안내판 등에 대해 설비비용 전반을 포함한다. 이때, 설비비는 $20,000 내외에서 해당 기관과 협의를 통해 결정되고(개관행사비용 제외), 설치비용 지원은 주재국 한국대사관, 총영사관(한국문화원 등)을 통하여 진행된다.

  - **자료제공**: 설치 첫해는 1기관 당 1,500~3,000책(점) 내외를 일차적으로 제공하고 이후 5년간 200책 내외 약 1,000책(점) 추가 제공한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자료의 추천리스트 중에서 해당 기관에서 선정한 자료를 제공, 목록에 없는 한국 관련 자료는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지원자료의 형태는 한국관련 국내외 도서뿐만 아니라, 비도서(CD, DVD)도 지원이 가능하며, 다만, 온라인상의 디지털 자료들(e-book, e-journal, e-resource)은 현재 전혀 지원되지 않고 있다. 각 기관은 그 기관의 특성과 관심주제를 반영하여 자료를 신청할 수 있는데, 지원자료의 주제는 한국자료실 운영에 필요한 기본 참고자료, 한국어 학습 교재, 어린이 서적 등 다양하다.

  - **인력 파견**: 설치기관에서 희망할 때 한국어 자료 정리를 위한 인력 파견을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지원한다. 예컨대, 2009년 설치된 이집트 국립도서관의 경우, 자료 정리 및 업무 연락을 지원하는 인력으로 KOICA 자원봉사단원이 참여하도록 지원하였다. 단, 인력 파견에 드는 예산은 자료실이 설치되는 기관에서 부담하며, 근무 기간 및 조건 등은 선정 이후 시점에 논의한다.

- 자료실 설치기관의 공간(단독/공동): 해외 주요도서관이 선정되어 한국자료실을 설치하는 경우, 자료배치는 한국관련 자료만 집중하여 배치된 단독공간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이는 충분한 면적확보 및 〈Window on Korea〉 자료를 한 공간에 집중적으로 배치하기 위해서이지만, 공동공간에 설치하는 예외적인 경우도 존재한다. 2020년 기준, 운영기관 26개관 중 단독 공간 사용 도서관은 14개관(54%), 공동 공간 사용은 12개관(46%)이다. 또한, 해당 도서관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자료를 제공하는 시점까지 본 시설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문화프로그램 지원: 문화프로그램 활동에 대한 재정적 지원도 한다. 단 해당 국가 내 한국문화원과 연계된 행사에 대해 지원되며, 사업비도 한국문화원으로 직접 지원된다. 기존의 설치된 한국자료실이나 신설 한국자료실 가운데 희망 도서관을 대상으로 매년 5~6개관의 규모로 한국문학 번역, 한국어 말하기 대회, 한국 도서전, 한국영화 상영회, 한국시인의 낭독회, 한국 문학/미술/역사/경제 특강 등의 각종 문화프로그램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표 III-4〉는 2019년 한 해 동안 실시된 문화프로그램 지원의 내용을 보여 준다.

〈표 III-4〉 국립중앙도서관 WOK 사업 문화프로그램 지원 사례(2019년)

	행사일시	문화원	도서관	문화행사 주요 내용	지원금액
1	5,6,10월	주영국 한국문화원	옥스퍼드대학 도서관	한국문학 번역 및 한류 워크숍 (6회)	GBP 1,940.60
2	10월	주필리핀 한국문화원	아테네오대학 도서관	한국학 세미나, 한-필 문화교류 행사	USD 2,290.00
3	10, 11월	주벨기에 한국문화원	루벤카톨릭대 도서관	한국 문학, 미술, 역사, 경제 특강	EUR 2,205.76
4	10월	주스페인 한국문화원	말라가대학 도서관	한국 영화 상영회, 한국시인의 낭독회	EUR 2,274.09
5	11월	주인도 한국문화원	델리대학교 도서관	제12회 전인도한국어말하기대회	USD 2,495.01
6	12월	주베트남 한국문화원	베트남국립도서관	도서 기증식, 한국 도서 및 사진 전시	USD 2,540.22

다) 실태조사, 평가 및 지원 연장

- 국립중앙도서관은 운영실태 조사 및 개선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WOK 설치 기관을 대상으로 연 1회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설문에 응답하는 것이 자료를 지원하는 사업에 있어서 필수사항이 아니기에 설문의 회수율이 매우 높지는 않다는 한계점을 지닌다. 예컨대, 2018년 설문 회수율은 57%, 2019년 설문 회수율은 36%에 불과했다. 따라서 자료실 운영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설치된 도서관에서 연 1회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의무화 될 필요가 있다.

- WOK 프로젝트를 담당한 실무자급의 사서들은 정기적인 WOK 현장 실사를 통하여 현지 자료실의 정보 요구를 보다 정확히 이해하고 운영 상태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보다 적극적인 사업관리는 한국 관련 연구, 한국학 연구, 한국문화를 해외에 알리고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유관기관들, 예컨대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문학번역원, 세종학당재단 등에서는 보편적으로 실시되는 상황이다.

- 신규기관 설치 후 한국자료실은 양국 간 “Window on Korea”에 관한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에 따라 운영되며, MOU 체결 5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양 도서관이 협의하여 사업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2) 신규기관 선정 기준과 절차, 재외공관과의 협력

- WOK 설치사업의 연간 사업 일정: 국립중앙도서관 WOK 설치사업의 연간 사업 일정은 〈표 III-5〉와 같이 진행된다.

〈표 III-5〉 n년도 WOK 사업 연간 진행 일정

	(n-1)년 말기 →	(n)년 초기 →	(n)년 중기
신규기관	• 한국자료실 설치 수요조사 및 n년도 지원 기관 선정 (재외공관 협조) • (n-1)년 설치기관 설치 결과 보고 접수 • 신청기관에 심사결과 통보	• n년도 한국자료실 설치 및 운영계획 • 배포자료 구입 계획 및 업체에 계약의뢰	• 자료지원, 설치비 지원
기존기관	• 문화행사 결과 보고 제출 (지원비 정산 등)	• 자료 및 문화행사 지원 • MOU 체결 └신규 한국자료실 설치 시 MOU를 체결하며, 기간 종료된 기관에 지속적 자료 지원을 원하는지 물어보고 원하는 경우 MOU를 갱신	• 운영 실태조사

- 먼저, 신규기관을 선정하는 경우, 매해 7월에서 10월까지 재외공관(주재국 한국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의 협조를 받아 해외 주요 도서관 대상 한국자료실 설치에 대한 수요조사 및 지원을 받는다. 재외공관과의 협력은 이 수요조사 과정에서 필수적이며, 이후 설치된 기관에 자료를 보내는 과정에서도 재외공관의 매개자로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형태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 선정심사 및 선정, 통보는 매년 12월 중에 이루어진다. 설치 세부계획서 제출 요청 및 접수를 다음 해 2월 중으로 진행하여, 그해 12월까지 한국자료실 설치를 위한 설치비를 지원한다. 신규기관과의 MOU는 대개 설치 다음 해에 진행한다. MOU에는 자료지원 기간을 명시하는데 설치 다음 해부터 5년간으로 MOU를 작성한다.

- 기존에 선정된 WOK 기관들의 경우, 국립중앙도서관은 기본적으로 매년 상반기에는 자료 및 문화행사를 지원하고 필요에 따라 MOU를 갱신하며, 중기에는 설문을 통해 운영 실태를 조사한다. 마지막으로, 하반기에는 문화행사 결과를 보고 받아 지원비 등을 정산한다.

- 신규 기관 선정과정: 신규기관을 선정할 때 재외공관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기본적으로, 설치를 위한 수요조사를 재외공관을 통해 공고한다. 공고에는 재외공관과 함께 진행해야 하는 사업임이 명시되어 있다. 한 해에 한국자료실 설치를 신청하는 기관 가운데 80% 이상이 재외공관을 통해서 신청한다. 재외공관에서 설치 가능성이 있는 해외 도서관을 파악한 후 그 도서관에 연락하여 사업을 제안하고, 그 도서관에서 자료실 설치의 의지를 보인다면 신청서류를 작성하게끔 보조해 준다. 이후,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해당 해외 도서관의 신청서를 받아서 〈표 Ⅲ-6〉에 있는 선정기준에 따라 설치 여부를 검토한다. 현행 사업관리 방식에서 국립중앙도서관의 역할은 이 심사 단계부터 시작한다고 볼 수 있으며, 지원 이전 단계에 이루어지는 사업 홍보 등의 업무는 현재 수행되지 않고 있다.

〈표 Ⅲ-6〉 WOK 신규 설치기관 선정기준

	선정기준	참고사항
1	한국자료실 설치 필요성	• 대륙별, 국가별 안배 • 도서관 유형별 안배
2	한국자료실 지속적 운영 가능성	• 기존 한국 관련 장서 존재 여부, 전담사서 배치, 한국어자료 정리 및 한국어서비스 제공 가능 여부
3	자료 활용도 및 파급효과	• 해당지역의 한국 및 한국문화에 관한 관심도 • (대학도서관의 경우) 한국 관련학과 또는 연구 센터 존재 여부
4	재외공관 등 지원가능성	• 대사관(영사관) 및 한국문화원(홍보관) 지원 가능 여부

- WOK 신규기관 선정 시 심사자료: 한국자료실을 설치하기 위한 기관을 선정 시 크게 두 가지 자료를 토대로 한국자료실 설치 필요성 및 운영 가능성, 활용도 및 재외공관 지원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① 신청기관에서 보내온 지원서: 해당 도서관 현황, 한국자료실 설치 및 운영 계획, 한국어자료 정리와 서비스 가능 여부 등을 지원서를 통해 통합적으로 이해한다.

② 참고자료: 신청기관 및 관련기관 홈페이지(외교부, 한국학중앙연구원, QS 세계 대학 순위 등도 참고함), 「지구촌 한류현황」, 「해외 한국학 백서」 등의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자료를 분석한다.

- 자문위원회 구성: 한국학 지원사업과 관련한 유관기관 전문가들(예: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문학번역원, 한국국제교류재단 등)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자문의견을 적극 반영한다.

- 신규 기관 선정기준: 〈표 III-6〉에 제시된 선정기준을 적용하여 신규 기관을 선정한다. 먼저, 한국자료실 설치 필요성의 측면에서, 대륙별·국가별뿐만 아니라 도서관 유형별 안배가 골고루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고려한다. 이는 특정 대륙, 국가에 편중되는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이다. 두 번째로, 한국자료실을 지속적으로 운영 가능한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 해당 도서관에 한국 관련 장서가 이미 존재하는지 또는 전담사서의 유무를 검토한다. 이는 한국어로 된 자료를 정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었는지 파악하기 위함이다. 한국자료에 대한 해당기관의 수요와 한국자료실에 대한 의지를 얼마나 갖추고 있느냐도 선정하는 데 중요하게 작용한다. 세 번째로, 자료실의 자료 활용도 및 파급효과는 해당 지역의 한국 및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도를 기반으로 평가한다. 추가로, 대학도서관의 경우 한국 관련학과 또는 한국학 연구 센터의 존재 여부를 선정에 반영한다. 마지막으로, 대사관 또는 한국문화원과 같은 재외공관의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한지도 신규기관을 선정하는 검토사항이다.

3) 자료 선정방식과 지원방식

• 자료선정 방식: 본 사업 담당 사서와 보조사서가 〈표 III-7〉에 제시된 두 단계를 거쳐 기본 자료목록을 작성한다.

〈표 III-7〉 자료목록 작성 방식

구분	검색방법	내용	효과
1단계	우수학술자료 중심으로 목록 작성	• 한국, 한국학과 관련한 국내 유관기관에서 출판된 우수학술도서 위주로 선정하여 리스트 작성 - 교육부, 세종도서 등 우수학술도서 리스트 - 어린이자료: 국립 어린이청소년도서관 추천자료 - 영어자료: 해외 도서 가운데 한국학 기관 출판 자료, 한국 홍보 자료 등 - 번역본(스페인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중국어 등으로 번역된 한국자료들)	자료의 전문성 확보
2단계	망라적 신간 탐색	• 주제를 망라하여 대중적인 자료를 선호하는 이용자들의 정보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망라적 검색으로 자료목록 작성 - 해당연도의 베스트셀러 - 해당연도에 국내에서 이슈가 되었던 자료들 - 영화, 음반(CD, DVD): 되도록 해당연도에 나온 자료들 중에 순위가 높은 것 목록에 추가 - 한국어 교재: 출판되는 것 망라적으로 추가	자료의 최신성과 대중성 확보

• 2단계 과정을 거쳐 자료 목록을 작성한다.

- 1단계(기관별 추천 우수학술자료 바탕으로 목록작성): 매년 교육부와 대한민국학술원이 기초 학문 분야(인문학, 사회과학, 한국학, 자연과학 등)의 우수학술도서를 선정하는데 이를 바탕으로 기본목록을 작성한다. 이때, 정치·종교적으로 예민한 자료는 걸러내고 기본목록을 작성한다.

- 2단계(망라적 신간 탐색): 해외 도서관에서는 학술적인 자료뿐만 아니라 대중적인 자료도 선호하기 때문에, 자료의 최신성 확보를 위하여 해당연도에 출판된 자료를 망라적으로 탐색하여 목록에 추가한다.

• 위의 자료의 기본목록은 연 1회 업데이트하며, 매년 12월 말부터 1월 초에 기본적인 목록을 작성한다. 목록이 업데이트 되는 시기가 신규기관 선정이 완료되는 시점이므로 모든 기관에 목록을 배포하고, 각 한국자료실에서는 자관의 정보 수요에 따라 자료를 신청한다.

• 자료지원 방식: 연 1회 외교행낭을 통해 자료를 발송한다. 일반 우편으로 발송 시 시일이 오래 걸리고, 통관 등의 문제로 어려움이 있는 국가가 많으므로 자료 수령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외교행낭을 이용한다. 자료 배포 과정에서도 공관의 협조는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2) 재외문화원, 재외공관과 연계한 문화행사 프로그램 지원 현황

• 본 사업에서는 한국문화원과 연계한 문화행사 프로그램을 지원하는데, 그 규모는 매년 약 300만원씩 6개 기관 정도이다. 문화 프로그램의 내용은 〈표 III-4〉와 같이 공연, 한국문학 번역 및 문화 워크숍, 도서 및 사진 전시, 한국어 말하기 대회 등 문화협력과 교류 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고 있다.

3) 한국자료실 운영 실태 및 애로사항

• 효과적인 사업 진행을 위한 투입인력의 부족: 본 사업 담당자는 사서 직원 1

인으로 전적으로 혼자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한국자료실이 설치된 도서관이 전 세계 24개국 26개 도서관에 이르므로, 상대편 담당자와는 언어문제, 시차 등의 어려움도 있어 많은 애로가 있다. 사업을 제대로 관리하고 그 효과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인력 투입이 필요하다.

- 국립중앙도서관의 주체성이 확보되지 않은 사업 진행 방식: 사업을 진행할 때, 재외공관의 협조를 받기는 하나, 재외공관은 사업 주관기관이 아니므로 원하는 시점에 지속적인 협조를 받는 데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이 외부 기관 의존도를 최소화하며 사업 운영을 주체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는 설치기관 수요 파악부터, 선정, 운영, 사업 홍보, 평가에 이르기까지 전 영역에서 체계적인 기획 하에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사항이다.

- 단일 방식으로 국제사업을 진행하는데 따르는 한계: WOK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 국가별로 문화적, 사회적 배경이 상이하여 본 사업 담당 사서 역시 관리자로서의 어려움이 클 것으로 파악된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현재 규모의 사업을 운영하는데 사업 관리운영 매뉴얼을 갖고 진행하고는 있으나, 전 세계의 각기 고유한 속성을 갖고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사업 진행에 매번 예기치 않은 변수가 생기고 기관별로 성격과 정책이 매우 다양하여 하나의 척도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문제가 발생한다.

4) 사업 종료기관 관리 현황

- 현재 사업이 종료된 기관은 4개국 4개 기관으로, 중국 상해 장녕도서관, 이집트 국립도서관, 인도네시아 국립도서관, 아랍에미리트 국립도서관이다. 4개 기관 모두 아시아 및 아프리카 지역의 국·공립도서관이라는 공통점이 파악된다.

- 2020년 10월 기준 종료기관에 대해서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별도의 관리를 하지는 않고 있으며, 소통 채널도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다.
- WOK 사업 종료기관들의 문제점
  - 자료실이 설치된 도서관과 국립중앙도서관간의 소통이 원활하지 못했다.
  - 설치된 자료실에 전담사서나 한국어 자료 정리를 할 수 있는 직원이 없다면 지속적인 자료실 관리의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 종료된 4개 기관에서 모두 전담직원은 물론 실제 한국어가 가능한 직원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 한국자료실이 설치된 도서관의 운영 의지와 노력뿐만 아니라 설치 이후에도 공관이 지속적으로 협조하는지가 한국자료실 유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예컨대, 자료실 설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했던 재외공관장이 귀임하거나, KOICA 자원봉사 단원이 철수한 이후 자료실은 방치되어 유지에 어려움이 생기게 된다. 한국학과 등의 협력 및 지원도 받을 수 없었던 상황이었고, 자료 선정도 재외공관(문화원)에 의존하는 등 사업 운영에 주체성이 없던 상황에서 자료실 관리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아 종료된 것으로 파악된다.

5) 국립중앙도서관 원문자료 활용을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현황

- 2020년 10월 기준 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지식정보자원의 영구 보존 및 개방과 공유, 활용 촉진을 위하여 소장 자료를 디지털화하고 있으며, 인터넷을 통하여 국내외 2,353개 협약 도서관(국내 2,280개관, 해외 34개국 73개관)에 제공하고 있다.
- 국가지식정보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디지털 자료의 현황은 〈표 III-8〉에 나타난 바와 같다.
  - 단행자료의 경우, 약 8만 7천여 점의 아동서와 약 75만여 점의 일반도서뿐만

아니라 고서(약 13만여 점), 고지도(약 200여 점), 1945년까지 발행된 조선총독부 자료(약 9만여 점) 등 역사 연구에 필요한 문헌들이 디지털화되어 이용자들에게 제공되고 있다. 추가로, 4천여 점의 교과서와 13만여 점의 학위논문도 디지털화되어 제공된다.

- 연속간행물 역시 9만여 권이 넘는 잡지와 학술지가 디지털 자료로 제공될 뿐만 아니라, 4천여 점이 넘는 관보와 신문이 이용자들에게 제공되고 있다.
- 공공기관에서 발행되는 공공간행물 단행자료는 2만여 권 가까이 디지털 자료로 제공되고 있다.
- 대표적인 비도서 자료인 악보도 약 16만여 점이 디지털화되어 이용자들에게 제공된다.

• 위와 같이 무수히 많은 자료가 디지털화되어 이용자들에게 제공되지만, 해외 이용자들은 자료로의 접근이 어렵다고 한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Ⅵ-2. 현행 사업 및 운영 방식의 타당성 검토에서 논의한다.

〈표 Ⅲ-8〉 국가지식자원공유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디지털 자료 현황(2020. 10. 기준)

구분		콘텐츠 수	책(호) 수	파일(면) 수
단행자료	고서	67,456	128,638	17,194,261
	고지도	123	196	5,293
	교과서	3,843	4,485	918,485
	일반도서	735,592	750,562	208,698,623
	아동서	79,566	87,627	10,618,978
	조선총독부자료 (~1945)	82,238	91,820	35,739,703
	학위논문	130,175	130,457	20,374,512
	한국관련 외국어자료	9,307	15,064	5,150,818
	한글판 고전소설	903	915	88,554
연속간행물	관보	336,239	3,821	147,133
	신문	6,323,391	624	392,401
	잡지·학술지(기사)	77,778	5,063	14,730,352
	잡지·학술지(권호)	96,705	92,426	
공공간행물	단행자료	14,525	19,175	4,356,464
비도서자료	악보	157,189	157,189	570,513
합계		8,115,030	1,488,062	318,986,090

2. 해외 한국자료실(WOK) 운영기관 현황 분석

1) 홈페이지 및 문헌 조사

• 국립중앙도서관에서 2009년부터 현재까지 발행하고 있는 〈해외 한국학도서관 동향보고서〉와 해외 한국자료실 실태조사서,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도서관 블로그, 각 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여 정리하였으며, 순서는 아래와 같다.

〈표 Ⅲ-9〉 WOK 설치 현황

번호	국 가	도서관명	위치(배치)	선정	설치	비고
1	태국	국립도서관	2층(단독)	'07	'07	검토
2	베트남	하노이국립도서관	2층(공동)			연장
3	독일	베를린자유대학도서관	1층(단독)			연장
4	미국	뉴욕 플러싱퀸즈도서관	3층(공동)			연장
5	중국	상해 장녕도서관	8층(공동)	'08	'08.12	종료
6	러시아	국립도서관 동양센터	동양센터1층(단독)		'09.7	연장
7	몽골	국립도서관	1층(단독)		'09.11	검토
8	카자흐스탄	국립아카데미도서관	4층(공동)	'09	'09.12	연장
9	폴란드	돌노쉬롱스키주립도서관	2층(공동)			연장
10	인도네시아	국립도서관	분관 1층(단독)		'10.2	종료
11	이란	국립도서관	1층(단독)	'10	'10.12	연장
12	터키	국립도서관	5층(공동)		'11.1	연장
13	이집트	국립도서관	2층(단독)		'11.5	종료
14	스페인	말라가대학도서관	2층(단독)	'11	'11.12	연장
15	벨기에	루벤카톨릭대학도서관	5층(공동)		'11.12	연장
16	덴마크	코펜하겐대학(북유럽아시아연구소도서관)	1층(공동)		'12.4	연장
17	필리핀	아테네오대학도서관	4층(단독)	'12	'12.8	연장
18	멕시코	콜멕스대학도서관	1층(단독)		'12.12	연장
19	영국	옥스포드대학교	B1(공동)		'13.6	연장
20	인도	인도델리대학교	1층(공동)	'13	'13.10	협의중
21	베트남	인문사회과학대학교	1층(단독)		'14.2	연장
22	UAE	아부다비국립도서관	1층(단독)	'14	'14.12	종료
23	우즈베키스탄	국립도서관	4층(단독)		'14.12	사업중
24	엘살바도르	엘살바도르대학교	2층(단독)	'15	'15.9	
25	중국	북경대학교	B2(공동)		'15.11	
26	미얀마	양곤 외국어 대학교	3층(단독)	'16	'16.9	
27	이스라엘	히브리대 인문사회과학도서관	4층(공동)	'17	'18.2	
28	이탈리아	라사피엔차대 동양학부도서관	1층(단독)	'18	'18.10	
29	러시아	국립도서관(상트)	3층(공동)	'19	'19.11	
30	헝가리	ELTE대학교	2층(단독)		'20.10	

2) 이전 설문조사(2017-2019)를 통한 근황 파악

가) WOK 실태조사 설문 응답 기관

- 국립중앙도서관에서 2017년 이후 3년간 서면으로 실시했던 설문조사 내용을 분석하여 최근 3년간의 근황을 정리하였다.

- 2017년에는 설문조사와 함께 10개 기관을 직접 현장 방문하여 21개관 중 19개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2018년과 2019년에는 서면으로 설문조사만 실시하였다. 설문 회수율 또한 2017년에 비해 비교적 낮으며 3년간 점차적으로 전체 응답률이 90%에서 50%로 떨어졌다. 3년 동안 한 번도 응답하지 않은 2개관은 중국 북경대학교와 엘살바도르 대학이다. 반면, 세 번 모두 설문에 착실하게 응답한 기관은 5개 기관으로, 폴란드의 돌노쉬롱스키 주립도서관, 베트남 호치민시의 인문사회과학대학교, 스페인의 말라가대학 도서관, 러시아 국립도서관, 미얀마 양곤외국어대학 도서관이다.

〈표 Ⅲ-10〉 WOK 실태조사 참여율

	전체 조사 대상 기관 수	방문 조사기관 수	설문 응답기관 수	설문 응답률	전체 참여율 (방문조사 포함)
2019	22	0*	8	36%	36%
2018	21	0	12	57%	57%
2017	21	10**	16	71%	90%

* 2019년의 경우, 북경대학교, 러시아 국립도서관 동양센터, 러시아국립도서관(상트) 등 3개 기관에 대한 방문은 있었으나, 실태조사서가 작성되지는 않았음.

** 10개 기관 중 7개 기관은 기관 실사와 설문조사에 모두 응답함.

〈표 Ⅲ-11〉 WOK 실태조사 설문 응답 기관

	선정 연도	국가	도서관	2017 (기관실사)	2017	2018	2019
1	2007	태국	국립도서관	검토기관			
2		베트남	국립도서관	현장방문	2017		
3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 도서관		2017	2018	
4		미국	뉴욕 퀸즈 공공도서관		2017		
5	2008	중국	상해 장녕도서관	종료기관			
6		러시아	국립도서관 동양센터		2017	2018	2019
7		몽골	국립도서관	검토기관			
8	2009	카자흐스탄	국립아카데미 도서관	현장방문			
9		폴란드	돌노쉬롱스키 주립도서관	현장방문	2017	2018	2019
10		인도네시아	국립도서관	종료기관			
11	2010	이란	국립도서관	현장방문		2018	2019
12		터키	국립도서관		2017*	2018	
13		이집트	국립도서관	종료기관			
14	2011	스페인	말라가 대학		2017	2018	2019
15		벨기에	루벤 카톨릭대학 도서관		2017		
16		덴마크	코펜하겐대학		2017		
17	2012	필리핀	마닐라 아테네오대학 도서관	현장방문	2017		
18		멕시코	콜멕스대학	현장방문	2017		
19		영국	옥스포드 대학	현장방문	2017	2018	
20	2013	인도	델리대학 도서관	현장방문	2017	2018	
21		베트남	호치민 인문사회대학교 도서관	현장방문	2017	2018	2019
22	2014	UAE	아부다비 국립도서관	현장방문			
23		우즈베키스탄	국립도서관		2017	2018	
24	2015	엘살바도르	엘살바도르 대학도서관				
25		중국	북경대학교 도서관				
26	2016	미얀마	양곤 외국어대학 도서관		2017	2018	2019
27	2017	이스라엘	히브리대학			2018	2019
28	2018	이탈리아	로마 라 사피엔차대학교도서관				2019
29	2019*	러시아	국립도서관(상트)				
30		헝가리	ELTE대학교				
총계	**30개 기관**			**10**	**16**	**12**	**8**

*이메일 답신(내용은 확인불가)

**2019년 선정된 러시아국립도서관(상트), 헝가리 ELTE대학은 설문조사 시 미설치 기관

나) WOK 실태조사(2017-2019) 설문 내용 구성

- 분석에 사용된 기존 설문지의 내용은 크게 8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1) 기관 정보, 2) 한국학 수업 및 학과 내용, 3) WOK 담당 사서 및 현 자료실 자료 및 이용률 상황, 4) 자료 정리 상황, 5) 자료 서비스 현황, 6) WOK 운영 관련 질문, 7) 한국학과에 관련 질문, 8) WOK 현장 사진 및 자료 정리관련 사진 첨부 요청 등이 포함되었다.

〈표 Ⅲ-12〉 WOK 실태조사 설문지 구성

구 분	세 부 내 용
자료실 설치 운영 및 이용	기관정보, 배가방법(공간), 이용현황
WOK 장서규모 및 주제별 자료선호	장서량, 주제별 선호 파악
자료 정리 및 담당 직원	자료 정리 상황, 정리방법(마크포맷)
자료실 운영 활성화 방안	자료서비스 현황(한글 OPAC, 외부대출, 상호대차, 참고서비스, 문화행사), 유관 기관 협력사업, 운영활성화를 위한 제언
기관 내 한국학 현황	한국학 수업 및 학위 커리큘럼 현황

(3) WOK 실태조사(2017-2019) 설문 결과

〈표 Ⅲ-13〉 WOK 실태조사 설문지(2017-2019) 응답 내용 정리* (총 21개 기관 참여)

구분	설문 응답**	도서관현황				자료정리 및 이용서비스			WOK 담당자		협력활동
		한국관련 장서	이용 현황 (월평균)	인력 배치	배가방법	자료정리 (MARC format)	한글지원 OPAC	제공서비스	자료정리 방법	제안사항	
독일	'17 '18	20,072 (한국어 15,679 외국어 4,393)	20,000명, 100.000책	풀타임1명	독립서가 (공동공간)	온라인목록	가능	-외부대출, 상호대차 -참고서비스 -유럽한국자료네트워크회의	사서	-로마자화(化)	-KF, 한국문학번역원 등
베트남	'17	12,815 (한국어 12,600 외국어 215)	90명, 240책	풀타임2명	독립서가 (공동공간)	온라인목록 (MARC format)	가능	-외부대출불가, 상호대차 -참고서비스 -문화행사(한국자료실기증식)	사서		
미국	'17	2,625 (한국어2,300 외국어325)	180,954명, 100,654책	풀타임 300명 기타3명	독립서가 (공동공간)	온라인목록 (MARC format)	가능	-외부대출, 상호대차 -문화행사(한국어 수업)	사서	-판촉물(홍보물품) -최신자료수서	-뉴욕한국교육원한국어교실
러시아	'17 '18 '19	31,389 (한국어 31,389)	150명, 700책	파트타임1명	독립 자료실	온라인, 카드목록 (MARC21)	불가능	-외부대출, 상호대차 -참고서비스 -문화행사(배명훈 작가 초청)	사서		-KF한국문화강의 시리즈
폴란드	'17	6,149 (한국어 4,219 외국어 1,930)	200명, 140책	풀타임2명	공동사용 (독일어 자료실)	온라인목록 (MARC format)	가능	-외부대출, 상호대차 -문화행사(한국문화의날)	자원봉사	-한중연 등 해외한국학연구기관 자료 -마크, 영어주제명 -로마자화(化)	-브로츠와프대 한국어문화학부 지원
카자흐 국립	'17	1,141	데이터 없음		독립서가 (공동공간)	온라인목록 (MARC format)	불가능	-외부대출불가, 상호대차 -참고서비스			-한국어강좌 개설 준비중

구분	설문 응답**	도서관현황				자료정리 및 이용서비스			WOK 담당자		협력활동
		한국관련 장서	이용 현황 (월평균)	인력 배치	배가방법	자료정리 (MARC format)	한글지원 OPAC	제공서비스	자료정리 방법	제안사항	
이란	'17,'18 ,'19	한국어 5,000	600명, 10책	파트타임1명	독립 자료실	온라인목록 (MARC format)	가능	-외부대출불가 -참고서비스	사서		
터키	'17,'18	3,471	1~2명 2~3책	풀타임2명 기타2명	독립서가 (공동공간)	온라인목록 (MARC format)	가능	-외부대출불가	사서	-마크파일 -영어주제명 -로마나이즈	
스페인	'17,'18 ,'19	한국어 4,249	250명 500책	기타10명	독립공간	온라인 (MARC21)	가능	-외부대출, 상호대차 -참고서비스 -한국문학 워크숍 개최	사서	-한국학술도서 -마크파일 -로마나이즈 -표제지이미지파일	-KF,한국문학번역원에서 자료기증, 한국학중앙연구원
벨기에	'17	8,700 (한국어 5,300 외국어 3,400)	400명 120책	풀타임1명	독립서가 (공동공간)	온라인목록 (MARC format)	가능	-외부대출, 상호대차 -참고서비스	사서 (한인 자원봉사자)	벨기에 유관기관의 다양한 협력활동	-KF,국사편찬위원회 -한국문화원, 교환학생
덴마크	'17	2,700	산출불가	파트타임1명	독립서가 (공동공간)	온라인목록 (MARC format)	가능	-외부대출, 상호대차	사서		-KF 한국학 현지 교원 고용 지원
영국	'17,'18	6,015 (한국어 4,665 외국어 1,350)	200명, 3~400책	파트타임1명 기타1명	독립서가 (공동공간)	온라인목록 (MARC format)	가능	-외부대출, 상호대차 -참고서비스 -북클럽행사	사서	-한국관련학술서적	-KF(목록)한국학중앙연구원과의 협력사업(연구)
필리핀	'17	한국어 2,028	10,129명, 4,720권	파트타임1명 기타1명	독립공간	온라인목록 (MARC format)	가능	-외부대출, 상호대차	한국학과	-마크파일 -영어주제명 -로마나이즈	-KF(워크숍,객원교수파견) -한중연(씨앗형사업지원)
멕시코	'17	1,363 (한국어 823, 외국어 540)	5명, 5권	풀타임1명	독립서가 (공동공간)	온라인목록 (MARC format)	불가능	-외부대출, 상호대차 -참고서비스 -문화행사(한국자료실기증식)	사서	-영문자료	

구분	설문 응답**	도서관현황				자료정리 및 이용서비스			WOK 담당자		협력활동
		한국관련 장서	이용 현황 (월평균)	인력 배치	배가방법	자료정리 (MARC format)	한글지원 OPAC	제공서비스	자료정리 방법	제안사항	
베트남 인사대	'17,'18 ,'19	5,512 (한국어 5,053 외국어 459)	969명 384책	풀타임2명	독립공간	온라인목록 (MARC format)	가능	-외부대출 불가 -참고서비스 -전시회 개최	사서 (한국학과 교수 지원)	-마크파일 -영어주제명 -로마나이즈 -홍보	-KF, 한중연, 대만국립중앙도서관, 아시아재단 등
인도	'17,'18	4,112 (한국어 2,326 외국어 1,786)	데이터 없음	풀타임3명 파트타임1명	독립서가 (공동공간)	온라인목록 (마크x)	불가능	-외부대출, 상호대차 -참고서비스 -문화행사	사서 (자료의 일부만 정리됨)	-RFID -한국어S/W -한국어숙련자	
우즈베키스탄	'17,'18	3,765 (한국어 2,515 외국어 1,250)	1,821명 1,121책	풀타임1명	독립공간	온라인목록 (MARC format)	불가능	-외부대출 -한국대사관 연계 문화행사	사서	-마크파일 -영어주제명 -로마나이즈 -한국관련최신자료	-코이카(한국어강의)
UAE	'17	2,242	데이터 없음		독립서가 (공동공간)	온라인목록 (MARC format)	가능	-외부대출	한국문화원		
미얀마	'17,'18 ,'19	3,908 (한국어 3,287 외국어 621)	460명 223책	풀타임1명	독립서가 (공동공간)	온라인목록 (MARC format)	불가능	-관내이용 및 외부대출	사서	-한국관련최신자료 -한국어시험서적 -로마나이즈	-코이카(한국어강의,사서) -서울여대 MOU
이스라엘	'18,'19	2,032 (한국어 1,642 외국어 390)	74,000명 819책	풀타임1명	독립서가 (공동공간)	온라인, 카드목록 (MARC21)	가능	-외부대출, 상호대차 -문화행사(코리안위크)	사서 (한국어 가능 학생 지원)	-마크파일	-대사관,한국학과연계행사개최
이탈리아	'19	한국어 3,500	1,200명 350책	파트타임3명	독립 자료실	온라인, 카드목록 (MARC21)	가능	-외부대출, 상호대차 -문화행사(독서회)	사서	-마크파일 -DVD플레이어 -온라인행사	-KF, 문화원

* 여러 차례 응답한 기관의 경우, 가장 최근의 응답 내용이 제시되었음. 단, 요구사항과 협력활동은 통합하여 정리함.

** 본 실태조사 설문에 응답한 연도를 표시하였음

〈표 Ⅲ-14〉 WOK 지원 자료 현황*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총계
태국국립	3,636	221	217	162	117	187	0	132	0	0	0	0	0	4,672
베트남국립	7,846	112	200	163	211	216	0	109	0	566	304	213	88	10,028
독일 베를린자유대	798	0	0	175	267	243	0	260	439	130	274	217	217	3,020
미국 뉴욕플러싱퀸즈	2,601	235	179	190	175	269	0	159	231	179	313	205	218	4,954
중국 상해 장녕도서관		699	200	223	194	297	155	160	0	0	0	0	0	1,928
러시아국립		640	209	158	53	228	131	57	0	144	72	17	38	1,747
몽골 국립		3,188	236	247	237	233	146	0	0	0	0	0	0	4,287
카자흐국립아카데미**			592	163	135	240	147	271	395	233	469	0	330	2,975
폴란드 돌노쉬롱스키주립			3,549	221	195	250	196	417	380	158	263	216	220	6,065
인도네시아국립			2,598	371	166	209	144	244	0	0	0	0	0	3,732
이란국립				3,843	151	335	148	324	161	119	112	157	0	5,350
터키국립***				3,223	217	206	144	351	131	0	159	0	230	4,661
이집트국립				3,847	158	148	11	357	170	0	0	0	0	4,691
스페인 말라가대					2,909	243	145	275	164	324	524	184	210	4,978
벨기에 루벤대학					2,771	146	110	101	142	128	360	96	139	3,993
덴마크 코펜하겐대학					2,094	143	146	342	39	134	152	79	167	3,29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총계
필리핀 아테네오대학						1,631	227	142	194	36	407	241	75	2,953
멕시코 콜멕스대학						790	148	20	16	72	51	0	0	1,097
영국 옥스퍼드대학						2,563	208	286	153	89	141	146	155	3,741
인도 델리대학							1,693	158	185	192	164	0	0	2,392
베트남 인사대							2,504	123	169	253	146	158	184	3,537
UAE국립								1,931	182	129	335	192	207	2,976
우즈베키스탄국립								2,848	220	191	323	194	187	3,963
엘살바도르대									1,994	146	0	0	327	2,467
중국 북경대									1,391	222	248	195	200	2,256
미얀마 양곤외대										2,311	470	201	195	3,177
이스라엘 히브리대											1,648	244	224	2,116
이탈리아 로마라사피엔차대												2,873	205	3,078
러시아 국립도서관(상트)													2,688	2,688
헝가리 ELTE대													2,486	2,486
총 30개 기관	14,881	5,095	7,980	12,986	10,050	8,577	6,403	9,067	6,756	5,756	6,935	5,828	8,990	109,304

* 본 실태조사 설문에 응답한 소장량과 국립중앙도서관에서의 지원한 자료의 양에 차이가 있음

** 2017년 카자흐스탄 국립아카데미는 장서량을 1,141권으로 응답하였으나,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지원한 양과 1,000권 이상 차이가 있었음

*** 2018년 터키 국립도서관은 장서량을 3,471권으로 응답하였으나,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지원한 양과 1,000권 이상 차이가 있었음

3) 2020년도 설문조사를 통한 현황 파악

- 본 연구를 위해 최근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WOK를 대상으로 2020년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017-2019년에 국립중앙도서관이 설문조사에 사용했던 설문지를 토대로 꼭 필요한 문항은 남겨두고 새로운 문항을 대폭 추가하여 총 35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설문지는 총 7분야에 걸쳐 1) 설문 개요, 2) WOK 담당사서, 3) 현황파악을 위한 통계 데이터, 4) 기관 내외 홍보 및 이용 현황, 5) 미래 개선방안, 6) 기타 한국자료 지원 요구, 7) WOK 사업에 대한 평가 등으로 구성하였다. 설문지는 구글폼을 이용한 웹 설문으로 작성되었고, 각 기관의 WOK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사전 공지한 후 링크와 함께 배포하였다.

- 설문 배포는 WOK가 설치된 전체 30개 기관 중에서 이미 종료된 기관 4개 기관(중국 상해 장녕도서관, 인도네시아 국립도서관, 이집트 국립도서관, 아랍에미레이트 아부다비 국립도서관)과 현재 지원 중단 상태에 있는 2개 기관(태국 국립도서관과 몽골 국립도서관)을 제외한 총 24개 기관에 배포되었다.

- 설문 기간은 2020년 9월 9일부터 25일까지로, 약 2주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3차에 걸쳐 설문 참여 요청 메일을 보낸 결과, 전체 24개 기관 중 총 16기관에서 설문에 참여해 **응답률이 67%**였다. 이 결과는 이전 년도 설문 응답률 36%와 비교하여 크게 높았으며, 특히 본 설문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많은 국가에서 도서관이 셧다운되어 사서도 이용자도 도서관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진행된 점을 감안하였을 때, 매우 높은 응답률로 파악된다.

(1) 종합 분석 평가

- 설문 응답을 토대로 ① 자료실 설치 운영 및 이용, ② WOK 장서규모 및 주제별 자료선호, ③ 자료 정리 및 담당 직원, ④ 자료실 운영 활성화 방안, ⑤ 기관 내 한국학 현황 측면에서 자료를 분석하여 다음에 순서대로 제시하였다.

① 자료실 설치 운영 및 이용 실태

- 한국자료실은 대부분 독립된 공간 또는 독립된 서가에 배치되어 홍보와 가시성이 좋았으며, 전반적으로 이용자의 자료 접근성이 높은 상태에서 운영되고 있었다. 응답 기관 중 단 2개 기관만이 비독립 공동 공간과 서가로 운영되고 있었다.
- 설문에 응답해 준 기관들에서 첨부해 준 자료실 사진을 통해서도 독립서가로 배치된 현장 상태를 쉽게 파악할 수 있었다.
- 월 평균 이용자 수는 대략 100~300명으로, 월 평균 200~500권 정도의 자료가 이용됨으로써 비교적 높은 이용률을 보여주고 있다.
- 관내 이용만 허용하는 곳도 더러 있지만, 대부분 관외 대출과 상호대차, 참고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 구체적인 이용자 층(학생, 교수진, 일반인, 기타 등)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② WOK 장서 규모 및 주제별 자료 선호도

- 한국자료실에 구비된 장서의 규모를 보면, 3천권 이상 소장이 19개 기관이었고, 그 이하가 11개 기관이었다. 2007년에 개관한 자료실부터 2019년에 개관한 자료실까지 기관마다 장서 규모에 차이가 있었다.
- 보통 자료실 개실 첫 해에 적게는 700여 권에서 많게는 2~3천권 안팎의 자료

를 기증받고, 다음 해부터는 매년 200권 안팎의 자료를 제공받고 있다. 기본 필수장서를 제시해 선정에 도움을 줄 필요성도 제기된다.

- 2007년 WOK 프로그램 시작 기관 중 하나였던 베트남 하노이 국립도서관에 첫해 7천권 이상 기증한 것은 예외적인 경우이며, 이로 인해 1만권 이상 WOK 자료를 소장한 유일한 기관이다.
-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제공한 2020년도 자료리스트에는 총 1,254종의 자료가 포함되어 있고, 이중에 신청 가능한 200권은 전체리스트 중 16%에 불과하다. 앞으로 자료가 더 필요한 기관에 지원량을 확대해 줄 필요성이 있다.
- 신간 자료를 1년에 1회 입수하는 횟수가 운영에 적합한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 급하게 필요한 자료가 있을 때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 간혹 자료 지원 신청을 하지 않거나 매우 저조한 기관에 대해서는 이유를 조사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자료의 주제별 선호도와 질적 만족도에 대해서는 대부분 기관이 현재 리스트에 만족하고 있으나 좀 더 학술적인 자료 및 고전 자료를 요구하는 기관도 소수 있었다.
- 주제별 분야에서는 과학과 기술 분야를 제외한 거의 모든 주제 분야(언어, 역사, 문화, 문학 등의 인문사회계열)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 중에서 특정분야의 주제를 더 집중적으로 지원받고 싶어 하는 기관도 있었고, 주제 전반에 자료를 수집 희망하는 기관도 있었다.
-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언어별, 형태별, 대상별(한국어로 된 자료, 영어로 된 자료, 타 언어 자료, 비도서 자료, 어린이 도서, 한국학 자료)로 나누어 제공하고 있는 자료목록에 대해 대체적으로 만족하고 있었다.
- 현재 제공되는 리스트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향후 전자책과 전자자료, 참고도서, 미디어 자료, 해외에서 출판된 한국 관련 자료에 대한 수요를 보강할

필요가 있다.

③ 자료 정리 및 담당 직원

- 대부분의 기관들은 기증 받은 자료를 온라인 서지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신속하게 잘 정리 목록하고 있다고 자평하고 있었다. 첫 해를 제외하고는 연간 자료 증가 규모(200권)가 크지 않아 업무 부담이 크지는 않다.
- 일부 도서관에서는 한글로 온라인 검색이 불가능한 곳이 아직 있지만, 대부분 한글 검색이 가능하다.
- 목록의 원활함을 위해 마크 데이터 지원과 로마자, 영문 키워드 번역의 지원은 필수적이다.
- 대부분의 기관에는 WOK 담당 사서가 있고, 한국어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기관 내 한국학 교수나 학생 및 기타 인력을 통해 도움을 얻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인턴파견을 통한 인력 지원에 대해서는 관심이 저조하다. 인력지원을 통한 비용 부담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담당 사서의 한국어 능력 때문에 참고 봉사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할 수 있는 곳은 7개 기관에 불과하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대신 참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성이 크다.
- 담당 사서들에게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국립중앙도서관의 해외한국학사서워크숍 초청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④ 자료실 운영 활성화 방안

- 자료지원과 함께 한국관련 문화행사를 적극 지원해서 자료이용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지난 3년간 설문에서 한 번이라도 참여했던 총 19개 기관 중 무려 15개 기관

에서 문화행사를 개최한 경험이 있으며, 앞으로도 개최하기를 희망한다. 이전에 참여하지 않았던 기관들도 개최를 희망하고 있었다.

- 국립중앙도서관 외 타 기관(주로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문학번역연구원, 한국영상자료원 및 대학도서관 등)으로부터 자료 지원을 받고 있었다. 자료기증사업의 통로가 되어 주거나, 한국학 발전을 위해 타 기관과의 활발한 협업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 지역 내 재외 공관의 도움으로 WOK와 국립중앙도서관 간에 빠르고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앞으로도 재외 공관의 적극적인 지원은 중요하다.
- 지역별, 관종별로 WOK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업무 지식을 교환하거나 자료를 공유하는 등의 발전을 도모할 필요성이 컸다.

⑤ 기관 내 한국학 현황

- 2017년 기준 총 21곳의 한국자료실 기관 중 한국 학사학위 프로그램이 있는 기관이 모두 10개 기관이었고 그 중 7개 기관은 석박사 학위를 수여하고 있었다. 한국자료실이 한국학 연구에 직접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학부와 석박사 학위가 마련된 학교에 대해서는 심화된 한국학 연구자료를 중심으로 질적, 양적 지원 확충이 필요하다.

〈표 Ⅲ-15〉 2017년도 설문조사 내 한국학 프로그램

	한국학 프로그램	학사학위	석사학위	박사학위
1	독일 베를린 자유 대학	O	O	O
2	벨기에 루벤 카톨릭 대학	O	O	O
3	덴마크 코펜하겐 대학	O	X	X
4	필리핀 아테네오 대학	O	X	X
5	영국 옥스포드 대학	O	O	O
6	인도 델리 대학	O	O	O
7	우즈베키스탄 국립도서관*	O	O	O
8	미얀마 양곤외국어 대학	O	O	O
9	이스라엘 히브리대 인문사회과학 도서관	O	O	X
10	이탈리아 로마 라사피엔차 대학	O	O	O

*대학이 아닌 국립도서관의 성격상, 지역 한국학 프로그램을 언급한 것으로 보임

(2) 2020년 설문 조사 결과 분석

① 설문 참여 기관 특성

- 2020년 설문조사에 참여한 총 16개 기관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유럽 지역에서 8개 기관이 응답하여 유럽 내 **기관의 응답률이 80%로 나타나 가장 응답률이 높은 대륙**으로 파악되었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6개 기관, 미주는 2개 기관이 참여해 각각 67%의 지역 내 응답률을 보였다. 참고로 중동지역은 회수율 0%로 3개 기관 모두 응답하지 않았다.
- 관종별 분포를 보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곳은 대학도서관으로** 전체 응답률의 68%를 차지했으며, 국립도서관은 3개 기관, 공공도서관은 2개 기관이 참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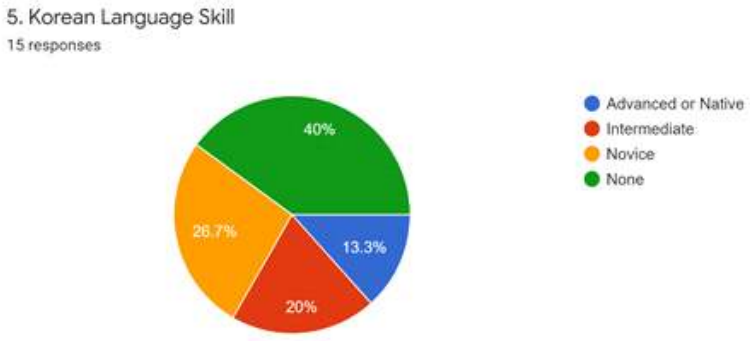
〈표 Ⅲ-16〉 설문조사 참여 기관 특성: 2020년 설문조사 결과

No.	지역	국가	도서관	관종별
1	유럽	스페인	말라가 대학	대학
2	유럽	벨기에	루벤 카톨릭대학 도서관	대학
3	유럽	이탈리아	로마 라 사피엔차 대학교 동양학부 도서관	대학
4	유럽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 도서관	대학
5	유럽	폴란드	돌노쉬롱스키 주립도서관	공공*
6	유럽	헝가리	ELTE 대학교 도서관	대학
7	유럽	러시아	국립도서관 동양센터	국립*
8	유럽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도서관	국립*
9	아시아	인도	델리대학 도서관	대학
10	아시아	중국	북경대학교 도서관	대학
11	아시아	미얀마	양곤 외국어대학 도서관	대학
12	아시아	베트남	호치민 인문사회대학교 도서관	대학
13	아시아	베트남	국립도서관	국립*
14	아시아	필리핀	마닐라 아테네오대학 도서관	대학
15	아메리카	엘살바로드	엘살바도르 대학 도서관	대학
16	아메리카	미국	뉴욕 퀸즈 공공도서관	공공*

② WOK 담당 사서의 직책과 한국어 능력

- WOK 담당 사서의 직책과 한국어 능력을 설문한 결과(N=15), 응답한 총 15명 기관 중 파트타임 사서로 운영하고 있다고 응답한 한 기관을 제외한 모든 기관에서 풀타임 사서가 한국자료실을 담당하고 있다. 이 중 2개 기관은 도서관 고위급 책임자가 맡고 있었다. **대부분은 WOK 담당을 겸해서 도서관 내 업무를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서직이 아닌 경우에는 보조 사서직이 담당하고 있는 1개 기관과 대학 소속 한국학 교수가 담당하는 1개 기관도 있었다.

- 한국어 능력과 관련해서는 전체 응답자 15명 중(1명 무응답) 6명이 한국어를 전혀 모른다고 응답했고, 4명은 초급, 3명은 중급, 2명은 고급 수준이라고 응답했다. 전반적으로 WOK **자료실을 담당하기에 한국어 능력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어, 이에 대한 지원이 마련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그림 Ⅲ-1] WOK 담당사서의 한국어 능력: 2020년 설문조사 결과

③ 한국관련 장서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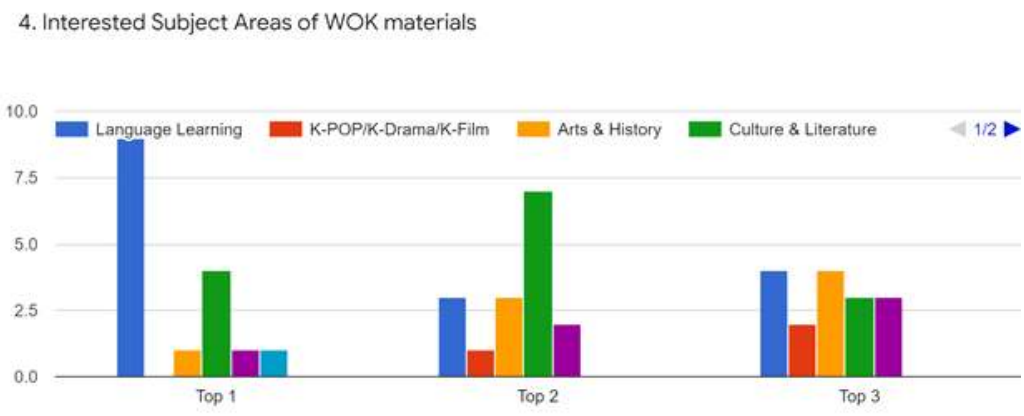
- 한국관련 장서 규모를 조사한 결과(N=16), 대다수를 차지하는 13개 기관은 **모두 1만권 이하의 비교적 작은 규모의 장서를 소장**하고 있었다. 한국관련 소장자료가 1만권 이상인 WOK자료실은 총 3개 기관으로, 2만종 이상을 소장한 러시아 국립도서관 동양센터와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교, 그리고 1만종 이상을 소장한 베트남 국립도서관이다. 영어자료와 기타 미디어 자료를 제외한 순수 한국어로 된 자료만 보면 상위 3개 기관을 제외하고 모두 5천권 이하의 한국어 장서를 소장하고 있었다.

〈표 Ⅲ-17〉 한국관련 장서 규모 : 2020년 설문조사 결과

		한국어 자료	한국어 이외 또는 영어자료	DVD/CD 등 비도서자료	합계
1	러시아 국립도서관 동양센터	27,654	500	100	28,254
2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교	17,214	4,196	1,263	22,673
3	베트남 국립도서관	11,839	654	235	12,728
4	벨기에 루벤 카톨릭대학	4,470	4,921	310	9,701
5	폴란드 돌노쉬롱스키 주립도서관	4,009	2,723	486	7,218
6	스페인 말라가대학	4,345	1,130	1,348	6,823
7	베트남 호치민인사대	3,560	342	1,794	5,696
8	헝가리 ELTE대학교	3,000	1,000	300	4,300
9	인도 델리대학	1,955	1,699	408	4,062
10	미얀마 양곤외국어대학교	2,406	630	897	3,933
11	이탈리아 로마 라 사피엔차 대학교	1,591	1,016	375	2,982
12	엘살바도르 대학	835	1,602	483	2,920
13	중국 북경대학교	2,500	-	-	2,500
14	러시아국립도서관 (St. Petersburg)	1,635	365	439	2,439
15	필리핀 아테네오대학	1,171	n/a	881	2,052
16	미국 컨즈공공도서관	1,164	224	10	1,398

④ 주제별 관심 분야

- 한국자료의 주제별 관심 분야를 조사하기 위해 크게 7가지로 구분해 어학, 한류, 역사/예술, 문화/문학, 사회, 기술, 기타로 나누어 질문하였다. 조사 결과 (N=16), **한국어 언어학습 자료**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관이 모두 15개 기관으로 단연 많았다. 그 다음으로 한국문화와 문학관련 자료로 14개 기관, 역사와 예술 분야로 8개 기관이 응답했다. **한류를 대표하는 K-POP과 K-Drama/K-Film의 자료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3개 기관에서만 응답**해 저조함을 보였다. 한류 관련 정보는 인터넷이나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쉽게 충족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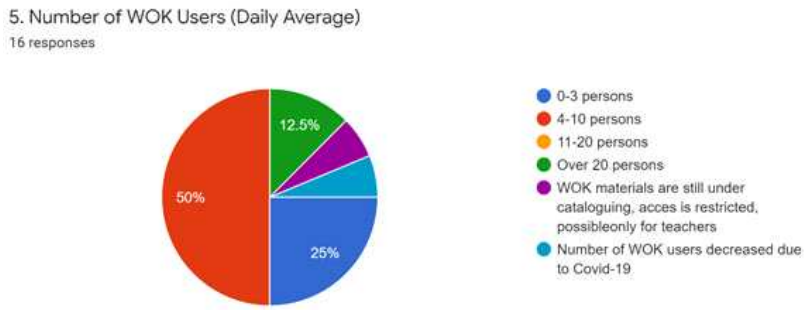


[그림 Ⅲ-2] 2020년도 설문조사 주제별 관심 자료

⑤ 한국자료실 일일 이용자 수

- 한국자료실 이용도를 파악하기 위해 일일 이용자 수를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N=16), 일평균 이용자 수는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자료실 이용자가 대부분 일평균 10명 이하로 설문 응답의 75%를 차지한다. 일일 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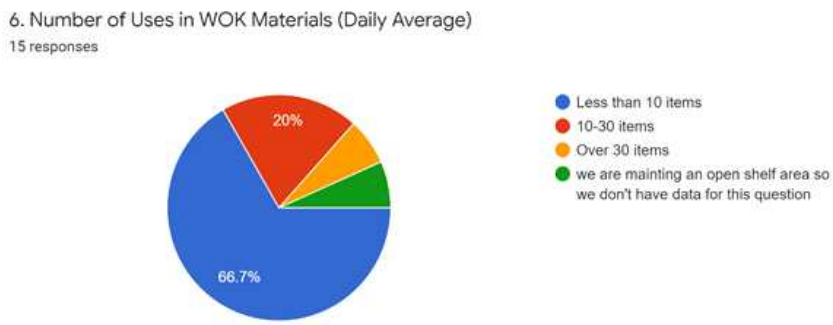
자가 20명 이상이라고 응답한 도서관은 인도 델리대학과 베트남 호치민 인문사회대학 두 기관이었다. 코로나로 인해 이용자가 많이 줄었다고 응답한 곳도 있었다.



[그림 Ⅲ-3] 2020년도 설문조사 한국자료실 일일 이용자 수

⑥ 한국자료실 일일 이용자료 권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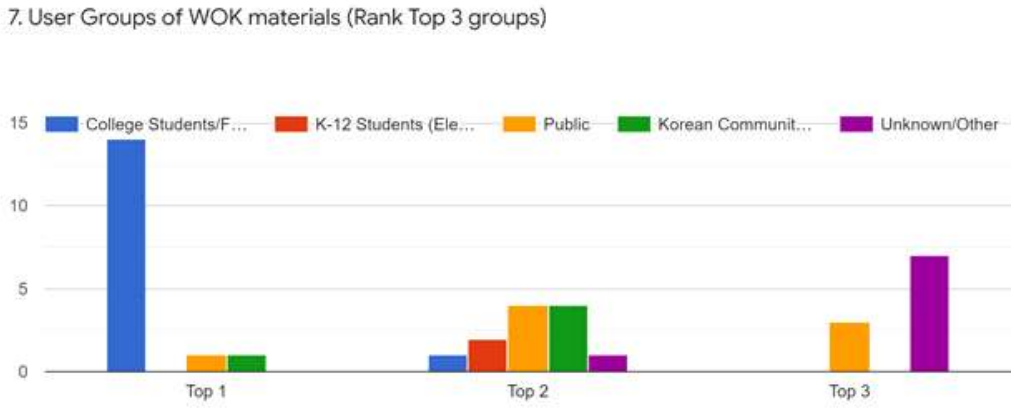
- 한국자료실 자료의 이용도를 파악하기 위해 일일 이용자료 권수를 질문하였다. 조사 결과(N=15), 한국자료실 이용자료 수가 하루 평균 10권 이하인 것으로 응답한 기관이 67%(10개관)였다. 반면, 30권 이상으로 응답한 기관은 인도의 델리대학으로 이용자 수가 많은 것에 상응한 이용률로 보였다.



[그림 Ⅲ-4] 2020년도 설문조사 한국자료실 일일 이용자료 권수

⑦ 한국자료실 이용자 그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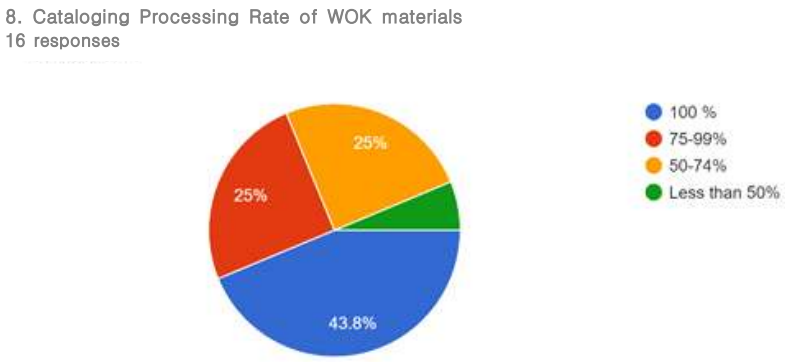
- 한국자료실의 주요 이용자층을 파악하기 위해 주 이용자 그룹을 질문하였다. 조사 결과(N=15), **응답한 15개관 모두 주 이용자 그룹이 대학의 학생들과 교수진 그룹**이라고 응답했다. 그 다음으로 일반 대중(8개관), 한국 지역주민(5개관), 초중고 학생(2개관) 순이었다. 이용자 그룹을 정확하게 알 수 없거나 기타 이용자(8개관)라고 응답한 경우도 적지 않아, 대학소속 이용자에 못지않게 일반 이용자도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림 Ⅲ-5] 2020년도 설문조사 한국자료실 이용자그룹

⑧ 자료의 목록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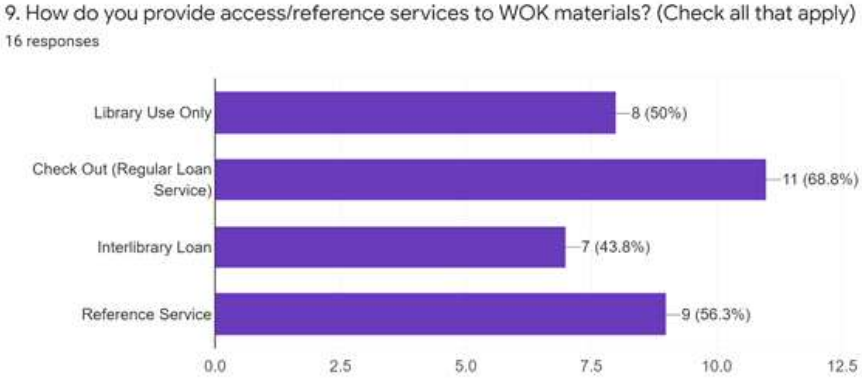
- WOK 자료실에서의 자료 관리 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자료의 목록 상태를 물어 보았다. 조사 결과(N=16), 입수된 한국자료가 100% 전부 정리 완료되어 목록된 상태로 응답한 기관은 모두 7개 기관이었다. 최소 75% 이상 완료된 기관이 4개 기관, 50% 이상 완료가 남은 4개 기관이었고, 1개 기관에서만 절반 이하의 자료 정리가 끝난 상태라고 응답했다. 대부분의 **기관에서 비교적 입수 직후 WOK 자료를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림 Ⅲ-6] 2020년도 설문조사 자료의 목록 현황

⑨ WOK 자료의 대출과 참고서비스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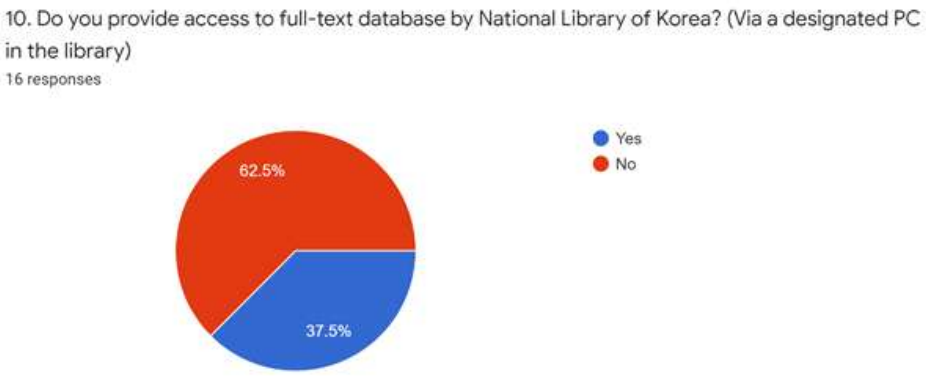
- WOK 도서관의 서비스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대출과 참고서비스 현황을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N=16), 응답한 16개 기관 중 11개 기관이 이용자에게 **관외 대출을 허용함과 동시에 일부 자료는 관내에서만 이용을 제한하고** 있었고, 대출 없이 관내에서만 이용가능하다고 응답한 기관은 4개관에 불과했다. 상호대차와 참고서비스는 응답 기관의 반 정도가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Ⅲ-7] 2020년도 설문조사 한국자료실 대출과 참고서비스 현황

⑩ 국립중앙도서관의 원문데이터베이스 이용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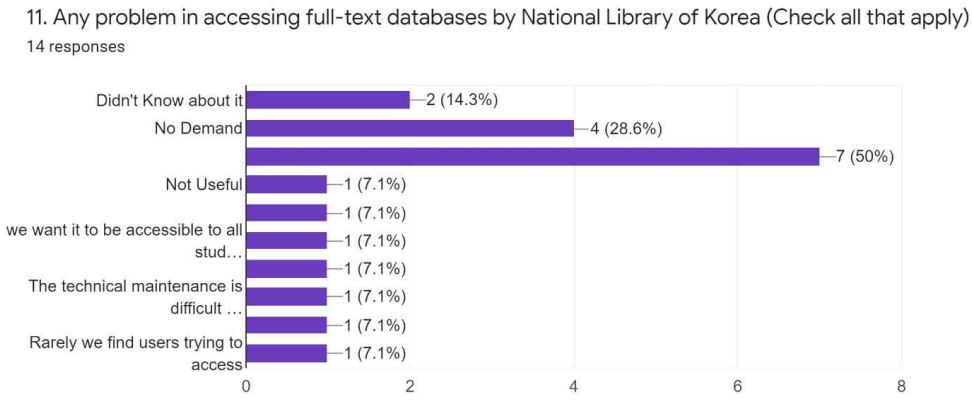
- **국립중앙도서관이 제공하는 원문 데이터베이스 이용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한 결과**(N=16), **응답한 16개 기관 중 도서관 내 PC를 지정**해서 서비스하고 있는 기관은 **10개관**이었고, 나머지 6개 기관은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림 Ⅲ-8] 2020년도 설문조사 국립중앙도서관 원문데이터베이스 이용 여부

⑪ 국립중앙도서관 원문데이터베이스 이용의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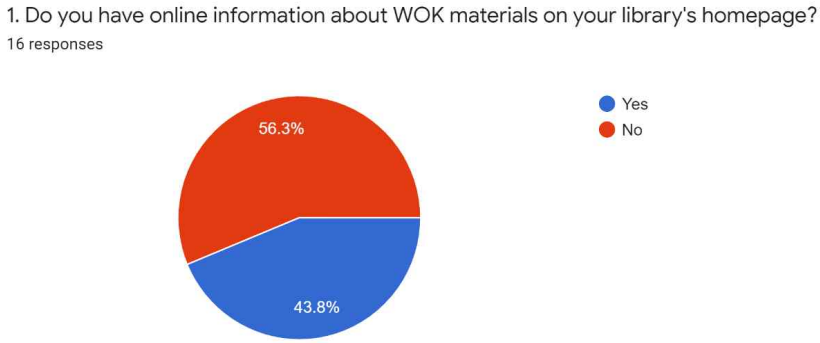
- 국립중앙도서관 원문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는 데에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인지 질문한 결과(N=14), 응답한 총 14개 기관 중 과반이 넘는 **총 8개관**에서 **지정 PC를 설치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유지관리에 기술적 문제가 큰 것으로 응답했다.** 5개 기관에서는 아직 이용된 바 없었다고 보고했고, 2개 기관에서는 국립중앙도서관의 원문데이터베이스 존재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림 Ⅲ-9] 2020년도 설문조사 국립중앙도서관 원문데이터베이스 이용의 문제점

⑫ WOK 홍보와 관련 홈페이지 정보

- **WOK 기관이 자료실에 대해 얼마나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도서관 홈페이지에 한국자료실을 안내하고 있는지 질문하였다. 조사 결과** (N=16),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WOK를 안내**하고 있다고 응답한 기관은 총 8개 기관(56.3%)에 불과했다.



[그림 Ⅲ-10] 2020년도 설문조사 한국자료실 홍보 홈페이지 여부

• 한편, 홈페이지에 안내하고 있다고 응답한 기관들이 제공한 홍보 URL은 〈표 III-18〉에 제시된 바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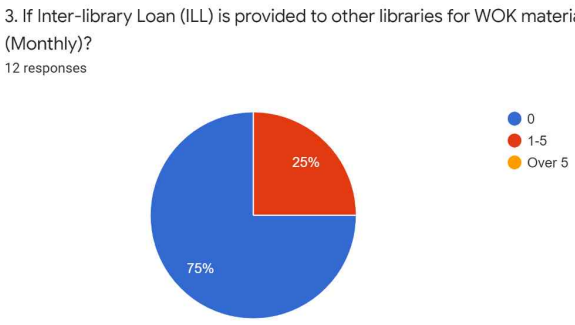
〈표 Ⅲ-18〉 2020년도 설문조사 한국자료실 홍보 홈페이지 주소

폴란드 돌노쉬롱스키 주립도서관	https://www.wbp.wroc.pl/wbp/index.php/pl/?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301
러시아국립도서관 동양센터	http://nlr.ru/nlr_visit/RA2647/Kabinet-Koreyskoy-Kulturyi
스페인 말라가대학	https://jabega.uma.es/discovery/search?vid=34CBUA_UMA:VU1&lang=es
필리핀 아테네오대학	http://rizal2.lib.admu.edu.ph/aiksportal/
벨기에 루벤카톨릭대학	https://www.arts.kuleuven.be/koreanstudies/korean-collection
미얀마 양곤외국어대	https://www.yufl.edu.mm/demo/library-eng/
베트남 호치민인사대	http://lib.hcmussh.edu.vn https://opac.vnulib.edu.vn
이탈리아 로마 라 사피엔차대학	https://web.uniroma1.it/bibiso/sala-coreana/sala-coreana

⑬ WOK 자료의 상호대차

• WOK 자료를 타 대학에 상호대차 서비스하고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N=12), **응답 기관의 75% 이상이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고, 상호대차 서비스를 하는 3개관 모두 월 1~5회 정도 타 기관에 대출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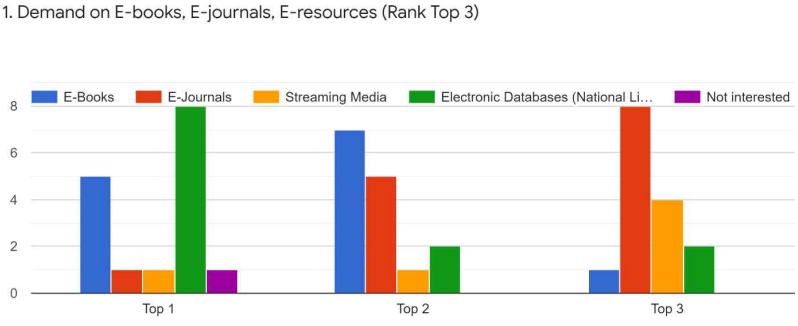
• 상호대출 신청 기관으로는 스페인 마드리드의 Rey Juan Carlos University, 인도 델리의 JawaharIal Nehru University와 Jamia Millia Islamia, 이탈리아의 Biblioteca Dell'Istituto Universitario Di Lingue Moderne(IULM)과 Universita Degli Studi Di Trento Direzione Ricerca E Sistema Bibliotecario Di Ateneo 가 있다.



[그림 Ⅲ-11] 2020년도 설문조사 한국자료실 상호대차 현황

⑭ 전자자료에 대한 잠재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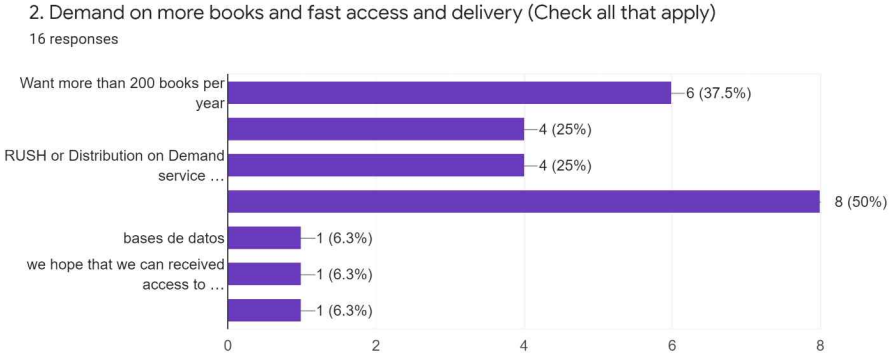
- WOK 자료실에서는 현재 전자자료 서비스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전자자료에 대한 이용자 요구가 높을 것을 감안하여 WOK 기관에 자관의 전자자료별 이용자 요구 수준을 질문해 보았다. 조사 결과(N=16), 1순위로 가장 많이 응답한 전자자료는 단연 국립중앙도서관 원문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 데이터베이스로 나타났다. 우선순위 1순위에서 3순위까지를 살펴보면, 전자 저널(14개관), 전자책(13개관), 국립중앙도서관 원문데이터베이스 포함한 데이터베이스(12개관)가 모두 균등하게 중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결과는 WOK 자료실이 **전자자료에 대한 이용자 수요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Ⅲ-12] 2020년도 설문조사 전자자료에 대한 잠재요구

⑮ WOK 자료 지원 만족도

- **WOK에 제공되고 있는 자료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해 보았다. 조사 결과**(N=16), **응답한 도서관의 50%(8개 기관)가 현재의 한 해 200권 자료 지원의 프로그램에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이와 함께 자료 지원에 대한 개선 요구가 함께 조사되었는데, 200권 이상의 자료 지원(6개 기관), 연 1회 이상의 횟수로 보다 신속한 신간자료 지원(4개 기관), 필요에 따른 즉시 지원(4개 기관)을 희망하고 있었다. 현재 연 1회 200권으로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형태를 벗어나, 기관 특성에 맞는 보다 빈번하고 **맞춤화된 자료지원 서비스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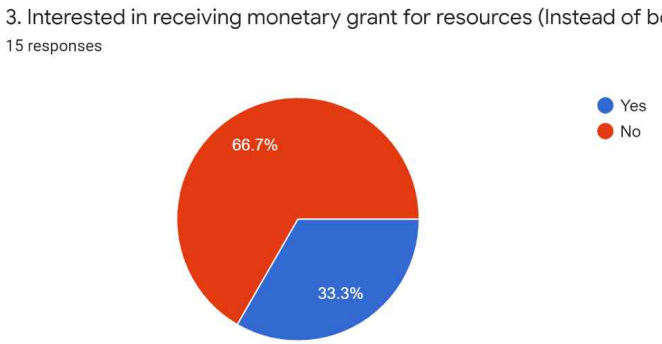


[그림 Ⅲ-13] 2020년도 설문조사 한국자료실 자료지원 만족도

⑯ 현금 자료지원

- WOK와 유사한 기관에서 제공되는 현금 자료지원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현물 책지원이 아닌 지원금 형태의 **현금지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해 보았다, 조사 결과**(N=15), **10개 기관(67%)에서는 관심이 없다**고 답변했다. 반면 현금 지원을 희망하는 기관은 총 5개 기관으로 조사되었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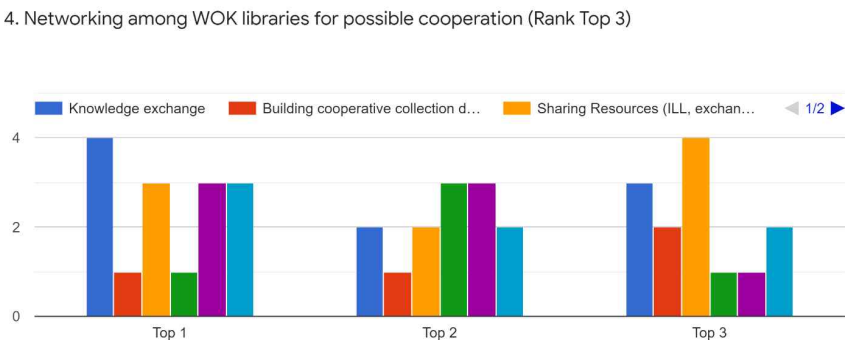
데, 필리핀의 아테네오 대학, 중국의 북경대학교,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도서관과 모스크바 국립도서관, 그리고 인도의 델리대학 등이다.



[그림 Ⅲ-14] 2020년도 설문조사 현금 자료 지원

⑰ WOK 자료실 간의 네트워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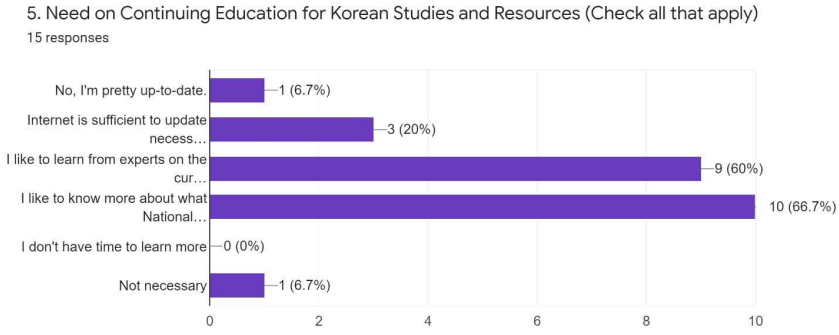
- 북미 지역과 유럽에서 한국학 도서관 간의 활발한 협력이 모범이 되어 있는 점에 착안하여, WOK 자료실 간의 협력이 어떤 분야에서 필요한 지 조사해 보았다. 조사 결과(N=16), 다양한 분야에 고른 분포로 답변이 나왔다. 우선 **정보 지식 교류(9개관)와 상호대차를 통한 자료 공유(9개관)가 공동으로 가장 많이 관심을 보인 협력 분야였고, 그 다음으로 분담 목록(7개관), 이용자 참고 서비스(5개관), 공동 장서개발(4개관) 순으로 응답했다.** 참고로 네트워킹에 관심이 없다고 응답한 기관으로, 미얀마 양곤 외국어대학, 러시아 국립도서관 동양센터, 벨기에 루벤카톨릭대학, 스페인 말라가대학 등이 있었다.



[그림 Ⅲ-15] 2020년도 설문조사 한국자료실 간의 네트워킹

⑱ 한국자료 관련한 재교육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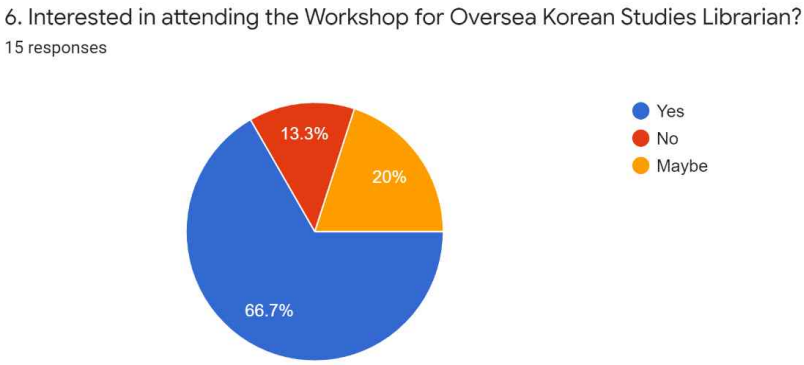
- WOK 자료실 운영의 핵심 요소 중 하나는 그 자료실 담당자의 운영 역량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은 매우 중요하다. 이에 WOK 자료실의 자료관련 재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질문한 결과(N=15),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67%)이 한국자료의 근황을 파악하고 업데이트를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를 희망**했으며, 특히 국립중앙도서관으로부터 도움 얻기를 희망했다. 반면, 인터넷을 통해서 충분한 자료를 얻는다고 답변한 기관(3개관), 현재 자신의 상태에 만족(1개관)하거나, 도움이 필요 없다고 응답한 기관(1개관)도 소수 있었다.



[그림 Ⅲ-16] 2020년도 설문조사 한국자료 관련한 재교육 필요성

⑲ 국립중앙도서관의 해외한국학사서워크숍 참여 의향

- **WOK 자료실 담당자 재교육과 네트워킹의 일환으로, 국립중앙도서관의 해외한국학사서워크숍에 참석할 의향**이 있는지 질문해 보았다. 조사 결과(N=15), 전체 응답자의 67%(10개관)가 참여의향이 있다고 답변했고, 벨기에, 독일, 이탈리아 대학의 사서도 아마도 참석할 것이라 했으며, 스페인 말라가 대학과 엘살바도르 대학에서 워크숍 참석에 관심 없다고 응했다. 참고로, 해외한국학사서워크숍 참가자에게 상당한 재정적 지원이 제공된다는 정보는 질문 문항에 언급되지 않았다.



[그림 Ⅲ-17] 2020년도 설문조사 국립중앙도서관의 해외한국학사서워크숍

⑳ WOK 자료실 모 기관의 한국자료 예산 배정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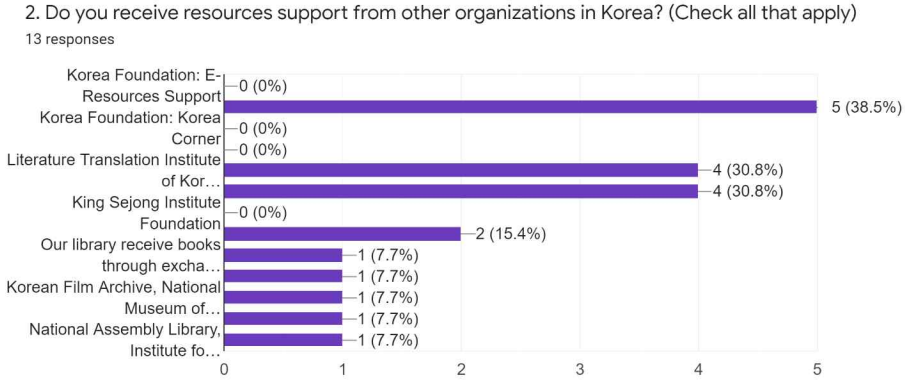
- WOK 자료실을 운영하고 있는 모체 도서관에 한국자료를 위한 예산이 별도로 책정이 되어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조사 결과(N=15), 8개 기관에서는 **적은 액수이긴 하나 예산이 배정되어 있다**고 응답하였고, 7개 기관에서는 전혀 없다고 응답했다.

〈표 Ⅲ-19〉 2020년도 설문조사 자체 기관 내 한국자료 예산

인도 델리대학	It is a minimal amount for all East Asian Courses
러시아 국립도서관 동양센터	small budget this year to buy periodicals
미국 퀸즈공공도서관	Yes
벨기에 루벤카톨릭대학	2000 euro
이탈리아 로마 라 사피엔차 대학	About 1000,00€ for year
베트남 호치민 인문사회과학대학	Yes, we do. The budget is approximately 29.674.000 VND (1.497.344 won)
필리핀 아테네오대학	100,000 pesos only
독일 베를린자유대학	9,000.00 €

㉑ 국립중앙도서관 이외 기관으로부터의 지원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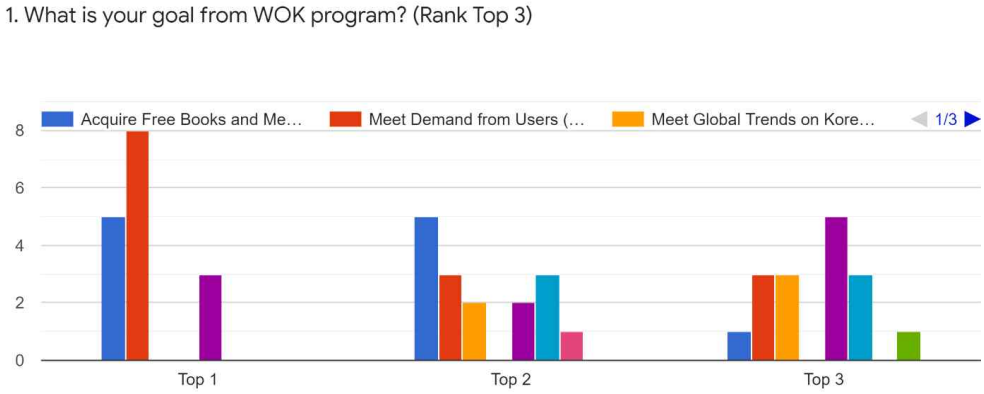
- WOK 자료실들이 현재 국립중앙도서관 이외 다른 한국 기관을 통해 한국자료 관련 지원을 받고 있는지 조사해 보았다. 조사 결과(N=15),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자료지원 사업의 지원을 받는 기관이 5개관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문학번역원 4개관, 한국영화진흥위원회 4개관** 순이었고, 그밖에 국회도서관, 고전문학번역원과 대법원 등도 있었다.
- 기타 기관으로부터 한국자료를 위해 지원받은 지원금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을 하였는데 모두 전혀 없다고 응답했다. 유일하게, 미국의 퀸즈 공공도서관에서 지역 한인 사회로 받은 지원금이 있다고 응답했다.



[그림 Ⅲ-18] 2020년도 설문조사 국립중앙도서관 외 기관에서의 지원여부

㉒ WOK의 궁극적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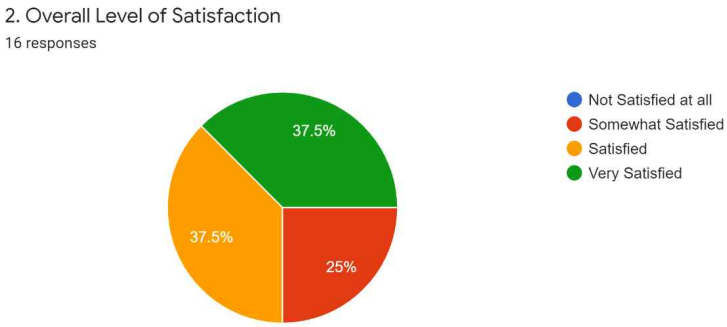
- WOK 도서관에 한국자료실을 통해 달성하고자 했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질문해 보았다. 조사 결과(N=15), 가장 많은 답변은 **학생들과 교수진 이용자를 만족시키기 위함(14개관)이었고, 그 다음으로 한국 책의 무상 수집(11개관), 국립중앙도서관과의 교류(10개관), 한국문화 행사 유치(6개관)** 등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Ⅲ-19] 2020년도 설문조사 한국자료실의 궁극적 목적

㉓ WOK에 대한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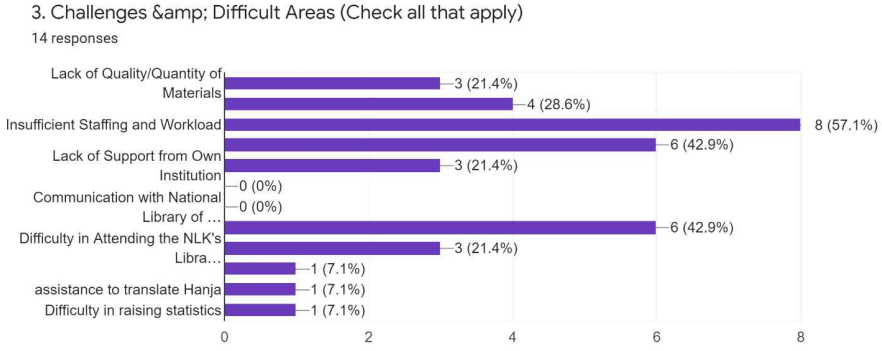
- 한국자료실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4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N=16), 매우 만족한다가 6개관(37.5%), 만족스럽다 6개관(37.5%)으로 **과반수 이상이 만족 또는 그 이상의 긍정적으로 응답했고,** 4개관(25%)에서 만족도가 다소 떨어졌으며, 전혀 만족하지 않는 기관은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Ⅲ-20] 2020년도 설문조사 한국자료실 만족도

㉔ WOK 운영상 문제점

- 한국자료실의 운영에서 어떤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이 있는지 질문해 보았다. 복수 응답이 가능하도록 조사한 결과(N=14), 가장 큰 문제점으로 토로된 것은 **인력 부족으로** 무려 과반수 이상인 8개관(57.1%)이 응답했다. 그 다음으로 **자료 운영을 위해 필요한 기반시설이 부족함을 호소한 기관이 6개관(42.9%), WOK 홍보의 어려움도 6개관(42.9%)**이나 되었다. WOK 자료 이용자 부족도 운영의 실질적인 어려움 중의 하나였으며, 이 외에도 지원자료가 질적 양적으로 기대에 못 미치는 점과 자체 기관내의 관심 부족 등도 운영상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그림 Ⅲ-21] 2020년도 설문조사 한국자료실 운영상 문제점

㉕ WOK 운영 개선을 위한 제안 의견

- 설문의 마지막 질문으로 한국자료실 운영 개선을 위한 의견을 제안해 주도록 요청하였다. 총 7개 기관에서 앞으로 WOK 발전을 위해 개선할 점으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했는데 그 자세한 내용은 〈표 III-20〉에 제시되어 있다.

〈표 Ⅲ-20〉 2020년도 설문조사 한국자료실 운영 개선을 위한 제안 의견

1	한국어 교육 및 WOK 홍보가 잘 되었으면 좋겠다.
2	전자책과 전자저널을 액세스할 수 있으면 좋겠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 도서관 개관이 어려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학생들과 연구자들이 한국어 및 한국문화 자료를 이용하는데 전자책과 전자자료 액세스가 시급하다.
3	WOK를 홍보할 수 있는 브로슈어, 북마크, 노트북 등을 제작해서 알리거나 비디오 튜토리얼 홍보물을 도서관 웹사이트에 올리는 것도 좋다.
4	교수진들이 좀 더 자유롭게 교과과목에 맞춰 자료를 선정할 수 있으면 좋겠다.
5	참고도서들이 지원 자료에 많이 포함되었으면 좋겠다.
6	국립중앙도서관의 데이터베이스의 액세스가 가능하면 좋겠다.
7	프린터, 냉방설비, 컴퓨터 서버, RFID를 이용한 보안장치 등의 지원이 있으면 좋겠다.
8	TOPIK 시험교재 및 어학 교재가 더 많이 필요하다.
9	WOK 도서관 간에 전시회 투어를 기획해서 국립중앙도서관과 WOK 도서관 간의 교류를 증진시키고 WOK 자료를 홍보하면 좋겠다.
10	WOK 자료를 잘 운영할 수 있는 전문 사서가 필요하다.
11	국립중앙도서관에서 WOK에 비치된 서가와 컴퓨터를 업그레이드 지원해 주면 좋겠다.
12	WOK 담당 사서에게 한국어와 영어로 트레이닝을 제공해 주면 좋겠다.
13	국립중앙도서관의 해외 사서워크숍 참석을 위해 여행 경비를 지원해 주면 좋겠다.

4) 한국자료실 담당자 심층 인터뷰

① 조사 방법 및 심층 인터뷰 참여자 특성

- 심층 인터뷰 참여자 모집: 앞서 1차로 진행했던 2020년도 WOK 자료실 설문조사에서 후속 심층 인터뷰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 질문했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총 16개 기관 중에서 심층 인터뷰에 응하겠다고 답변한 8명의 WOK 담당 사서에게 이메일로 연락을 취했고, 그 결과 총 6명과 연락이 닿았다. 그 중 한 사서는 스페인어로만 인터뷰가 가능하여 참여하지 못했고, 총 5명과의 심층 인터뷰를 성공적으로 실시할 수 있었다. 심층 인터뷰 참여자를 소속 기관별 특성별로 보면, 유럽권에서는 베를린 자유대학과 이탈리아 라 사피엔차 대학 도서관, 아시아권에서는 필리핀 아테네오 대학과 베트남 호치민 인문사회대학 도서관, 그리고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도서관이다. 지역별로 유럽과 아시아를 모두 포함하였고, 관종별로도 국립과 대학도서관을 모두 포함하였다. 미주지역의 도서관이며 한국자료실 중 유일한 공공도서관인 미국 퀸즈공공도서관을 인터뷰하기 위해 담당 사서에게 여러 차례 요청하였으나 희망하지 않아 인터뷰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럼에도 **전체 한국자료실 분포에 비춰 봤을 때 인터뷰한 사서들은 지역별·관종별 분포 특성에 맞게 어느 정도 수렴했다고 볼 수 있다.** 참고로, 이 심층 인터뷰 역시 전 세계 코로나 상황이 극심한 2020년에 수행되었으므로, 조사에 적지 않은 제약이 있었다.

- 조사 시기 및 방법: 5개 기관에 대한 심층 인터뷰는 연구진이 이메일을 통해 제공한 Zoom 링크를 통해 실시간 비대면 심층 인터뷰로 진행되었다. 2020년 9월 28일에서 10월 12일 사이에 진행되었고, 각 인터뷰는 약 1시간 가량 소요되었다. 현재 코로나 사태로 인해 도서관을 개관하지 않아 이탈리아 로마와 필리핀 마닐라의 사서는 재택근무 중에 인터뷰에 응했고, 독일 베를린, 베트남 호치민시와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도서관은 개관 시간을 줄여서 운영하

고 있는 상태여서 근무지에서 Zoom으로 인터뷰하면서 진행했다.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는 한국자료실 현장에서 직접 영상 투어를 통해 짧게 자료실을 보여주기도 했다. 심층 인터뷰에 응한 5명의 담당 사서들은 모두 영어가 자국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터뷰에 성심껏 답해주었고, 그 중 한 명의 사서는 미숙하나 한국어로 인터뷰를 진행하는 성의도 보여주었다.

② 조사 내용

- 심층 인터뷰에서 집중적으로 다룬 내용은 한국자료실 개관 배경, 담당사서의 WOK 업무 및 기타 담당 업무, 전자자료에 대한 구체적인 수요 및 국립중앙도서관 원문데이터 베이스 이용 현황, 기관의 한국학 프로그램 상황, WOK 담당 사서 간의 네트워크 및 파트너십의 필요성, 국립중앙도서관 해외한국학사서워크숍 평가 및 향후 참석의향, WOK 홍보 방안 및 미래 발전 방안 제안 등을 포함했다.

③ 조사 결과 개괄

- 심층 인터뷰에 참여한 기관마다 WOK 운영 및 관리가 조금씩 다른 면이 있지만, 대체로 모두 한국자료실을 기관 내 도서관에 설치한 것을 매우 만족해하고 있었다. **한국자료실이라는 물리적으로 구분된 공간이 주는 장점을 잘 활용**하고 있었고 자료뿐만 아니라 공간 내에 비치된 시설과 설비를 기반으로 이용자를 쉽게 유치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서비스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자료실 개관 이후 점점 낙후되어가는 설비와 가구 등도 교체**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한국자료실들을 심층 인터뷰한 결과, 기대 이상으로 해외에서 한국자료실이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었고, 앞으로도 지속적이고도 개선 발전된 지원이 절실함이 확인되었다.

- 특히 주목할만한 점으로는 WOK 사서들을 위해 전문 교육 프로그램이나 자료에 대한 지식을 함께 공유하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어 이용자에게 서비스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된다면, WOK 프로그램의 질적인 향상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었다. 한국자료실을 제대로 운영하고 서비스하는 데 있어서 **담당 사서의 자질과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재확인되었다. 특히 **지역별·관종별로 WOK 사서들 간의 네트워크나 파트너십**을 구성해서 사서들 간의 업무를 교류한다거나 자료 및 참고봉사 서비스를 함께 실현해 가는 것도 실질적으로 고려해 볼 만한다.

- 사서들이 업무 수행 중 부딪치고 있는 가장 큰 고충으로는 WOK 자료를 다루기 위한 **한국어 구사 능력과 한국에 대한 지식이 있는 전문 인력이 부족한 상태라는 점이었다.** 이 문제를 담당사서 스스로 인지하고 있었고, 대부분의 한국자료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이기도 했다. 해외 사서들을 위한 한국어 교육이나 해외 한국학사서 워크숍의 내용을 영어나 그 외의 언어로 제공해서 더 많은 사서들이 참석하게 하거나, 사서들을 위해 웹 기반 튜토리얼을 제작, 공급해 주는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었다.

- 기존 해외 한국학사서를 위한 **INKSLIB의 사이트를 적극 활용하고 발전시킬** 필요가 크게 부각되었다. **워크숍 참석**을 돕기 위해 한국에서 개최하는 대신 (또는 격년으로) 해당 지역에서 지역별 사서들을 모아 개최하는 방안, 워크숍 참석을 위한 여행 경비를 지원해 주는 것 등의 제안도 있었다.

- 한국자료실의 자료가 갖는 중요성으로 파악된 공통적인 사실은 **한국어 학습을 위한 언어 수업 용도로 활용하는 학생들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점**이었다. 물론 그 외 한국 문화 역사 및 다른 주제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언어 수업을 듣는 학생들의 한국자료실 방문이 주를 이루고 있었고, 자료를 찾는 면에 있어서도 언어 자료가 우선시됨을 알 수 있었다. 한국자료실의 이용은

해당 기관의 학생들뿐만 아니라 주변 대학 및 근방에 있는 한국자료 이용자 모두에게 중요한 거점이 되고 있는 점도 한국자료실의 중요한 역할임을 발견할 수 있었다.

④ 기관별 심층 인터뷰 세부 응답 내용

(1) 베를린 자유대학 (2020년 9월 28일 오전 7시, 소요시간: 60분)

-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 도서관의 WOK 담당 사서인 릴리안 스퍼(Liliane Sperr)씨의 경우에는 이 대학 출신으로 한국어를 배웠던 학생에서 시작해 사서직으로 근무하게 된 배경을 가지고 있다. 독일 내에서는 한국학 사서로 유일하며, 처음에는 파트타임으로 일하기 시작했고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사서직 지원을 5년간 받아 풀타임이 된 특이한 사례이다.**

- **유럽 내에서 한국학 전담 사서들의 네트워킹을 위해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지원**을 받아 2년 전에 베를린자유대학에서 첫 모임을 가졌고, 두 번째 모임은 영국의 쉐필드 대학에서 개최해 20명 이상의 한국학 사서들이 모여 자료 정보 교환 및 업무 경험을 공유하는 등 유익한 시간을 가진 경험이 있다. 2020년 모임은 코로나로 인해 안타깝게 취소된 상태이다.

- 국립중앙도서관의 해외한국학사서워크숍을 통해 WOK 사서들 간의 교류를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며 매해 사서들의 워크숍 참석이 어려우므로 지역별 대표가 한 명씩 참석해 새로운 정보를 입수해서 지역 사서들과 공유하는 방법도 하나의 아이디로 제시하였다. 참고로 릴리안 스퍼씨는 모두 총 3회에 걸쳐 국립중앙도서관 해외한국학사서워크숍을 꾸준히 참석해서 재교육의 시간을 가진 바 있다.

- WOK 홍보 방안으로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전시를 기획할 것을 제안하였는데, WOK 도서관을 중심으로 투어 전시를 기획하여 한국에 관한 홍보 및 WOK 프로그램을 부각시키는 것을 제안하였다.** 각 도서관에서 자체적으로 전시를 준비하는 것은 힘들므로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기획해 주거나 국립중앙도서관에서 했던 전시를 그대로 활용해 투어에 이용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하였다.

(2) 이탈리아 라 사피엔차 대학(2020년 9월 30일 오전 7시, 소요시간: 60분)

- 이탈리아 로마 라 사피엔차 대학의 오리엔탈 도서관에서 아랍어 전문 사서로 일하는 안토넬라 펠러리니(Antonella Fellerini)씨는 한국어를 전혀 모르면서도 WOK 담당 사서로 한국자료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국립중앙도서관 외에도 한국국제교류재단을 통해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한국자료 지원을 받았으며, 한국영화진흥위원회를 통해서는 영화 자료를 기증받아 한국자료실 내에 함께 비치해 두고 있다. 오리엔탈 도서관 중에서 영화자료로는 한국자료가 가장 월등하다고 평가했다.

- WOK 자료의 목록을 위해 여러 나라의 다양한 서지데이터를 참고하고 있었고, **목록에 필요한 마크 레코드에 로마자 변환과 영어 번역된 서지사항 등의 도움이 절실함**을 호소했다.

- **WOK 홍보를 위해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북마크, 연필, 작은 메모노트 등의 기념품이나 상품(goods)** 등을 제작해 제공하여 한국자료실을 방문하는 학생들에게 배포하는 아이디어를 제안하였다. 영상이나 책자의 형태로 WOK 관련 홍보물을 만들어 이용자들에게 제공할 것도 함께 제안하였다.

(3) 필리핀 아테네오 대학(2020년 9월 30일 오후 6시 30분, 소요시간: 60분)

- 필리핀 마닐라에 소재한 아테네오 대학 도서관의 매리 그레이스 페브라(Mary Grace Febra)씨는 코로나로 인해 현재 도서관 문을 닫고 있는 상태라서 주필리핀 한국문화원에 전달된 국립중앙도서관의 최신 한국자료조차 입수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사정을 전했다. **팬데믹으로 인해 전자 자료에 대한 수요와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으며, 특히 관내에서만 이용 가능한 국립중앙도서관의 원문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PC 한 대에 국한하지 않고, 이용자가 자유롭게 집에서도 접속할 수 있도록 오픈해 줄 것을 피력했다.

- 필리핀의 특수한 사항으로는 **필리핀 정부 주도 하에 2018년부터 한국어 수업을 고등학교에서 실시해 한국어 관련 자료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 이로 인해 아테네오 대학 한국자료실을 이용하기 위해 한국어를 공부하는 많은 주변 학생들이 자료실을 방문해서 이용하고 있음을 보고했다.

(4) 베트남 호치민 인문사회 대학(2020년 10월 12일 오후 8시, 소요시간: 64분)

- 영어 인터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총 3명의 사서(Hang Bui Thu, Tha Le Thi, Anh Vu Nguyen)들이 한 자리에 모여 그룹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의사소통에 다소 문제가 있긴 했으나, 한국자료실에 대한 열정과 관심만은 어느 도서관에 비해 뒤지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WOK 자료 지원에 있어 현재 200권보다 더 많은 수량의 자료지원을 희망했다. 특히 **한국학 관련 교과과정에 필요한 자료들을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추가로 지원해 주기를 바라고 있었는데,** 대학 내에 개설된 다양한 한국관련 수업을 위해 현재 자료지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보고했다. 또한 WOK 자료는 전부 관내에서만 이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자료별로 한 권씩만 소장하고 있기 때문에 대출하지 못하므로 **국립**

중앙도서관에서 복본을 제공해 준다면 대출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했다. 전자자료에 대한 수요도 적지 않음을 강조했다.

- 호치민 인문사회대학은 베트남 국립대학 중 유일하게 한국자료실이 설치된 곳이며, 베트남 국립대 중앙도서관에서도 WOK 분관 같은 자료실을 설치하기 위해 현재 노력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WOK가 설치된 하노이의 베트남 국립도서관과의 연계를 강화하거나 **주변 아시아 지역 특히 태국, 필리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주변 국가와 한국자료실 관련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5)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도서관(2020년 10월 1일 오전 7시, 소요시간: 52분)

-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도서관의 WOK 사서인 티머 아크메토브(Timur Akhmetov)씨는 어머니가 한국인인 한국계 러시아인으로 한국어를 어느 정도 구사해서 한국어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도서관은 WOK 중에 가장 최근인 2019년에 설치된 한국자료실이다. 모스크바의 국립도서관 WOK 자료실과는 아직 네트워킹이 없는 상태였고, 유럽 내의 한국학 사서들 간에 마련된 워크숍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고 있었다. **국립도서관이기 때문에 대학도서관 사서 네트워크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 티머 아크메토브씨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개최한 해외한국학사서워크숍에 참석했었고 앞으로도 계속 참석을 희망하고 있으며, **국립도서관 간의 교류를 위한 모임**이 따로 있다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현재 모기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귀중자료(예, 북한신문)를 디지털화해서 앞으로 이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계획 중에 있다. 향후 WOK 기관들과 한국관련 귀중서 발견 및 디지털 자료 구축을 위한 국립중앙도서관과의 협력이 필요함을 피력했다.

- 현재 WOK 자료실 내에는 DVD 플레이어가 없어서 영화를 관람하고 싶은 이용자들이 관내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기기도 제공**해 주기를 희망했다. **국립도서관이지만 주변 대학의 한국어 강의를 듣는 학생들이 한국어 능력시험 준비를 위해 자주 이용하고 있는 상태임을 전했고,** WOK에 대해서는 매우 만족하고 있다고 했다.

5) 재외 한국공관(대사관, 한국문화원) 관계자 심층 인터뷰

① 조사 목적

- WOK는 2007년 개실을 시작한 이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모두 12개관, 유럽에 10개관, 중동에 5개관, 아메리카에 3개관을 포함 현재까지 총 30개 해외 도서관에 설치되었다. 이 사업의 특성상 재외 한국공관들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따라서 이들 기관의 역할과 사업 참여목적 및 사업에 대한 평가, 그리고 사업 진행과정에서의 어려움 등을 파악하기 위해 관계자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30개관 중 총 4개 기관이 현재 종료되었는데, 아시아와 중동에 각각 2개관씩 있다.)

② 조사 방법

- 2020년 9월 7일, 국립중앙도서관으로부터 한국자료실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재외 공관에 인터뷰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한 후 이메일을 통해 직접 접촉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총 4개 공관에서 심층 인터뷰에 응함으로써, 2020년 9월 9일에서 9월 24일까지 Zoom 또는 서면 방식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인터뷰 당 약 1시간씩 소요되었다.

- 참고로 인터뷰 신청을 위해 따로 연락을 취한 곳은 총 15개의 공관이었는데

업무가 너무 바빠서 인터뷰에 응하지 못한다는 연락을 취한 곳도 있지만, 대부분 답변 자체를 하지 않았다. 코로나로 인해 업무가 원활하게 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현재의 **WOK 사업방식에서 재외 공관의 의존도는 절대적인데, 재외 공관의 높은 무반응을 고려할 때 업무 진행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감지되며 이는 사업방식에서의 개선이 요구되는 지점이기도 하다.**

③ 조사 내용

- 인터뷰의 핵심 내용은 각 공관의 특성에 따라 다소간의 변형을 하며 질문을 하였다. 공통적으로 적용된 질문으로, 한국자료실 개실에 있어서 공관의 역할과 목적 및 효과, 신규 기관 선정 과정 및 운영에서의 애로 사항 및 개선방안, 자료실 향후 발전 방안 및 해외 한국학 증진을 위해 국립중앙도서관이 WOK 사업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질문했다.

④ 조사 결과 개괄

- 한국자료실 개관에 있어서 재외 한국공관의 역할은 예상대로 매우 중요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재외 공관은 한국자료실 설치를 위한 수요조사의 공문을 받는 것부터 시작해서 지역 내 한국학의 수요가 있거나 국립도서관으로서 한국자료를 지원할 만한 적합한 곳을 파악하고 선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즉, 국립중앙도서관과 해외 기관 간의 가교역할을 수행해 해외 주요도서관 내 한국자료실 설치를 위한 협조와 협력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고 그 국가에서 한국학 프로그램을 발전시키는데 기여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한국자료실 설치 이후에도 국립중앙도서관으로부터 지원받은 자료를 해외 도서관에 매년 전달해 줌으로써 WOK 사업이 원활하게 운영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다. **재외 공관의 적극성은 WOK 사업의 성패와 직결**된다고 판단된다.

- 특히 해외 곳곳에 뻗어 있는 32개의 **한국문화원은 같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인 국립중앙도서관의 WOK 사업 취지와 내용을 이미 잘 파악하고 있어서 사업을 비교적 쉽게 착수**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국문화원 안에 도서관 시설을 구비하고 있는 곳이 대부분이라서 업무의 유사성으로 인해 WOK 자료실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여지가 컸다. 예를 들면 한국문화원의 도서관 담당자가 WOK 기관의 자료 선정에 도움을 준 사례가 그러하다.

- 앞으로도 한국문화원 및 재외 공관과의 긴밀한 협조가 국립중앙도서관의 WOK 사업의 성공을 위해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재외 공관은 국립중앙도서관이 담당해야 할 역할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이는 재외 공관의 참여는 그 기관의 본연의 업무가 아니고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것으로,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자체적으로 실무자급의 정기적인 현지 방문을 통해서 사업을 평가하고 현황을 파악해 나가는 노력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실제 현장의 소리를 주의 깊게 듣고 파악해서 WOK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갈 담당자의 의지와 판단이 필요하다. 특히 **한국자료실 담당 사서의 전문 지식을 강화하는데** 국립중앙도서관의 도움 없이 재외 공관에서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많기에 국립중앙도서관의 주도 하에 여러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문화원의 도서관 직원을 활용하는 방법, 지역별 특성에 맞추어 **한국문화원과 좀 더 긴밀하게 WOK 프로그램 발전 방안을 마련할 것이 필요하**다.

- 재외 공관의 입장에서 볼 때 WOK 사업을 유사 사업인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코리아 코너 사업과 하나의 사업으로 통합,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일 수 있다. 그래서 일부 공관에서는 공관 자체적으로 대학 등의 학술기관에는 코리아 코너를 설치하고, 일반 국공립 도서관에는 WOK를 설치하는 등 기관 특성에 따라 구분하여 지원하는 방식도 존재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원 혜택을 받는 현지 도서관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여러 루트를 통해 유사한 중복 지원을 통

해 서비스 환경을 개선할 수 있으므로 전혀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는 견해도 존재한다.

⑤ 재외 공관별 심층 인터뷰 세부 응답 내용

심층 인터뷰가 진행된 4개의 재외 한국공관 담당자와 인터뷰 핵심 내용을 기관별로 요약하였다.

(1) 헝가리 한국문화원(2020년 9월 9일 오전 7시, 소요시간: 60분)

- **국립중앙도서관은 한국자료실 지원 안내 공문을 공관 외에도 여러 방면으로 배포 홍보하여** 한국자료실에 대해 더 많은 연구 기관들의 관심을 유발할 필요성이 있다. 원활한 행정처리를 위하여 공문 발송 시기를 최대한 일찍 진행하여 재외 공관에서 좀 더 넉넉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현장 조사 및 사전 답사 등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희망한다.

- 한국자료실은 한류 대중문화로 시작해 한국에 대한 관심이 심화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공간이다. 한국문화 사업도 중요하지만 한국자료실이 병행되어야 궁극적으로는 한국학으로 성장할 수 있고 문화 파급력이 커지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공관에서도 한국 문화와 한국 자료가 상호 보완해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정부 각 부처별로 많은 개별 사업을 해외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서로 연계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WOK 사업은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코리아 코너 사업과 유사한 것이 많지만,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가진 방대한 자료적 자원과 전문적 사서 인력을 적극 활용하면 훨씬 더 유익한 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자료지원 외에 인력지원 즉 도서관 운영을 위한 표준 모델이나 컨설팅을 제공해서 자료를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것도 시급하다.

(2) 필리핀 한국문화원(2020년 9월 10일 오후 7시, 소요시간: 70분)

- 필리핀 한국문화원에서는 WOK 자료실이 설치된 아테네오 대학에 실질적인 운영 지원을 상당 부분 하고 있었다. 특히 WOK 담당 사서의 한국어 지식이 전혀 없기 때문에 **한국문화원 내부 직원(문헌정보학과 전공)이 자료실 설치 이후 정기적으로 받는 WOK 자료를 목록하고 번역하는 일을 맡아 돕고 있었다.**

- 한국자료실 외에도 한국문화원에서는 아테네오대학의 한국학과와도 연계해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정기적으로 한국학세미나 등을 지원하고 있었다. 현재는 주재국 내에 한 기관만으로 한국자료실이 한정되어 있는데, 필리핀 내 다른 지역에 추가로 한국자료실을 설치할 필요성도 크다.

- 현재 해외 한국문화원이 국유화 이전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에 앞으로 문화원 내 도서관을 발전시킬 가능성이 높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 해외 한국문화원 도서관에 전자 자료를 포함해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한국자료 전자도서관을 구축하는 지원을 구상해 줄 것을 희망하고 있었다.**

(3) 베트남 한국문화원(2020년 9월 24일, 서면 인터뷰)

- 서면 인터뷰에 따르면 베트남 최고 국립도서관에 한국자료실을 설치한 것은 대한민국의 국가 이미지와 위상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반면, 인터넷을 통한 정보 취득이 수월한 현재, 베트남에 많은 도서관을 대상으로 한국자료실을 설치할 시급성, 필요성, 중요성은 그리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오

히려 **주요 핵심 도서관을 선정해 집중적으로 질적 투자를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자료실 관련해서는 현재 무리 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별다른 제안은 하지 않았다.

(4) 우즈베키스탄 대사관(2020년 9월 21일 오후 9시, 소요시간: 60분)

- 우즈베키스탄에는 현재 18만 고려인 동포가 있고 한국기업이 유치되어 있으며 한국비자 발급이 쉽기 때문에 한국 체류 동포가 4만 명 정도 된다. 수도인 타시켄트시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한국어교육원이 있을 정도로 한국어와 문화의 수요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다.** 따라서 우즈베키스탄의 다른 거점 도시 지역에도 WOK 개설이 요구된다고 평가했다.

- **대사관에서 업무를 수행할 때 WOK는 주로 국립도서관 또는 공공도서관 내에, 유사 사업인 코리아 코너는 대학의 학술기관으로 차별화하여 유치하고 있었다.** 현재 우즈베키스탄 내 대학 세 곳에 코리아 코너 설치가 활발히 진행 중에 있다.

-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다른 국가에 비해 **WOK가** 선도적인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이 한국을 벤치마킹해 비슷한 자료실을 개실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 추가적인 지원을 요청한 사항으로 가구 및 설비 등의 하드웨어 측면의 지원 강화가 있었다.

6) 종료기관 조사

① 조사 목적

- WOK 자료실을 개설했다가 5년 협정 기간 만료 후에도 MOU를 맺고 계속 지원을 받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럼에도 일부 기관에서는 지원이 중단되었는데, 이들 기관의 종료 사유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운영 개선이 필요한 영역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② 조사 대상 기관

- 2007년 WOK가 시작된 이래 2020년 말 현재까지 WOK 프로그램이 중단된 사업 종료기관은 총 4개 기관이다. 종료된 기관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아시아에서 중국 상해 장녕도서관(2008 개실)과 인도네시아 국립도서관(2009) 등 2개 기관, 중동 지역에서 이집트 국립도서관(2010)과 아랍에미레이트 아부다비 국립도서관(2014) 등 2개 기관이 있다. 현재 리모델링이나 다른 이유로 일시 중단된 도서관은 아시아 지역인 몽골 국립도서관(2009)과 태국 국립도서관(2007) 2개 기관이 있다. 모두 5년 지원 이후 종결 및 중단된 상태라 할 수 있다.

③ 조사 방법

- 종료된 4개 기관 모두에 대한 정보는 국립중앙도서관으로부터 제공받은 내부 자료에서도 모두 누락되어 있었고, 해당국 도서관의 담당 직원이나 해외 한국공관의 연락처조차 남아 있지 않아 조사할 방법이 묘연했다. 직접 도서관에 연락을 취하거나 자료실 설치에 관여했던 해당 국가 내 한국문화원에 모두 연락을 취해 보았으나 답변을 받을 수 없었고, 연구진의 인적 네트워크를 모두 활

용하여 연락을 취하였고, 그 중 일부에서만 응답해 조사를 진행할 수 있었다.

- 조사된 두 곳 중 유일하게 아랍에미레이트 아부다비에 있는 한국문화원으로부터 간단한 서면 답변을 받을 수 있었다. 한편 중국 상해 장녕도서관에 대해서는 복단대에 현재 재학 중인 한국인 유학생을 통해 전화 통화 및 2차례의 현장 방문을 통해 담당자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현장 사진들을 제공 받아 현황을 파악할 수 있었다. 더불어 한국 소재 대학의 중국인 교수가 연구진을 대신하여 몇 차례 전화 연결을 시도하여 담당자를 파악하였고 그 결과 전화 인터뷰를 대신 진행할 수 있었다.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2개관에서는 인터뷰를 할 수 없었다. 인도네시아 국립도서관의 경우, 역시 연구진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담당자를 파악해 인터뷰하고자 했으나, 현재 담당자가 없고 그 내용을 제대로 아는 사서도 없기 때문에 응답을 받을 수 없었다. 이집트 국립도서관의 경우도 비슷한 이유로 인터뷰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다만 인도네시아의 경우, 과거 WOK 자료실을 방문했던 경험이 있는 한국인의 보고에 따르면, 현재 신축된 국립도서관에 WOK 자료실이 존재했으나 한국에 대한 높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자료실만 덩그러니 존재했지 자료를 제대로 관리할 직원이 없어 이용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③ 조사 결과 종합 평가

- **종료 기관 4개관과 현재 잠정적으로 중단된 2개 기관 모두 국공립도서관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대학도서관의 경우 한국학의 교수진과 학생들이 해가 바뀌어도 자연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것과 달리, 국립도서관의 이용자는 불특정 일반인이라는 점에서 WOK 운영을 지속해 나가는 것이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

- 국공립 도서관의 경우 워낙 방대한 자료를 수집하는 **기관 특성상 지역 특수자**

료인 한국자료에 대한 관심이 비교적 낮을 가능성과 한국자료실을 운영할 도서관 인력 또한 부족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무엇보다 한국자료실 설치가 자료에 대한 실질적인 필요성에 기인했다기 보다 국가 기관간의 의례적이고 일시적인 국제교류협력 실적을 만든다는 차원에서 추진되었을 가능성에도 충분히 개연성이 있다고 파악된다.

- 한국자료실의 성공 여부에는 꾸준히 자료실을 찾는 이용자도 중요하지만, 한국**자료실을 유치한 해당국 도서관의 실질적인 관심과 협조 또한 지속 가능한 성장의 중요한 요인으로 파악된다.**

④ 종료 기관별 심층조사 결과

(1) 아랍에미레이트 아부다비 국립도서관

- 아부다비 국립도서관에 한국자료실을 설치한 한국문화원 관계자에 따르면, 비록 WOK 사업이 종료되긴 했으나, UAE 국립도서관과 한국의 국립중앙도서관이 자료실을 개설했었다는 상징적인 면에서 의의가 있다. 사실 다른 공관에서도 비슷한 사업을 시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시작부터 쉽지 않은 사업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 한국자료실 개설의 시작도 어려웠고, 그만큼 **아부다비 국립도서관이 한국자료실에 대한 관심이 매우 저조했다.**

- WOK 사업에 대해 알고 있는 직원이 현재 문화원에 없기 때문에 정확한 종료 사유를 확인할 수 없다. 다만 추측하기로, **아부다비 국립도서관의 비협조와 무관심과 더불어 한국자료에 대한 이용자 수요가 아직 적은 것과 UAE내 전반적인 도서관 이용이 저조하므로** WOK 역시 활발히 운영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그 이유를 파악했다.

- **검증된 이용자와 자료의 수요 없이 한국자료실만 유치했다고 성공적으로 유지되지 못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이다.**

(2) 중국 상해 장녕도서관

- 장녕도서관은 상해 시내 외국 대사관이 많이 주재하고 있는 지역에 소재하고 있고, 장녕도서관 내에 한국자료실과 같이 각국의 자료를 수집해 콜렉션을 구성하고 있기도 하다. 과거 WOK 담당자의 근무지 이동으로 인해 종료 원인에 대해 정확한 파악은 어렵다고 한다. 해당 도서관의 수서와 외국서적 담당 사서에 따르면, **외국서적의 경우 국가기관 검열의 단계를 거친 후 허가된 책에 한해서만 자료가 선정 공개되는 내부 절차 때문에 WOK의 운영과 이용이 중국 상해 장녕도서관에서 원활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

- 다만, 종료는 되었지만 아직도 도서관 8층 외국 서적실 한켠에 국립중앙도서관 기증 자료라는 현판 아래 한국 책이 배치되어 있음을 현장 사진을 통해 확인하였다. 현재까지 서가에 있는 자료들은 대부분 한국 소설류나 외국소설 번역물, 역사 예술분야의 책들이 다수였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회, 역사류의 자료는 많지 않았다. 모두 관내 이용만 가능하고 대출은 허용되지 않으며, 열람이 **가능한 요일과 시간도 매우 제한적이며, 열람 자체도 1층에서 독자증을 유료로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존재하고 있었다.**

- 검열을 통과하지 못한 자료들은 대부분 창고에 쌓여 있는 실정이며, 이에 대해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개의치 않는다면 추후 다시 한국자료실을 재개할 의향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Ⅳ.
사례 조사

1. 국내 유관기관 해외 지원 사업 사례
2. 해외 자국학 지원 사례

Ⅳ. 사례 조사

1. 국내 유관기관 해외 지원 사업 사례

- 대표적인 한국의 해외 한국학 지원기관으로는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문학번역원, 세종학당재단, 국회도서관 등의 기관을 들 수 있다(국립중앙도서관, 2020; 이해영, 양정, 신리리, 2011). 본 연구에서는 해외 한국학, 한국 연구, 한국 관련 자료지원을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는 위의 5개 기관을 중심으로 해외 한국학 지원사업의 전반을 살펴보고자 했다.

- 국내 유관기관의 해외 지원 사업 사례 분석은 국내 관계기관들의 해외 한국자료 및 한국학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이해함으로써 불필요한 중복사업을 최소화하고 상대적으로 효율이 낮은 사업을 파악하여 국립중앙도서관 해외 한국자료실(Window on Korea, 이하 WOK) 사업의 효율성과 차별성을 높이는데 필수적인 부분이다. 또한, 협업이 가능한 국내외 기관들을 발굴하고 유기적 협조체계를 제안함으로써 기관 간 시너지를 높일 생산적 협력방안을 제시하는데 유용하다.

- 위의 5개 유관기관 가운데 인터뷰 요청을 승인한 4개 기관의 관계자들과 인터뷰를 2020년 9월 2일부터 23일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수행하였다. 심층 인터뷰에 참여한 기관 관계자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국제교류처 실장, 한국학진흥사업단 사업기획실 실장, 한국문학번역원의 경영기획본부 본부장, 세종학당재단 콘텐츠지원부 과장, 국회도서관 자료수집과 직원 등이었고, 인터뷰별로 45분에서 90분까지 각각 소요되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문학번역원의 관계

자들과는 WebEx를 통한 비대면 심층 인터뷰를, 세종학당재단은 직접 기관을 방문하여 대면 심층 인터뷰를, 국회도서관 관계자와는 서면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 각 기관 관계자 인터뷰와 관련 문헌조사를 통해 조사한 내용을 각 기관별로 아래에 핵심 내용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1) 한국학중앙연구원

- 설립 배경
  -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는 2007년 한국학진흥사업단 설치를 통해 전 세계에 걸쳐 한국학이 지금보다 더 확대되는 것을 기대하며 한국학 진흥사업을 추진한다.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지원하는 큰 규모의 사업들이 이때 시작된다. 해외 한국학지원사업은 한국연구재단(옛 명칭: 한국학술진흥재단)에서 먼저 시작(1993~1994년부터)했는데, 2000년대 초반에 한국학중앙연구원으로 이관되어서 관리하게 된다.

- 주요 사업
  -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해외 한국학 지원 관련 주요 사업은 2개 부서에서 나누어 각각 관리된다. 이를 도식화해보면 [그림 Ⅳ-1]과 같이 분류된다.

① 대규모, 중장기, 거점 양성 위주의 지원을 하는 한국학진흥사업단 사업
② 소규모, 단기, 개인 연구자 직접 지원 형태로 주로 운영되는 국제교류처(출연사업)의 사업

[그림 Ⅳ-1]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한국학 지원 사업(2020. 10. 기준)

- 특히,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한국학진흥사업단의 경우 세계적 한국학 성과 산출을 위해, 세계 유수의 대학교에 단계별 지원 사업을 하는 것이 특징이다. 대학별로 한국학의 불모지 단계(씨앗단계)부터 시작하여 안정화 단계(2020년 신설), 심화 단계(중핵사업) 단계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으로 맞춤형 연구지원을 한다. 2006년부터 사업을 진행하여, 2020년 10월 기준 현재까지 126개의 씨앗형 대학과 62개의 한국학 심화단계(중핵) 대학들을 지원해왔다(한국학진흥사업단, 2020).

- 뿐만 아니라, 연구팀을 지원하는 한국화 세계화 랩 사업과 해외 권역별 한국학 연구소 육성 및 지원하는 한국학 전략연구소(2020년 신설 사업, 연 1개 기관만 선정하여 지원) 사업 등 다양하게 해외 한국학 발전을 위해 재정적으로 지원한다. 즉, 씨앗형==〉안정==〉중핵, 세계화랩, 한국학 전략연구소로 전개되는 발전단계에 따라 사업목적, 지원방향, 기대효과, 지원예산, 지원분야, 지원대상, 지원기간(3년 또는 5년) 등이 상이하며 근본적으로 사업목적에

따른 예산 규모가 다르게 배정되고 있다.

- 한편,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국제교류처는 소규모, 단기, 개인 연구자들을 지원한다. 한국학의 질적 수준 제고와 국제적인 확산을 위해 해외 한국학 연구기관 및 연구 인력의 제반 학술활동을 지원하고 연구진들의 해외 파견을 지원하거나 학술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한국 역사 및 문화 자료개발, 배포에 참여하는 민간단체와 학회 및 연구기관을 선정하여 예산을 지원하기도 한다.

• 예산 규모
- 한국학진흥사업단은 연간 200억, 국제교류처는 연간 20억으로 운영된다.

• 지원사업의 선정기준
- 선정과제를 심사할 때 선정기준은 연구주제의 적합성, 시의성, 세부계획의 체계성,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심사는 2단계에 걸쳐 이루어진다.

① 1단계 전문심사: 어떤 국가에서 신청했는지, 어떤 연구주제로 신청했는지, 전공 등을 다 고려해서, 외부 전문가들로 심사위원단을 꾸려 가장 적합한 곳을 서류 심사한다.
② 2단계 종합심사: 한중연에서 상시 운영하는 위원회 '해외한국학지원사업심의위원회'에서 정책적인 판단을 위해 종합심사를 거치고 최종 선정한다.

• 특장점

① 한국학 지원에 집중되어 타 기관들과의 차별성 확보
- 한국학중앙연구원(이하 한중연)이 타 기관과 차별화된 점은 사업 자체가 한

국학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국내에서 한국학에 집중된 연구원은 한중연이 유일무이하다. 석·박사 과정생 양성이 가능한 대학원도 설치되어 있다. 정부 차원에서 해외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학 학술지원은 한중연을 단일창구로 쓰기 때문에 차별화되어 있다.

② 지속적이고 반복적이며 적극적인 수요조사

- 한중연에서는 실무자들이 끊임없이 현지 사람들을 만나려는 기회를 만들고 있다. 매년 3~5차례 학술회의 참석(예컨대, 유럽 한국학회, 국제고려학회, 호주나 미국에서 열리는 상징성 있는 학회 등), 출장 등을 통한 반복적이고 빈번한 현지 실사뿐만 아니라, 관계자들이 한국 방문 시 한중연을 방문하는 등 현지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많다. 현지의 고충을 경청하거나 한중연에서 어떤 부분을 지원했으면 좋겠는지 의견을 듣기도 한다. 이러한 과정은 신규과제 등을 정할 때 그들의 요구가 반영된 공모안이 나가기도 하므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는 국립중앙도서관과 차별화되는 지점이라 여겨진다.

③ 체계적인 사업 관리

- 연구계획서 제출, 선발, 과제평가, 결과물 제출까지 관리가 체계적으로 잘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성과가 잘 나오는 편이고, 과제가 선정되어 지원을 받는 사람들도 실제로 효과를 보기 때문에 사업들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경향이 있다. 사업의 관계자들은 한국학 관련 지원 사업들이 안정화 상태에 들어섰다고 자체적으로 평가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이 되도록 노력하는 단계에 있다. 현지에 있는 연구자들의 노력과 자금이 결합되어, 연구자들이 중심이 되어 그 지역에서 한국학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다시 말해 현지에서 계속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지원사업의 최종목표가 된다.

- 한중연은 사업 매년 결과보고서 및 과제 완료 후 평가제도와 관련하여,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공고문에 “선정과제가 완료되면 과제별로 A, B, C, D 네 등급으로 평가하며, 그 결과 C등급의 경우 평가일로부터 향후 3년간, D등급의 경우 평가일로부터 향후 5년간 사업 신청을 제한한다.”라는 평가 제도를 명백하게 명시해 놓고 있다. 이에 대해 관계자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설명한다. 기대에 부응하는 성과가 나오길 기대하지만, 상황에 따라 때때로 기대하는 결과가 못 나올 수도 있고 연 1~2건 정도 안 좋은 등급이 나오는 일도 있기에 최소한의 평가 기준을 가지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대다수 연구자가 계획서대로 완성해 내고 있기 때문에, 이 제도가 연구자들에게 동기부여 및 경각심을 주는 장치가 되고 있다. 연구를 잘 수행하면 매년 수행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제한받기 때문이다. 이러한 체계적인 평가시스템은 국립중앙도서관 WOK 설치 및 지원 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부분이라 파악된다.

•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지원 사업에 대한 요구와 만족도
  - 지원사업마다 매년 공모 경쟁률은 2:1에서 3:1 이상이고, 지원사업의 수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수혜를 받는 기관들의 만족도는 이미 매우 높기에, 한중연에서는 수혜 범위를 더 넓히고 확대하고자 노력한다. 즉, 예산 규모를 늘려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들한테 지원이 더 이루어지기 위해 계획 중이다.

2) 한국문학번역원

• 설립목적 및 목표
  - 한국문학번역원은 한국문학의 발전과 세계화라는 설립목표 아래 2007년도에 설립되었고 설립과 동시에 해외교류사업을 시작하였다. 2020년 현재는 아래

와 같이 구체화된 5대 전략 목표를 토대로 운영되고 있다(한국문학번역원, 2020).

① 세계문학 속 한국문학의 가치 확산
② 한국문학 향유 기회 확대를 통한 세계 독자 확보
③ 체계적인 한국문학 해외소개 기반구축
④ 세계적 수준의 한국문학 전문번역가 양성
⑤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경영혁신

- 예산 규모
  - 한국문학번역원 전체 예산은(경상비 포함) 연간 100억 정도이며, 국제교류사업의 예산은 약 15억이다. 해외사업 참여 인력은 한국문학번역원 본부에서 근무하는 해외사업본부 직원 약 12명이다.

- 주요 사업
  - 한국문학번역원에서 진행하는 사업의 범주를 살펴보면, 설립 초창기에는 주로 해외 대학과의 교류를 중심으로 한국 작가 초청 수업 등의 소규모 행사를 진행한다. 2020년 기준 문학행사 기획 및 진행, 해외 문학축제에 한국 작가 파견, 문학 행사기획 공모심사 및 지원비 지급, 국제도서전 한국문학 행사 전체적 기획, 해외에서 출간된 책에 대한 작가 레지던시 사업, 해외 출판/문학인 초청 사업 등 다양한 해외 교류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2019년에는 100여 건 정도의 교류 사업을 진행했다. 2007년 설립 초창기에는 현지 기관과 직접 접촉하고 협업하는 형식으로 많이 진행했는데, 비중을 조금씩 줄이고 있다. 아무리 기획을 잘해도 현지 사정과 안 맞는 경우도 많이 있게 된다. 현재는 협업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더 많다.

① 원어민 번역가 양성사업: 2008년부터 시작한 교육 사업으로, 7개 언어권(영·불·독·서·러·중·일 한국어과 졸업한) 학부생 20여 명을 초청한다. 시험을 거쳐서 선발하며, 2년 동안 체류비 및 학비를 지원한다. 국내 대학의 석사과정 정도라고 여겨지는 프로그램이다. 문학번역가 양성사업은 다른 관계 기관들은 하지 않는 사업으로, 기관의 본질적 목적과 사명에 충실한 기획이라 할 수 있다. 해외 교류도 중요하나, 번역의 질적인 수준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차별화되어 있다고 본다.

② 한국문학 디지털도서관: 2015년에 오픈한 한국문학 디지털도서관은 외국어 번역서를 전자책으로 서비스하기 위해서 시작되었다. '한국문학 다국어 온라인 정보플랫폼'으로 한국문학 관련 15개 타입 24,654건(2019년 기준)의 다국어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한국문학번역원, 2020). 한국문학 디지털도서관은 한국문학과 관련된 다양한 콘텐츠의 생산과 수집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체계적인 분류와 정리, 효율적인 검색시스템 등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한국문학의 공유와 확산을 위한 플랫폼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어 책, 번역서 각각 두 개의 벤더 업체가 담당한다. 판권을 산 것은 아니고, 이용량(이용자의 수)에 따라 비용을 업체에 지불하고 있다.

③ Hub Library: 2014년부터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문화행사 및 포럼 등을 통해 초청된 해외 문화계 인사를 대상으로 한국문학번역서를 기증함으로써 한국문학의 문화적 교류 및 접점을 만들고 있다. 도서기증 형식으로 41개국 93개 기관에 지원한다. 과거에는 요청이 있는 기관에만 지원했는데, 현재는 확대하여 한국학이 있는 대학, 중앙도서관에 한국학 및 한국문학 관련 도서 등을 지원한다. 한국어 도서를 지원하지는 않고 영어권 책들을 보내고 있다. 책이 나올 때마다 수시로 보내지는 않고, 정기적으로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다. 주로 대학 및 도서관을 잘 운영하는 해외 한국문화원에 자료를 보내고 있다.

- 한국문학번역원의 국제교류사업에서의 차별화
  - 한국문학번역원은 다양한 국제사업을 통해 한국 작가와 한국문학, 그리고 한국 자체를 알리는 것을 넘어 세계문학 안에서 한국문학이 자리매김하고 위상을 확립해나가려고 차별화된 사업을 운영 중이다. 궁극적으로는 정부의 공적인 지원 없이도, 수요 및 독자층이 생겨서 한국문학이 자연스럽게 읽히는 상황을 만드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다.

  - 타 유관기관들은 지원금을 기관에 주고, 알아서 사용하게끔 하는 형식으로 많이 진행하는데, 한국문학번역원은 기획부터 시작해서 개입을 많이 하고, 프로그램을 세심하게 신경 쓴다.

3) 세종학당재단

- 설립 목적과 역사
  - 세종학당재단은 국외 한국어 교육과 한국문화 보급 사업을 총괄하기 위해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알리고 한국에 대한 외국인들의 관심이 한국에 대한 이해와 사랑으로 성장하는 것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세종학당재단, 2020).

  - 구체적인 설립목적은 해외 한국문화보급 및 한국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언어뿐만 아니라 문화보급에도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 세종학당재단 관계자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세종학당은 한국어 교육기관이지만 “작은 문화원”이라고 여겨진다. 문화원이 가까이 없는 지역에 한국을 알리는 역할을 하고, 문화보급에 있어 언어가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 언어와 문화의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지는 것이 목표이다.

- 전신인 한국어세계화재단(민간기관)에서 시작하여 세종학당은 2007년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에서 시작되었다. 2012년 세종학당재단으로 새로 출발하였고 2013년도에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본격적인 체계를 갖추게 된다. 2020년 10월 현재, 전 세계 76개국에 213개소에서 세종학당이 운영되고 있고 모두 해외에 소재한다.

• 예산, 조직, 및 사업 운영 체계

- 예산과 조직의 규모를 차례로 살펴보면, 2012년 설립 당시 예산은 연간 약 70억으로 시작했지만, 2020년 현재 연간 예산 300억 규모로 성장했다. 2020년 10월 현재 직원의 수는 정규직 약 40여 명, 계약직까지 포함하면 약 70여 명의 직원이 현재 세종학당재단 본부에서 근무하고 있다.

- 세종학당재단 본부의 부서별 업무 분담은 다음과 같이 체계적으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다.

① 기획총괄부: 재단 기관운영 관련 대외업무 및 내부업무
② 학당지원부: 세종학당 설립 및 운영
③ 교육지원부: 세종학당 교원 관리(해외에 전문자격을 갖춘 한국어 교원 채용 및 파견)
④ 콘텐츠지원부: 교육과정 관리교재, 보조자료, 온라인콘텐츠 개발 및 보급 뿐 아니라 본부에서 세종학당(교육과정) 수료 성취도 평가의 평가 문항을 개발 및 실시하고 성취수준을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⑤ 문화사업부: 문화보급 관련, 해외 학생 초청 및 문화교육프로그램, 세종문화아카데미 등을 관리한다.

- 전 세계 세종학당의 교원 수는 600~700여 명이다. 재단에서 전 세계로 파견한 인원만 180여 명 정도이고 기본적으로 현지에서 교원을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현지에서 교원을 구하기 어려운 경우 본부에서 파견하고 있다. 학생 수는 2019년 한 해에만 5만여 명 이상이었다.

- 문화체육관광부뿐만 아니라 교육부, 외교부에서도 한국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이 중복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이때, 협의체 운영은 부처를 통해서 진행한다.

- 주요사업: 세종학당재단의 주요사업은 아래와 같이 여섯 부문으로 요약할 수 있다.

  ① 한국어 교육·한국문화 보급을 위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세종학당 지정 및 운영지원
  ② 온라인을 통해 한국어 및 한국문화를 배울 수 있는 홈페이지 '누리-세종학당' 개발 및 운영
  ③ 세종학당의 표준 한국어 교육과정 및 교재 보급
  ④ 한국어 교원 파견 및 교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양성과정 운영
  ⑤ 한국문화 보급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및 문화 인력 파견
  ⑥ 그밖에 한국어 및 한국문화 보급을 위해 필요한 사업

- 세종학당의 유형
  - 세종학당은 일반 세종학당, 협업형 세종학당, 문화원 세종학당, 교육원 세종학당, 거점 세종학당과 같이 총 다섯 유형으로 구분된다. 비율적으로는 일반 세종학당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① 일반 세종학당: 일반 세종학당은 다시 독립형과 연계형으로 나뉨. 일반 세종학당 독립형은 현지 운영기관이 단독으로 운영하는 것이고, 일반 세종학

당 연계형은 국내 운영기관(대학)과 현지 운영기관(대학 등)이 연계하여 세종학당을 운영하는 것을 일컫는다. 예컨대, 연세대와 북경대가 MOU를 체결하여 세종학당을 신청하는 경우 일반 세종학당 연계형에 해당된다.

② 협업형 세종학당: 재외공관, 지자체, 공공기관 및 기업 등과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지정 및 운영. 현지 자체 예산으로 운영한다.

③ 문화원 세종학당: 문화원에서 이루어지는 한국어 교육 강좌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④ 교육원 세종학당: 비영리단체인 교육원에서 세종학당이 운영되는 경우이다.

⑤ 거점 세종학당: 주요 권역별로 거점 역할을 하기 위해 세종학당재단이 직접 설립(직영)해 운영. 현재 베트남, 미국, 인도네시아 3개국에 하나씩 있다.

- 세종학당의 학생들
  - 세종학당은 해외 성인학습자 대상으로 교육을 지원한다. 본 연구의 세종학당재단 관계자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세종학당 60~70%의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이유를 한국문화에 관심이 있기 때문으로 설명한다. 20대 여학생들이 많고, 시작은 한류를 통해 처음 한국을 알게 되고, 그 이후에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한국어 강의를 수강하게 된 학생들이 대부분이다. 해외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육은 교육부에서 지원한다.

- 세종학당 선정심사와 지정절차
  - 세종학당 선정의 심사는 총 2단계로 나눠진다. 1차 서류평가와 2차 현장평가로 구성된다. 2020년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현장평가를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2020년에는 30여 개의 세종학당이 추가로 선정되었다.

  - 지정 절차는 “지정신청 접수 → 서류심사 → 화상 면접 및 현지 실사 → 최

종 심사 → 신규 세종학당 지정" 등의 5단계로 진행한다. 세종학당으로 선정되면 시범 운영 기간 6개월을 거쳐, 시범운영이 끝나면 3년 계약으로 운영을 시작한다.

• 세종학당재단의 지원방식

- 본부에서 만든 교육 콘텐츠를 가지고 세종학당을 운영할 수 있게 한다. 본부에서 운영지원금을 일부 지급하고, 수강료를 통해 나머지 운영비를 충당하기도 한다. 일반 세종학당 연계형의 경우, 대학에서 재정적 지원을 하기도 한다.

• 특장점

①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수요 조사**

- 세종학당의 수요를 파악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본부에서는 일단 대륙별로 관리한다. 세종학당 수요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때 재외 공관에 질의를 보내기도 하고, 관련 기관 보고서를 참고하기도 하며 신청서에 수요를 요약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한다. 선정기관 심사 시 잠재수요뿐만 아니라 현지 기관에서 운영을 할 수 있는지, 수요 및 기관 운영의 의지까지 살펴본다.

- 세종학당은 수요조사를 위해 학생 만족도 조사를 통한 강의평가를 진행하며 이를 통해 자료 수요를 조사한다. 뿐만 아니라, 권역별 의견수렴을 위해 지역별 워크숍을 진행한다. 지역별 워크숍에서는 세종학당 운영에 관해 권역의 특별한 상황을 접목시켜 교육하기도 한다. 운영에 대해서도 지도하지만 교육에 관련한 내용도 공유한다. 그리고 권역에 있는 세종학당 운영자들이 모이는 자리이기 때문에 운영상황을 공유하기도 한다. 매년 국가 세 곳을 선정하여 3회에 걸쳐 진행한다.

② **각 세종학당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시스템**

- 각 세종학당에 대한 평가는 매년 학당별 자체점검보고서 및 확인(증빙)자료 제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연 2회 세종학당의 시설과 교육과정에 대해 학습자들의 만족도를 조사해 세종학당 운영을 개선한다. 이러한 평가는 기관 관리 모니터링 수단 중의 하나이다. 학당 운영에 문제점은 없는지, 지원할 때 개선점은 없는지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청취 통로로 작용한다. 점검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하는 절차를 거친다. 예컨대, 높은 평가를 받은 학당에 인센티브를 더 지급하는 방식은 재단 본부에서 하는 사업들이 현장에 잘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데 효과적이다. 이러한 평가체계는 운영이 어려워지거나, 지속할 수 없는 기관의 경우 평가 기준들이 판단의 근거가 되기도 한다. 지정이 취소되는 곳도 있다. 평가도 1차적으로는 서면 평가, 최소 3년에 한 번씩은 현장실사평가를 시행하여 인터뷰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증빙자료들을 현장에서 확인한다.

③ **세분화된 교육내용 및 맞춤형 교육서비스 개발**

- 세종학당재단 역시 고객세분화전략에 대한 고민이 많다. 지역, 국가, 문화마다 특성이 다르기에 맞춤형 교육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예전에는 '세종한국어'라는 일반 목적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교재를 만들었다면, 2020년 기준 현재는 비즈니스 한국어, 여행 한국어, 문화로 배우는 한국어 등을 세분화하여 교재를 개발한다. 나아가 이 교재들을 어떤 현장에서 어떻게 가르치면 되는지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 코로나 시기에 세종학당 운영은 학생들에게 한국어 교육지원을 다양한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 오프라인 세종학당이 많지만, 여전히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도 배울 곳을 찾기 힘든 지역도 있다. 이에 '누리세종학당'이라는 온라인 교

육 자료를 탑재하여 학생들의 학습을 지원한다. 원래는 자가 학습만 가능했는데, 2019년에 오프라인과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온라인 세종학당'을 새로 개발했다. '온라인 세종학당'에서는 실시간 화상강의, 과제에 대한 피드백, 적극적인 교육 등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학당마다 수강 기간을 지정하여 출석률, 수료 기준 점수 등 수료 기준을 갖고 있다.

- 해외 교류사업 운영의 애로사항
  - 사업을 운영 및 관리하면서 어려운 점은 국가별로 상황이 다르기에 국고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국내 정산이나 절차가 해외에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재단에서 국고가 투명하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나 정산은 국내 기준에 맞춰서 진행하고 있다. 현지에서 처음 운영하면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빈번히 발생한다. 예를 들어, 라마단 기간에 연락이 안 되는 문화적인 차이와 같은 것 등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문화상호주의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운영하고 있다. 문화 사업이기 때문에, 각자의 문화를 교류하면서 시너지를 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4) 한국국제교류재단(Korea Foundation)

- 설립목적 및 주요성과
  - 한국국제교류재단(이하 KF) 역시 한국의 해외 한국학 지원기관으로 대표적인 기관 중 하나이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은 대한민국의 매력을 세계에 알리고, 상호 우호적인 국제 민간 네트워크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공공외교를 수행하고 지원하는 기관으로 1991년에 설립되었다(한국국제교류재단, 2020). 설립 이래 KF는 글로벌 한국학진흥, 국제협력 네트워킹, 문화예술교류 및 미디어 사업 등 외국과의 다양한 교류 사업을 수행해 왔고, 이제 대한민국을 대표하

는 공공외교 전문기관으로 서게 되었다. KF의 출판과 영상과 관련한 사업들을 정리하면 〈표 IV-1〉과 같다.

- 2020년 기준 16개국 91개 대학에 한국(어)학 관련 교수직 136석을 설치하고 10개국 28개의 세계 유수 박물관에 한국실을 만들었다. 또한, 약 만여 명의 주요 인사를 초청하여 한국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있으며, 138개국 1,900여 개 도서관에 한국 관련 자료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KF는 공공외교법에 따른 유일한 '공공외교 추진기관'으로서, 2018년부터 공공외교 아카데미 사업을 신설, 공공외교 전문기관으로서 명성을 구축해 왔다.

〈표 Ⅳ-1〉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출판 및 영상 관련 사업(2020. 10. 기준)

	사업명	사업내용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기관의 수
한국국제교류재단(KF) (외교부 소속 조직)	한국연구자료지원	해외 대학, 국공립도서관, 연구소, 박물관 등에 국내외에서 출판된 한국학 관련 한국어/외국어 출판물과 시청각자료 등을 지원	해외대학 국공립도서관 연구소 박물관	기관 당 최대 200만원 (도서구입비) 범위 내에서 현물을 지원	2019년 44개국 117개처; 2018년 54개국 174개처; 2017년 58개국 198개처; 2016년 58개국 184개처
	한국연구 전자자료지원	해외 대학도서관 및 공공도서관에 전자자료 구독료 일부를 보조	해외 4년제 대학 중 한국학센터, 한국학과, 한국학/한국어 프로그램, 동아시아학과 등이 개설되어 있는 대학도서관 한국관련전공자(교수, 대학원생 등)들의 전자자료 이용이 필요한 대학도서관 또는 공공도서관	한국 연구 전자자료 구독료의 50% 이내; 기관 당 최대 $5,000	2019년 14개국 58개처; 2018년 14개국 60개처; 2017년 14개국 62개처.
	북미도서관 특화 컨소시엄	북미 대학 한국학 도서관 특화 컨소시엄을 지원	해외 대학도서관	컨소시엄 회원 대학이 각자 특화 분야별로 한국연구 관련 도서와 자료를 확충하는데 필요한 도서자료 구입 경비를 KF와 대학이 1:1 매칭 방식으로 지원	
	코리아 코너	해외 대학, 도서관 등에 한국문화 복합홍보 공간을 개설하는 '코리아 코너' 사업지원	재외공관 해외 대학도서관 해외 국공립도서관	기자재 구입비; 전시품 및 도서자료 구입, 발송비; 시설 정비비; 개관식 행사비	
	사회과학자료 온라인서비스	해외 연구자들이 한국 관련 사회과학자료를 무료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한국사회과학자료원과 공동으로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	해외 소재 대학, 연구소 소속 연구자, 학생 및 언론인		

• KF의 출판·영상 관련 주요사업

- KF는 다방면에서 국제교류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중 국립중앙도서관 WOK 사업과 밀접히 관련 있는 출판과 영상 관련 특징적인 프로그램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한국연구자료지원: 해외에서의 한국에 관한 교육 및 연구와 한국소개 활동을 돕기 위해 해외 대학, 국·공립 도서관, 연구소, 박물관 등에 국내외에서 출판된 한국학 관련 한국어/외국어 출판물과 시청각 자료 등을 지원한다. 해외 대학, 국·공립 도서관, 박물관, 연구소 등은 KF의 한국연구자료지원 온라인 신청 시스템(Books on Korea)에 등록된 자료 중에서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만약, Books on Korea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자료라도 서지정보를 제출하여 신청이 가능하다. 국립중앙도서관의 WOK는 기관 당 최대 2백만 원 범위 안에서 지원하는데, KF 역시 기관 당 최대 2백만 원 범위 안에서 현물을 지원하고 있다.**

② **한국연구전자자료지원: 학계의 온라인 자료 이용증가에 따라 종래의 현물(도서) 중심 자료 지원과 병행하여 “한국연구 전자자료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한국학 연구자 및 전공 학생들이 한국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해외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외 대학도서관 및 공공도서관에 공공기관 또는 민간 기업이 제공하는 한국 연구 관련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e-journal, e-book 등의 전자자료 구독료를 일부 보조한다. 지원대상은 해외 4년제 대학 중, 한국학센터, 한국학과, 한국학/한국어 프로그램, 동아시아학과 등이 개설되어 있는 대학도서관 또는 한국 관련 전공자(교수, 대학원생 등)들의 전자자료 이용이 필요한 대학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이다.**

③ 코리아 코너(Korea Corner): 국립중앙도서관 WOK와 가장 유사한 프로젝트이다. 해외 일반인들의 한국에 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자 해외 대학, 도서관 등에 한국문화 복합홍보 공간을 개설하는 '코리아 코너' 사업을 지원한다. 해외 대학, 국·공립 도서관 등에 '코리아 코너'를 개설하는 것을 목표로 재외공관이 신청하는 사업이다. 기자재 구입비, 전시품 및 도서자료 구입·발송비, 시설 정비비, 개관식 행사비 등 네 가지 유형으로 지원된다.

④ 북미도서관 특화 컨소시엄: 한국 연구 관련 도서와 자료를 확충하고 공동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북미 지역 대학 한국학 도서관들로 구성된 '북미 대학 한국학 도서관 특화 컨소시엄(Korean Collections Consortium of North America)'을 지원한다. 컨소시엄 회원 대학이 각자 특화 분야별로 한국연구 관련 도서와 자료를 확충하는데 필요한 도서자료 구입 경비를 KF와 대학이 1:1 매칭 방식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컨소시엄의 효율적인 운영과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매년 한 차례 개최되는 연례회의 경비를 지원한다. KF의 지원으로 구입한 한국연구 관련 도서자료는 OCLC(Online Computer Library Catalog)와 ILL(Inter Library Loan) 및 로컬 네트워크 등 북미지역 전체 도서관 네트워크에 등재되어 이 지역의 모든 한국관련 연구자와 학생들이 공동으로 활용하고 있다.

⑤ 사회과학자료 온라인서비스: 해외 연구자들이 한국 관련 사회과학자료를 무료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한국사회과학자료원(KOSSDA)과 공동으로 온라인 서비스를 해외 소재 기관/단체(대학, 연구소 등) 소속 연구자, 학생 및 언론인 등에게 제공한다. 한국사회과학자료원은 정치, 경제, 사회, 심리, 문화 등 사회과학 전 영역에 걸친 양적 및 질적 자료와 연구문헌을 소장하고 있는데, 이용자들은 한국사회과학자료원의 모든 국·영문 자료를 열람 및

다운로드 가능하다.

- **양적자료: 1,100여 점의 조사 자료와 700여 건의 통계자료**
- **질적자료: 텍스트, 녹음, 동영상, 이미지 등 4,000여 점**
- **문헌자료: 인쇄저널 약 1,500종, 전자저널 약 2,600종, 연구보고서와 박사 학위논문을 포함하는 연구 단행본 약 89,000권**

5) 국회도서관

• 사업개요

- 국회도서관에서도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유사사업인 '한국의 창(Window to Korea)' 사업을 진행한 바 있고(설혜윤, 2015), 2020년 현재는 종료된 사업이다. 한국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아시아 국가의 주요 도서관을 선정하여 한국 관련 도서를 지원함으로써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과 대외협력을 강화하고, 국회도서관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이었다. 지원국가와 기관은 〈표 Ⅳ-2〉과 같다.

  ① **1차 사업(2008-2012): 아시아에 위치한 5개 국립, 의회, 대학도서관 지원**
  ② **2차 사업(2013-2015): 지역 제한 없이 10개 기관 최대 200종의 자료 지원**

- 2008년부터 6년간 약 13,000책(점)을 기증하였고, 사업예산은 2013년 기준으로 약 4천만 원, 자료배송비로 약 400만원 지원하였다.

〈표 Ⅳ-2〉 국회도서관 '한국의 창' 사업 대상 국가 및 기관

연번	1차 대상 기관(2008~2012)	2차 대상 기관(2013~2015)
1	네팔 의회도서관	네팔 의회도서관
2	대만 국립중앙도서관	대만 국립중앙도서관
3	중국 연변조선족자치주도서관	중국 연변조선족자치주도서관
4	필리핀 국립도서관	필리핀 국립도서관
5	인도네시아 의회도서관(2008~2010)	인도 국립도서관
6	인도 국립도서관(2012)	러시아 과학아카데미도서관 상트페테르부르그지국
7		몽골 울란바타르대학교도서관
8		이스라엘 하이파대학도서관
9		칠레 의회도서관
10		싱가포르 동남아연구소(2013)
11		미국 펜실베니아대학교 반팰트도서관(2014-2015)

- 기관선정기준
  - 당시 기관선정과 관련하여, 2008년 1차 사업 대상 기관은 참여 의사를 밝힌 아시아 지역 기관 중 5개 기관을 선정하였고, 2013년 2차 사업 시행 시에는 전 세계 자료교환기관 중 아래와 같은 선정기준으로 하여 추가로 5개 기관을 선정했다.

    ① 한국학 컬렉션 유지가능 기관(별도의 서가 또는 자료실 설치)
    ② 국가 당 1개 기관
    ③ 국내 다른 기관에서 시행하는 유사 사업과의 중복 여부 체크

- 자료 선정방식
  - 자료를 선정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다.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역사, 문화, 과학기술 관련 도서를 바탕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우수 교양 도서/우수 학술 도서 위주로 선정 목록을 작성한다. 더불어 한국국제교류재단의 한국 소개 자료 목록 등을 참고하였다.

- 사업 중단이유
  - 본 연구에서 국회도서관 관계자와의 서면인터뷰에 따르면, 2015년 말 사업의 효율성과 지속 여부를 검토한 결과, 사업 중단을 결정한다. 구체적으로 ① **사업 대상 기관의 관심도 및 수요 감소,** ② **한국 및 한국문화 해외 홍보 사업과 중복 등을 사유로 제시했다.**

- 현재 국회도서관의 해외교류사업
  - 국회도서관 자료수집과 관계자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2020년 10월 기준 국회도서관에서는 일반적인 자료 교환 이외에 별도의 해외교류 사업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국내 유관기관 사례조사를 종합하면, 성공적으로 해외 자료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평가되는 기관들의 공통점으로 다음과 같은 요인들을 도출할 수 있다.

(1) 기관별 사업목표가 명확하고 차별화되어 있다.
(2) 지원사업의 수요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통해 맞춤형 지원계획을 체계화하고 있다.
(3) 지원기관을 모니터링하는 다양한 관리 및 평가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2. 해외 자국학 지원 사례

- 해외 각국의 자국학 지원 사례를 검토하고 모범사례를 이해하기 위해, 선행연구(이완범, 2009; 조성택, 김동택, 박재술, 2009)와 현재 국내에 있는 문화원 내 자료실을 중심으로 5개 국가를 선정하였다. 동아시아 국가들 가운데 자국학 진흥사업에 앞장선 일본, 중국, 대만 및 유럽의 국가들 가운데에서는 독일과 이탈리아를 선정한다.
- 해외 자국학 지원기관의 모범사례들을 파악함으로써 현재 WOK 프로젝트의 사업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1) 일본

- 대표적 사례
  - 일본의 해외 일본학 지원은 일본 문부과학성(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Sports, Science and Technology) 산하 국제일본문화연구센터(International Research Center for Japanese Studies), 외무성(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산하 일본국제교류기금(Japan Foundation), 비영리 사립재단인 일본 재단(Nippon Foundation), 일본 국립 국회도서관 등이 중심이 되어 이루어지고 있다(이완범, 2009).

(1) 국제일본문화연구센터(International Research Center for Japanese Studies)

- 설립목적과 역사
  - 국제일본문화연구센터는 1985년 국제일본문화연구센터 기관설립을 위한 간

담회를 개최하여, 그 타당성에 대한 논의를 전개한 후 1987년 5월 국제일본문화연구센터를 대학공동이용기관으로 교토에 설립한다. 국제적인 시각에서 일본 문화에 대한 학제간·종합적 연구에 전념하고 있으며, 일본 문부과학성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 대학 간 연구기관이다. 이후 1998년 해외연구교류실을 설치하여 해외 일본학에 대한 연구 및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해외연구교류실은 외국에서의 일본 관련 연구를 지원하고, 국내외 일본학 연구와 전문 분야 협력 및 국제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일본학의 경향을 연구의 국제화로 바꾸는데 크게 기여하였다(국제일본문화센터, 2020).

- 주요 사업
  - 해외에서 행해지는 다양한 형태의 연구를 일본학의 연구에 접목하여 활력을 불어넣고자 국제교류의 기회를 확대하려는 노력을 지속해왔다. 국제일본문화연구센터의 주요사업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이완범, 2009).

① 해외의 일본 연구기관정보의 수집, 정리 및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② 일본 연구자의 인적교류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향후 발전 및 개선방안 등을 기획하고 입안한다.
③ 해외에서 개최되는 일본학 관련 국제심포지엄을 지원한다.
④ 해외의 일본 연구기관과 연구자에 관한 연구 협력을 지원한다.
⑤ 차세대 일본 연구자의 연구 향상을 위한 연구지원사업을 진행한다.
⑥ 일본학 박사학위 프로그램을 통한 차세대 일본 연구자를 양성한다.

(2) 일본국제교류기금(Japan Foundation)

- 설립목적과 역사
  - 일본국제교류기금(Japan Foundation) 역시 일본의 해외 일본학 지원에 앞장서는 기관 중 하나이다. 1970년대 초, 일본과 해외의 문화교류사업의 필요성

이 일본 내외에서 높아지는 가운데 일본에 대한 외국의 이해를 깊게 하고 국제 상호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대규모적인 기금을 모아 1972년 국제교류기금법에 기초한 특수법인으로서 설립된다. 더불어, 국제문화교류 사업의 효율적 수행과 국제 우호 친선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조성택, 김동택, 박재술, 2009). 이후, 2003년 10월 독립행정기구로 분리된 후 현재 독자적인 일본국제교류기금이 된다. 2020년 10월 현재 일본국제교류기금은 본부를 도쿄에 두고 세계 24개국 25개의 지사를 설치하였다.

〈표 IV-3〉 일본국제교류기금의 해외지사 운영현황(2020. 10. 기준)

	설치 국가	지사 설치 도시		설치 국가	지사 설치 도시
1	이탈리아	로마	14	영국	런던
2	독일	쾰른	15	미국	뉴욕
3	프랑스	파리	16		로스엔젤레스
4	대한민국	서울	17	멕시코	멕시코 시티
5	중국	베이징	18	브라질	상파울루
6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19	스페인	마드리드
7	태국	방콕	20	헝가리	부다페스트
8	필리핀	마닐라	21	러시아	모스크바
9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22	이집트	카이로
10	미얀마	양곤	23	베트남	하노이
11	인도	뉴델리	24	캄보디아	프놈펜
12	호주	시드니	25	라오스	비엔티안
13	캐나다	토론토	총 24개국 25개 지사		

- 주요 사업
  - 일본 국제교류기금의 주요 사업을 정리하면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Japan Foundation, 2020).

① 문화예술교류사업(Culture: Arts and Cultural Exchange)

문화예술교류사업에서는 공연, 전시, 번역 및 출판, 영화 상영, 텔레비전

방송 등 전통 공연예술에서부터 현대 예술에 이르기까지 일본 문화의 다양한 면모를 전 세계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수많은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또한 전문가 파견, 초청 등의 활동과 함께 예술문화 분야 인재 육성 및 네트워킹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밖에도 세계 각국의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해 시민단체나 청소년 교류활동을 지원하는 등 국제교류의 인재육성과 네트워크 활성화에 기여한다.

② 해외 일본어교육사업

(Language: Japanese-Language Education Overseas)

2020년 10월 기준 세계 각국에서 일본어를 공부하는 사람은 약 365만 명 이상으로 집계되었다(일본국제교류기금 서울문화센터, 2020). 이를 바탕으로 다양화된 목적과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일본국제교류기금에서는 교육 및 학습 환경을 정비 및 확충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일본어 교사 지원, 일본어 교육기관 및 단체에 대한 지원, 일본어 강좌 제공과 같은 학습 지원, 일본어능력시험(The Japanese-Language Proficiency Test: JLPT) 실시, JF 일본어 교육 스탠다드 개발／일본어 교재개발 등 다각적인 지원을 한다.

③ 일본학 연구와 지적 교류사업

(Dialogue: Japanese Studies and Intellectual Exchange)

일본학 연구와 지적 교류 사업에서는 세계 각국에서 일본학의 기반을 공고히 하고, 일본연구를 촉진하기 위하여 펠로십을 제공하거나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특히, 일본학과 관련한 전문 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국가별/지역별 핵심 기관에 종합적인 지원을 집중한다. 예컨대, 국제회의를 지원하고, 일본학과 관련한 직원을 증원하는데 앞장서며, 도서

관을 구축하고, 일본 유학생들을 지원하는 등에 대한 지원에 주력한다. 이는 국가와 지역을 넘어서는 학문적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일본학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다.

- 이완범(2009)에 따르면, 일본 국제교류기금의 사업의 특징은, 전문연구자나 지도층 인사들의 인적교류보다는 일본어 또는 일본문화에 대한 관심을 지닌 해외 일반인을 상대로 사업을 확장해 나간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일본의 경우 중국, 남아시아 등 인접국들에 대한 문화교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청소년 교류에도 앞장서고 있다.

(3) 일본 재단(Nippon Foundation)

- 비영리 사립인 일본 재단(Nippon Foundation, 참고로 Japan Foundation과는 별개)에서 2008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Read Japan Project(일본 읽기 프로젝트)는 영어로 쓰여진 일본 관련 책을 지원 배포함으로써 일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한다(Nippon Foundation, 2020). 자료 선정에 엄선을 기울이고 있으며 주로 해외의 젊은 연구자와 지식인 및 여론 주도층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것이 특색이다. 2020년 4월 기준 136개국 1,011개의 기관에 자료를 지원하고 있다. 극우 편향의 재단으로 외교 안보 현황과 역사 왜곡의 비판도 받고 있다.
- 지원 신청은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받고 있으며, 재외공관의 추천서가 요구되며 새로 설립된 기관과 일본어 학습자가 많은 기관을 우선으로 선정해서 지원한다.
- 책 기증 사업 외에도 도쿄 국제 문학 페스티벌과 같은 행사도 주관하며, 일·영/영·일 번역과 번역물 출판도 지원한다.
- Japan Library's Translation Books(일본 도서관의 번역서) 프로그램은 일본에

서 권위 있는 작가의 책을 엄선해 영어로 번역해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주로 정치, 사회, 외교, 문화, 철학, 과학, 기술 등의 다양한 분야의 논픽션이자 학술자료를 대상으로 한다. 책 출간과 함께 신속하게 영어로 번역해 세계 곳곳에 배포해 다양한 독자에게 접근하며 이해를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글로벌 지식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매년 20종 이하로 책을 출간하고 있고, 세계 곳곳에서 학술대회 또는 도서 전시전을 통해 전시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 프로그램을 주도하는 Japan Library는 일본문화출판산업재단(Japan Publishing Industry Foundation for Culture)의 산하기관이다. 웹사이트에 출판된 자료 리스트를 잘 소개하고 있으며 구입처 및 해외 공급처를 자세히 알려주고 있으나 전자책을 직접 제공하고 있지는 않다. 해외 기관에 해마다 출판한 책 중에 일부를 기증하는 프로그램도 있지만, 현재는 코로나로 임시 중단된 상태이다.

(4) 일본 국립 국회도서관

- 일본 국립 국회도서관은 국제협력을 위해 일본의 정부간행물 및 일반 출판물을 국제적으로 교환하는 사업을 운영 중이다.

2) 중국

- 대표적 사례
  - 중국의 자국학 지원 사례로 가장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Window to China 중국자료실 설치 및 지원 사업을 들 수 있다. 한국의 Window on Korea와 매우 유사한 프로그램으로 중국 국가도서관(The National Library of China)에서 해외의 국·공립 또는 대학도서관을 위주로 중국의 위상을 높이고 중국 문화의

소프트 파워를 홍보하기 위해 중국관련 자료를 널리 배포하고 있다. 이 밖에도 본 연구에서는 Window of Shanghai와 공자아카데미의 자료지원사업을 함께 살펴보았다.

(1) Window to China

- 설립목적과 역사
  - Window to China 프로젝트는 원래 국무부 정보기관산하 “중국도서대외보급망(China Book International)” 프로그램의 한 일환으로 해외의 외국인들에게 중국책 읽기를 독려하기 위해 시작되었고, 중국국가도서관, 상하이 도서관, 중국사회과학 아카데미, 베이징 대학을 홍보하면서 중국 책을 해외 상응기관에 기증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2006년에 시작해 불과 5년 안에 65개국에 무려 133개의 도서관에 중국자료실을 설치했을 정도로 설치 규모와 지역 면에서 매우 방대했던 것을 알 수 있다(2020년 10월 현재 설치기관 총수는 확인불가).

- 평가
  - 중국 국가도서관이 해외의 다른 국가도서관과 교류를 증진하는 차원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Window to China에서 지원하는 자료가 대부분 홍보와 중국 관광 관련이라 중국학 연구를 위해서는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한 상태이다. 설치 이후에 지속적 운영을 위한 관리체계가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못해 부실한 운영으로 이어진 곳도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2) Window of Shanghai

- 설립목적과 개요
  - 중국 내 유사 프로그램으로 2002년도에 시작한 Window of Shanghai 프로그램이 있다. 중국 상해 도서관(중국 국가도서관 다음으로 2번째로 큰 도서관)에서 주로 해외의 친선우호 관계를 맺은 도시에 상하이 관련 자료를 문화교류 차원에서 지원한다. Window to China와 같이 중국대외도서보급망(China Book International)의 핵심 사업 중의 하나이다. 각국의 자매도시에 있는 공공도서관에 설치하거나 국가 대표국립도서관에 설치한다. 문화교류 외에도 해외 각 도시에 거주하는 중국이민자들에게 중국책을 통해 중국문화를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돕고, 해외 도시와 비즈니스 교류를 원활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 지원방식
  - 3년 단위로 지원하고 첫 해에 500권 그 다음해에는 각 100권을 지원하는 형태이다. 한국 내에는 부산광역시립도서관과 용인시에 있는 경희대 국제캠퍼스 도서관에 설치되어 있다. 2020년 10월 기준, 웹사이트에 확인된 것으로는 현재 각국 168개 기관이 파트너로 등록된 상태이다.

- 특징
  - **① 파트너 도서관의 경우 지원받은 자료를 신속하게 정리 목록해 이용하게 하는 것과 홍보를 돕는 것 외에 다른 업무는 요구되지 않다.**
  - **② 비교적 웹사이트가 잘 구축되어 있고, 웹사이트를 통해 2013년부터는 전자책 지원도 하고 있으며, 자체적으로 구축한 상하이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IP로 제어해서 제공하고 있다. 지원하는 자료 리스트도 엑셀파일로 해마다 업로드해서 누구나 쉽게 선정 자료목록을 볼 수 있게 해 두었다.**

(3) 공자아카데미

- 설립목적과 역사
  - 2004년에 시작한 Confucius Institute(공자아카데미)는 중국 정부가 조직적으로 나서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 해외 대학 내에 주로 설립하였다(이완범, 2009). 주로 해외에서 중국어 언어교육을 위해서 시작되었는데, 2004년 11월 서울에 첫 공자학원을 설립하는 것으로 시작, 2020년 4월 기준 162개 국가에 545개 공자학원, 1170개 공자학당을 설치했다.

  - 중국 언어 학습과 교육에 필요한 자료지원 및 언어 프로그램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문화 등 다방면의 교류와 협력도 동시에 전개한다. 제공하는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국어 교사 양성, 중국어 교육자원 제공, 중국어 시험과 중국어 교사 자격 인증 전개, 중국교육, 문화 등 정보 자문 제공, 중외 언어문화 교류 활동 전개 등을 포함하여 다양하게 진행 중이다. 중국정부의 교육부와 연계된 'Hanban'이라는 중국언어교육원이 공자학원의 본부 역할을 한다.

- 지원사업의 중단
  - 그러나 공자학원이 빠른 속도로 전 세계에 속속 건립되면서 2007년 6월 캐나다를 시작으로 하여 서방 국가들을 중심으로 공자학원의 의도를 의심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신진호, 2020). 캐나다 정보국에 따르면, 캐나다에서 세워지고 있는 공자학원은 사실상 중국이 외국에 이데올로기를 수출하는 무대라는 것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2020년 현재 미국에서는 공자학원이 퇴출을 맞은 상태이다. 중국 당국도 결국 공자학원 운영을 접기로 결정한다.

3) 대만

- 대표적 사례
  - 대만에서는 2012년부터 대만 정부 내 문화부 소속 대만국립중앙도서관에서 Taiwan Resources Center for Chinese Studies(TRCCS, 한학연구센터) 대만 자료실을 운영해 오고 있다. 중국 중심의 중국학만이 아닌 대만학을 세계에 홍보하고 대만 연구를 증진하기 위해 주로 큰 규모의 해외 대학도서관의 동양도서관을 중심으로 대만자료실을 설치한다.

- 사업성과
  - 2020년 10월 기준 20개국에 34개의 대만자료실을 설치한 상태이다. 한국 내에도 서울대와 연세대에 '한학연구센터'로 2016년에 각각 설치했다.

- 대만자료실의 운영위원회 구성
  - 대만자료실의 운영위원회는 대만 정부 내 교육부 장관이 선정한 13~17명의 학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특색이며 임기 2년 기간으로 대만연구센터의 정책과 여러 사업을 주관한다. 한학연구센터의 센터장은 대만국립중앙도서관장이 맡고 있으며 자료부서와 교류부서로 나눠서 중국/대만학 연구 자료를 수집, 관리, 출판, 교류하는 일을 한다.

- 대만자료실 설치목적
  - 대만자료실은 자료지원의 목적 외에도 대만학 연구를 위한 직접적인 지원과 출판, 참고서비스, 관련 서지 구축, 중국/대만 연구자 정보 구축, 학술 행사 지원을 적극적으로 도모하고 있는 특색이 있다.

• 대만자료실 설치 조건

- 대만자료실 설치 조건에는 Window on Korea처럼 단독 자료실 공간을 중요한 조건으로 삼고 있지만, 기관 도서관 사정에 맞춰 융통성 있게 조율하고 있으며, 학술자료 중심으로 특화해서 양질의 고급 자료를 각 대학도서관에 매년 400권 정도로 2회에 나눠서 지원하고 있다. 대만국립중앙도서관에서 직접 구축한 전자자료 및 오픈액세스로 이용할 수 있는 중국/대만학 관련 자료들을 웹사이트 내에서 쉽게 검색할 수 있게 정리해 두었다. 과거에는 상업용으로 구축된 전자자료 구입도 적극적으로 지원했으나 현재는 오프라인 자료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특장점

- 자료지원 외에도 도서관과 연계해 연 1회 대만 학자 초청 강연 행사를 전액 지원하는 등 해외 대만학 활성화를 위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대만 학자들과 해외 중국/대만학자들 간의 학술 교류의 장으로 활용된다.
- 중국의 Window to China 프로그램에 비해서 학술 연구도서관에겐 월등하게 좋은 프로그램으로 높이 인정받고 있다.

4) 독일

• 대표적 사례

- 독일은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독일연방공화국의 문화기관인 '괴테 인스티튜트(The Goethe-Institut)'를 바탕으로 독일어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국제 문화협력을 장려하며, 독일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전달한다. 독일 외무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 본 기관은, 전 세계적으로 많은 경험과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다. 2018년 기준, 총 98개국 159개의 기

관으로 이루어진 괴테 인스티튜트는 해외에서 독일의 문화 및 교육 분야 협력을 위해 힘쓰는 가장 큰 기관으로 여겨진다(주한독일문화원, 2018).

- 주한독일문화원의 역할
  - 한국 내에는 1968년 주한독일문화원(괴테 인스티튜트 코리아)을 설립하게 되었고, 2010년 주한독일문화원이 동아시아 괴테 인스티튜트의 지역 대표기관으로 선정되어, 한국, 중국, 일본, 대만, 그리고 몽골에서의 활동을 총괄하게 된다. 주한독일문화원은 문화외교 관점의 확장, 영감의 자극, 언어교육, 파트너십, 고용창출 등 다방면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 주요사업
  - 주한 독일문화원의 주요사업을 정리하면 크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주한독일문화원, 2018).

① 문화원 내 독일어 교육: 매년 5,000명이 넘는 학생이 주한독일문화원 본원과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어학센터 등에서 독일 유학 또는 취업을 위해 독일어 수업을 수강한다. 학생들은 직접 출석하여 훌륭한 양성과정을 거친 선생님들의 수업을 수강할 수 있는 오프라인 수업, 융합적 학습방식인 블렌디드 러닝(blended learning), 혹은 온라인 강좌 가운데 선호도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② 독일어 교사 양성 및 한국의 중고등학교 지원: 괴테 인스티튜트는 1951년 설립당시부터 독일어 교사들의 교육에 큰 비중을 둔다. 매년 전 세계 1,700여 명의 독일어 선생님들이 괴테 인스티튜트에서 연수받을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급한다. 주한독일문화원에서도 해마다 100여 명의 한국인 독일어 중고등학교 교·강사들을 지원한다. 한 해 두 차례에 걸쳐 개최되는 일주일간의 집중세미나를 통해 어학과 교수법 수업을 제공하고 있으며, 독일에서의 연수 세미나 혹은 어학강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③ 문화원 내 도서관 운영을 통한 자료지원: 문화원 내 도서관은 독일어 서적과 시청각 자료, 선별된 한국어 번역서를 자유롭게 접할 수 있는 공간이다. 6명의 전임직원이 근무하는 이 도서관은 도서관장을 포함하여 도서관 직원의 절반은 물리적 자료를 선정 및 관리하고, 나머지 절반의 직원은 온라인상의 자료를 제공하고 관리하여 체계적인 업무 분담이 되어 있다. 독일 문화를 포함해서 독일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문화원 내 독일어를 공부하는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 도서관을 운영한다.

출판된 자료뿐만 아니라, 2012년부터는 전자도서관 'Onleihe'가 도입되어 이용자들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전자 미디어 형태의 자료로의 접근이 가능해진다. 주한독일문화원 도서관 연간 통계(2019)에 따르면, 총 장서 수는 3,899점, 온라인 장서 수는 약 4만여 점에 달하며, e-book, 오디오북, 전자잡지 등의 디지털자료뿐만 아니라 100편 이상의 독일 영화를 온라인상에서 열람 가능하다.

자료의 이용률을 살펴보면, 오프라인 도서관 자료 대출 수는 52%, 온라인 도서관을 통한 대출 수는 48%로 디지털 자료들이 전체 대출의 절반에 달한다. 이러한 자료 이용률을 바탕으로, 물리적 자료는 점차 줄여가는 추세이고, 온라인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도서관을 운영 중이다. 그룹별 이용자 통계를 보면, 일반이용자들은 68%, 문화원 내 어학프로그램 수강생들은 32%로 나타난다.

자료를 선정하는 방식은 본부에서 매년 네 번 정도 순수문학, 논픽션, 어린이 청소년 문학, 오디오북 등의 분야별 추천리스트를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도서관장은 이 추천리스트와 미디어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자료 및 각종 문학상을 받은 자료 등을 추가하여 현지에서 필요한 자료를 선정하여 주한독일문화원으로 보내준다.

동아시아 지역 문화원 도서관 사서들 간의 네트워킹도 활발하다. 연 1회 대면 컨퍼런스/미팅을 진행하고, 1~2달에 한 번 온라인 컨퍼런스/미팅을

통해 각 도서관에서 하는 일들에 대한 브리핑, 아이디어 및 자료 교환 등 도서관 간의 네트워킹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다.

한국문학번역원과의 번역 협업, 독일문학 읽기 경연대회, 도서 축제 참가, 사회번역프로젝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서관이 중심이 되어 진행 중이다. 가장 특화되어 있는 프로젝트는 2017년 처음 시작한 사회번역프로젝트(Social Translating Project)로 10여 개 국가에서 모인 번역가들이 한 권의 독일어 소설을 각국의 언어로 번역하고, 전자책 플랫폼 상에서 만나 서로 교류하거나 저자와의 긴밀한 대화를 통해 번역작업을 수행하는 것이다. 번역자와 저자가 서로의 의견을 따라갈 수 있도록 전자책(e-book) 본문에도 노트를 작성할 수 있는 소셜 기능이 있는 전자책(e-book) 플랫폼이 적극적으로 활용된다. 2020년 10월 기준 도서관에서 연구자들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는 않지만, 기본적인 학습 상담 및 상호교류 프로그램은 제공하고 있다.

④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 지원: 주한독일문화원은 예술가들을 위한 플랫폼이자, 독일 예술가와 한국 문화계 및 시민사회 간의 매개체 역할을 맡고 있다. 한국의 여러 기관과 단체, 예술가와의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긴밀하게 협력하여 독일 저자 작품 낭독회, 도서 전시, 일러스트레이터와의 워크샵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한국과 독일 사서들 간의 전문적 교류를 지원한다.

5) 이탈리아

- 이탈리아의 경우, 자국학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자료를 찾기가 어려워 이탈리아대사관(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이탈리아문화원 내의 이탈리아자료실을 방문하였다.
- 개요
  - 이탈리아자료실은 문화원 회원과 이탈리아어 강좌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약

6천여 권의 도서, 백과사전/잡지, CD/DVD(약 200여 개) 대여 및 이탈리아 신문 온라인 열람이 가능하다(자료실 내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탈리아 일간지 La Repubblica와 Corriere della Sera 기사 열람가능).

- 예산규모
  - 예산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문화원 안에 자료실이 설치되어 있기는 하지만 자료실 운영에 편성된 예산이 따로 없다. 자료를 입수할 때는 기증에 100% 의존한다. 매년 6월 서울국제도서전이 종료되면 출판사로부터 책들을 기증받는 형식으로 자료를 입수한다.

- 전문 인력의 부재
  - 주한이탈리아대사관 내의 이탈리아자료실에는 전문적인 사서가 존재하지 않는다. 문화원 직원들이 도서관을 운영 및 관리하고 심지어 자료가 입수되었을 때 자료의 분류와 목록화까지 담당한다.

- 자료의 주제와 자료의 이용
  - 자료의 주제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학관련 교재, 어린이 그림책, 문학(세계고전문학, 이탈리아 근 현대문학), 경제/법률서적, 예술/디자인관련(도감) 등 다양한 주제의 자료들을 수집한다. 이탈리아어 자료뿐만 아니라, 이탈리아 작가들 책의 번역본 또는 이탈리아 여행에 관련한 일반적인 주제의 책도 소장하고 있다.

  - 이용자들은 자료를 약 2주간 대출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대출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 자료실에 소장된 자료는 Catalogo OPAC에서 검색이 가능하다.

- 그러나 현재 전자책, 전자 자료와 같은 디지털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 자료실의 이용자층
- 이탈리아자료실의 주 이용자층은 문화원 내 이탈리아어 강좌 수강생들, 이탈리아에 관심이 있는 한국인들, 이탈리아에서 한국으로 이주해 온 이민자들이다.

• 그 외 프로그램 지원
- 그밖에 문화원의 프로그램은 매년 이탈리아 외무부에서 이탈리아 도서의 해외 번역출판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그림 Ⅳ-2] 이탈리아문화원 내 이탈리아자료실 소장 자료의 예

6) 해외 한국자료실 사업개선에 대한 시사점

- 중국과 대만에서도 Window on Korea와 유사한 프로그램 Window to China, Window of Shanghai, Taiwan Resources Center for Chinese Studies 등을 국립도서관에서 제공하고 있다. 대만의 경우, 해외 대학도서관을 중심으로 자료지원의 목적 외에도 대만학 연구를 위한 직접적인 지원과 출판, 참고서비스, 관련 서지 구축, 중국/대만 연구자 정보 구축, 학술 행사 지원을 적극적으로 도모하고 있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 중국의 공자아카데미를 통한 시사점은 자료의 중립성을 잃지 않도록 무한히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종교적으로 편향된 시각을 제공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

- 일본에서는 일본국제교류기금과 국제일본문화연구센터, 일본재단을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의 연구지원과 교육, 문화 활동을 지원한다.

- 특히 일본과 독일, 이탈리아의 자료실들은 어학프로그램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어학프로그램의 수강생들이 쉽게 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제의 장서들을 구축하여 돕고 있다. 다만, 이탈리아자료실의 경우 오프라인상의 자료만 제공하는 것은 자료실 외부에서 이용자들이 자료에 접근을 어렵게 만들어 온라인 자료도 제공되는 등의 서비스 확대가 요구된다.

- 특히 주한독일문화원의 경우, 문화원 내 도서관은 도서관 운영을 위한 충분한 인적자원(전임직원 6명)을 확보하고, 물리적 자료들과 온라인상의 자료들을 직원들이 업무 분담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자료를 2012년부터 이용자들에게 제공했다는 점이 인상적이고, 2020년 기준 온라인과

오프라인 자료들의 이용률이 각각 절반에 이를 정도로 온라인 자료 수요가 높다는 점 역시 유념해야 한다. 나아가 동아시아 지역 독일자료실 사서들 간의 온라인 및 오프라인 네트워킹을 통해 아이디어를 서로 공유하는 활동 역시 Window on Korea 프로젝트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모범 사례 요소이다.

V.
해외 한국자료 이용 및 수요 조사

1. 연구 설계 및 조사 과정
2. 해외 한국자료실(WOK) 이용 및 수요 조사
3. 해외 한국자료 수요 조사

V. 해외 한국자료 이용 및 수요 조사

1. 연구 설계 및 조사 과정

1) 한국자료 이용 및 수요 조사 연구 설계 및 조사 과정

• 국립중앙도서관 해외 한국자료실(Window on Korea, 이하 WOK)을 방문하는 이용자와 한국자료 및 한류 정보에 대한 수요가 있는 비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법과 심층인터뷰 기법을 실시하여 해외 한국 자료 이용 현황과 정보요구를 조사하였다. 아래 표는 전체 조사 설계를 요약한 것이다.

〈표 V-1〉 전체 조사 설계

구분	설문조사법		개별 심층인터뷰 기법
	1차 설문조사	2차 설문조사	
조사 목적	WOK자료실 이용경험, 이용만족, 요구사항과 한국 관련 정보 이용 행태와 수요 파악	1차 설문조사 및 인터뷰 결과 보완을 위해 구체적인 의견 수집	해외 한국자료 이용자들의 한국에 대한 관심, 한국 관련 정보 이용 행태, 요구 사항 등 심층 이해
조사 대상	WOK이용자와 WOK를 이용하지는 않지만 한국 관련 자료에 대한 수요를 가진 개인	1차 설문조사 시 2차 설문조사 참여의사를 밝힌 WOK이용자와 비이용자	해외에서 한국 관련 정보자료를 이용한 경험이 있으며 미래 자료와 자료실 수요가 있는 개인
자료수집 방식	주로 폐쇄형 질문으로 구성된 구글 설문지폼	주로 개방형 질문으로 구성된 구글 설문지폼	연구자와 1:1 대면, 비대면 화상인터뷰, 이메일 인터뷰
조사 내용	인구통계학적 특성, 한국에 대한 관심과 경험, 한국 관련 정보 이용 행태와 요구, 한국자료실에 대한 기대	한국 자료와 WOK자료실 이용 시 겪었던 어려움, 희망사항, 향후 서비스에 대한 기대	한국에 대한 관심과 경험, 한국 관련 정보 이용 행태, 한국 자료를 위한 도서관 이용 경험, 개선사항, 한국자료실에 대한 기대
응답자 모집방법	한국학 연구자, 한류 소비자, 한국어 학습자가 모인 오프라인 및 온라인 커뮤니티	참여 의사 밝힌 1차 설문조사 참여자에게 이메일로 질문지 발송	연구진이 커넥션 있는 개인들에게 연락 후 눈덩이 표집(snowball sampling)
응답자 수	467	26	73
조사 기간	2020년 10월1일~31일	2020년 10월17일~31일	2020년 9월20일-10월15일

• 본 연구에서 심층 인터뷰 기법을 적용한 자료수집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비대면 조사가 불가피하였다.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과는 1:1 대면으로 인터뷰를 진행하기도 하였으나, 해외 참여자의 경우는 이메일을 통한 서면 조사와 Zoom 등의 화상회의 도구를 활용하여 비대면으로 진행하였다.

	기간	조 사 내 용	
1	8월	**문헌 조사:** 해외 한국 관련 정보 이용 및 요구에 관한 자료 검토	
		↓	
2	8월 중순-9월20일	심층 인터뷰지 초안 작성	설문지 초안 작성
		↓	↓
3	9월20일-10월15일	**개별 심층 인터뷰**	사전 조사(pilot & pre-test):
			↓
3	9월27일-9월30일		설문 검토를 위한 인터뷰 내용을 토대로 설문지 수정 보완
			↓
4	10월1일~10월31일		본조사: **1차 설문조사 진행**
		↓	↓
5	10월13일~10월31일	**심층 인터뷰 내용분석**	후속조사: 1차 설문 응답자 대상 **2차 설문조사**
		↓	↓
6	11월1일~11월10일	자료 분석: 1차 설문조사 통계분석 및 2차 설문조사 내용 분석	

[그림 V-1] WOK 이용자 및 한국자료 수요자 조사 과정

(1) 개별 심층 인터뷰 개요

• 조사 대상 개개인에 대한 심층 인터뷰는 두 가지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첫 번째 목적은 조사 대상자들의 한국에 대한 관심, 한국 관련 정보 이용 행태, 요구 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었다. 두 번째 목적은 본 연구에서 수행될 설문조사를 위하여 사용될 설문지 작성을 위한 사전 조사 용도로 수행되었다.

- 2020년 9월 20일부터 인터뷰를 시작하였고, 연구자와 참여자가 1:1 대면 또는 비대면 화상인터뷰 방식으로 영어 또는 한국어로 진행하였고, 통신환경이나 일정 상 부득이한 경우는 온라인 서면조사를 하였다.

- 참여자 모집은 연구진이 개인적 인맥을 통해 눈덩이표집(snowball sampling) 방식으로 이루어졌다(〈표 V-1〉참조). 직접 대면 인터뷰는 연구자의 연구실에서 진행하였는데, 면담자별로 약 1시간 가량 소요되었다. 화상인터뷰의 경우 30분~1시간 정도 소요되었다. 이메일로 진행된 경우는, 인터뷰 질문에 응답한 후 후속 질문으로 수차례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이루어졌다.

- 심층 인터뷰를 위한 인터뷰 가이드를 개발하였다([부록] 참조). 주요 질문 내용으로는 한국에 대한 관심, 한국과 관련한 경험, 해외에서 한국 자료를 이용한 경험과 애로사항, 선호하는 한국 자료의 주제와 유형, 한국자료 지원 서비스에 대한 기대를 공통 문항으로 하였고, 한국자료실 이용 경험이 있는 참여자에게는 이용 목적, 주로 이용하는 자료와 희망하는 자료, 직원에게 도움 받고 싶은 사항, 이용 시 좋았던 점과 개선점 등을 추가로 질문하였다.

(2) 설문조사 개요

- 설문은 2차에 걸쳐 진행되었다. 1차 설문은 주로 정량적 질문으로 구성되었고, 2차 설문은 1차 설문에서 후속 인터뷰에 응할 의사가 있다고 표현한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정성적 질문으로 구성하여 실시하였다.

① 1차 설문 조사

- 설문지 개발: 1차 설문 조사를 위해 먼저 문헌과 개별 심층 인터뷰를 통해 파악된 내용을 토대로 설문지를 구성한 후, 9월 동안 예비조사를 마친 후 10월

1일부터 온라인 설문 도구(Google form)를 활용하여 조사를 시행하였다([부록] 참조)

- 작성 언어: 1차와 2차 설문조사에서 모두 한국어와 영어 2개 언어로 작성하였다.

- 조사 대상자 모집: 본 연구의 조사 대상자는 국립중앙도서관의 WOK 이용자와 WOK를 이용하지는 않지만 한국 관련 자료에 대한 수요를 가진 개인들을 모두 포함한다. 따라서 설문 참여자 모집은 WOK 이용자 집단에서의 모집과 비이용자 집단에서의 모집을 동시에 진행하였다.

- WOK 이용자 집단의 경우, WOK 자료실에 공문을 보내 설문조사에 대한 홍보를 요청하는 한편, 본 연구에서 심층 인터뷰에 참여한 WOK 자료실 담당 사서, 그리고 WOK 자료실에 있는 지역에 유학중인 한국인 학생들을 통해 홍보하였다.

- 비이용자 집단의 경우, 사전조사와 개별 심층 인터뷰를 통해 파악된 바, 해외 한국자료 수요자가 크게 한국학과 같은 학문적 관심으로 인한 수요 집단과 한류로 인한 관심에서 한국어 학습으로 이어지는 관심 집단이 있음을 파악하였다. 이에 이 두 관심 집단이 모두 속한 집단은 물론, 각 집단별 특성을 반영하는 오프라인 및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참여자를 모집하였다.

- 조사 대상자 모집에 활용된 사이트 또는 인적 네트워크: 국내 대학교 한국어학당 게시판, 한국학자들의 뉴스레터, 국내 대학교 커뮤니티 공개 게시판, 한국어 학습 Facebook group 등에 게시하였고, 해외 한국문화원, 국내 대사관, 해

외 한국학 사서, WOK 자료실 사서, 한국학 연구자 네트워크 등을 활용해 설문 목적에 부합한 사람들에게 전달하였다. 구체적인 모집 경로는 아래와 같다.

• **국립중앙도서관 WOK 이용자 집단** - WOK 자료실 공문 - 개별인터뷰에 응한 WOK 도서관 사서들의 홍보(이탈리아 로마 라 사피엔차 대학(Antonella Fallerini),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Liliane Sperr), 필리핀 아테네오 대학(Mary Grace Febra),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도서관(Timur Akhmetov) - 스페인 말라가대학 한국 유학생과 재학생들을 통한 홍보
• **한국학 연구자 집단** - Korean Studies Portal(http://koreanstudies.com/URL) - 연세대 한국어학당 홈페이지 커뮤니티-자유게시판 - 연구진에서 배포할 만한 커넥션 있는 개인들에게 연락 - 해외 한국학 연구자 이메일 리스트(1,459명) 전체 발송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공데이터) - 유럽 한국학 사서 네트워크
• **한류/한국어 관심 집단** - 명지대 국제교류팀 협조로 해외 유학생, 한국어학당, 교환학생 Band 공지 - 대면 인터뷰에 참여한 11명의 명지대 재학 외국유학생, 교환학생, 어학당 학생들의 개인 커뮤니티들을 통한 해외(유럽, 중동, 아시아 9개국) 공지 - 이화여자대학교 학생 커뮤니티 자유게시판 - 페이스북의 FB groups: Study Korean!, Leiden University Korean Studies group - Reddit(/Korea)

- 조사 기간: 2020년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470부를 회수하였으며 성실하지 않은 응답 3부를 제외한 467부를 분석 대상으로 최종 포함하였다.[1)]

- 설문 문항: 설문 문항은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한국(한류, 한국어, 한국학)에 대한 관심과 경험, 한국 관련 정보 이용 행태, 한국자료 및 한국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기관에 대한 선호와 요구를 공통 문항으로 하였고, WOK 이용 경험 유무에 따라 WOK 이용자에게는 이용 행태, 이용 만족, 이용 요구를 묻는 문항을 WOK 비이용자에게는 WOK 존재 인식, 타 기관 이용 경험을 묻는 문항을 서베이 도구 알고리즘에 따라 질문하였다.

- 자료 분석: 1차 설문 분석은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 SPSS(18.0)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빈도분석, 평균비교, 교차분석을 하였다.

〈표 V-2〉 1차 설문지 조사 내용

설문조사 항목	설문조사 문항
인구통계학적 특성	국적, 거주 국가, 연령대, 소속
한국에 대한 관심과 경험	관심도, 관심 갖게 된 연도, 한국과 관련된 일 경험, 한국 관련 관심 분야, 한국어 수준, 한국어 학습 경험 및 계획, 현재 관심 단계(한류-한국어-한국학)
한국 관련 정보 이용행태와 요구사항	주이용 정보원, 선호하는 정보원
한국자료실/타 기관 이용경험과 요구사항	(이용자) 자료실 알게 된 계기, 처음 이용한 연도, 이용 빈도, 1회 평균 이용 시간, 이용 목적, 주이용 주제 분야, 사서/직원에게 도움 받은 경험, 이용 만족, 한국자료실 이용 의견
	(잠재이용자) 존재 인식 유무, 이용하지 않은 이유, 한국 자료 제공 기관 필요성, 타 기관 이용 경험, 타 기관 이용 의견
한국자료실에 대한 요구와 기대	한국자료실이 갖추길 바라는 요소(자료/공간/사서), 사서와 직원이 도움 주기를 바라는 점, 효과적인 홍보 방안

1) 불성실한 응답이 적은 이유는 온라인 서베이 도구의 기능을 활용하여 필수 문항에 모두 응답하지 않을 경우 다음 단계로 넘어가거나 제출하는 것이 불가능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② 2차 설문 조사

- 2차 설문: 보다 폭넓은 정보 이용자 및 WOK 이용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1차 설문 응답자 중에서 후속 인터뷰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2차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2차 설문은 모두 질적 자료로 수집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구체적으로, 1차 설문조사 참여자 중 인터뷰 참여 의사를 밝힌 234명에게 10월 17일 이메일을 통해 개방형 질문들로 구성된 설문지를 발송하였다. 그 중 총 73명이 2차 설문조사에 응답하였다.

- 2차 설문지 질문은 설문조사 시 개방형으로 물었던 질문들을 토대로 하였으나, 이용 경험, 요구사항, 서비스에 대한 기대, 한국자료실 방문 시 받았던 인상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응답하도록 질문하였다.

- 용어정리
  - 한국자료실(WOK): 국립중앙도서관이 해외에 설치한 한국자료실(Window on Korea)을 의미한다. “WOK”로 사용하기도 한다.
  - 한국자료 수요자: 본 조사에서 의미하는 해외 한국자료 수요자란 한국 또는 한국 자료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있는 모든 사람들로, WOK 이용 경험 여부와 무관하다. 따라서 WOK를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과 이용한 경험이 없는 사람을 모두 포함한다. 맥락에 따라 “한국자료 이용자”로 표현하기도 한다.
  - WOK 이용자: 한국자료 수요자 중에서 WOK을 한 번이라도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설문이나 인터뷰에서 이용경험이 있었다고 응답한 사람을 의미한다. 대비되는 개념은 “WOK 잠재이용자”이다.
  - WOK 비이용자: 한국자료 수요자 중에서 과거 WOK를 한 번도 이용해 본 경험이 없다고 밝힌 사람을 의미한다. 앞으로 국립중앙도서관의 WOK가 설치된

다면 잠재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으로 “WOK 잠재이용자”로 표현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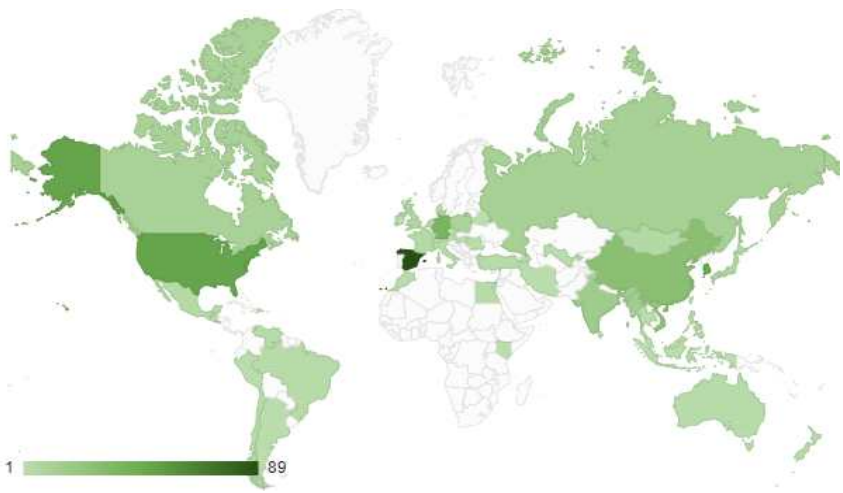
- 설문 응답자: 본 연구의 설문 조사에 참여하여 응답한 사람을 의미한다.
- 피면담자: 본 연구의 심층 인터뷰 조사에 참여한 사람을 의미한다. “심층면담 참여자”로 표현하기도 한다.

2. 해외 한국자료실(WOK) 이용 및 수요 조사

1) 1차 설문조사 응답자 특성 분석

- 설문 응답자 특성은 유효 설문응답 467개를 대상으로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관한 문항과 한국에 대한 관심 수준, 관심 분야, 관련 경험을 묻는 문항을 분석함으로써 파악하였다.

- 설문 응답자 특성을 분석할 때 전체 응답자를 WOK 이용자(n=85)와 비이용자(n=382)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전체 응답자를 분석하거나 WOK 이용자만을 분석할 경우에 WOK 이용자 고유의 특성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WOK 비이용자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WOK 이용자의 특성을 보다 분명히 파악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내린 결정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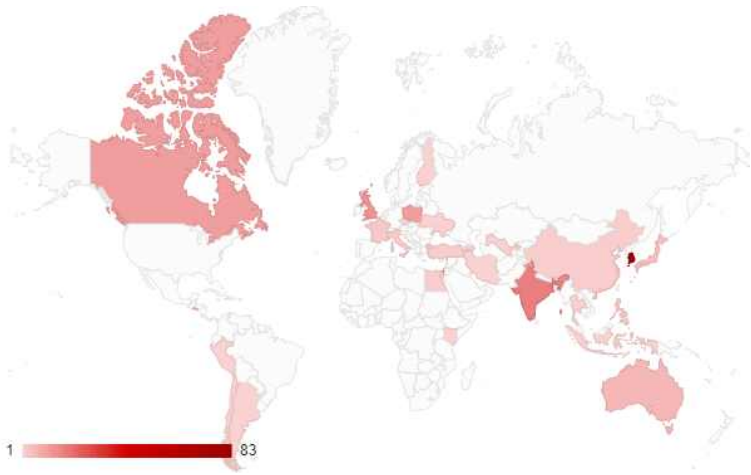


[그림 V-2] 전체 응답자 국적 분포

① 인구통계학적 특성

- 응답자 국적: 본 연구의 1차 설문조사에는 총 55개국의 다양한 국적의 응답자가 참여하였다. 유효 응답 기준 WOK 이용자 집단(n=84)에서는 이중국적자 1인을 제외한 20개 국적인, 비이용자 집단(n=372)에서는 이중국적자 14인을 제외한 52개 국적인이 설문에 응답하였다. 이용자는 스페인 국적자가 29명(23.8%)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미얀마(9명), 한국과 인도 각 8명, 엘살바도르(7명), 이스라엘(6명) 국적자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비이용자는 스페인 국적자가 69명(18.54%)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미국(46명), 한국(39명), 중국(28명), 베트남(20명)이 뒤이어 높게 나타났다.

- 거주 국가: 설문 응답자의 현재 거주 국가는 총 51개국이었다. WOK 이용자의 경우 85명 중 응답하지 않은 네 명을 제외하면 20개 국가에 거주하는 81명이 설문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고, 비이용자 381명은 49개 국가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WOK 이용자는 스페인 거주자가 20명(24.69%)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미얀마(9명), 인도(8명), 베트남(7명)으로 뒤를 이었다. 비이용자는 현재 스페인 거주자가 80명(20.83%)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79명), 독일(40명)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그림 V-3] 응답자 거주 국가 분포

- 연령: 연령대는 전체응답자의 46.7%가 20대에 속하였고, 그 다음 30대와 40대가 각각 20.1%, 14.9%로 전체 응답자의 약 80%가 20대~40대에 속하였다. WOK 이용자 85명 중 무응답 두 명을 제외한 83명의 응답과 비이용자 382명 중 무응답 세 명을 제외한 379명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 두 집단 모두 20대(60.2%, 43.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30대(15.7%, 21.1%), 40대(12.0%, 15.6%)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표 V-3〉 응답자 연령대

단위: 명(%)

		WOK이용자	비이용자	전체
연령대	10대 이하	1(1.2)	8(2.1)	9(1.9)
	20대	50(60.2)	166(43.7)	216(46.7)
	30대	13(15.7)	80(21.1)	93(20.1)
	40대	10(12.0)	59(15.6)	69(14.9)
	50대	5(6.0)	39(10.3)	44(9.5)
	60대 이상	4(4.8)	27(7.1)	31(6.7)
전체		83(100.0)	379(100.0)	462(100.0)

• 응답자 신분: 소속 집단을 묻는 문항은 WOK 이용자는 한 명을 제외하고 모두 답하였고, 비이용자는 모두 빠짐없이 답하였다. 전체 응답자의 30.9%는 연구자/교수였고, 26.0%는 대학원생이었다. WOK 이용자는 대학생(38.1%), 연구자 및 교수(27.4%), 대학원생(25.0%) 순이었으며, 비이용자는 연구자 및 교수(31.7%), 대학원생(25.4%), 대학생(23.3%)의 순으로 나타나 두 집단 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소속 집단에 차이를 보였다. 기타응답으로는 사서, 대사관 행정직원, 은퇴한 외교관, 박물관 큐레이터, 비서, 간호사, 경비원, 회사원 등이 참여하였다.

〈표 V-4〉 응답자 신분

단위: 명(%)

		WOK이용자	비이용자	전체
소속 집단	초, 중, 고등학생	2(2.4)	9(2.4)	11(2.4)
	대학생	**32(38.1)**	89(23.3)	121(26.0)
	대학원생	21(25.0)	97(25.4)	118(25.3)
	한인교민 및 한국인	0(0.0)	5(1.3)	5(1.1)
	연구자 / 교수	23(27.4)	**121(31.7)**	144(30.9)
	교사	1(1.2)	22(5.8)	23(4.9)
	기타	5(6.0)	39(10.2)	44(9.4)
전체		84(100.0)	382(100.0)	466(100.0)

- 위의 응답자 신분에 나타난 WOK 이용자와 비이용자의 차이가 시사 하는 바는 본 연구의 설문조사 배포 및 참여자 특성과 연결시켜 생각할 수 있다. 설문조사 참여자 리쿠르트를 위해 WOK 이용자에 대해서는 WOK 자료실을 통해 설문지를 배포하였고 WOK 비이용자에 대해서는 한류, 한국어, 한국학 등 각 차원에 관심이 있는 모든 사람을 다양하게 참여시키기 위하여 각종 커뮤니티를 활용하여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 WOK 이용자들은 코로나 상황에서 자료실이 운영되고 있거나 또는 어떤 방식으로든 WOK 자료실로부터 본 조사에 대한 공지를 통해 참여하였고 WOK

에 관심이나 충성도가 높은 사람들이 참여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 WOK 비이용자들의 경우는, 본 연구진이 배포한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자발적으로 참여한 사람들로, 본 조사가 한국의 국가도서관인 국립중앙도서관의 해외 자료지원 서비스와 관련된 연구임에 관심을 갖고 국립중앙도서관의 서비스에 대한 기대를 표현하고자 참여한 사람들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설문지 마지막에 후속 인터뷰에 응할 의사를 질문했을 때 2/3이상의 응답자가 희망했음은 이를 입증하는 것이다. WOK 이용자 집단에 비해 비이용자집단에서 한국학 연구자/교수급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는 사실은 현재의 국립중앙도서관의 서비스와는 무관하게 이들 스스로는 국립중앙도서관의 현재 또는 잠재 고객으로서의 기대를 갖고 있으며 따라서 국립중앙도서관 서비스의 주 이용고객 집단이 될 수 있음을 시사 한다고도 볼 수 있다.
- 이후 WOK 이용자와 비이용자를 비교한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이러한 이용자의 특성을 염두에 두고 읽을 필요가 있다.

② 한국에 대한 관심과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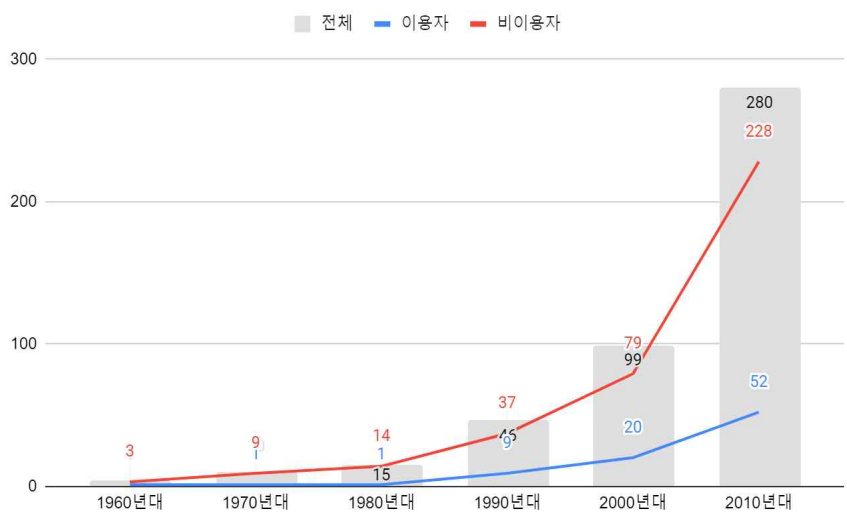
- 한국에 대한 관심 수준: 한국에 대한 관심 수준을 1-10점 척도로 묻는 문항을 분석한 결과, 전체응답자(N=467)의 평균 관심도는 9.17점이었다. 이용자 85명의 평균 관심도는 9.29점, 비이용자 362명의 평균 관심도는 9.14점으로 이용자의 관심 수준이 근소한 차이지만 더 높았다. 또한, 이용자는 관심 수준을 5점보다 낮게 응답한 경우가 없었지만, 비이용자는 3점, 4점에도 답한 경우도 있었다.

〈표 V-5〉 한국에 대한 관심 수준

범위: 1-10(1: 전혀 관심 없음, 10: 매우 관심 있음)

	WOK이용자	비이용자	전체
관심 수준	9.29	9.14	9.17

- 최초 관심 시기: 한국에 처음 관심을 가진 연도를 기입하는 문항에서(N=454) 관심 시기는 1960년부터 가장 최근인 2020년까지로 그 스펙트럼이 매우 높았다. 10년 단위로 묶어 분석한 결과, 2000년대에서 2010년대 사이에 전체 응답 기준 99에서 280으로 약 3배 가까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이용자(n=84)와 비이용자(n=370) 두 집단 모두 이 시기에 가장 많이 증가하였다.



[그림 V-4] 한국에 처음 관심을 가지게 된 연도

- 한국 관련 경험: 한국과 관련된 일을 해 본 적이 있는지 다중 응답으로 질문하고 교차 분석한 결과(N=495), 이용자 84명, 비이용자 375명이 응답하였다. 전체 응답자의 약 65%는 언어 관련, 연구 관련 업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용자와 비이용자도 같은 순으로 응답 수가 높게 나타났다. 두 가지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경우는 비영리 목적 민간교류가 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고, 비이용자는 한국 관련 업무를 경험한 적이 없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개방형으로 답한 기타 응답으로는 여행 산업, 신문방송, 도서관, 콘텐츠 제작 관련 일 등을 경험했다는 응답이 있었다.

〈표 V-6〉 한국 관련 업무 경험 유무

단위: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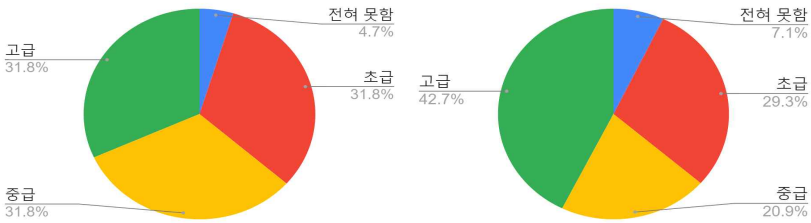
			WOK이용자	비이용자	전체
업무 경험	언어 관련	빈도	57	176	233
		이용유무 %	(42.9)	(32.7)	
		전체응답 %	(8.5)	(26.2)	(34.7)
	연구 관련	빈도	40	170	210
		이용유무 %	(30.1)	(31.6)	
		전체응답 %	(6.0)	(25.3)	(31.3)
	비영리 교류	빈도	12	50	62
		이용유무 %	(9.0)	(9.3)	
		전체응답 %	(1.8)	(7.5)	(9.2)
	영리 목적	빈도	9	22	31
		이용유무 %	(6.8)	(4.1)	
		전체응답 %	(1.3)	(3.3)	(4.6)
	경험 없음	빈도	11	97	108
		이용유무 %	(8.3)	(18.0)	
		전체응답 %	(1.6)	(14.5)	(16.1)
	기타	빈도	4	23	27
		이용유무 %	(3.0)	(4.3)	
		전체응답 %	(0.6)	(3.4)	(4.0)
전체			133	538	671
전체 응답 %			(80.2)	(19.8)	(100.0)

- 관심 분야: 가장 관심 많은 한국 관련 분야를 3순위까지 선택하는 문항의 경우 WOK 이용자, 비이용자 모두 응답하였다. 전체 응답자가 가장 많이 1순위로 답한 분야는 한국어 학습(30.4%)이었고, K-컬쳐(26.1%), 예술·역사(17.8%)가 뒤를 이었다. 이용자가 가장 많이 1순위라고 답한 분야 역시 한국어 학습(34.1%)이었고, 2순위 결과도 같았으며(한국어 학습, 23.5%), 3순위로는 예술·역사와 문화·문학이 각 20.0%로 나타났다. 비이용자 역시 1순위와 2순위로 가장 많이 꼽힌 분야는 한국어 학습(29.6%, 25.7%)이었으며, 3순위가 예술·역사(26.7%)인 점도 동일하였다. 순위를 고려하지 않고 항목 당 응답수를 보았을 때는 아래 초록선과 같이 이용자, 비이용자 모두 같은 경향을 보였다.

[그림 V-5] WOK 비이용자 관심 분야 TOP 3

[그림 V-6] WOK 이용자 관심 분야 TOP 3

- 한국어 수준: 한국어 실력수준은 WOK 이용자의 경우 85명 중 전혀 못한다고 응답한 4.7%를 제외하고는 초급, 중급, 고급이라고 답한 비율이 모두 각 31.8%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반면에 비이용자 382명은 전체의 약 42.7%가 한국어 수준이 고급이라고 하였으며, 뒤이어 초급(29.3%), 중급(20.9%)이라고 답하여 WOK 이용자에 비해 고급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V-7] WOK 이용자 비이용자 한국어 수준

- 한국어 학습: 한국어 학습 경험과 계획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88.2%가 한국어를 배웠었다고 답하였고, 학습계획을 묻는 질문에 74.7%가 배울 계획이 있다고 하였다. 집단별로 보면, 이용자 85명의 95.3%가 한국어를 학습한 경험이 있다고 답하였고, 88.2%는 앞으로도 학습할 계획이 있다고 하였으며, 비이용자 382명의 86.6%가 과거 한국어를 학습했었고, 71.7%는 앞으로 학습할 계획이 있다고 하여 WOK 이용자가 한국어 학습 경험이 있다고 답한 비율이 크며 한국어 학습 의지 역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7〉 한국어 학습 경험, 계획 유무

단위: 명(%)

		WOK이용자	비이용자	전체
학습 경험	있음	81(95.3)	331(86.6)	412(88.2)
	없음	4(4.7)	51(13.4)	55(11.8)
		85(100.0)	382(100.0)	467(100.0)
학습 계획	있음	75(88.2)	274(71.7)	349(74.7)
	없음	10(11.8)	108(28.3)	118(25.3)
		85(100.0)	382(100.0)	467(100.0)

- 한국에 대한 관심 단계: 한국에 대한 관심이 한류에서 시작해서 한국어 학습, 한국학으로 이어진다는 의견에 동의하는지 4점 척도로 질문한 결과, 전체 응답자(N=467)의 90.5%가 대체로 동의하거나 매우 동의한다고 답하였다. WOK 이용자와 비이용자로 나누어 봤을 때 이용자의 88.3%, 비이용자 역시 91.1%가 대체로 동의하거나 매우 동의한다고 하였다.

〈표 V-8〉 한국에 대한 관심 발전 단계에 대한 인식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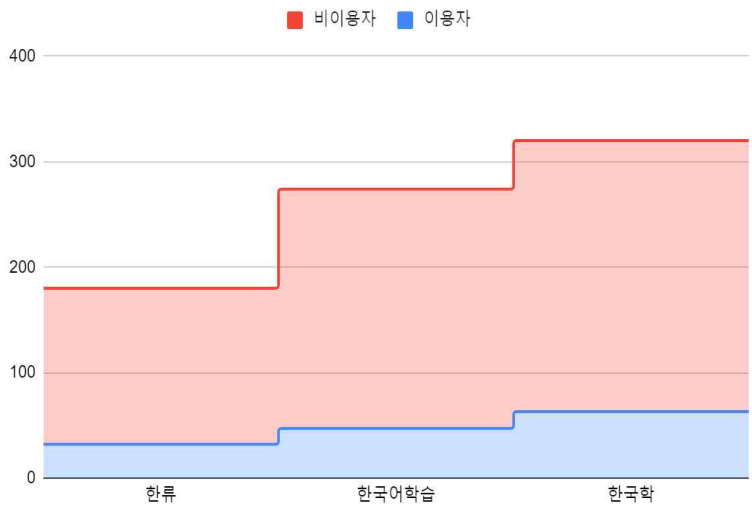
		WOK이용자	비이용자	전체
의견 동의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7(8.2)	16(4.2)	23(4.9)
	동의하지 않는다	3(3.5)	18(4.7)	21(4.5)
	대체로 동의한다	36(42.4)	186(48.7)	222(47.5)
	매우 동의한다	39(45.9)	162(42.4)	201(43.0)
		85(100.0)	382(100.0)	467(100.0)

- 응답자 스스로 평가하기에 본인은 위의 세 가지 관심 발전 단계(한류→한국어→한국학) 중 어디에 속하는지 다중 응답으로 질문한 결과, 전체 응답자 모두 한국학-한국어-한류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WOK 이용자 집단은 한국학 44.4%, 한국어 33.1%, 한류 22.5% 순이었고, 비이용자는 한국학 40.7%, 한국어 32.4%, 한류 23.4%의 비율 순으로 나타났다.

〈표 V-9〉 한국 관련 관심 분야

단위: 명(%)

		WOK이용자	비이용자	전체
관심 분야	한류	32(22.5)	148(23.4)	180(23.3)
	한국어	47(33.1)	257(35.9)	274(35.4)
	한국학	63(44.4)	274(40.7)	320(41.3)
		142(100.0)	632(100.0)	774(100.0)



[그림 V-8] 한국에 대한 현재 자신의 관심 단계

2) 해외 한국 자료 지원 및 WOK에 대한 기대

- 해외 한국 자료 지원 및 WOK에 대한 기대 분석은 향후 한국자료실이 어떠한 유형과 주제의 자료를 제공해야 이용자의 기대에 보다 부응할 수 있을지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분석하였다. 따라서 한국자료실 이용 유무와 관계없이 공통으로 질문하였고, 유효 응답 부수 467개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 관심사별 수요 비교 분석: 한국 자료와 자료실에 대해 어떠한 수요를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분석에서는 한국에 대한 관심사별로 한국 자료와 자료실에 대해 수요가 다를 것으로 예측되므로, 크게 한류, 한국어 학습, 한국학 세 집단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이는 응답자가 앞선 문항에서 한류, 한국어 학습, 한국학 세 관심 단계 중 본인이 현재 속해있다고 답한 내용에 따

른 것이다. 다중 응답이었기 때문에 응답자가 두 개 이상 선택한 경우에는 보다 심화된 단계를 기준으로 하였다. 예를 들어, 한국어 학습과 한국학 단계에 해당한다고 답한 경우 한국학 단계에 속한다고 분류하였다.

- 467개의 응답 중 아무 것에도 관심이 없다고 답한 5개의 응답을 제외한 462개를 위의 기준에 따라 분류한 결과, 한류 집단(n=26), 한국어 집단(n=116), 한국학 집단(n=320)으로 구분하였다. 현재까지 본 연구 참여자의 대부분이 한국학 단계에 집중되어 있어 숫자에 편중이 나타났기 때문에 분석을 할 때는 절대적인 응답 수 보다는 각 집단별 문항에 대한 비율을 고려하였다.

- 설문 문항은 응답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자료 유형, 선호하는 자료 유형, 응답자가 생각하기에 이상적인 한국자료실이 갖추어야 할 요소, 사서 또는 직원이 도움주기를 원하는 사항들에 대한 중요도 평가 등으로 구성하였고, 해외 한국자료 이용 시 애로사항 및 개선점을 개방형으로 질문하였다.

- 주 이용 정보원: 한국에 관한 정보를 찾을 때 주로 이용하는 정보원을 조사한 결과, 세 집단 모두에서 인터넷이 각각 23.5%, 26.9%, 18.3%로 가장 높았다. 인터넷 다음 주로 이용하는 정보원은 한류 집단과 한국어 집단 모두 온라인 커뮤니티/소셜미디어가 각각 22.4%, 21.5%로 2위, 스트리밍 서비스가 각각 17.6%, 11%로 3위였다. 한편, 한국학 관심 집단은 인터넷 다음으로 온라인 학술자료(16.1%)와 종이책/종이잡지(15.5%)를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앞선 두 집단과는 차이를 보였다. 한류 집단과 한국어 집단을 비교하면, 한류 집단이 한국어 집단에 비하여 종이책/종이잡지(9.4%)와 주변 사람(8.2%)을 정보원으로 이용하는 비율이 높았고, 한국어 집단은 한류 집단에 비하여 교사/교수(9.4%), 온라인 학술자료(7.6%)를 더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학 집단은 다른 두 집단보다 전자책(9.9%)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았고, 종이책/종

이잡지 또한 15.5%로 집단 내 주로 이용하는 정보원 3위로 나타났다.

〈표 V-10〉 주 이용 정보원

단위: 응답(%)

순위	한류 관심 집단	한국어 관심 집단	한국학 관심 집단
1순위	인터넷(23.5)	인터넷(26.9)	인터넷(18.3)
2순위	커뮤니티/SNS(22.4)	커뮤니티/SNS(21.5)	온라인 학술 자료(16.1)
3순위	스트리밍(17.6)	스트리밍(11.0)	종이책/종이잡지(15.5)
4순위	종이책/종이잡지(9.4)	교사/교수(9.4)	커뮤니티/SNS(12.1)
5순위	주변 사람(8.2)	온라인 학술 자료(7.5)	전자책(9.9)
6순위	온라인 학술 자료(5.9)	종이책/종이잡지(7.3)	교사/교수(8.1)
7순위	교사/교수(4.7)	주변 사람(6.5)	스트리밍(7.6)
8순위	전자잡지(4.7)	전자책(5.9)	전자잡지(7.5)
9순위	전자책(3.5)	전자잡지(4.0)	주변 사람(5.0)
전체	85(100.0%)	372(100.0)	1227(100.0)

- 선호 자료 유형: 한국에 관한 정보를 찾을 때 선호하는 자료 유형을 조사한 결과, 한국어 집단과 한국학 집단은 종이책을 각각 25.1%, 23.7%의 비율로 가장 선호하였고, 한류 집단은 스트리밍 서비스를 22.7%의 비율로 가장 선호하였고, 종이책은 14.7%로 두 집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이었으나 집단 내 3순위였다. 온라인 학술자료는 한류 집단과 한국학 집단이 각각 16.0%, 20.4%로 한국어 집단 10.1%에 비하여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세 집단 모두 종이책을 전자책보다 선호하였고, 잡지의 경우는 종이잡지 보다는 전자잡지, CD/DVD보다는 스트리밍 서비스를 3배 가까이 더 선호하였다. CD/DVD, 종이잡지, 오디오북은 세 집단에서 공통적으로 가장 선호도가 낮았다.

〈표 V-11〉 선호하는 자료 유형

단위: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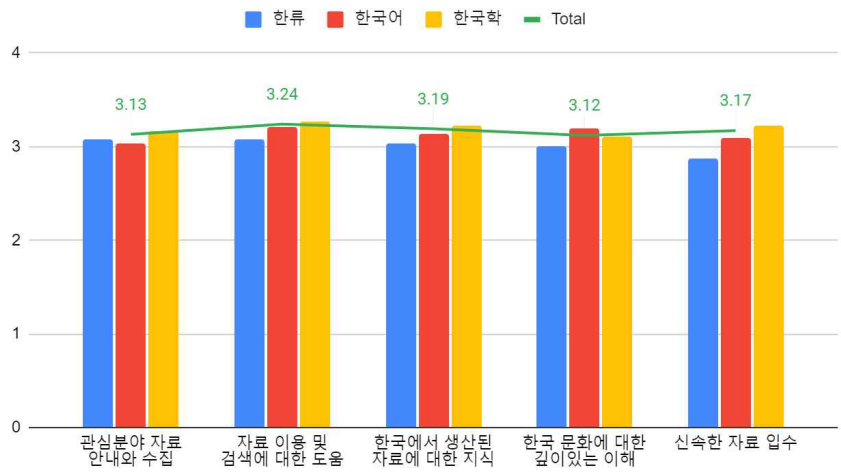
순위	한류 관심 집단	한국어 관심 집단	한국학 관심 집단
1순위	스트리밍(22.7)	종이책(25.1)	종이책(23.7)
2순위	온라인 학술 자료 (16.0)	전자책(17.7)	온라인 학술 자료(20.4)
3순위	종이책(14.7)	스트리밍(15.6)	전자책(18.2)
4순위	전자책(12.0)	전자잡지(10.7)	전자잡지(10.0)
5순위	CD/DVD(9.3)	온라인 학술 자료(10.1)	스트리밍(9.1)
6순위	전자잡지(9.3)	종이잡지(8.6)	종이잡지(7.5)
7순위	종이잡지(8.0)	오디오북(7.0)	CD/DVD(5.8)
8순위	오디오북(8.0)	CD/DVD(4.9)	오디오북(4.7)
전체	75(100.0)	327(100.0)	1003(100.0)

- 이상적인 한국자료실: 응답자가 거주하는 지역에 이상적인 한국자료실이 설치된다는 가정을 하고, 주어진 선택지 중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를 선택하도록 하여 한국자료실에 기대하는 바를 파악하였다. 16개의 보기를 세 집단 응답을 합하여 가장 많이 선택한 순서에 따라 나열하고, 각 집단별 보기에 해당하는 응답 수의 순위를 표시한 결과, 1, 2 순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제외하고는 집단별 기대하는 서비스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별 1순위로 기대하는 서비스는 한류 집단의 경우 '한국에 관한 최신 자료를 빨리 제공'해 주는 것이었고, 한국어 집단과 한국학 집단은 '온라인으로 집에서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었다. 한류 집단은 다른 두 집단과 비교하여 '모국어로 된 자료'에 대한 기대가 컸고, 한국어 집단은 '문화프로그램/전시', '한국 사회 동향을 알 수 있는 자료'에 대한 기대가 컸으며, 한국학 집단은 '최신자료'와 '높은 퀄리티의 엄선된 자료'에 대한 기대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세 집단에서 모두 낮은 순위를 기록한 보기는 '전자기기를 대여 받을 수 있다', '함께 토론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내 나라에 관한 한국어 자료가 있다' 등이었다.

〈표 V-12〉 이상적인 한국자료실에서 기대하는 서비스(순위 나열)

한국자료실에 기대하는 것	한류 집단	한국어 집단	한국학 집단	전체
온라인으로 집에서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2순위	1순위	1순위	1순위
한국에 관한 최신 자료를 빨리 제공한다	1순위	4순위	3순위	2순위
전자책, 전자저널, DB가 많다	10순위	9순위	2순위	3순위
높은 퀄리티의 자료를 엄선해서 제공한다	8순위	6순위	4순위	4순위
한국어로 된 자료가 많다	12순위	7순위	5순위	5순위
문화 프로그램 / 전시가 열린다	4순위	2순위	6순위	6순위
한국 사회에 관한 최근 동향 정보들을 얻을 수 있다	6순위	3순위	7순위	7순위
영어로 된 자료가 많다	12순위	5순위	7순위	8순위
자료실을 통해 한국 도서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8순위	11순위	9순위	9순위
다양한 영상매체(음악, 영화)를 즐길 수 있다	5순위	9순위	10순위	10순위
나의 모국어로 된 자료가 많다	3순위	7순위	13순위	11순위
자료 접근에 도움을 줄 사서가 있다	7순위	13순위	11순위	12순위
함께 토론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12순위	12순위	12순위	13순위
전자기기를 대여 받을 수 있다	12순위	14순위	14순위	14순위
내 나라에 관한 한국어 자료가 있다	10순위	15순위	15순위	15순위
기타	16순위	16순위	16순위	16순위

- 자료실 직원에 대한 기대: 한국자료실 사서나 직원에게 도움을 희망하는 사항을 보기 5개로 제시하고, 각 항목의 중요도를 4점 척도로 평가하도록 하여 응답자가 사서와 직원에게 기대하는 바를 조사하였다. 세 집단 공통적으로 '자료 이용 및 검색에 대한 도움'을 각각 3.08, 3.21, 3.27로 가장 중요하다고 평가하였고, '관심 분야 자료 안내와 수집', '한국에서 생산된 자료에 대한 지식'이 뒤를 이었다. '한국 문화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는 세 집단에서 모두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평가되었다.



[그림 V-9] 사서/직원에게 기대하는 것

3) WOK 이용 경험 조사

- 1차 설문조사 시 국립중앙도서관의 WOK를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에게는 크게 자료실 이용 행태, 이용 만족도, 이용 시 느꼈던 의견 등을 질문하였다. 본 WOK 이용 경험 조사 분석은 유효 응답자 467명 중 WOK 이용자로 응답한 총 85명의 응답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1) WOK 응답자 특성

- 85명의 이용자에 대하여 전체 분석과 더불어 서구권에 거주하는 40명과 비서구권에 거주하는 45명으로 나누어 보다 의미 있는 분석을 해 보고자 하였다. 서구권 비서구권으로 나눈 이유는 (1) 2020년 10월 현재 운영되는 26개 한국자료실이 비서구지역에 속하는 아시아/중동 지역에 약 50%, 서구지역에 속하는 유럽/북미/러시아 등에 약 50% 설치된 점과 (2) 흔히 서구권과 비서구권 간에 존재

하는 사회, 문화, 경제, 기술적 환경의 차이가 자료나 자료실 이용 행태 및 요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 이용자 대상 설문 문항은 총 11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 WOK 이용 행태(총 8개 문항): 한국자료실을 알게 된 계기(즉, WOK 인지경로), 처음 이용 연도, 이용 빈도, 1회 방문 시 평균 이용 시간, 이용 목적, 이용하는 자료 분야, 사서/직원에게 받는 도움 등이 포함되었다.
  - 이용 만족도(총 2개 문항): 전반적인 이용 만족도와 8개 세부 항목에 대한 이용 만족도를 질문하였다.
  - 한국자료실에 대한 의견(총 1개 문항): 이용 시 애로사항 및 개선점에 대해서는 개방형 질문을 통해 의견을 수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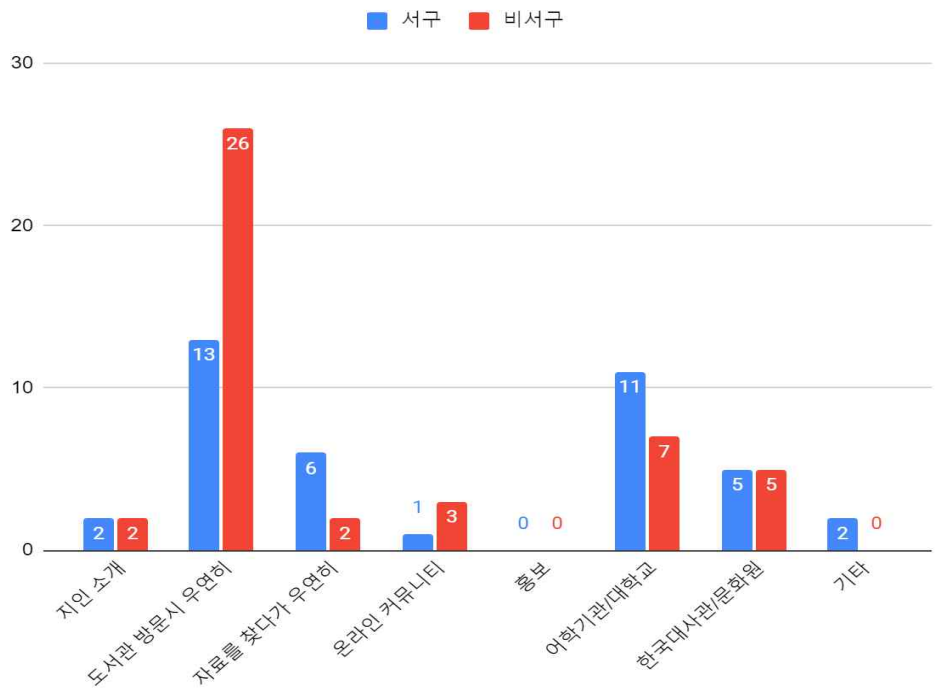
(2) WOK 이용 행태

- WOK를 알게 된 계기: WOK를 처음 알게 된 경로에 대해 서구권 이용자 40명과 비서구권 이용자 45명 모두 도서관 방문 시 우연히 알게 됐다는 응답(32.5%, 57.8%, 전체 45.9%)이 가장 많았고, 어학기관/대학교를 통해서라는 응답(27.5%, 15.6%, 전체 21.2%)이 두 번째로 높았다. 설문 보기 중 홍보를 통해 알게 되었다는 보기는 서구권, 비서구권 이용자 모두 선택하지 않았다.

〈표 V-13〉 WOK 인지 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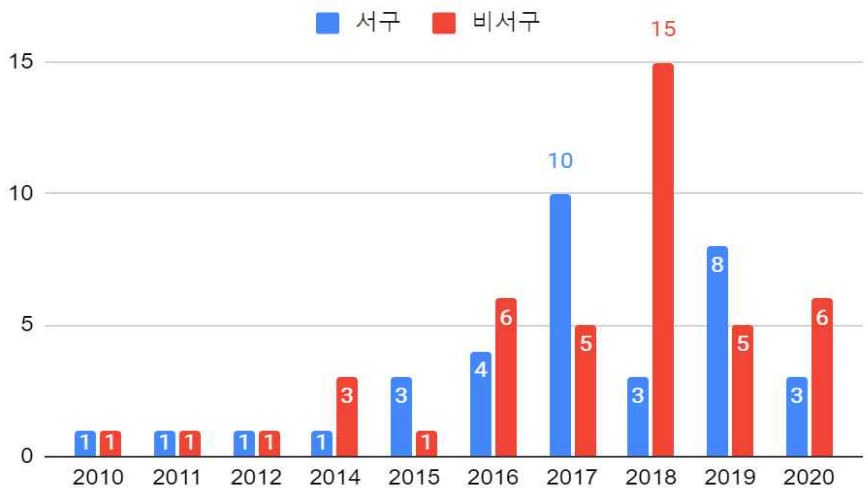
단위: 명(%)

		서구권 이용자 (n=40)	비서구권 이용자 (n=45)	전체 (n=85)
WOK 인지 경로	지인 소개	2(5.0)	2(4.4)	4(4.7)
	도서관 방문 시	**13(32.5)**	**26(57.8)**	39(45.9)
	자료를 찾다가	6(15.0)	2(4.4)	8(9.4)
	온라인 커뮤니티	1(2.5)	3(6.7)	4(4.7)
	홍보	0(0.0)	0(0.0)	0(0.0)
	어학기관/대학교	11(27.5)	7(15.6)	18(21.2)
	한국 공공기관	5(12.5)	5(11.1)	10(11.8)
	기타	2(5.0)	0(0.0)	2(2.4)
전체		40(100.0)	45(100.0)	85(100.0)



[그림 V-10] WOK 인지 경로

- 첫 이용 시점: 2007년에 최초 개설된 WOK를 처음 이용한 연도를 기입하는 문항은 무응답 5명과 한국자료실이 설치된 2007년 이전을 기입한 1명을 제외한 79명이 응답했는데, 그 시기는 2010년부터 2020년 현재까지 다양했다. 서구권 이용자는 2017년 처음 이용했다는 응답이 10명(28.6%)으로 가장 많았고, 비서구권 이용자는 2018년 처음 이용했다는 응답이 15명(34.1%)으로 가장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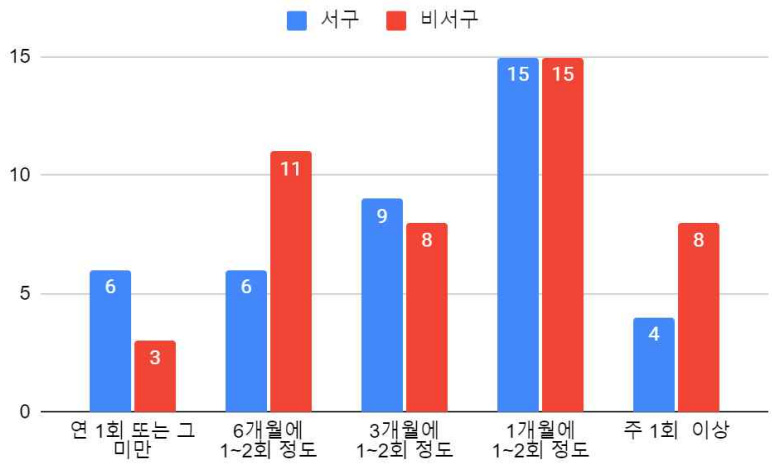


[그림 V-11] WOK 최초 이용 연도

- 이용 빈도: 이용 빈도는 서구권, 비서구권 이용자 모두 1개월에 1~2회 정도 이용한다는 응답이 각각 15명(37.5%), 15명(33.33%)으로 가장 많았다. 주 1회 이상 이용한다고 답한 이용자는 서구권은 4명(10.0%)이었으나 비서구권은 8명(17.78%)로 상대적으로 비서구권 이용자의 이용 빈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 평균 이용 시간: 1회 방문 시 평균 이용 시간은 서구권, 비서구권 이용자 모두 10~30분 정도 이용한다는 응답이 각각 18명(45.0%), 16명(35.56%)으로 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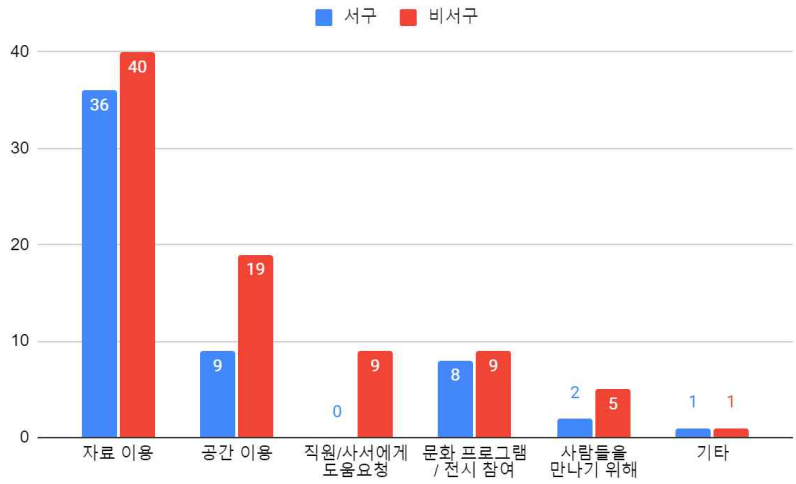
많았고, 30분~1시간, 3시간 미만 이용한다는 응답을 포함하면 전체 85개 응답 중 65(약 76%)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림 V-12] WOK 이용 빈도

[그림 V-13] WOK 평균 이용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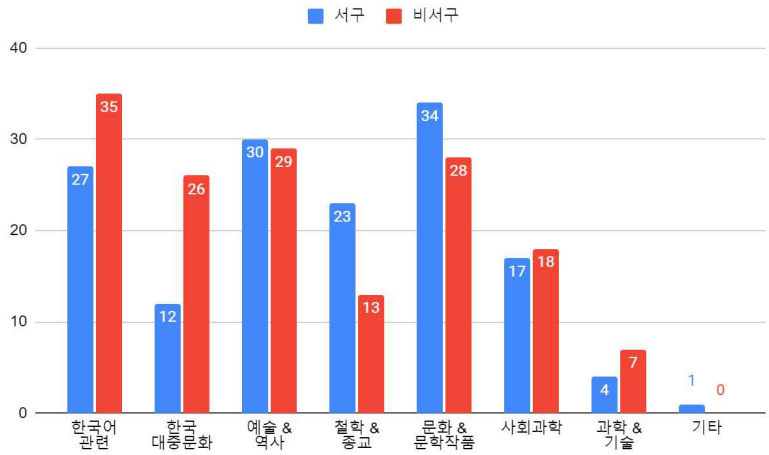
- 이용 목적: 이용 목적에 대해서 다중 응답으로 조사한 결과(N=139), 자료 이용을 위함이라는 응답이 서구권 이용자 36명(64.29%), 비서구권 이용자 40명(48.19%)으로 가장 많았고, 공간이용이 뒤를 이었다. 다만, 공간이용의 경우, 비서구권 이용자의 응답 수(19)가 서구권 이용자 응답 수(9)의 약 두 배에 달하였다. 또한, 서구권 이용자는 한국자료실 직원 또는 사서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함이라는 답을 선택하지 않았으나, 비서구권 이용자는 전체 6개의 선택지 중 문화프로그램/전시 참여를 위함이라는 목적과 함께 3위에 해당하는 응답 수(9, 18.84%)를 보였다. 기타 응답으로는 수업을 듣기 위함이라는 내용이 있었다.



[그림 V-14] WOK 이용 목적

- 이용하는 자료 분야: 주로 이용하는 자료 분야를 다중 응답으로 조사한 결과(n=304), 한국어 관련, 문화&문학작품이 각각 약 20% 수준으로 전체 응답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서구권 이용자의 경우 문화&문학작품(34, 22.97%), 예술&역사(30, 20.27%), 한국어 관련(27, 18.24%)의 순으로 응답이 많은 한편,

비서구권 이용자는 한국어 관련(35, 22.44%), 예술&역사(29, 18.59%), 문화&문학작품(28, 17.95%), 한국 대중문화(26, 16.67%)의 순으로 나타나 두 집단 간 가장 많이 이용하는 자료 분야에 차이가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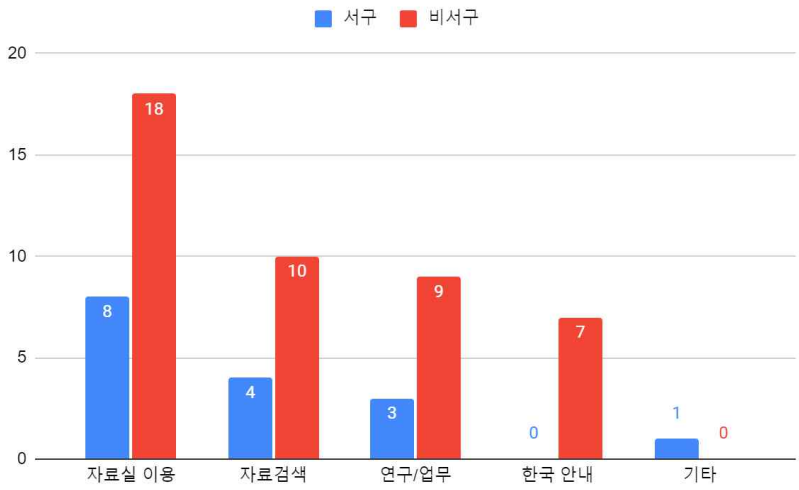


[그림 V-15] 한국자료실에서 주로 이용하는 자료 분야

- 직원 도움: 한국자료실 사서나 직원으로부터 도움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서는 전체 응답의 56.47%는 있다고 답하였고, 43.53%는 없다고 하였다. 비서구권 이용자의 73.33%가 도움 받은 경험이 있다고 한 반면, 서구권 이용자의 37.50%는 도움을 받은 적이 없다고 답하여 차이를 보였다.

- 직원 도움 요청 내용: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 다중 응답이 가능한 보기를 통해 조사한 결과, 서구권 이용자와 비서구권 이용자 모두 공통적으로 자료실 이용, 자료 검색, 연구/업무의 순으로 응답 수가 높은 한편, 한국에 대한 안내를 받았다는 응답은 비서구권 이용자만이 선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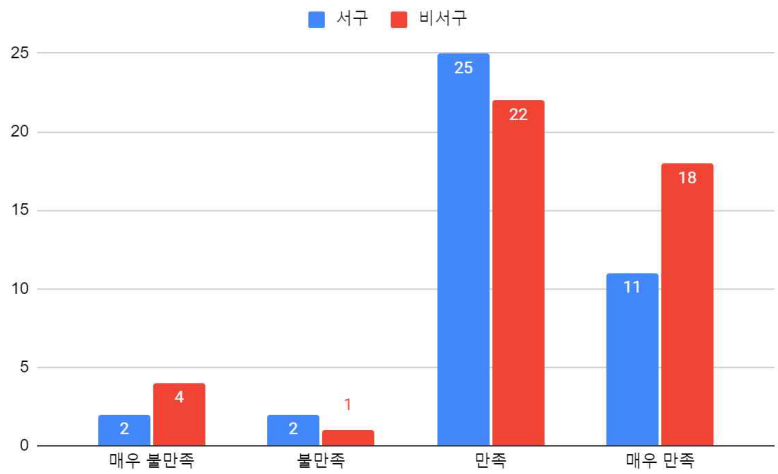
[그림 V-16] WOK에서 사서나 직원에게 도움 받은 경험



[그림 V-17] WOK에서 사서나 직원에게 도움 받은 내용

(3) WOK 이용 만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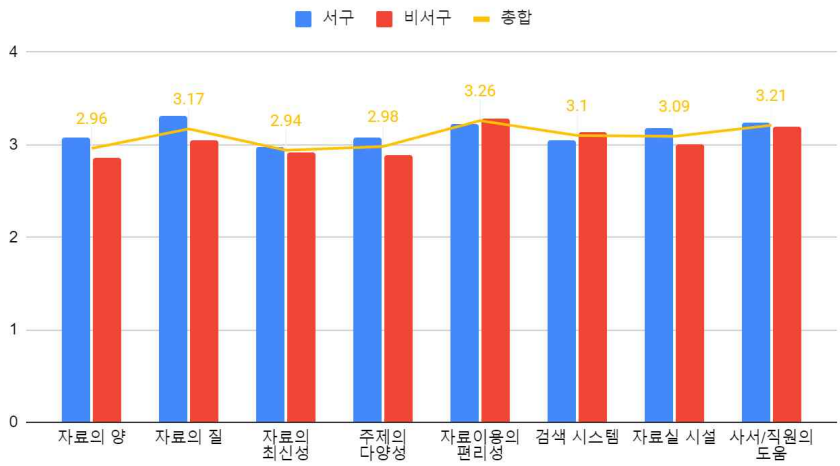
- WOK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WOK 이용자 총 85명 중 76명이 '만족' 또는 '매우 만족'이라고 답하여 대체로 만족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V-18] WOK 이용 만족도

- 만족에 대해서 자료에 관한 5개 문항, 검색시스템에 관한 1개 문항, 자료실 시설에 관한 1개 문항, 사서와 직원의 도움에 관계된 1개 문항 총 8개 항목으로 나누어 4점 척도[2]로 분석한 결과, 3개 항목(자료의 양, 자료의 질, 자료의 최신성)을 제외한 나머지에서는 3점 이상이었고, 서구권 이용자와 비서구권 이용자 간에 뚜렷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자료이용의 편리성(3.26)에서 가장 만족 수준이 높았고, 자료의 최신성(2.94)에서 가장 만족 수준이 낮았고 비슷한 수준에서 자료의 양(2.96), 주제의 다양성(2.98) 등에서도 낮게 나타났다.

2) 매우 불만족 - 불만족 - 만족 - 매우 만족 네 개의 서열척도로 질문하였으나, 보다 직관적인 이해를 위해 보기 사이의 간격이 같다고 전제한 후 1(매우 불만족)-4(매우 만족)로 재코딩 하였다.



[그림 V-19] 한국자료실 항목별 이용 만족도

- 한편, 1차 설문 후 수행된 2차 설문조사에서 WOK 이용자에게 WOK 이용 경험을 질문한 결과 수집된 다양한 응답은 다음과 같다(문법과 무관하게 응답자들이 기재한 그대로 제시하였음).

아주 좋았습니다. 도서관에서 자료들을 쉽게 다운받고 우리 도서관에 계신 인도 직원도 도와주었습니다. (WOK 이용자, 인도, 박사과정, 한국어교육)
자료는 다양하나, 환경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WOK 운영자, 엘살바도르)
다양한 분야의 책들을 되게 좋게 마련해 놓은 것 같습니다. (WOK 이용자, 미얀마, 대학원생, 한국어교육)
I wish to thank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The WOK is amazing opportunity for students and researchers to do their job. (WOK 이용자, 교수, 남북한의 외교안보정책, 한반도와 중동의 관계)

It's great to have a project with the aim of overseas learning. (WOK 이용자, 캐나다, 학부생, 언어학)

muy buena informacion [번역: 좋은 정보] (WOK 이용자. 엘살바도르, 학부생)

It's good and very useful. (WOK 이용자, 인도, 교수, 한국학)

Reasonable, but not particularly useful when research needs to find primary materials from earlier times(in my case, 1930s – 000s).
Also, the lack of peer review system for books published in Korea makes it difficult to trust the quality of many books by Korean authors.
(*유용하지만 이전 시대 1930년대– 000년대의 자료를 찾아야 할 때는 유용하지 않음
/또한 동료검토시스템이 부족하여 신뢰하기 어려움) (WOK 이용자, 교수)

WOK is a really good tool for any student of the Korean Studies, it's good in quantity and quality of materials completely available for free. I fell really lucky to have the access (WOK 이용자, 스페인, 학부생, 한국학)

I was impressed to find the collection for the first time while visiting the library in my university.
In addition to the collection of books and material, it was nice to find the reading area that accompanied it. (WOK 이용자, 이스라엘, 학부생, 국제관계학, 아시아학(한국학))

that there is a more reliable amount of information about Korea in general (WOK 이용자, 스페인, 학생, 동아시아학)

I was impressive what a good and beautiful place to read about Korean Culture. So I'm happy to have a place like that in my country. (WOK 이용자, 엘살바도르, 학생, 언론, 마케팅, 인권, 그래픽디자인)

I was very surprised, that such a rich source of knowledge is not so far from my home city(well, 300 km). And still people don't know about it. Sometimes someone is looking for certain informations, books on FB forum(like Polish-Korean...) and are also surprised, when I am writing about WOK. (WOK 이용자, 폴란드, 관광업)

Good (WOK 이용자, 연구자)

Very positive, I find that the written content in English of their books is of a high quality, combining pedagogical techniques to make the material look attractive (combining images and quality of editing in formal terms as well as appealing way of exposing the content, pretty "modern" look. (WOK 이용자, 스페인, 교수(강사), 동아시아 미술, 한국 미술/미학)

(4) WOK 이용의 애로 사항 및 개선 요구 사항

- 설문조사를 통해 이용자가 **WOK를** 이용하면서 느꼈던 좋았던 점이나 불편했던 점을 포함하여 WOK 서비스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의견을 개방형으로 질문하였다. 심층 인터뷰에서도 같은 내용을 질문하였다.

- 만족 의견: 만족스러움을 나타낸 의견을 분석하면, ① 해외에서 구하기 어려운 한국자료를 접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에 감사하다는 의견, ② 도서관 직원이 시설 사용법이나 페이퍼를 쓸 때 친절히 도움을 주어 좋았다는 의견, ③ 컴퓨터 사용이 자유로워 좋다는 의견 등이 있었다. 기타 개방형 질문에서 응답한 내용을 일부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I was travelling every month 1-2 times 300 km just to use materials from the Korean Library(Poland). With so many informations and books it was very helpful to get informations, that I needed. Now I live in Korea, but when I come to Poland again I will renew my library card for sure."

"The staff gives a very good service. I got a lot of help from the staff in doing my term paper"

"Very useful site related to the dissemination of information about Korea."

"컴퓨터를 사용하거나 프린트할 일이 있으면 도서관 직원이 잘 설명해주고 도와줘서 친근감을 느낀다."

"컴퓨터를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 애로 사항: WOK 이용 시 애로 사항으로는 ① 대학 내 한국어 전공자 수에 비하여 자료가 부족하므로 규모를 더 키웠으면 좋겠다는 의견, ② 한국어능력시험(TOPIK) 수험서가 오래되어 현재 시험 내용과 맞지 않다는 의견, ③ 책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의견, ④ 책을 보통의 도서관처럼 대출할 수 없어서 퇴근 후 도서관에서만 사전을 찾으며 읽어야 하는데 시간이 부족해 자료이용을 충분히 할 수 없다는 의견, ⑤ 책 제목이 로마번자로 되어 온라인 검색하기에 더 불편하다는 의견, ⑥ 홈페이지 접속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의견, ⑦ 도서관 주변이 시끄러워서 불편하다는 의견 등이 있었다.

"There are about 400 korean major students and just about 10 students can use the library . I wish to increase the library size so that it will be easier to study."

"However, some books including TOPIKs, Korean grammar books are not new materials"

"The only one thing that I would ask for is some more updated Korean study material, especially in regards to studying TOPIK, as it´s contents can vary from one edition to another and it is really helpful to have the reference of new exams as well as past ones."

"I just wish for more books in the collection."

"I'm glad that WOK appeared in my city(St Petersburg, 러시아), but I'm not happy that the **materials can't be given to home for a month like in a normal library.** It's impossible to read them without dictionary and I can't go to the library after work every day just to read several pages, because the library closes. If I could take a book to home, I could find more time to read it. And that's not only me, because the majority of those people who study Korean don't have an 4 level to read books fast sitting in the library. We all need time and a dictionary. So it comes out that all those great books which were presented to the library just lay on the shelves and no visitors come. This is very sad. What is the point in books if you can't read them?"

"It very hard to find book in the online catalog because the titles of them are usually in romanization. it would be easier to find books if their titles were not written in romanization only in the original title – in English or also in Korean"

"렉이 걸린 경우 가끔씩 있었다"

"도서관 직원 누나가 친절합니다. 근데 자끔은[가끔은] 도서관 주변이 시끄러워서 불편합니다."

- 개선점으로는 ① 한국자료실이 보다 명확히 눈에 들어오면서 안락한 분위기를 갖출 수 있도록 공간 구성이나 자료 배치를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② 영어나 모국어로 번역된 한국자료가 더 풍부하면 좋겠다는 의견, ③ 한국 영화 페스티벌, 한국문화의 날 등 더 활발한 활동이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 ④ 정기적으로 특별한 주제를 선정하여 소개하거나 올해의 베스트 책 등이 돋보이게 배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⑤ 한국어 교육, 문화에 관한 박사학위 논문을 쉽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 등이 있었다.

"I suggest that the organization of the space and books placements could be increased by more clear signals and a more comfortable environment."

"more material translated into Spanish or English"

"It would be great if the Window on Korea included a few special topics (somewhat like one special feature each 6 months)."

"Maybe being more active when possible. Korean classes, Korean movie festival, Korean culture days, Korean games."

"We need new study materials on Korean Language Teaching, modern Literary works in Korean and English versions, new books on society, culture, politics, economics, history, and economics subjects."

"한달의[에] 아니면 최소한 올해의 베스트 세라[셀러] 책들을 마련해주고 독[돋]보이게끔 꾸며놓으면 좋겠어요."

"한국어 교육, 문화애에[문화에] 대한 최근 박사핵위[박사학위] 논문 쉽게 다운 받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 한편, 1차 설문에 이어 2차 설문에서도 WOK 이용자에게 "WOK를 이용하시면서 특별히 아쉬웠던 점, 또는 더 희망하시는 점은 무엇인지요?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점들을 생각하시는 대로 자유롭게 말씀해 주십시오."라는 질문 문항을 통해 그들의 경험과 개선 희망사항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수집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델리에 있는 동아시아 도서관뿐만 아니라 델리대학교 중앙도서관에서도 WOK 이용할 수 있으면 정말 많은 학생들이 자유롭게 이용하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동아사아학과 도서관공간이 적어서 많은 자리가 많이 부족합니다. 또한 주말에, 명절날 문닫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반면에 중앙도서관 문을 항상 열어 있어서 또 거기에는 전델리 대학생들은 wok 사용할 수 있어서 한국에 대해서 더 많이 배울 수 있습니다. (WOK 이용자, 인도, 박사과정, 한국어교육)

도서 콘텐츠는 많지만 디지털화된 자료를 이용하기에 어려움이 많다. (WOK 운영자, 엘살바도르)

내가 원하는 주제에 관련한 것을 쉽게 찾아낼 수 있어서 다양한 책들이 분야별로 마련해 주는 게 좋았던 점인 것같습니다. 아쉽거나 더 희망하는 점은 저는 이번 달 혹은 올해의 베스트셀러 책들이 읽고 싶은데 한 달에 하나씩만 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WOK 이용자, 미얀마, 대학원생, 한국어교육)

I would recommend to do a survey at the Hebrew University in order to find the specific needs (WOK 이용자, 이스라엘, 교수, 남북한의 외교안보정책, 한반도와 중동의 관계)

me gustaria que hubiese mayor material sobre la cultura [번역: 문화와 관련한 좀 더 많은 정보가 있었으면 한다] (WOK 이용자. 엘살바도르, 학부생)

If possible, researchers could be given temporary access from their private computers. (WOK 이용자, 인도, 교수, 한국학)

There are two key areas of concern when researching Korea. 1) Pimaep'um: too many materials are printed/published by government agencies but are not openly sold. These are difficult to obtain in full runs or with any reliability due to the distribution system. 2) The general lack of peer review for Korean publications (and the limited reliable expert peer review for publications about Korea published outside Korea) mean that the reliability and quality of many publications in the fields I teach and research is questionable. (WOK 이용자, 교수)

As I said above, I very much was impressed by the quality of the collection and the new materials. I would like to see more materials in Korea such as Novels. Maybe it would be nice to have a research system near the reading area specifically to the WOK collection. (WOK 이용자, 이스라엘, 학부생, 국제관계학, 아시아학, 한국학)

I'd like it to covermore about Korean traditional medicine and philosophy, as well as children's storybooks. (WOK 이용자, 스페인, 학생, 동아시아학)

I thinks that it will very helpful to be able to have more digital and physical material like a novels, history, magazines, storytelling, korean language books, this types of books are very popular in the WOK of my country. (WOK 이용자, 엘살바도르, 학생, 언론, 마케팅, 인권, 그래픽디자인)

Well, I live in Korea now, but for me every available book in English, Polish or German in Poland was very precious. I think only old books about policy or statistics should be limited. Also we have many books about Buddhism in Polish language. (WOK 이용자, 폴란드, 관광업)

Ample collection of korea related material (WOK이용자, 연구자)

I would recommend to continue as until now, updating covering trending topics, for example some of my students are interested in tattoo in South Korea, or some other about korean food, so keep publishing and delivering to libraries fresh materials about this topics which connect with youth; also providing materials which make accessible more specialized topics to a wider audience, for example, editing in English materials about the symbolism of plants, animals and other objects in chaekkori genre painting...
(WOK 이용자, 스페인, 교수(강사), 동아시아 미술, 한국 미술, 미학)

3. 해외 한국자료 수요 조사

- 앞 절에서 보고한 1차 설문조사를 통해 서구와 아시아를 아우르는 다양한 지역에 거주하는 국립중앙도서관 WOK 이용자의 경험을 비이용자와 비교하면서 그들의 배경과 특성 및 정보요구, WOK 이용 경험과 그에 따른 개선 필요 사항, 한국자료실 이용 실태 등을 중심으로 조사결과를 분석하였다.

- 본 절에서는 WOK 이용자를 넘어 WOK 잠재이용자인 전 세계 한국자료 수요자들을 대상으로 그 범위를 넓혀 그들의 한국자료 수요 분석을 실시하였다. 즉, 2010년대 이후 한류 확산과 더불어 증가되는 한국자료의 수요와 향후 한국 자료에 대한 기대를 보다 구체적이고 입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기 때문으로, 세계 각국의 한국자료 수요자들을 대상으로 개별 심층 인터뷰를 수행하고 그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 인터뷰 대상으로 WOK 이용 경험이 없는, 한국과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자료 이용자들로서 국내외 거주하는 외국인 한국유학생, 학부생, 대학원생, 연구자 교수집단, 일반인을 포함했다. 또한 현재 가장 적극적으로 한국자료를 필요로 하고 또 이용하고 있는 해외 한국학 교수 및 연구자 집단의 자료 이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2차 설문조사에서 실시한 개방형 질문을 통해 그들의 목소리를 추가적으로 수집하였다. 이러한 개별 심층 인터뷰 및 2차 설문 조사결과는 현재 한류에 대한 관심에서 촉발되어 한국어 학습, 한국학과 입학 및 한국학 연구로 전이되는 단계를 밟고 있는 해외 한국자료 이용자들의 자료 이용 경험을 유형별, 집단별로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해 주며, 향후 국립중앙도서관의 WOK 사업의 개선과 보강을 위한 의미 있는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1) 해외 한국자료 이용자에 대한 개별 심층 인터뷰

(1) 인터뷰 참여자의 출신 지역

- 거주 국가: 심층 인터뷰에는 총 26명이 참여하였다. 북미지역 7명(미국 4, 캐나다 3), 아시아 13명(중국 4, 대만 1, 인도네시아 1, 일본 2, 베트남 3, 필리핀 1, 몽골 1), 유럽지역 7명(프랑스 2, 스페인 1, 러시아 2, 터키 1)이 참여하였다.

(2) 인터뷰 참여자의 신분

- 인터뷰 대상자들을 그룹 유형으로 나누면, 〈표 V-14〉와 같이 학부생 9명, 대학원생 13명(석사과정 7명, 박사과정 6명), 박사 2명, 일반인 2명이 참여하였다.

〈표 V-14〉 대상자 지역별/신분별 분류표(총 26명)

<table>
<tr><th>출신 지역</th><th colspan="2">그룹별 유형</th></tr>
<tr><td>북미 7명
(미국 4, 캐나다 3)</td><td colspan="2">학부생 9명
(몽골 1, 베트남 2, 러시아 1, 일본 1, 중국 2, 터키 1, 프랑스 1)</td></tr>
<tr><td rowspan="3">아시아 13명
(중국 4, 대만 1, 일본 2, 인도네시아 1, 베트남 3, 필리핀 1, 몽골 1)</td><td colspan="2">대학원생 13명</td></tr>
<tr><td>석사과정 7</td><td>박사과정 6</td></tr>
<tr><td>캐나다 1, 프랑스 1, 미국 1, 러시아 1, 중국 1, 스페인 1, 인도네시아 1)</td><td>베트남 1, 캐나다 2, 한국 1, 중국 1, 대만 1</td></tr>
<tr><td rowspan="2">유럽 6명
(프랑스 2, 스페인 1, 러시아 1, 독일유학 러시아인 1, 터키 1)</td><td colspan="2">박사 2(faculty/instructor): 미국 1, 일본 1</td></tr>
<tr><td colspan="2">일반인 2(미국 2)</td></tr>
</table>

(3) 관심영역 및 자료의 주제(그룹 유형별)

- 한국에 대한 관심분야를 그룹별로 살펴보면, 먼저 학부생 그룹의 경우 한류 콘텐츠(K-pop, K-drama, K-cinema), 한국문화전반, 한국문학(시, 소설), 한국어 학습, 한국어교육, 한국어학, 한국역사, 과학기술, 한국경제/무역, 한국교육학, 한국패션, 한국의 미디어(제작), 한국의 테크놀로지, 한국음식에 관심이 많았다.

- 대학원생 그룹은 한국근현대문학, 한국고전문학, 한국역사, 한국정치와 사회, 한국외교사, 한국문화전반, 한국어사, 한국여성사, 한류콘텐츠(K-pop 뮤직비디오, K-drama, 팬덤문화) 관심이 많았다.

- 연구자/교수 그룹은 한국근현대문학(시, 소설), 한국역사, 한국정치사회, 한류콘텐츠(K-drama), 나머지 일반인 그룹은 한국어학습, 한류콘텐츠(K-pop, K-drama), 한국음식에 관심을 보였다.

〈표 V-15〉 그룹별 자료 관심/주제 영역 분류표

그룹 유형	관심영역(주제별)
학부생	한류콘텐츠(K-pop, K-drama, K-cinema), 한국문화전반, 한국문학(시, 소설), 한국어 학습, 한국어교육, 한국어학, 한국역사, 과학기술, 한국경제/무역/비지니스, 한국교육학, 한국패션, 한국의 미디어(제작), 한국의 테크놀로지, 한국음식
대학원생	한국근현대문학, 한국고전문학, 한국역사, 한국정치와 사회, 한국외교사, 한국문화전반, 한국어사, 한국여성사, 한류콘텐츠(K-pop 뮤직비디오, K-drama, 팬덤문화)
연구자/교수	한국근현대문학(시, 소설), 한국역사, 한국정치사회, 한류콘텐츠(K-drama)
일반인	한국어학습, 한류콘텐츠(K-pop, K-drama), 한국음식

(4) 해외에서 한국자료를 찾기 위한 도서관 및 자료실 이용경험

- 총 26명의 인터뷰 대상자 중 21명이 한국자료를 찾기 위해 도서관이나 자료실을 이용한 경험이 있었다고 했다. 도서관 유형별로는 대학도서관 방문이 가장 많았고, 국립/공립 도서관 5명, 대학 내 한국어학과 자료실, 그리고 한국문화원 자료실도 4명이 있었다.

(5) 한국 관련 정보원 유형

① 정보원 유형

인터뷰 대상자들이 한국에 대한 정보나 자료를 찾기 위해 주로 이용하는 정보원에 (복수응답) 대해서, 인쇄자료 16명, 전자자료 이용자 14명, 온라인 검색 26명,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이용자 17명, 동영상 콘텐츠 공유 플랫폼 이용자 14명,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이용자 17명, 온라인 영상/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이용자 9명 [Netflix(3), Naver VLive(1), Melon(1), Sportify(1), 기타(3)], CD/DVD 이용자 2명으로 응답하였다. 인쇄자료에 비해, 디지털 형식으로 지원되는 전자자료, 온라인 검색,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동영상 콘텐츠 공유 플랫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영상/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등이 매우 주된 정보원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그 가운데 구글링으로 대표되는 인터넷 검색이 가장 높은 이용빈도를 보이며, 동영상 콘텐츠 공유 플랫폼 가운데 Youtube가 가장 널리 정보 플랫폼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대학원생이나 연구 그룹에서는 한국에서 지원하는 온라인 학술논문 서비스(DBPIA, KISS, RISS)와 여러 온라인 DB에 대한 활용도가 빈번했으며 만족도 또한 높았다.

〈표 V-16〉 정보원 유형

정보 이용 플랫폼(복수응답)	이용응답자 (복수응답)
인쇄자료[책, 잡지/신문]	16
전자자료 E-book(10), 전자잡지(2), 오디오북(2)	14
온라인 검색 구글링/Googlescholar(16)/위키피디아(1)/크롬(1)/네이버(6) /바이두[Bidu, 중국의 검색엔진](2)/블로그(2)/팟캐스트(1)	26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해외 데이터베이스(MUSE, JSTOR, the Ebsco Collection [전세계 도서관 자료 서비스](6) ▲한국 온라인 학술논문 서비스[DBPIA, KISS, RISS](6) ▲한국 온라인 DB[한국신문기사 아카이브, 역사정보시스템, 디지털 라이브러리, 한국고전종합DB](4) ▲학술논문구매 사이트[레포트 월드](1)	17
동영상 콘텐츠 공유 플랫폼 Youtube(12), Viki[싱가포르 플랫폼](1), 기타(1)	14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Facebook(3), Instagram(6), Twitter(4), Weibo[중국 트위트](1) Weverse[온라인 팬 커뮤니티 플랫폼](1), 기타(2)	17
영상/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Netflix(3), Naver VLive(1), Melon(1), Sportify(1), 기타(3)	9
CD/DVD	2

② 정보원 유형별 선호도

- 인터뷰 대상자들의 정보원 유형별 선호도는 전체적으로 정보원 유형별 이용도와 궤를 같이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령, 20대 초중반의 학부생 인터뷰 대상자의 경우 인터넷을 통해 접근가능한 동영상 콘텐츠 공유 플랫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영상/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등을 매우 친근한 정보 이용 플랫폼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들은 이미지 자료나 동영상이나 음원 자료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탐색하는 경향을 보였다. 주목할 바는 종이자료 [단행본, 신문, 잡지]에 대한 선호도를 “느낄 수 있어서,” “정보가 정확해서,” “정보가 더 자세하고,” “읽기에 편하고 익숙해서” 등의 이유로 분명히 표현한 경우가 11건 있었지만 대부분 접근의 용이성과 상황의 필요에 의해 전자자료(e-book) 대한 요구를 동시에 드러내고 있는 점이다. 따라서, 현재적 시점에서 많은 이용자들이 정보원 유형별 선호도에 상관없이 인쇄자료와 전자자료의 동시적, 상호보충적 지원을 기대하고 요구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관련 인터뷰 내용]

“스트리밍서비스와 e-book을 선호하지만 인터넷 검색과 달리, 공식적인 자료들이 WOK와 같은 도서관의 자료실을 통해 제공된다면 신뢰가 생길 것 같다” (#10, 프랑스, 명지대 아동학과 학부 교환학생, 9월 30일, 대면인터뷰)

“인터넷 자료보다 정보가 정확해서 종이책을 선호한다.” (#13, 베트남, 명지대 국문학과 학부생, 10월 2일, 대면인터뷰)

“한국에 대한 자료를 찾을 때, 주로 종이책을 선호한다. 확인하면서 체크하면서 보는 경우가 많은데, 전자책으로도 할 수 있기는 한데 불편하기 때문이다. 읽을 때는 종이책이 좋고, 조금 구체적으로 써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정보가 필요할 때는 온라인을 쓰고, 뭔가를 제대로 알고 싶을 때는 종이책이 더 좋은 것 같다” (#14, 일본,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학부생, 10월 3일, 대면인터뷰)

“인터넷을 이용하기는 하지만 논문 같은 매체나 책을 읽을 때가 가장 나은 정보일 때도 종종 있다. 소셜미디어에서 원하는 정보를 찾지 못할 수 있으므로 책 같은 게 필요할 수 있다. 소셜미디어의 빠르고 실용적 정보가 많은 것 같으나 도서관은 깊고, 정확한(구체적, 신뢰) 정보가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자료를 찾고 읽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잘 안 읽는 것 같다.” (#11, 프랑스, 명지대 영문과 석사과정 교환학생, 9월 30일, 대면인터뷰)

"E-book 과 종이책 가운데 더 선호하는 유형은 아직까지는 종이책이다. E-book 을 써보려 했는데 잘 안 맞는다고 생각했지만, E-book 을 써야할 상황이 되어서 조금 적응이 되고 있다." (#22, 스페인, 한국학중앙연구원 석사과정, 10월 14일, Zoom 화상인터뷰)

"선호하는 자료의 유형으로서 개인적으로 종이책이 가장 좋다. 우선 종이자료는 읽기에 편하고 익숙하기 때문인데 최근에도 책을 복사해서 스캔도 하지만 읽을 때는 다시 출력해서 읽는 습관이 있다. 이렇게 종이책을 선호하는 경향은 아마 30대 중반 이후의 다른 일본인 연구자들도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시간과 비용, 접근성 등의 이유로) 앞으로 한국자료 지원을 위해 전자책과 학술논문 전자 데이터베이스화가 좀더 많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향후 해외 한국자료 지원 및 서비스의 향상을 위해 가능하다면, 1> 원문자료를 해외에서 볼 수 있게 해 주고, 2> 현재 논문은 이용할 수가 있는데, 신문, 잡지 자료 등의 전자 데이터베이스가 이루어지고, 3> 생각보다 한국에서도 한국관련 전자책이 별로 없는 편인데 (교보문고 같은 경우에도), 해외에서도 좀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책이 더 많이 제공되기를 원한다." (#18, 일본, 동경 외국어대학교 박사, 10월 8일, Zoom 화상인터뷰)

(6) 새로운 자료 유형 등장에 따른 수요

- 한국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활자화된 자료들뿐 아니라 이미지, 영상, 음원 자료를 인터넷 사이트, 블로그, 전자 데이터베이스,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 다운로드받는 경향이 빈번히 포착된다. 대학원 연구자 그룹의 경우, 이러한 영상 및 음원, 시청각 자료들을 단순한 정보 탐색을 넘어서 학술적 주제의 대상으로 삼거나, 이미지 자료나 통계자료 등 여러 시청각 자료를 1차적으로 데이터화하는 것을 넘어서 추가적으로 가공해 포스터와 같이 디자인화하여("인포그래픽") 활용하기를 기대하고 또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작업을 기대하고 있어 주목할 만하다.

[관련 인터뷰 내용]

>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가르치고 있으며, 한국을 중심으로 보는 동아시아 국제관계와 외교사 연구하고 있다. 강의를 준비하면서 '인포그래픽'을 만들기 위한 통계 자료와 이미지 자료를 찾기도 하고, 연구를 위해 학술 관련 데이터베이스나 도서관과 박물관 그리고 기록관 등에서 제공하는 원문 서비스 등을 이용한다. 고문서나 사료 중심의 자료들은 접근성이 많이 좋아졌지만, 다양한 이미지 자료들이라든가 시청각 자료들 아직 부족한 느낌이다…여기서 '인포그래픽'은 각종 문자나 숫자 데이터들을 단순화하고 시각화하는 1차 가공 단계를 거쳐서 보기 좋게 포스터처럼 디자인으로 나온 결과물을 의미한다. 신문, 잡지, 방송국, 그리고 온라인 미디어들에서 요즘 각종 기사나 영상물들에 활용하면서 쏟아내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1차적으로 쓰고 버려지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검증된 인포그래픽 이미지들이 추가로 가공될 수 있는 형태로 한 곳에 모여서 교육자나 연구자들이 활용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다. 그런 인포그래픽 재활용 센터라든가 집하장이 온라인에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있다면 유용하지 않을까 한다." (#19,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 박사과정, 10월 12일, 14일, 21일, 서면인터뷰)

(7) 코로나 상황에서 전자자료 서비스의 기대 및 요구

- 현재 전 지구적으로, 사회전반에 걸쳐 크나큰 변화를 초래하고 있는 코로나 정국은 향후 해외에서의 한국자료 이용에도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인터뷰 대상자들을 통해 팬데믹 상황에서 물리적 도서관, 자료실 이용의 어려움과 전자자료 서비스의 시급한 필요성을 파악할 수 있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국립중앙도서관의 해외 한국자료 지원의 방향성을 읽어낼 수 있다.

[관련 인터뷰 내용]

"논문을 위해서 20세기 초 한국여성에 의해 쓰여진, 한국여성에 관한 1차 자료들을 찾고 있는데, 찾고 있는 자료에 대해서 매우 불만족스럽다. 해외에서 아카이브 자료들에 접근하기 매우 힘들기 때문인데 대부분의 자료들은 온라인으로 접근 불가능하다. 내가 다니는 대학은 국립중앙도서관의 원문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하나의 컴퓨터가 아시안 도서관에 있는데, 현재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캠퍼스 빌딩이 모두 폐쇄되어 이용할 수가 없다. 한국어로 된 책에 E-book의 형태로 접근할 수 있는 자료는 거의 없으며, 많은 한국 논문들의 경우 읽기 전에 구매되어야 한다. 현재, 자료를 구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한국으로 가거나 그 자료를 포기해야 할 상황이다… 향후 전자책 형태의 한국어로 된 자료를 더 많이 이용하고, 온라인상으로 아카이브 자료의 이용이 가능해져서 학교 도서관의 한 컴퓨터를 통하지 않은 채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한국도서관에 접근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4,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 박사과정, 9월 22일, 서면인터뷰)

"특히 코로나 상황에서는 E-book 이 더 편리할 것이라 생각한다. 한국자료가 있다고 해도 도서관에 갈 수 없으니까 차라리 인터넷을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다면 유용할 것이다." (#22, 스페인, 한국학중앙연구원 석사과정, 10월 14일, Zoom 화상인터뷰)

"일본에서는 전자책을 한국보다 구하기 힘든데, (한국자료의 경우) 최신소설은 전자책으로 나오지만 나의 연구 주제와 관련된 전자책이 별로 없다. 코로나로 인해 자료를 이용하기 힘든 상황에서 일본도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 최근 일본에서도 계속 도서관 문을 닫고 있는데 연구자선생님들이 많이 고생을 하고 있다. 원격복사서비스가 있다고 하는데 돈이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해서, 자료가 앞으로 좀더 전자화되고, 이전에 건물 안에서만 볼 수 있던 자료를 건물 밖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 원문서비스가 제공될 것을 기대한다. 국회도서관의 경우만 해도 건물 안에서만 자료를 볼 수 있는데, 일본의 국회도서관과 계약을 한 대학 도서관에서 한정적으로 원문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한다. 하지만 그 대학도서관도 문을 닫은 상태여서 힘든 상태이다." (#18, 일본, 동경 외국어대학교 박사, 10월 8일, Zoom 화상인터뷰)

(8) 한류의 확산과 한국 자료 이용의 연관성

- 2000년대 이후로 전 지구적으로 확산되어온 한류의 번성이 개인의 한국자료 이용에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19명의 응답자가 동의하였다. 그 이유로는 많은 경우 한류의 흥미가 한국 문화와 사회 전반에 대한 관심으로 확장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케이팝, 영화, 드라마를 통해 한국을 이해하고 비디오, CD, 인터넷, 유튜브 등의 플랫폼을 통해 한국 관련 자료들을 더 많이 탐색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이들은 또한 앞으로 더 다양한 한류 관련 자료들이 확충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인터뷰 대상자 가운데 한국어 교육 및 한국문화, 한국역사를 가르치고 있는 2명은 수업에 적극적으로 한류 콘텐츠를 활용해서 긍정적인 효과를 얻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인터뷰 사례〉

> "해외에서 한류의 확산이 자신의 한국자료 이용에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한다. 일부 강의에서 한류의 특정 문화와 연계를 해서 생각을 하거나 강의를 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또 새로운 교수법을 활용하고자 할 때 한류의 요소들을 가끔 활용하기도 하는 것 같다." (#19,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 박사과정, 10월 12일, 14일, 21일, 서면인터뷰)
>
> "해외에서 한류의 확산이 자신의 한국자료 이용에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한다. 연구 주제는 아니지만, 한국어 수업을 할 때 한류관련 자료를 가끔 이용하는데, 가령, K-pop 그룹 트와이스 관련 영상자료를 수업에서 이용하였을 때 트와이스 팬들이 있어서 좋은 반응을 얻었다. 한국 영화는 수업과제로 사용한다" (#18, 일본, 동경외국어대학교 박사, 10월 8일, Zoom 화상인터뷰)

(9) 한류에 대한 관심-한국어 학습-한국학 연구의 연계성

- 한류에 대한 관심이 한국어 학습의 계기가 되고 나아가 한국을 보다 심도 있게 그리고 학술적인 영역에서 접근하게 되는 한국학 연구로 점진적으로 발전하게 되는 흐름에 대해서 인터뷰 대상자 26명 중에서 14명의 응답자가 자신의 사례를 들거나 주변의 친구의 사례를 들어 동의하였다. 나머지 2명은 어느 정도 동의하고, 2명은 자신의 출신지역에서 그러한 사례를 빈번히 보지 못한 이유로 동의하지 않았다. 이 질문에 대한 응답은 전반적으로 한류의 영향력과 국제적 인지도의 증가가 학술의 영역에까지 긍정적으로 연계되는 지점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데, 한편으로 지역에 따라 한류의 인기와 전파력, 한류에 대한 수용태도 등이 상이하게 구현되고 있는 점 또한 감안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류의 확산이 기존의 해외에서의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바꾸고 한국의 문화를 관심의 대상으로 이동시키는 현 상황에서 해당지역의 한국학의 수요를 감안하여 미래에 한국어학과 설치 및 그것에 기여하고 싶은 희망을 드러내는 응답이 2명 있었다.

〈인터뷰 사례〉

> "스페인에서 유일하게 한국학과가 있는 곳은 남쪽인 말라가 대학이 제일 유명하다. 말라가 대학 한국학과 학생들은 한국으로 유학을 많이 갈 것이라 생각한다. 마드리드에는 한국문학을 공부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잘 모르겠지만..) 바르셀로나는 마드리드에 비해 더 한국에 관심이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요즘은 모르겠다... 마드리드는 스페인의 수도이고 옛날에 비해서는 한국에 대한 관심이 많아져서 한국영화를 특집으로 스페인 영화관에서 상영하기도 문화 홍보를 활발하게 한다고 생각한다.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것이 아직은 스페인은 아시아문화에서 여전히 중국이 강세이고 한국문화가 아직까지는 밀린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 개선될 여지도 있다(열심히 해야 할 듯). 스페인 (마드리드) 대학교에서 한국학과가 개설되어 그곳에서 가르치고 싶다는 막연한 꿈이 있다. 그러한 것에 기여할 수 있다면, 앞으로 이와 관련된 일을 하게 된다면 좋을 것 같다. 상황을 보니까 한국에 대한 관심도 많아지고 인식도 달라지고 있는데 몇 년 전만 해도 한국에 대해서 가르친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다. 한국어뿐 아니라 동양학과에서 한국어수업을 개설한 것 등은 희망적이라고 본다. 코로나와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스페인이 한국학과를 지원할지 현재로서는 모르겠다. 다른 나라는 교육열 등으로 많이 지원하지만 스페인은 그럴 것 같지 않기도 한데." (#22, 스페인, 한국학중앙연구원 석사과정, 10월 14일, Zoom 화상 인터뷰)
>
> "인도네시아에는 학사과정만 있고, 석박사 과정이 없기 때문에 더 연구를 하려면 한국으로 유학 와야 한다. 자카르타 인도네시아대학에도 없기 때문에 석박사과정이 설치되면 좋을 것 같고, 발리시에도 한국어학과가 만들어지면 좋을 것 같다." (#23, 인도네시아, 한국학중앙연구원 석사과정, 10월 15일, Zoom 화상인터뷰)

(10) WOK 이용의향과 해외 한국자료실 설치에 대한 기대

- WOK에 대해서 들어본 적은 없지만, 향후 이러한 한국자료실이 자신의 지역 도서관이 설치된다면 대부분의 인터뷰 대상자가 이용할 의향을 밝혔다. 그 구체적인 이유와 한국자료실 설치 시 부가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① 해외 한국자료의 부족과 최신 자료에 대한 요구

현재 해외의 한국자료를 제공하는 도서관이나 자료실의 경우, 양적으로 질적으로 자료의 부족 뿐 아니라 최신 자료들이 업데이트 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 어려움을 토로한다.

〈인터뷰 사례〉

"WOK와 같은 자료실을 이용할 의향이 있다. 또래 친구들이 한국문화에 관심이 많기에 다들 좋아할 것 같다. 특별히 문화와 언어 자료를 희망한다… 한국의 자료지원이 더 보강되기를 바란다. 기사를 찾으면 3~4년 전의 내용이며, 변화가 빠른데 신속하게 업데이트가 필요하다 (#7, 러시아, 명지대 영문학과 교환학생, 9월 30일, 대면인터뷰)

"대련외국어대 도서관의 경우에는 한국어전공자가 많고 심지어 학과 내에 한국문화원도 설치되어 있었지만 한국학 저서가 너무 적었다. 문학, 역사, 지리, 사회, 경제에 대한 책이 다 부족한 것 같다. 책들을 보면 대부분 한류에 관한 책이나 여행에 관한 책이나 사전류에 불과하다. 있는 저서도 출판날짜가 너무 오래돼서 실효성이 떨어진다. 다른 한편, 인터넷에서 한국학 저서에 관한 정보가 너무 적고 그런 한국학저서를 구매하거나 전자 자료로 받는 것이 또한 어려움이 있다. 중국에서 온라인 DB를 통해서 학술논문과 학술지 논문 어느 정도 찾을 수 있지만 저서 또한 연구에 빠지면 안 되는 자료인데 이용하기 많이 힘들다. 이런 한국학 저서를 전자책으로 만들어서 자료실에서 공유되면 좋을 것 같다. 한중연 대학원 입시를 준비하기 위해서 한국 자료를 찾았는데, 당시 고향, 장시성 (江西省) 간우저시 (赣州市) 는 중국의 다른 지역에 비해 자료 사정이 더 나쁜 편인데, 시립도서관에서 한국학 도서가 아예 없어서 힘들었다." (#25, 중국, 한국학중앙연구원 석사과정, 10월 15일, 16일, 서면인터뷰)

"WOK 같은 자료실을 이용할 수 있었더라면 논문을 쓸 때 큰 도움이 되었을 것 같다. 앞으로 자료실이 설치되면 이용할 의향이 있으며, 이 자료실이 일반도서관처럼 좀 더 많은 자료를 제공하고 빌려주고, 가능하다면, 자료실 컴퓨터로 한국 웹사이트를 접근할 수 있게 지정 PC를 설치하면 좋을 것 같다. (#23, 인도네시아, 한국학중앙연구원 석사과정, 10월 15일, Zoom 화상인터뷰)

"WOK와 같이 한국자료실이 더 설치되면 이용할 의향이 있다. 특히 최신자료를 더 접할 수 있는 한국자료실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동경에 <책거리>라는 출판사가

있는데 거기에 북 카페도 있고 한국의 최신 책을 판매하지만 도서관에서 2000년대 이후에 출판된 한국의 최신자료를 제공한다면 더 좋을 것이라 생각한다.” (#18, 일본, 동경 외국어대학교 박사, 10월 8일, Zoom 화상인터뷰)

② WOK의 설치와 사서에 의한 레퍼런스 서비스 요구

국립중앙도서관이 한국자료실을 해외에 설치한다면, 무엇보다도 한국자료 검색 및 이용에 도움을 주는 사서의 역할과 레퍼런스 제공이 유용할 것이라는 견해가 제시된다. 특히, 이는 인터넷 검색을 위주로 하는 해외의 자료이용자들이나 한국어 능력의 부족으로 한국자료 검색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이용자들에게 시급한 문제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인터뷰 사례〉

“WOK와 같은 자료실이나 여타의 해외 한국자료실을 앞으로 당연히 이용할 것이다.. 한국자료실 이용에 대해서 원하는 키워드로 검색하여 쉽게 정보에 접근하고 최신식 자료에 접근이 가능하기를 기대. 인터넷을 통해서 최신동향에 접할 수 있고 편리하기도 하지만 자료실이 필요한 이유는 도서관에는 사서들이나 온라인으로 혼자 검색을 했을 때 찾기 쉽지 않은 것들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기에 좋을 것 같다.” (#15, 중국, 명지대 디지털미디어학과, 10월 3일, 대면인터뷰)

“한국자료 찾을 때, 혼자 스스로 하다 보니 힘들어요. 대화로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어요.” (#17, 중국, 명지대 경영학과 학부생, 10월 7일, 대면인터뷰)

“혹시 해외의 학자들을 한국자료 검색을 도와줄 수 있는 사서들과 연결시켜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궁금하다. 물론 fee를 지불해야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서비스를 위한 약간의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는 조직들이 있을지 모르겠다. 내 생각에 한 시간당 2만 5천원이 적절하리라 생각한다.” (#16, 미국, Tarleton State University 영문학과 교수, 10월 5일, 6일, 8일, 서면인터뷰)

③ 한국자료실 설치 시 다양한 언어서비스를 통한 검색엔진의 보강

해외의 도서관과 한국문화원에 한국자료실을 설치하는 경우, 한국어, 영어, 자국어 검색 서비스를 확충하여 해외 이용자의 한국 자료 접근성이 높아지기를 바라는 요구가 제안된다.

〈인터뷰 사례〉

"독일 튀빙겐 대학 한국학과에서 자료를 이용할 때 한국어 데이터베이스 속에 이용된 알고리즘에 익숙하지 않아서 충분히 원하는 자료를 찾지 못했다.. 독일에서 외국의 데이터베이스들에 더 쉽게 접근하는 것은 필연적인 것인데, 당시 DBpia나 Riss 이용을 원하면 먼저 Crossasia에서 신청이 필요했는데 게으른 탓에 접근이 더 쉬운 포털을 선호했으며 당시 한국 포털의 형식도 익숙하지 않고 한국어에 자신이 없어서 데이터베이스라면 대부분 그냥 Muse나 Jstor 같은 것을 사용하였다." (#24, 러시아, 한국학중앙연구원 석사과정, 10월 15일, 24일, 서면인터뷰)

"(대학도서관을 이용하면서) 책의 제목이 한글이냐 로마나제이션으로 되어 있느냐에 따라 온라인 카탈로그 검색이 일관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책들을 찾기가 어렵다." (#4,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 박사과정, 9월 22일, 서면인터뷰)

"나는 한국에서 운영되는 영어 검색 엔진을 가진 한국자료 데이터베이스를 상상한다." (#16, 미국, Tarleton State University 영문학과 교수, 10월 5일, 6일, 8일, 서면인터뷰)

④ 한국자료실 홍보 및 한국 자료의 자국어 및 영어 번역물 지원의 확대의 요구

국립중앙도서관에서 한국자료실을 설치 시, 자국의 이용자들에게 충분히 자료실에 대한 홍보가 이루어지고 아울러, 한국어에 능숙하지 못한 해외의 외국인 이

용자들에게 자국어 또는 영어로 번역된 자료들의 지원에 대한 요구가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인터뷰 사례〉

"터키에 있을 때 처음에는 영어로 된 한국 관련 블로그, 유튜브 또는 먼저 한국을 가본 지인들에게 물어보았다. 한국정보가 많지 않아서 블로그를 많이 보았는데 원하는 정보를 다 찾을 수 있었다… 네이버 카페도 잘 찾아보긴 했으나 한국 사이트는 너무 세부적이라서, 오히려 영어로 된 사이트가 외국인 입장에서 보기에 더 도움이 되는 것 같다." (#9, 터키, 명지대 국제무역전공 학부 교환학생, 9월 30일, 대면인터뷰)

"도서관에 한국자료실이 설치되면 한국에 관심이 많은 일본인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한국어로 된 것 말고 일본어로 된 자료도 갖추어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이런 도서관에서 한국어로 검색하는 것은 필요할 것 같고, 그런 정보를 도서관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일본인들)이 많을 것 같아서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14, 일본,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학부생, 10월 3일, 대면인터뷰)

"한국 자료를 찾지 못하면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Talk To Me in Korean series"(개인 유튜브 채널) 이용한다. 특별히 주변에 한국말을 하는 사람이 없어 도움을 구하기 어려운데, 온라인을 들어가서 나처럼 비슷한 한국자료를 찾기 위해 도움을 청하는 포럼을 이용하게 된다. (#1, 미국, 일반 시민, 9월 20일, 서면인터뷰)

"더 많은 한국어교재 외에, 한국 책들에 대한 영어 번역물이 많아지기를 기대한다. 한국동료나 한국친구들이 그들이 읽고 있는 흥미로운 한국 책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그것을 읽고 온전히 이해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2, 미국, 회사원/회계사, 9월 21일, 서면인터뷰)

"베트남에서의 한국어로 된 여행정보는 베트남인들이 거의 읽을 수 없고 베트남어로 된 한국정보 자료는 거의 없다." (#13, 베트남, 명지대 국문학과 학부생, 10월 2일, 대면인터뷰)

"전 세계의 많은 이들에게 (한국자료의) 영어 번역은 절실하게 필요한데, 나는 영어 자료들이 한국어로 번역되어 한국인들이 큰 도움을 받으리라 확신한다. 이것이 매우 비용이 많이 들고, 어려운 요청일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16, 미국, Tarleton State University 영문학과 교수, 10월 5일, 6일, 8일, 서면인터뷰)

"한국인들에 의해 쓰여진 자료들 가운데 영어로 번역된 것을 찾기가 힘든데, 그래서 할 수 없이 종종 서구적 시각으로 쓰여진 논문이나 책들로 대체해서 상황을 해결해야만 한다… 보통 한국 저널이나 비디오(미디어 자료)의 번역된 자료들을 찾기 위해 인터넷을 이용하는데, 사람들이 이러한 이슈들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아서 대부분의 경우 별 소득이 없다. 하지만 가끔 비공식적으로 팬들에 의해 번역된 비디오 자료를 우연히 발견하기도 하는데 자료를 찾지 못할 때는 대부분의 경우 도움을 요청할 만한 전문가가 없는 상황이다. 만약 내가 정말 영어로 번역된 자료가 필요한 경우, 한국인 친구들에게 그 부분을 번역해 줄 것을 요청한다. 그러나 이것은 친구에게 부탁하기엔 너무 부담스러운 일이다." (#26,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 석사과정, 10월 16일, 서면인터뷰)

⑤ 손쉬운 정보검색을 위한 "원스탑 쇼핑 플레이스" 에 대한 요구

해외에서 한국자료 이용자들을 위한 디지털 서비스를 기술적으로 확충하고 이용자의 효율적 자료 이용을 위해 도서관이 한 곳에서 모든 한국자료를 쉽게 접할 수 있는 통합 자료 포털 사이트를 구축할 것에 대한 요구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인터뷰 사례〉

"한국도서관에서 한국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가령, 한국여행이나 음식)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13, 베트남, 명지대 국문학과 학부생, 10월 2일, 대면인터뷰)

"향후 자료 지원을 위해서, 도서관이 제공할 내용으로 인터넷 포털, 한국정보가 모여 있는 포털, (대사관과 같은) 신뢰할 수 있는 한국정보에 관한 웹사이트 리스트를 제공해도 좋을 것 같다" (#10, 프랑스, 명지대 아동학과 학부 교환학생, 9월 30일, 대면인터뷰)

"한국정보에 대한 인터넷의 정확도는 반반인 것 같다. 앞으로 한 곳에서 한국 정보에 한 번에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 사이트를 희망한다." (#7, 러시아, 명지대 영문학과 학부 교환학생, 9월 30일, 대면인터뷰)

"앞으로 한국자료를 이용함에 있어 어디서 한국자료를 찾을 수 있는지에 관해 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가 존재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하다. 그 웹사이트는 모든 이용 가능한 한국자료를 리스트화할 필요는 없지만, 어디로 가면 그것들을 찾을 수 있는지를 알려주면 좋을 것 같다. 이러한 웹사이트가 있으면 앞으로 한국언어 수업이나 한국문화, 사회 수업에서도 요긴하게 쓰일 수 있을 것이다. (#3, 미국, USC-연세대 연계 석사 프로그램 교환학생, 9월 22일, 서면인터뷰)

"한국학 관련 데이터베이스나 학술서비스 등이 일부 중점 해외대학들에 재정이나 정책적인 지원들이 집중되는 면이 있는데, 국내외 연구자들이나 대학(원)생이라면 소속에 상관없이 누구나 보편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통합형 오픈 학술 서비스를 한국정부차원에서 제공을 할 수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다… 한류자료의 확충이 필요한데, 저작권 문제로 인해 어렵겠지만, 웹툰이라든가 드라마, 예능, 그리고 영화를 포함하는 시청각 자료 데이터베이스가 있으면 어떨까 싶다." (#19,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 박사과정, 10월 12일, 14일, 21일, 서면인터뷰)

"많은 한국 자료들에 접근할 수 있는 하나의 통합 사이트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 만약 그 사이트가 우리(연구자들)를 연구 사서들에게 연결시켜주면 또한 좋을 것 같다… 내가 꿈꾸는 것은 미국에서 내가 접근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해서 내가 대답할 수 없는 주제에 대한 질문이 있는 경우, 한국에 영어를 사용하는 연구자들을 연결시키는 도서관이 있어서 그들에게 나의 질문들을 보내면, 그들이 내가 연구하는 것을 도와주거나 내게 대답을 찾을 수 있는 접근 가능한 영어로 된 자료들을 알려주는 것이다. 아마도 논문들이 번역되는 과정에서 fee를 지불하는 것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16, 미국, Tarleton State University 영문학과 교수, 10월 5일, 6일, 8일, 서면인터뷰)

"앞으로 케이팝과 관련된 비디오 자료들을 위한 어떤 종류의 아카이브 (다양한 언어의 번역과 함께)를 제공받으면 너무나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전 세계의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케이팝에 자유로운 형태로 또는 학술적으로 흥미를 가지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 사람들이 유료콘서트(가령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상에 열린 BTS의 "Map of the Soul ONE" 콘서트)에서 인터뷰, 버라이어티 쇼까지 모든 콘텐츠를 볼 수 있는 플랫폼을 앞서서 만든다면, 많은 대학이 케이팝 또는 한국의 미디어 일반을 연구하는 사람들을 위해 자료에 접속할 수 있는("go-to") 플랫폼을 설치할 것이라 생각한다." (#26,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 석사과정, 10월 16일, 서면인터뷰)

2) 해외 한국 자료 이용자에 대한 후속 설문 조사

앞 절에서 개별 심층 인터뷰를 통해 해외에서의 한국자료 이용 실태와 정보 요구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한국에서 참여자 모집에 한계가 있어, 주로 한국에 입국해 있는 외국 유학생과 외국 소재 소수의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면담이 이루어졌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서도 파악된 바, 한

국자료의 주요 이용자 집단이 한국학 및 한국어 연구자 집단임을 감안하여 이들 이용자 집단에 대한 많은 의견 수렴이 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현재 해외에서 전문가적 수준에서 가장 활발하게 한국자료를 이용하는 한국학 교수 및 연구자들의 경험과 의향을 보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1차 설문 조사에서 후속 인터뷰 참여 의사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참여자를 대상으로 2차 설문을 실시하였다.

- 후속 인터뷰에 응하겠다는 참여의사를 밝힌 234명에게 10월 17일 2차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2차 설문은 1차 설문조사 시 개방형으로 물었던 질문들을 토대로 하여 이용자의 자료 검색 경험, 요구사항, 서비스에 대한 기대, 한국자료실 방문 시 받았던 인상 등을 중심으로 하여 개방형 질문을 구성하였다.
- 2차 설문에 응답한 참여자 74명 중 소속을 밝히고 충실히 의견을 제공한 50명의 응답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표 V-17〉 2차 인터뷰 분석 대상자 소속

신 분	전 공	참여자수	비율
학부생	한국학 전공 7명/한국어 전공 및 수강 4명/기타 1명	12	24%
대학원생	한국학 전공	6	12%
교수/연구원	해외 한국어학과, 동아시아학부, 한국학과 또는 연구소	28	56%
대학 사서	한국자료 관리	1	2%
일반인	소셜 미디어 전문가 1명/여행가이드 1명/회사원 1명	3	6%

- 참여자들의 관심 분야에 따라 구분하면 한류 및 한국 문화 소비군 4명(8%), 한국어 수강자 4명(8%), 한국학 연구자(학부생, 대학원생, 교수, 연구원 포함) 41명(82%), 기타 1명(2%)으로 나눌 수 있다. 계획대로 이번 2차 설문에서는 앞서 심층 인터뷰에서 충분히 수렴하지 못한 한국학 연구자 집단의 특성을 보다 충실히 파악할 수 있는 표집으로 판단된다.

- 따라서 후속 설문 인터뷰 분석에서는 해외 한국학 연구자 집단의 자료이용의 경험과 어려움, 개선점과 기대 등을 파악할 수 있었다. 2차 설문 인터뷰에 참가한 28명의 해외 한국학과 대학교수 및 연구원의 전공별 분류를 살펴보면 다양한 분야의 인문사회분야 전공자들이다. 구체적으로, 한국역사 전공 11명, 한국어 전공 4명, 한국문학 전공 2명, 남북한 외교정책(북한 문제) 전공 2명, 예술사/미술사 전공 2명, 한국정치전공 2명, 한국종교 전공 2명, 한국문화 및 기타 전공 2명, 인류학 전공 1명이 참여하였다.

- 참여자의 신분(학부생/대학원생/연구자)에 따라 정보 요구 및 정보이용행동이 상당부분 달라지므로 2차 설문에 대한 분석은 응답자 신분별로 구분하여 다음 4개 영역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4개 영역은 (1) 주제별/유형별 선호하는 정보원; (2) 장애와 문제해결 방법; (3) 팬데믹 이후 한국자료 이용에 대한 견해; (4) 국립중앙도서관 등 한국 정부기관에 대한 기대 등이다.

(1) 주제별/유형별 선호하는 정보원

① 학부생 그룹: 학부생들은 주제별로는 한국역사, 문화, 사회, 문학, 한국어교재, 정치/마케팅, 경제학, 국제관계 등 다양한 분야의 자료를 이용한다. 자료 유형별로 인쇄자료와 인터넷을 통한 전자자료를 골고루 이용하고 있으며 소셜미디어(Youtube 등)를 많이 활용하고 있었다.

② 대학원생 그룹: 주제별로 한국 역사, 문학 자료가 가장 많았고, 영어로 번역된 자료를 활용하고 있으며, 한국어 또는 한문으로 된 일차 자료 이용자들도 있다. 자료 유형별로는 대부분 인쇄자료 외에 온라인 학술자료, 전자책을 이용하고 있었다.

③ 교수/연구원 그룹: 주제별로 한국의 전근대, 근대 1차 역사 사료(원자료)를 다루는 경우가 응답한 28명 중 13명으로 높은 비율이다. 한국어 능력 부족으로 영어로 번역된 한국자료를 봐야만 하는 연구자도 존재한다. 대다수가 단행본, 저널, 온라인 학술논문 데이터베이스 등 다양한 자료유형을 동시적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2) 한국자료를 찾을 때 겪는 장애와 문제해결 방법

① 학부생 그룹: 언어로 인한 장애가 가장 보편적으로 제기되고 있었다. 한국어 외의 언어(자국어, 영어)로 자료 검색이 불가한 점, 검색 결과물이 영어로 요약되거나 제목이라도 영어로 표기되면 유용할 것이며 흥미로운 자료들의 경우 자국어 및 영어 번역본이 부족해서 발생하는 어려움이 주로 제기되었다. 자료 검색에 문제가 있을 때 주로 사서나 지인 또는 교수 등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고, 적지 않은 참여자들(12명 중 5명)이 한국대사관을 통해 도움을 청한다고 했다. 또 다른 문제로, 자료를 인터넷을 통해 구매하고자 하지만 비용문제를 겪고 있고(2명), 도서관에 자료가 여러 권 비치되지 않아서 기다렸다가 교대로 대출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으므로 같은 자료라도 복본이 제공되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여러 명의 학부생이 동시에 찾는 자료는 대개 한국어 학습 교재일 경우가 많으므로, 전자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학부생들은 또한 온라인으로 접근 가능한 자료가 전반적으로 부족하고, 자료의 다양성 역시 부족하며, 세부 전공을 들어갈 경우 다양한 자료를 찾기 어려워 연구학습의 질이 이 떨어지게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② 대학원생 그룹: 대학원생들은 일반자료 보다 본인이 연구하고 있는 특수한 주제에 관련된 자료를 구하기 힘든 점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느끼고 있었다. 이와 같이 연구주제와 관련된 적합한 자료를 찾는데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 사서나 도서관 직원의 정보서비스가 매우 필요함을 피력하고 있었다. 대학원생들 역시 디지

털 자료 이용의 확대를 희망하는데, 현재 전자책이 매우 제한적으로 사용된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었다. 예컨대, 전자책이 공급되어도 e-book 뷰어 프로그램 설치를 요구하고 또 현재의 e-book 뷰어 프로그램에서는 여러 기능들(하이라이트, 복사, 붙여넣기 등)을 쓸 수가 없어 결국 제대로 쓰지 못하는 문제를 제기한다. 또한 근대 초기 한문 자료나 한문이 혼합되어있는 1차 자료(신문 아카이브)의 경우 한글 표기가 제공되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대학원생들 역시 한국자료 중 소설 자료는 도서관을 통해 자료를 구하기 힘든 경우, 해외 사이트에서 구매하려 해도 공급되지 않아 사실상 자료 이용이 불가능하게 되는 실상을 보고했다. 무엇보다 팬데믹으로 인해 도서관에서 상호대차 이용이 힘들어지고, 물리적으로, 온라인상으로 자료의 접근성이 더욱 어려워져 자료 이용에 문제가 많음을 제기한다.

③ 교수/연구원 그룹: 가장 적극적으로 자료 이용을 하는 교수/연구자 집단이 겪는 보편적인 문제는 디지털화되지 않은 자료가 여전히 많고 특히 전근대 역사 자료를 해외에서 이용할 수 없는 점이었다. 한국의 대학, 국립도서관의 자료, 사적 아카이브, 비매품인 정부 출판 자료 컬렉션들에의 접근성, 북한 자료 수집의 어려움 등 현재 다양한 자료들이 필요하지만 충족되지 못하는 상태이다. 이러한 온라인 접근의 어려움으로 인해 지인들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한국 방문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도 발생한다. 전자자원으로 제공되는 자료인 경우에도 해외 도서관의 경우 국립중앙도서관과 협약한 기관들에게만 1910년 이후의 온라인 자료들(원문제공서비스)을 허용하기에 실질적으로 현재 국립중앙도서관 전자자원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었다.

해외 출판물들을 구입하기에는 너무 큰 비용이 들고, 아르헨티나와 같은 일부 국가에서는 정부가 해외 출판물 구매에 대한 많은 제한도 부가하고 있어 개인적 차원에서 한국 자료를 접근하는데 어려움이 컸다. 해외에서 구하지 못하는 경우

국가 간 상호대차가 기대되지만, 자국 내 도서관과 한국도서관 간에 상호대차 시스템이 부재해 자료 입수에 애로가 적지 않았다.

영어와 한국어로 된 인터넷 검색에서 자료 내용의 정확성과 정보원의 신뢰성 등 평가의 어려움이 많아 한국 자료에 정통한 사서의 레퍼런스 서비스지원의 필요성도 크게 부각되었다.

인터넷 보안문제로 인한 기술적 장애는 매우 보편적인 문제였다. 한국의 포털을 이용할 경우 인터넷 안전성을 이유로 계속 휴대폰 인증을 요청해서 접근 불가능해진다. 국립중앙도서관의 전자 자료는 애플/맥 컴퓨터 시스템에서 사용이 어려운 점, 자료 중 외국인 신분으로 하기 어려운 인증 문제 등 각종 기술적 어려움으로 접근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밖에 보편적으로 파악된 어려움은 언어 호환성 또는 한국어 검색의 불편함이었는데, 키보드에 한국 알파벳이 포함되지 않아 한국 서명 검색이 어렵고, 한글 이용자에게 로마자화된 한국어 사용의 불편함이 크므로 한국어 검색 기능이 설치되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3) 팬데믹 이후 한국자료 이용에 대한 견해

① 학부생 그룹: 대학 폐쇄로 도서관 이용이 불가하고 디지털 자료가 거의 없는 실정을 보고하면서, 대다수 학생들은 향후 인터넷 자료의 유용성이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자신들은 한국관련 자료는 주로 온라인에서 얻기 때문에 별 영향이 없다고 대답한 경우도 있었다. 팬데믹 상황에서 자료를 구하기 위해 한국으로의 정기적인 여행/방문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앞으로 더 많은 전자 자료들에 의존하게 되겠지만 한국으로부터 물리적 인쇄자료들을 지원받거나 구매하기를 희

망한다고 했다.

② 대학원생 그룹: 전자책이나 전자자료들이 앞으로 보다 접근 용이하고 또 중요한 가치를 가지게 될 것이므로 이러한 자원에 대한 지원을 확충해 주기를 바랬다. 도서관 폐쇄로 희귀본 자료들에 대한 접근 제한으로 연구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보다 활발한 디지털 아카이빙 작업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었다.

③ 교수/연구원 그룹: 대다수의 참여자들은 팬데믹 상황을 거치며 모든 도서관과 대학들이 폐쇄되어서 필요한 정보를 구하기 힘든 상황을 경험하고 있었다. 예산문제로 도서관에서 온라인 데이터베이스(DBPIA) 구독을 철회했을 뿐 아니라 팬데믹으로 상호대차 요청이 원활하지 않거나 중단된 심각한 상황이며, 도서관 폐쇄 및 한국을 포함한 다른 지역으로 여행의 제한으로 인해 개인적으로 자료 이용에 큰 어려움이 있음을 보고 하기도 했다.

웹이 유일한 정보원인 상태가 되었으므로 많은 한국 연구자들이 인터넷상에서 연구하게 되며, 미래의 정보 교류는 가상공간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며 온라인이 자료 검색에 더욱 중요한 경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더 많은 자료들이 디지털 형식으로 제공되고 있지만, 디지털 출판이 앞으로도 더 증가하고 시청각 포맷의 문화적 자료도 늘어나고 보다 유용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하나의 대안으로 이미 존재하는 많은 K-컬처 관련 다큐멘터리 비디오(아리랑 TV 제공)를 한데 모을 수 있는 한국문화 유튜브 채널을 만듦으로써 시청각 자료들을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것이 유용할 것이라 제안한다.

응답자 중에서 눈에 띄는 견해로서 문헌학, 사본 연구자로서 고유한 조건들 속에 남아있는 실제 자료들을 검토하는 것을 가치 있게 생각하므로 디지털화된 자료를 개인적으로 좋아하지는 않는다는 소수 견해도 있었다.

(4) 국립중앙도서관 등 한국 정부 기관에 대한 기대

(예시: “한국어로 이용 가능한 검색,” “한국에 관한 정보 및 한국자료들을 수집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인터넷 포털 서비스,” “한국도서관 및 한국자료들에 대한 포괄적인 안내를 제공하는 원스톱 서비스,” “상호대차서비스 및 원문제공서비스(스캐닝 서비스)”, “원스톱 레퍼런스 서비스-Ask a librarian,” “번역 서비스”)

① 학부생 그룹: 정보이용과 관련해 가장 일반적으로 학부생들이 국립중앙도서관에 희망하는 서비스는 한국 도서관 및 한국 자료에 대한 포괄적 원스톱(One-stop) 안내 서비스(7명), 번역서비스(6명) 였다. 이 밖에도 신뢰할 만한 한국 정보 제공 인터넷 포털 서비스(3명), 상호대차 서비스 또는 원문 제공 서비스(2명), 한국어 검색 기능(2명), 단순 검색을 넘어 “질적 검색”이 가능한 포털을 기대하거나(1명), 국립도서관에서 더 많은 책을 공급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었다(1명).

② 대학원생 그룹: 대학원생들에게서는 분명한 연구 어젠더가 있으므로 보다 구체적인 요구들이 제시되고 있었다. 그럼에도 다양한 정보원들을 한 자리에 모아 한 번에 포괄적으로 검색하거나 하나의 소통 창구를 통해 받는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원스톱 레퍼런스 서비스와 한국 도서관 및 자료들에 대한 포괄적 원스톱 안내 서비스, 주요 작가들과 비평가들에 의해 쓰여진 대표작품들에 대한 포괄적인 리스트들을 한 곳에서 모두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한국 도서관에 대한 포괄적인 안내 등에 기대가 높았다. 이러한 기대는 국가도서관이라는 위상으로 인해 갖게 되는 기대로 추측된다. 무엇보다 해외에서도 연구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게 해 주는 기본적인 인프라로 전통적인 서비스인 상호대차 서비스와 원문복사

서비스에 대한 기대, 그리고 온라인자료의 확충 역시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었다. 그 밖에, 한국자료에 접근하기 위해 요구되는 디지털 뷰어 프로그램들을 제거하거나 보편적 규준을 도입하고, 한국자료의 영문 초록 제공을 기대하고 있었다.

③ 교수/연구원 그룹: 교수/연구자들에게는 무엇보다 그들의 연구를 지원할 디지털 원문 제공서비스/스캐닝서비스 확충이 가장 크게 요구되었고 더불어 상호대차 서비스에 대한 기대도 높았다. 그 다음으로 한국과 한국자료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신뢰할만한 포털서비스, 대학도서관 및 한국자료를 위한 포괄적 안내를 제공하는 원스톱 서비스와 Ask-a-Librarian과 같은 레퍼런스 서비스가 있었다. 해외에서의 한국어 자료를 보유 상황을 보여주는 인터넷 포털 구축 역시, 이러한 요구의 연장선상이라 보인다. 이제 막 한국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연구자들의 경우 번역 서비스에 대한 요구도 있었다. 또 전공에 따라 특수한 요구도 있었는데, 북한 자료 복사 허용 등, 이용에 제한이 있는 자료들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보다 용이한 로그인과 복잡한 인증절차 및 보안문제 해결, 앞에서 언급한 여러 기술적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 강구 등이 반복적으로 요청되었다.

학교나 여타 도서관을 통하지 않고 개별 외국인들이 직접적으로 국립중앙도서관 또는 상용 전자자료들을 더 쉽게 제공받을 수 있는 방법을 요청한다. 도서관이 폐쇄된 지금과 같은 팬데믹 상황에서는 도서관에 지정 PC를 설치해 두고 이용하도록 한 현재의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으므로 매우 절실한 지원이라 보인다.

한국 자료들을 디지털화하기 위해서는 규장각, 한중연, 국립민속박물관의 자료들을 결합하거나 주요 개인 컬렉션과 대학도서관들을 결합할 것을 제안한다. 사실 이러한 서비스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자료종합목록을 통해 일부 연결시키고는 있

는데, 이용자들이 희망하는 정보가 누락되었거나 그 서비스에 대한 충분치 않은 홍보 때문일 수도 있다. 한국도서관들과 한국자료들에 대한 포괄적인 안내로서 “원스톱” 서비스보다는, 검색 키워드들을 최적화시키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국립중앙도서관이 현재 하고 있는 OASIS와 인터넷 자료 디지털 아카이빙의 연장선에서 한국의 대중문화를 연구하는 해외 연구자들이 지난 블로그 등의 자료를 통해 연구할 수 있도록 곧 소멸되는 일시적 자료(ephemeral)에 대한 적극적인 수집과 아카이빙 등에 대한 요청도 경청할 만한 제안으로 파악된다.

Ⅵ.
해외 한국자료실(WOK) 지원 사업 개선 방안 모색

1. 정책고객 중심의 해외 한국자료 지원 및 서비스 제공 방안
2. 현행 사업 및 운영 방식의 타당성 검토
3. 유관 기관과의 차별성 확보 및 협업 방안
4. 효율적인 사업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 및 매뉴얼 제안

Ⅵ. 해외 한국자료실(WOK) 지원 사업 개선 방안 모색

1. 정책고객 중심의 해외 한국자료 지원과 서비스 제공 방안

1) 방향성

국정홍보처(2006)는 “정책고객서비스”를 국민이 고객이라는 기본인식하에 민간의 고객관리기법을 도입하여 정책고객별 수요에 맞추어 보다 세분화된 정책정보를 제공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서비스 체계로 정의한다. 오영균(2006)은 “정책고객관계관리”를 공공기관이 공익적 관점에서 고객과 관련된 가능한 모든 자료를 분석하여 구별된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고객집단의 특성 및 요구를 파악한 뒤 그 특성 및 요구에 적합한 정보 및 행정서비스를 선행적 또는 즉각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주민 만족이 극대화되도록 계획 집행 평가 조정하는 시스템으로 정의하였다. 정책고객서비스는 분류기준에 따라 고객을 계층화하고 세분화하여 고객에게 맞춤형 정보제공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본 연구는 해외에서 한국자료를 이용하는 다양한 층위의 정책고객들의 정보 이용 특성과 요구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고객별로 계층화되고 세분화된 맞춤형 정보제공이 가능하도록 그들의 경험을 심층 조사하였다.

연구 내용을 통해 유추해 보면, 한국이 평균적으로 다른 국가에 비해서 전자 데이터베이스가 상대적으로 더 진척되어 있고 또 지원 프로그램 개발자 또는 제공자 위주가 아니라 사용자의 환경이나 편의에 맞추어 진행되어 온 것으로 파악된다. 이렇게 공공 서비스 개념으로 시작된 한국의 자료 지원 서비스의 방향을 견지하면서, 현재 젊은 세대들을 중심으로 가시적으로 포착되는 새로운 현상들, 즉 2000년대 한류의 확산 이후의 한국자료 수요의 현저한 증가, 3~4세대에 걸친 연

구자 세대의 계보를 형성해 온 해외 한국학 분야에서 요구되는 양적, 질적 차원에서의 자료의 다양화, 디지털 시대에 새로운 미디어의 확산에 상응하여 요구되는 자료 유형 및 지원 형식의 변화, 팬데믹 이후의 급변하는 사회적 환경 등에 대응하는 전략의 필요성 등을 감안하면서 다음과 같은 자료 지원 서비스 방안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세부 내용

(1) 국립중앙도서관의 WOK와 같은 한국자료실 설치의 확장과 기능 강화

① 이용자 시각에서 제시한 현재 WOK의 개선점들

- 현재 설치된 국립중앙도서관의 해외 한국자료실(Window on Korea, 이하 WOK)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 (1) 더 다양하고 풍부한 한국자료의 지원, (2) 영어나 자국어로 번역된 한국자료 지원, (3) 이용자의 눈에 띄는 자료실 배치 및 안락한 분위기를 제공하는 공간 구성, (4) 한국어 로마자화(romanization) 이외의 한글검색 서비스 구축, (5) 자료 지원과 연계한 한국문화 행사(영화 페스티벌, 한국문화의 날 등) 개최, (6) 정기적으로 특별한 주제를 선정하여 소개하거나 올해의 베스트 책 등 한국자료의 홍보, (7) 대출의 허용 및 자료 이용 시간의 확대, (8) 한국어 교육, 문화에 관한 학위논문을 쉽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부가적 서비스 등을 제안할 수 있다.

② 지역별 WOK 지원 정책의 다변화

- 현재 WOK 이용자들 가운데 한국어 관련, 문화·문학작품이 각각 약 20% 수준으로 가장 선호하는 자료였으며, 서구권 이용자의 경우 문화·문학작품

(22.97%), 예술·역사(20.27%), 한국어 관련(18.24%)의 순으로, 비서구권의 경우 한국어 관련(22.44%), 예술·역사(18.59%), 문화·문학작품(17.95%), 한국 대중문화(16.67%)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마다 이용하는 자료의 주제별 선호도가 다르게 나타나는 현상을 감안하여 이후의 한국자료실 지원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 한류의 부상, 한국문화 및 한국어에 대한 관심의 확산 속에서 한국어 교육기관 및 한국학 연구기관이 새롭게 구축되는 지역, 즉 아시아, 동유럽, 중동, 남미 등에서 한국 자료의 수요 증가 및 이에 따른 국립중앙도서관의 WOK 설치가 시급함을 확인하였다.

- 수십 년 동안 한국문화의 전파 및 한국학 연구가 체계적으로 축적되어 온 지역의 경우에도 자료 지원의 범위를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세분화된 정책이 요구된다. 가령, 북미와 유럽, 아시아 등 한국학이 발전되어 온 지역의 이용자들의 경우, 최신 자료의 보강 및 연구 분야의 다양화와 전문화에 부응하는 보다 많은 자료들을 필요로 하고 있다

③ ‘정책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효율적인 정책 수립

-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의 WOK 설치를 담당하고 운영해 온 해외의 국립, 공립, 대학 도서관, 한국문화원 관계자 및 도서관 사서 등의 실무자들의 입장 및 역할과 현재 설치되어 있는 WOK를 이용해 온 “이용자그룹”과 미래에 WOK가 설치될 때 한국자료를 이용하게 될 해외의 잠재 이용자들까지 포함하는 “최종 이용자” 그룹의 입장과 요구 사항을 입체적으로 고려하고 상호 보충적이고 상생적인 관계성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국립중앙도서관의 국책 자료 지원 사업자로서 효율적인 사업 운영과 해외 한국자료 이용자에 대한 공

공 서비스의 확장을 통한 한국문화 확산과 해외 한국학 연구의 발전, 나아가 공동선의 실현 등을 동시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④ '최종 이용자'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는 단계별 운영 방안 수립

- '최종 이용자' 내부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고려하면서 주된 자료 정보원과 선호하는 자료 형식(예: 인쇄자료, 전자자료, 스트리밍서비스 등), 한국자료실/도서관에 대한 기대치 등을 파악하여 그들의 수요와 요구, 희망사항을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이를 위해 최종 이용자 집단을 관심분야별로 "한류 소비 집단," "한국어 학습 집단," "한국학 연구 집단"으로 나누고 각각의 그룹의 특성, 자료 수요와 애로사항, 기대와 개선점을 파악하는 한편, 이용자 집단의 지역 및 신분에 따른 그룹별 특성들을 고려하고 해당 지역의 한국학 발전 단계를 감안하여 각각의 조건에 상응하는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수립할 필요성이 크다.

- 한류 집단 그룹: 인터넷 검색, 온라인 커뮤니티/소셜미디어, 음원/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순으로 자료 검색하며, 선호하는 자료유형은 "스트리밍서비스"이며, 이상적인 한국자료실의 조건으로서 "한국에 관한 최신 자료를 빨리 제공하는 것"을 선호한다. 인쇄자료보다는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자료를 검색하고 확보하는 이들 집단의 특성을 감안하여 디지털 자료 공급의 다양한 형식들을 향후 국립중앙도서관의 자료 지원 정책의 일부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 한국어 학습 그룹: 인터넷 검색, 온라인 커뮤니티/소셜미디어, 온라인 학술자료, 교사 및 교수의 도움 순으로 자료를 검색하고 있다. 어학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선호하는 자료유형은 "종이책"이며, 이상적인 한국자료실의 조건으로서 "온라인으로 집에서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선호하고 있다. 한류 소비 집단과 마찬가지로 인터넷을 활발하게 활용하면서 인쇄자료와 디지털 자료의

동시적 공급을 기대하는 이들 집단의 요구사항을 국립중앙도서관의 WOK 자료지원 방식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 한국학 연구 그룹: 온라인 학술자료, 인터넷 검색, 종이책/종이잡지, 전자책/전자잡지를 활용해서 자료 검색하고 선호하는 자료유형은 “종이책”이며, 이상적인 한국자료실의 조건으로서 “전자책, 전자저널, DB가 많은 것”을 희망한다. 한국어 학습 그룹과 마찬가지로 인터넷을 기본 자료 검색의 정보원으로 이용하지만 연구의 실질적인 자원들을 볼 수 있는 온라인 학술자료를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집단이다. 따라서 보다 용이한 방식으로 인터넷 학술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어야 하며, 인쇄자료와 디지털 자료 모두를 활용하고자 하는 요구사항을 자료지원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 이들 세 그룹의 이용자들은 모두 물리적 자료와 인터넷을 통한 전자자료,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에의 접근성이 현실적으로 여전히 많이 부족하며 양적, 질적으로 앞으로 보다 더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최신 정보와 자료의 확보가 시급하며, 자료의 다양성이 부족하고(가령, 한류콘텐츠 외에 인디 필름이나 다큐멘터리 자료 등), 특히 한국학 연구 집단의 경우 특수한 연구 주제에 대한 더 많은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여 한국학 연구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기를 희망한다.

⑤ 물리적(physical) 도서관과 디지털 도서관의 상호 보충적 지원

전 세계적으로 급속한 미디어 환경의 변화 속에서 인쇄 자료와 전자 자료를 동시적으로 활용하고 요구하는 이용자들의 자료 이용 패턴의 변화에 상응하여 물리적 도서관과 디지털 도서관의 상호 보충적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 물리적 자료실 구축 및 확장: 초기 단계에서 성숙 단계에까지 해외의 다양한 층위의 한국학 연구 기관에서 물리적 한국 자료실을 설치하고 지속적으로 종이책, 인쇄 자료를 지원하는 것은 해외 한국학 연구의 기초적 자원을 제공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인쇄자료/종이책이 사료로서 지니는 가치를 지속시키고 학문연구의 발전을 위한 현실적 토대와 상징성을 구축하게 한다는 면에서 의의를 가진다.

- 디지털 자료의 지원 확장에 대한 기대: 미디어의 발전과 더불어 자료 이용의 디지털화가 이루어져왔지만, 현재까지도 디지털화되지 않은 한국자료가 여전히 많으며 특히 전근대 역사 자료에 대한 해외에서의 접근성 강화가 요구된다. 또한 자료를 디지털화하는 과정에서 규장각, 한중연, 국립중앙도서관, 국립민속박물관의 자료들을 결합하거나 주요 개인 컬렉션과 대학 도서관들을 결합하여 통합적인 디렉토리를 구축하는 것도 여러 컬렉션들과 도서관들을 방문해야 하는 해외 이용자의 입장에서 크나큰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현재 존재하는 종합목록의 활용성을 높일 것도 필요하다.

⑥ 레퍼런스(reference) 서비스 지원

- WOK 이용자 1차 설문조사에서 한국자료실 사서나 직원으로부터 도움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가 전체 응답자의 56.47%이며, 서구권 이용자의 37.50%가 도움을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함으로써 문화권별 도서관 활용 패턴의 차이도 보여준다. 한국자료 검색 시, 자료의 적절성 여부와 정보의 정확한 출처를 제공할 수 있는 기본 서비스가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 한국학 연구 이용자들의 경우, 개별 연구 주제에 도움이 되는 자료에 대한 조언 및 자료의 성격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맞춤형 레퍼런스 제공이 요구된다.

(2) 미래에 요구되는 자료 지원 서비스의 유형과 관련 정책

① 이용자 특성에 따른 다양한 층위의 언어지원 서비스

- 한국어 자료를 해외에서 외국인들이 이용할 때는 여러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이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데, 아래는 언어와 관련해 해결해야 할 여러 과제들이다.

- 한국자료실 설치 시 한국어, 영어, 자국어 검색 기능 설치
- 해외에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비한국어 사용자들의 한국자료 수요에 발맞춰 그들의 자료 검색을 돕는 영문 서비스의 구축
- 한국어 자료에 영어 제목 및 초록을 제공
- 한국어 자료의 자국어 및 영어 번역물 확대
- 신문 아카이브와 같이 한문 혼용자료에 제공되는 한글 표기

② 자료 접근성 향상

- 한국의 대학도서관, 국립도서관 자료 아카이브뿐 아니라,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컬렉션들, 비매품인 정부 출판 자료들과 레코드, 미디어 회사 등에서 양산하는 상업적 출판물, 북한 자료 등 다양한 종류의 자료들에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 전 세계 각국의 한국학 연구자들을 위해 현재 협약기관들에게만 부분적으로 제공되는 국립중앙도서관 원문서비스(스캐닝 서비스)의 확장 및 도서관 내의 특정 PC를 통한 제한적 접근을 넘어서 보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국립중앙도서관의 원문을 제공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와 함께 보다 적극적인 상호대차서비스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

③ 원스톱 쇼핑 개념의 자료제공 포털

- 효율적인 자료 이용을 위한 즉, “원스톱 쇼핑 플레이스”와 같은 형태의 통합적 형태의 디지털 자료 서비스 사이트에 대한 요구가 크다. 이와 관련하여 해결되어야 할 구체적인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 한국에 관한 정보 및 한국 자료들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신뢰할 만한 포털사이트 구축
  - 한국에 소재하는 각종 도서관과 아카이브에 대한 포괄적인 안내를 제공하는 통합서비스 마련
  - ”Ask a librarian”과 같은 통합참고정보서비스를 통해 인쇄자료뿐만 아니라 영어와 한국어로 된 인터넷의 다양한 웹사이트 탐색 시 자료의 적절성 여부와 정보의 정확한 출처 등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는 레퍼런스 서비스
  - 국립중앙도서관 사이트를 통해 학술 논문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할 수 있게 지원하는 방안으로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학술지 원문 제공사이트(KCI)와 같은 오픈액세스 사이트를 링크해 주는 방안

④ 디지털 형식의 자료 제공 서비스에 있어서 기술적 지원과 보완

- 해외에서 한국 정보사이트에 접속할 때 부딪히는 각종 문제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 인터넷 보안을 이유로 요구되는 휴대폰 인증 등 국립중앙도서관의 온라인 사이트 접속에 요구되는 여러 인증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문제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해결 의지와 대안 제시
  - 국립중앙도서관의 전자자료 컬렉션은 오직 윈도우 프로그램으로만 다운로

드가 가능하고 맥 컴퓨터와 같은 애플 운영시스템에서는 접근이 불가능한 문제 해결

- 전자책이 매우 제한적이며, 공급되어도 e-book 뷰어 프로그램 설치를 요구하고 PDF 사용 역시 이미지로 되어 있고 텍스트로 인식되지 않아 원문이 제공되어도 그 활용성이 매우 낮음. 따라서 디지털 기술을 도입할 때 해외 연구자들의 정보이용 특성을 염두에 둔 보다 심도 깊은 고려가 있어야 함

- 학술 연구나 교수법에서 새롭게 활용되는 “인포그래픽”(이미지 자료나 통계자료 등 여러 시청각자료를 1차적으로 데이터화하고 추가적으로 가공해서 포스터와 같이 디자인화한 결과물)과 같은 새로운 유형의 자료 지원을 가능성을 모색해야 한다. 이러한 디지털 형식의 자료들 가운데에는 시청각 포맷의 문화적 자료들(오디오, 비디오 자료들)을 집적하고 재구성하여 Youtube와 같은 비디오 공유 채널을 통해 유통하는 방식도 확산되고 있다. 따라서 국가도서관으로서 블로그, 소셜미디어 등 쉽게 소멸되는 자료를 중심으로 당대의 생활방식을 보존할 아카이빙에 대한 노력도 한국을 연구하는 해외 연구자들에게 중요한 서비스가 되므로 이에 대한 자료 구축 정책 역시 함께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⑤ 팬데믹 상황에 대비한 해외 자료지원 서비스 방향

- 팬데믹 이후 여행과 도서관 이용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해외 이용자들의 정보접근 문제는 훨씬 더 심각할 수 있다. 상호대차서비스가 중단되고 원문서비스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연구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해결책이나 대안이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 대학과 도서관이 폐쇄되어 웹이 유일한 자료 정보원이 되는 상황에서 인터넷 자료 지원의 핵심적 포맷이 되고 전자책, 전자저널,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등 전자 자료의 가치와 유용성이 커지게 되므로 디지털 가용자원의 확장에 보다 더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다.

- 현재의 팬데믹 상황에서 한국학의 정보 및 자료 교류 역시 인터넷을 매개로 이루어지며 디지털 자료에 대한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이 향후 포스트 팬데믹 시대에 이용자들에게 새로운 포맷의 자료 생산과 유통, 공유에 대해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함으로써 디지털 시대의 자료 구축과 공유에 대한 새로운 전망과 정책 마련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2. 현행 사업 및 운영 방식의 타당성 검토

국립중앙도서관의 WOK 설치 및 지원 사업은 연간 예산 3억으로 운영되는 사업으로서 해외 주요도서관에 한국자료실을 설치하고 한국 관련 자료뿐만 아니라 자료실 설치비용, 문화행사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외 주요도서관과의 교류협력을 통한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라는 사업목표 아래, 2007년부터 2020년까지 총 27개국 30개관을 개설하였고, 2020년 10월 기준 4개관이 운영 종료되어 현재 총 24개국 26개관을 지원 중이다. 최근 전 세계적인 한류 열풍으로 인해 한국과 한국문화, 한국학, 한국 관련 자료들에 대한 수요가 크고, 자료의 희소성으로 인해 이용자들의 정보 수요는 다양해지고 있다. 이러한 이용자들의 정보 수요를 충족시키고 사업의 발전과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앞에서 사업을 둘러싼 여러 측면에 대한 현황 조사를 토대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의 운영 방식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해 보았다.

1) 비전과 목표

해외에서 한국에 관한 관심과 이해를 증진시키는 효과를 기대하고 해외 주요도서관에 한국자료실을 설치하는 본 사업은 분명 한류문화 르네상스라고 불리는 이 시기에 필요한 사업이다. 사업이 출발했을 당시 상황과 10여 년이 지난 현재 해외 한국자료실 설치 및 자료에 대한 수요는 훨씬 커졌다. 자료실 이용자 및 잠재 이용자들의 설문 및 인터뷰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해외에서의 한국 자료에 대한 수요는 그 수요가 증가한 만큼 양적 측면에서뿐 아니라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다양하고 절실해졌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비전과 목표를 도서관에 한정하지 않고 한국과 관련한 연구를 진행하는 전 세계 개인이나 연구자들에게 국립중앙도서관이 가진 전자 자료를 폭넓게 제공하는 것까지 확장해 볼 수 있다.

- 현재 국립중앙도서관 WOK의 사업목표는 다음과 같이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되는데, (1) 해외 주요도서관에 한국자료실을 설치하고 한국 관련 자료들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과 (2) 해외 도서관과의 교류협력을 통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것이다.
- 본 사업을 통하여 해외 도서관과의 교류협력을 통한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국가대표도서관의 위상 강화 및 도서관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데에서 나아가, 세계인의 한국에 관한 관심과 이해를 증진하여 세계 속 한국 문화 활성과 한국학 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이라는 확장된 목표로 그 목표가 재설정 되어야 할 것이다.
-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위와 같은 사업목표를 가지고 국제교류사업을 기획하고 운영해 나가야 할 것이다.
- 나아가,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진흥사업단 관계자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해외 한국자료실(도서관) 설치사업은 해외 한국학의 인프라 구축으로 가장 중요한 학술서적들을 체계적으로 관리 할 수 있기에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
- 또 다른 측면에서 본 연구의 WOK 이용자들 및 잠재 이용자들 설문 및 인터뷰에 따르면, WOK 사업은 해외에서 한국과 관련한 자료에 접근하기 힘든 대중들에게 한국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접근점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 유의미한 사업이다.
- 나아가 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을 지원하고 문화 프로그램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유사한 형태의 지원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 다만, 본 연구의 해외 한국자료 이용자들의 설문 및 인터뷰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그들의 정보 수요는 한국에 대한 관심정도, 관심주제, 자료의 형태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 따라서, 본 사업을 확장하고자 할 때, 비전과 목표를 **도서관에 국한하지 않고 한국과 관련한 연구를 진행하는 전 세계 개인이나 연구자들에게 국립중앙도서**

관이 가진 디지털자료를 폭넓게 제공하는 것까지 확장할 수 있다.

2) 사업계획

2020년 기준 현재 국립중앙도서관 WOK 설치 및 지원 사업에서는 연간 예산 3억을 가지고 매년 1~2개 기관을 신규 선정한다. 해외에서 한국에 관한 관심과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본 사업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부족한 지원이라 판단된다.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사업계획이 필요하다.**

- 현재의 방식으로는 연 1~2개 신규도서관을 설치하므로 현실적으로 고객 세분화 및 지원 대상 세분화가 어려울 수 있다.
-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진흥사업단 관계자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해외 지원 사업을 운영할 때 현실적으로 가능한 계획을 전략적으로 기획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예컨대, 해외 한국어학, 한국학 전공 개설 대학이 2020년 현재 107개국 1,395개교인데, 1년에 1개 국가를 지원해서는 107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된다. 즉, 전략적으로 약 100개 지원 국가를 목표로, 10개국 도서관을 10년간 지원하겠다는 방식과 같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지원계획이 필요하다.
- 이를 국립중앙도서관 WOK 사업에 적용해보면, 예컨대 1년에 초기(3개), 중기(3개), 발전(4개)과 같은 방식으로 단계를 나누고 공고를 내면 지원기관들은 각각 해당기관의 수요에 맞춰 공모를 할 수 있어야 한다.
- 뿐만 아니라, 해외 한국자료실(도서관) 지원 사업은 현재의 효과보다는 장기적으로 미래 한국학의 기반을 보급하는 것이 목표이므로, 지금 한류 등으로 한국, 한국문화 및 한국학에 관심이 많은 이 시기에 예산을 증액하여, 초기-중기-발전 이렇게 3등급 정도로 구분하여 각각의 단계에서 적어도 1~2개 기관을 지원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사업계획 재정비가 필요하다.

- 국립중앙도서관이 가지고 있는 무수히 많은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한국 관련 자료를 토대로 한국 및 한국학 관련 학술적 기반을 국립중앙도서관이 앞장서서 보급한다면 앞으로 미래 한국학의 학술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3) 사업 관련 조직도 및 인력 배치

현재 WOK 사업 프로젝트에 투입된 인력은 주무관급 사서 직원 1명이다. 본 사업을 확장시키고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인력 보강이 필요하다.

- 현재 WOK 사업은 국립중앙도서관 기획연수부 산하 국제교류홍보팀에서 담당하고 있다([그림 VI-1] 참조). 2020년 10월 기준 국제교류홍보팀 내부 인력은 총 15명으로 팀장 1명, 사무관 1명, 주무관 7명, 공무직 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WOK 설치사업을 주요 업무로 담당하는 인력은 주무관급 직원 1명에 해당한다.

국제교류홍보팀 주요업무		• 도서관 국제업무 총괄 및 조정 • 외국도서관과의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업무 • 국제회의 참가 및 국제도서관 기구 활동 지원 • 도서관 홍보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 국내외 언론취재 및 홍보활동 지원 • 도서관 소식지 '오늘의 도서관' 발간					
직급	인원	담당업무					
팀장	1명	국제교류홍보팀 업무 총괄					
사무관	1명	국제교류·홍보업무 관리					
주무관	7명	국제교류, 해외 한국자료실 설치, 국제기구 협력					
		국제기구 협력, 한국학사서 글로벌 네트워크					
		도서관 홍보, 간행물 발간					
		문화동반자사업, 서무					
		한국학사서워크숍, 해외 외빈 영접					
		국제자료교환, 해외사서연수					
		웹진 발간					
공무직	6명	사진촬영	웹진 발간 지원	홍보물 개발 및 디자인	국제자료교환 지원	통번역	견학 및 홍보

[그림 Ⅵ-1] 국립중앙도서관의 조직도와 국제교류홍보팀 업무 분담(2020. 10. 기준)

- 현재와 같은 운영방식에서 국립중앙도서관 국제교류홍보팀 주무관급 직원 1명이 전 세계 30여 개 WOK를 단일 매뉴얼로 지원, 관리 및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사업을 적용하는 데 있어 기관들마다 문화적 배경 및 기관의 성격이 다르기에 단일 형태의 지원방식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
- 예컨대, 해외 곳곳에 흩어진 기관 및 각기 다른 재외공관과 일을 하려면 한 기관 당 소통해야 하는 상대도 다수이다. 기관에 따라 도서관 내에서 자료를 선정하는 사서와 관리하는 사서가 일치하지 않는 예도 있다. 시차와 언어의 문제도 있으므로 전 세계 30개 기관과 일하는 것은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한다.

따라서, 효과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다섯 가지 조직 체계안을 제안해 보았다.

제 1안

- 제 1안의 경우 전 세계 한국 자료 수요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정보서비스를 가장 적극적이며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국제교류홍보팀 안에 WOK 사업팀을 조직하여 현재의 주무관급 1인 담당에서 주무관급 6인 체제로 확대 개편하는 것으로 〈그림 VI-2〉와 같이 제안할 수 있다.

- 제 1안은 전 세계 한국자료 수요자 대상으로 지역별 한국 관심 정도, 한국학 발전상황, 한국자료 정보 수요 등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물리적 및 디지털 공간에서 다층적 해외 한국자료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WOK 팀원들을 주무관급 직원들로 구성하고 지역별 담당자 4인과 디지털 포털 관리와 협동형 참고정보서비스를 총괄에 각 1인씩을 두어 총 6인의 주무관급 담당자를 두는 구조이다.
- 예컨대, 유사 사업인 코리아 코너를 운영 중인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학사업부

를 벤치마킹하여 주무관급 직원 4인을 두고 아시아 1인, 유럽 1인, 북미·오세아니아 1인, 중남미·아프리카 1인 등으로 지역을 분담하여 시작할 수 있다.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학사업부의 경우, 총책임자와 부책임자(국립중앙도서관으로 비유하면 팀장과 사무관)를 제외한 실무자급 직원들은 기본적으로 한국연구자료지원사업(연간 3억 정도 규모)과 코리아 코너를 총괄하는 직원 1명과 그를 보조하며 유라시아, 아시아1, 아시아2, 서유럽, 중유럽, 중남미, 미국 동부, 미국 중서부 등의 환경 및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는 10여 명의 직원으로 나누어져 있고, 그에 더불어 세분된 업무들(해외도서관 지원, 해외 한국학 기관지원, 대학원생 및 박사후연구 지원)이 추가되어 있다.

- 이를 벤치마킹하여 국립중앙도서관 WOK 팀 직원들은 각 지역의 지역전문가가 되어 지속적인 현지 실사를 통해 정확한 정보 수요조사, 한국자료실 설치 및 지원, 홍보, 평가 등을 각각의 지역을 중심으로 전담하게 된다. 대륙별 배정은 향후 사업이 확장될 경우 그 전담 인원을 늘릴 수도 있다. 이러한 인력 배치를 통해 현재 1인의 주무관급 인력이 전 세계 30여 개 한국자료실을 단일 매뉴얼로 지원 및 관리하는 현재 운영방식과 비교하여 훨씬 더 고객 세분된 맞춤형 지원이 가능한 방안이 된다.

- 뿐만 아니라, 소규모 공간 중심의 아날로그식 해외 한국자료실 사업에서 벗어나 전 세계 잠재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물리적, 디지털 공간에서 제공되는 다각적 서비스로 진화하기 위해서는 디지털자료 포털 구축 및 관리 담당 주무관급 관리자 1인, WOK 자료실 담당사서 및 INKSLIB 네트워크를 연계하여 Ask-a-Librarian과 같은 협동형 참고정보서비스를 네트워크화하고 총괄할 주무관급 관리자 1인의 인력이 배치된다.

• 국립중앙도서관이 해외 자료 지원 사업을 제대로 확장하고자 한다면, **중장기적으로는 이러한 방향으로 조직이 개편되어야 사업이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될 것이다.** 이러한 시도는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해외 주요 도서관들과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하며, 물리적 및 디지털 형태의 한국 관련 지식정보로의 접근성을 최적화할 수 있게 준다.

직급	인원	담당업무					
팀장	1명	국제교류홍보팀 업무 총괄					
사무관	1명	국제교류·홍보업무 관리					
WOK Team 주무관	6명	아시아	유럽	북미, 오세아니아	중남미, 아프리카	디지털자료 포털 구축 및 관리	협동형 참고정보서비스
주무관	6명	국제기구 협력, 한국학사서 글로벌 네트워크 (INKSLIB)					
		도서관 홍보, 간행물 발간					
		문화동반자사업, 서무					
		교육/한국학사서워크숍, 해외 외빈 영접					
		국제자료교환, 해외사서연수					
		웹진 발간					
공무직	6명	사진촬영	웹진 발간 지원	홍보물 개발 및 디자인	국제자료교환 지원	통번역	견학/홍보

[그림 VI-2] 국립중앙도서관 국제교류홍보팀 업무 개편 제 1안

제 2안

• 제 2안의 경우는 현재 국립중앙도서관 국제교류홍보팀의 정규직 인력으로 시도해 볼 수 있는 방안이다. 1안과 같이 지역별 담당제로 하는데, 그 인력을 현재 가용한 인력이 분담하는 안이라 할 수 있다.

• 이 방식을 국립중앙도서관 국제교류홍보팀에 [그림 VI-3]과 같이 적용해 볼 수 있다.

국제교류홍보팀 주요업무		• 도서관 국제업무 총괄 및 조정 • 외국도서관과의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업무 • 국제회의 참가 및 국제도서관 기구 활동 지원 • 도서관 홍보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 국내외 언론취재 및 홍보활동 지원 • 도서관 소식지 '오늘의 도서관' 발간					
직급	인원	담당업무					
팀장	1명	국제교류홍보팀 업무 총괄					
사무관	1명	국제교류·홍보업무 관리					
주무관	7명	(아시아1;	국제교류, 해외 한국자료실 (WOK) 설치, 국제기구 협력)				
		(아시아2;	국제기구 협력, 한국학사서 글로벌 네트워크)				
		(유럽1;	도서관 홍보, 간행물 발간)				
		(아프리카;	문화동반자사업, 서무)				
		(북미, 중남미;	한국학사서워크숍, 해외 외빈 영접)				
		(오세아니아;	국제자료교환, 해외사서연수)				
		(유럽2;	웹진 발간)				
공무직	6명	사진촬영	웹진 발간 지원	홍보물 개발 및 디자인	국제자료교환 지원	통번역	견학 및 홍보

[그림 Ⅵ-3] 국립중앙도서관 국제교류홍보팀 업무 개편 제 2안

- 기본적으로 주무관 직원 7명을 지역적으로 먼저 세분화하여 해당 지역 정책고객들(예컨대, 해외 한국자료실, 해외 한국학 사서, 해외 이용자들 등)의 정보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더불어 기존에 담당하고 있던 개개인의 업무도 유지한다. 이는 현재의 틀을 크게 깨지 않고도 접근이 가능한 방안이다.

- 다만 위의 방식을 적용할 경우, 기존 업무에 "할당된 지역 연구" 부분이 추가되기에 주무관급 직원들의 업무 가중이 우려된다.

- 그러나 국제교류홍보팀 업무들 대부분이 기본적으로 국제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서비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역을 세분화하여 정보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WOK 사업뿐만 아니라, 국제교류홍보팀 내의 다양한 사업을 운영할 때도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한다.

- 예컨대, 지역전문가인 주무관급 직원들이 각 지역의 한국문화 및 한국학관련 핵심도서관들(core libraries)을 파악하고, 한국 관련 자료의 수요 및 잠재이용자 수를 파악할 수 있다면 WOK 신규 기관 선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세계 곳곳에 대한 지역별 분석은 WOK 사업뿐만 아니라 국제교류홍보팀의 다른 업무들(한국학사서 글로벌 네트워크, 문화동반자사업, 국제자료교환, 한국학사서워크숍 등)을 성공적으로 진행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한다.

- 주무관 직원들은 자신이 맡은 지역에 전문성을 가지고 한국 자료 및 한국학에 대한 수요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끊임없이 서로 정보를 교환해가며 논의하고 협력할 것을 제안한다.

- 이때, 공무직 직원들도 전문성을 가지고 유연하게 업무를 보조해야 한다.

제 3안

- 제 2안에서 주무관급 직원 7명의 업무가 가중되는 부분이 크게 우려된다면, WOK 사업에 예산을 대폭 확대하여 국제교류홍보팀 안에 WOK팀(sub-team)을 만드는 방안을 제안한다.

- WOK팀은 해외 한국자료실 사업을 총괄하는 주무관급 직원 1명과 지역별로 세분하여 각 지역의 WOK 설치기관들을 선정, 지원, 관리 및 평가하는 팀원 n명으로 구성한다. 주무관급 직원 n명으로 WOK팀을 만드는 것이 예산에 큰 부담이 된다면, 주무관급 직원 1명과 지역전문가인 공무직원(n명)으로 팀을 만드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 이 방식을 시각화하면 국립중앙도서관 국제교류홍보팀에 [그림 Ⅵ-4]와 같이 적용해 볼 수 있다.

- 3안의 경우, WOK사업에 관련된 인원을 현재와 비교하여 5~6명 늘리는 것이기에 현재 연간 예산(3억)보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부분이 우려된다.

- 하지만 단일 매뉴얼로 전 세계 WOK를 지원, 관리 및 평가하는 현재의 방식보다는 훨씬 더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 각 지역의 전문가인 WOK 팀원들이 신규기관들을 선정하는데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기관 선정 이후에도 WOK 현지 사서들과 더욱 긴밀하게 소통하며 지속적인 현장실사를 통해 관리, 평가하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table>
<tr><th>직급</th><th>인원</th><th colspan="7">담당업무</th></tr>
<tr><td>팀장</td><td>1명</td><td colspan="7">국제교류홍보팀 업무 총괄</td></tr>
<tr><td>사무관</td><td>1명</td><td colspan="7">국제교류·홍보업무 관리</td></tr>
<tr><td rowspan="2">WOK Team
(주무관 n명
또는
주무관 1명 및 공무직 n명)</td><td rowspan="2"></td><td colspan="7">국제교류, 해외 한국자료실 (Window on Korea) 총괄</td></tr>
<tr><td>아시아1</td><td>아시아2</td><td>유럽1</td><td>유럽2</td><td>북미, 중남미</td><td>아프리카</td><td>오세아니아</td></tr>
<tr><td rowspan="6">주무관</td><td rowspan="6">6명</td><td colspan="7">국제기구 협력, 한국학사서 글로벌 네트워크</td></tr>
<tr><td colspan="7">도서관 홍보, 간행물 발간</td></tr>
<tr><td colspan="7">문화동반자사업, 서무</td></tr>
<tr><td colspan="7">한국학사서워크숍, 해외 외빈 영접</td></tr>
<tr><td colspan="7">국제자료교환, 해외사서연수</td></tr>
<tr><td colspan="7">웹진 발간</td></tr>
<tr><td>공무직</td><td>6명</td><td>사진촬영</td><td>웹진 발간 지원</td><td colspan="2">홍보물 개발 및 디자인</td><td>국제자료교환 지원</td><td>통번역</td><td>견학/홍보</td></tr>
</table>

[그림 Ⅵ-4] 국립중앙도서관 국제교류홍보팀 업무 개편 제 3안

제 4안

- 제 3안에서 언급한 국제교류홍보팀 안에 WOK팀을 지역별 업무 분담이 아닌 초기, 중기, 발전 단계로 나눠서 업무를 분담할 수 있다.

- 이 방식을 시각화하면 〈그림 VI-5〉와 같이 적용해 볼 수 있다.

- 제 4안의 경우에는 WOK팀의 업무를 단계별로 필요한 자료 수요조사, 이용, 기관 관리 등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업무 분담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팀원들이 다양한 문화적 배경 및 기관의 성격을 지닌 전 세계 기관들을 대상으로 일하는 데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단점일 수 있다.

<table>
<tr><th>직급</th><th>인원</th><th colspan="6">담당업무</th></tr>
<tr><td>팀장</td><td>1명</td><td colspan="6">국제교류홍보팀 업무 총괄</td></tr>
<tr><td>사무관</td><td>1명</td><td colspan="6">국제교류·홍보업무 관리</td></tr>
<tr><td rowspan="2">WOK Team
(주무관 n명
또는
주무관 1명 및 공무직 n명)</td><td rowspan="2"></td><td colspan="6">국제교류, 해외 한국자료실 (Window on Korea) 총괄</td></tr>
<tr><td colspan="2">초기</td><td colspan="2">중기</td><td colspan="2">발전</td></tr>
<tr><td rowspan="6">주무관</td><td rowspan="6">6명</td><td colspan="6">국제기구 협력, 한국학사서 글로벌 네트워크</td></tr>
<tr><td colspan="6">도서관 홍보, 간행물 발간</td></tr>
<tr><td colspan="6">문화동반자사업, 서무</td></tr>
<tr><td colspan="6">한국학사서워크숍, 해외 외빈 영접</td></tr>
<tr><td colspan="6">국제자료교환, 해외사서연수</td></tr>
<tr><td colspan="6">웹진 발간</td></tr>
<tr><td>공무직</td><td>6명</td><td>사진촬영</td><td>웹진 발간 지원</td><td>홍보물 개발 및 디자인</td><td>국제자료교환 지원</td><td>통번역</td><td>견학/홍보</td></tr>
</table>

[그림 VI-5] 국립중앙도서관 국제교류홍보팀 업무 개편 제 4안

제 5안

- 제 3안에서 언급한 국제교류홍보팀 안에 WOK팀을 지역별 업무 분담이 아닌 WOK 핵심 업무를 중심으로 업무별로 분담 팀을 구성한다.
- 예컨대, WOK업무를 총괄하는 주무관급 직원 1명과 다른 팀원들은 핵심 업무에 따라 신규자료실 개설 및 설치팀, 자료리스트 작성 및 선정 배포팀, 참고서비스팀, 평가팀, 문화프로그램 및 홍보팀, 교육팀과 같이 세분된 팀으로 업무를 분담한다.
- 이 방식을 시각화하면 〈그림 Ⅵ-6〉와 같이 적용해 볼 수 있다.
- 이 경우에는 해당하는 업무에 대해 팀원들이 각자 전문성을 가지고 자신이 맡은 업무에 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제 4안과 마찬가지로 팀원들이 다양한 문화적 배경 및 기관의 성격을 지닌 전 세계 기관들을 대상으로 일하는 데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단점일 수 있다.

<table>
<tr><th>직급</th><th>인원</th><th colspan="6">담당업무</th></tr>
<tr><td>팀장</td><td>1명</td><td colspan="6">국제교류홍보팀 업무 총괄</td></tr>
<tr><td>사무관</td><td>1명</td><td colspan="6">국제교류·홍보업무 관리</td></tr>
<tr><td rowspan="2">WOK Team
(주무관 n명
또는
주무관 1명 및 공무직 n명)</td><td rowspan="2"></td><td colspan="6">국제교류, 해외 한국자료실 (Window on Korea) 총괄</td></tr>
<tr><td>신규자료실 개설 및 설치</td><td>자료리스트 작성 및 선정자료 배포</td><td>평가</td><td>문화 프로그램 및 홍보</td><td>참고서비스</td><td>교육</td></tr>
<tr><td rowspan="6">주무관</td><td rowspan="6">6명</td><td colspan="6">국제기구 협력, 한국학사서 글로벌 네트워크</td></tr>
<tr><td colspan="6">도서관 홍보, 간행물 발간</td></tr>
<tr><td colspan="6">문화동반자사업, 서무</td></tr>
<tr><td colspan="6">한국학사서워크숍, 해외 외빈 영접</td></tr>
<tr><td colspan="6">국제자료교환, 해외사서연수</td></tr>
<tr><td colspan="6">웹진 발간</td></tr>
<tr><td>공무직</td><td>6명</td><td>사진촬영</td><td>웹진 발간 지원</td><td>홍보물 개발 및 디자인</td><td>국제자료교환 지원</td><td>통번역</td><td>견학/홍보</td></tr>
</table>

[그림 Ⅵ-6] 국립중앙도서관 국제교류홍보팀 업무 개편 제 5안

4) 수요조사 방식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은 WOK 사업에 대한 수요조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 재외공관과 협력을 통해 진행 중이다. 그러나 재외공관에 전적으로 의존하기보다는, **국립중앙도서관이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잠재 정책고객들(예컨대 해외 도서관, 해외 한국자료실 이용자들)의 수요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의 WOK 설치사업에서는 매년 7월부터 10월까지 재외공관(주재국 한국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의 협조를 받아 해외 주요 도서관 대상 한국자료실 설치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 정확한 수요조사를 위하여 재외공관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현재의 방식으로는 재외공관에 의존적인 수요조사인 경향이 있다.
- 위와 같은 방식으로 기관들의 지원을 받기 때문에, 한 해에 한국자료실 설치를 신청하는 기관들 가운데 약 80% 이상이 재외공관을 통해서 신청한다.
- 이 방식은 **적은 인력으로도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사업을 관리할 때 통제되지 않는 요소들이 많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예를 들면, 재외공관의 태도에 따라 기관의 한국자료실 사업의 성패가 좌우될 수 있다. 따라서, 재외공관과 협력은 필요하겠지만 한국자료실을 지원하는 사업에서는 사업을 담당하는 실무자급 직원들의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현장실사가 요구된다.
- VI. 2. 3)에서 제안된 조직구성을 적극 활용하면 지역별 한국관련 자료 및 한국학 관련 수요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 뿐만 아니라, 본 연구에서 WOK 이용자들과 잠재 이용자들의 설문 및 인터뷰에 따르면, 현 사업에서는 한국에 관련한 자료를 이용하고 싶은 **WOK 한국자료실 물리적 공간으로의 접근이 불가능한 잠재이용자들의 정보 수요**는 간과되고 있다.

-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수많은 도서관이 임시휴관 중인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이러한 잠재 이용자들의 정보 수요를 정확하게 분석하여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WOK 설치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도서관만이 가지고 있는 많은 양의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해외에 거주하는 개인 연구자 및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잠재 이용자에게 디지털자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병행하는 것을 제안한다.

5) 사업운영 및 평가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의 WOK 사업을 운영하는데 있어 자료지원, 문화프로그램 지원, 평가와 같은 운영방식의 타당성을 검토해 보았다.

(1) 자료지원

현재 국립중앙도서관 WOK 사업에서는 자료를 연 1회 재외공관의 행낭을 통해 직접 보내는 형태로 인쇄자료를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그러나 2020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전 세계 온 인류가 극심한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이 시기에 적절한 **인쇄자료와 전자자료(e-book, e-journal, e-resource)의 동시적, 상호 보충적 지원이 필요하다.**

- 현재까지는 기관별로 요청한 인쇄자료를 연 1회 외교행낭을 통해 보내는 형태로 지원되었다.
- 자료의 최신성과 다양성을 유지하려면 자료가 수시로 지원되어야 한다. 현실적으로, 배송비로 인하여 인쇄자료의 공급이 여러 번 어렵다면 이용자들의 정보 수요에 맞춰 디지털자료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정보서비스 개발이 시급하다.
- 본 연구의 WOK 이용자 및 잠재 이용자들의 설문에 따르면, 프린트 형태의 자

료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 어디서나 접근 가능한 전자자료(e-book, e-journal, e-resource)의 수요도 동시에 존재한다. 따라서 **디지털자료에 대한 지원이 필수적이다.**

- 디지털자료 제공 서비스는 도서관에 한정하지 말고, 전 세계 누구에게나 오픈하여 한국어 또는 한국학 관련 학생이나 연구자들에게도 대폭 확대되기를 기대한다.
- 현재 전자 자료에 대한 정보 수요가 분명 존재하는데 이용자들은 국립중앙도서관의 전자 자료로의 접근이 어렵다고 의견을 표출한다. 심지어, 국가지식정보서비스를 통해 150만여 점의 자료가 디지털화되어 있음에도 전자자료 접근이 어렵다는 이용자측의 불만은 적지 않다.
- 사실 자료 원문을 도서관 내에서만 볼 수 있게 제한하는 것은 저작권법 제 31조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와 관련된 법·제도적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 예를 들어, 저작권이 있는 자료의 경우 도서관 간의 전송만 가능하므로 해외의 개별 이용자들에게 원문DB를 열어주는 것은 법적 위반이 되므로, 국립중앙도서관만이 오롯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 따라서 원문 접근에 제한이 있는 경우, 자료별로 각기 다른 이유가 있으므로 그 원인별 대응 방법을 파악하고 그 사유를 이용자들과 명확히 소통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지 못할 때 국립중앙도서관의 서비스에 대한 불필요한 비판과 신뢰를 초래하게 된다.
- 본 연구 결과로 파악된 자료 이용의 장애 요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가장 큰 문제는 도서관내 지정된 PC에서만 전자 자료의 원문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특히, 현재와 같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COVID-19)로 인하여 도서관이 수 개월간 개방을 하지 못하는 경우 이용이 전혀 불가능하게 된다. 다른 상업적 데이터베이스 접근방식처럼 IP주소를 베이스로 하여 proxy를 통해 접근하는 방법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WOK 도서관 행정 측과 시스템 구축하는 부서들에서도 현재의 방식이 매우 납득하기 어려운 형태로 운영되고 있

다.

- 한국 관련 디지털자료로 접근할 때 회원가입의 어려움, 인터넷 보안시스템(휴대전화 인증), e-book 뷰어 프로그램 설치의 복잡화와 같은 부분도 자료 이용을 방해하는 요소이다. 이용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을 대폭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다.
- 국립중앙도서관 전자자료 컬렉션은 오직 윈도우 체제에서만 프로그램 다운로드가 가능한 부분도 개선되어야 할 점이다.

(2) 문화 프로그램 지원

본 사업에서는 재외문화원, 재외공관과 연계한 문화행사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매년 5~6개관의 문화원/도서관을 선정하여 기관별로 300만원씩 지원하고 있다. 한국에 관한 관심과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본 사업의 목표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기관을 선정하여 문화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 자료지원뿐만 아니라 문화프로그램 활동도 함께 재정적으로 지원한다. 기존의 설치된 한국자료실이나 신설 한국자료실 가운데 매년 5~6개 기관을 선정하여 한국문학 번역, 한국어 말하기 대회, 한국 도서전, 한국영화 상영회, 한국시인의 낭독회, 한국 문학/미술/역사/경제 특강 등의 각종 문화 프로그램 활동이 함께 지원되고 있다.

- 자료와 함께 문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은 본 사업의 목표와도 잘 맞는 타당한 지원이다. 그러나 최근 한류의 열풍,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전 세계 곳곳의 지속적인 관심이 쏟아지는 트렌드(김용락 외, 2020; 이성민 외, 2019)에 비추어 볼 때, 지원기관 수를 대폭 늘려 더 많은 국가의 한국자료실 및 재

외공관에서 한국을 소개하고 경험하는 기회를 폭넓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

- 특히, WOK 사서 대상의 설문 결과에 따르면, WOK 거의 모든 도서관이 문화 프로그램 지원을 희망하고 있다. 실상은 자료지원보다 문화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더 적극적으로 원하고 있었다. 한국문화와 자료가 많지 않은 초기 단계의 자료실에는 실질적인 한국학 자료에 대한 수요가 적기 때문에 문화프로그램을 통한 한국 알리기의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 나아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언택트(untact)시대에 WOK 사서들은 온라인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온택트(ontact) 문화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형태의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기획하도록 유도하면 국립중앙도서관은 기관별로 지원 금액 절감의 효과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집에서 즐기는 방구석 한국소설 독서토론 및 독서퀴즈, 온라인 도서 전시회, 온라인 한국미술/역사 특강 등을 WOK 사서들이 각 국가와 기관의 상황에 맞게 기획한다면 이용자들이 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방식으로 한국문화를 집에서도 경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3) 평가

2020년 11월 기준 국립중앙도서관 WOK 사업에서는 지원기관들에 대해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평가시스템이 없다. 그러나 성공적으로 국제사업을 운영해가는 관계 기관들의 사례를 비추어 볼 때, 지원과제 및 기관에 대한 평가시스템은 효과적인 사업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기본 장치라 할 수 있다.

- 연 1회 지원기관들을 대상으로 현황조사를 온라인 또는 방문을 통하여 진행하고 있지만, 이는 필수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설문의 응답률이 높지 않다는 한

계점을 가졌다(2018년 설문 회수율 57%, 2019년 설문 회수율 36%). 이와 대조적으로, 국내 관계기관들 가운데 잘 운영되고 있는 해외 지원 사업들의 공통점은 선정된 기관들의 평가제도가 필수적으로 존재한다. 사업을 운영하는데 안전장치와도 같다고 볼 수 있다.

- 한국자료실 운영 상태를 더욱 면밀히 파악하기 위하여 각 기관은 연 1회 보고서 제출 등의 요소가 추가되는 것이 필요하다.

- 현재는 기관이 지원연장을 원하는 경우,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자료지원을 연장해 주고 있다. 그러나 평가를 통하여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곳에 대해서는 과감히 운영을 중단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 지원 공고를 낼 때부터 철저한 평가제도를 공고하여, 효과적인 운영 및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평가의 기준(예컨대, 연 1회 보고서 제출)을 명확하게 제공해야 한다. 단, 평가 기준이 너무 까다로우면 기관들이 지원조차 안 하는 양날의 검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관별 특성을 고려하여 융통성 있는 평가 기준이 필요할 수 있다.

- 뿐만 아니라, 한국자료실 사서들 외에도 이용자들의 설문을 추가할 것을 제안한다. 현재의 WOK 설문은 담당 사서가 제출하는 방식인데, 이용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이용자 설문을 통해 보다 자료실이 효과적으로 운영되는지 객관적이고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6) 종합

- 국립중앙도서관은 관계 기관들과 비교하면 연간 3억이라는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예산 규모 안에서 사업의 목표와 비전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였다. 14년간 총 27개국 30개 기관을 설치 지원하여, 한국에 관한 관심과 이해를 증진하는데 기여해 왔다.

- 그 예로, WOK 이용자들과의 설문 및 인터뷰 결과를 보면 해외에서 구하기 어려운 한국자료를 접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에 감사하다는 의견, 도서관 직원이 시설 사용법이나 보고서를 쓸 때 친절히 도움을 주어 좋았다는 의견, 컴퓨터 사용이 자유로워 좋다는 의견 등이 있었다.

- 한 이용자는 해외 한국자료실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자신의 경험을 언급한다.

> "I was travelling every month 1-2 times 300 km just to use materials from the Korean Library (Poland). With so many information and books it was very helpful to get information, that I needed. Now I live in Korea, but when I come to Poland again I will renew my library card for sure." (폴란드 WOK 이용자)

- 본 연구의 WOK 이용자, 잠재이용자들과의 설문 및 인터뷰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해외에서 한국 관련 자료의 수요는 매우 높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해외에서는 자료의 희소성으로 인하여 이용자 및 잠재이용자들의 다각화된 정보 수요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실정이다.

- 따라서, WOK 설치 및 지원 사업은 필요하고 체계적인 사업 투자가 확대되어야 할 사업이다. 특히 정보자원이 부족한 국가에서는 그 가치가 더욱 크다.

-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운영해야 하기에, 본 사업을 계획할 때도 보다 전략적이면서 체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초기-중기-발전과 같은 단계적 지원을 제안한다.

- 다만, 현재 방식(주무관급 직원 1명이 26개 기관 관리 및 감독)으로는 효과적인 운영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제대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인력 보강이 필수적이다. 참고로 유사한 사업을 진행 중인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코리아 코너의 경우, 총괄 직원(국립중앙도서관으로 비유하면 사무관급 직원)이 한 명 있지만, 다른 10여 명의 직원(국립중앙도서관으로 비유하면 주무관급 직원)이 지역을 세분하여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국제 업무를 보조한다.

- 사업 관련 조직도 및 인력 배치와 관련하여, 현재 국제교류홍보팀의 주무관급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지역적으로 세분화하고 파악된 정보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제 1안은 현재의 전 세계적으로 급증한 한국자료 수요에 가장 효과적으로 부응할 수 있는 방안이다. 국제교류홍보팀 내에 하부조직으로 WOK팀을 만들어 5명의 주무관급 인력을 추가 배치하여 지역전문가 및 디지털 자료포털서비스와 협력형 참고정보서비스를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이다. 반면, 제 2안은 현재의 국제교류홍보팀의 틀 안에서 시도해 볼 수 있는 방안으로, 기존 직원들의 업무에 WOK관련 업무를 분담하는 방식이다. 지역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완했지만, 본 연구에서 제안한 각종 서비스를 추진하는 데에는 상당한 한계가 있다. 한편 제 3안, 제 4안, 제 5안은 국제교류홍보팀 내에 하부조직으로 WOK팀을 구성하며 조직을

다소 확대하는 안으로, 각기 지역특성, 한국학 발전단계 특성, 업무특성에 따라 달리 인력을 배치한 방안이다.

- 사업을 시작한 지 14년이 된 시점에서 기존의 획일화된 인쇄자료 지원 보다는 이제 다양한 정책고객들의 정보 수요에 맞는 세분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조직 확대가 어떤 형태로든 수반되어야 한다.

- 한편 문화 프로그램 지원은 사업의 비전과 목표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부분이므로 지원기관의 수와 형태를 더 넓혀 폭넓게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코로나 시대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온택트(ontact) 문화 프로그램(예컨대, 집에서 즐기는 방구석 한국소설 독서토론, 온라인 도서 전시회, 온라인 한국 역사/문화/미술 특강 등)을 현지의 수요를 잘 아는 WOK 기관의 사서들과 함께 기획하고 개발해 나갈 필요가 있다.

3. 유관 기관과의 차별성 확보 및 협업 방안

본 단원에서는 국내 관계 기관들(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문학번역원, 세종학당재단, 한국국제교류재단)의 강점과 한계점을 돌아보면서 국립중앙도서관이 차별화할 수 있는 지점을 생각해 보았다. 나아가, 각 유관 기관과 국립중앙도서관이 협업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구상해보고 그 협업으로 인해 기대할 수 있는 효과도 예측해 보았다. 마지막으로 국립중앙도서관의 특장점들을 활용한 차별화 방안(K-library) 4가지를 제안해 보았다.

1) 한국학중앙연구원

(1) 한국학중앙연구원과의 차별성

①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강점 및 한계점

- 한국학중앙연구원(이하 한중연)은 설립목표와 주요 사업들이 한국학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국내에서 한국학에 집중된 연구원은 한중연이 유일무이하고, 석·박사 과정생 양성 가능한 대학원도 존재한다. **정부 차원에서 해외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학 학술지원은 한중연을 단일창구로 쓰기 때문에 차별화되어 있다.**
- IV장의 사례조사 결과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한중연은 사업 자체가 매우 체계적**이라는 것이 인상적이다. (1) 대규모, 중장기, 거점 양성 위주의 지원이 이루어지는 한국학진흥사업단과 (2) 소규모, 단기, 개인 연구자 직접 지원 형태로 운영되는 국제교류처의 사업으로 나뉜다. 약 30년에 걸쳐 현실적이고 체계적으로 사업을 확장해 온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 지원대상도 해외대학(씨앗, 안정화, 중핵), 연구기관, 연구팀, 민간단체, 학회

및 개인연구자들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지원기간도 과제에 따라 상이하다.

- 한중연 실무자급 직원들은 끊임없이 현지 사람들을 만나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반복적이며 적극적으로 수요조사를 이어간다는 것도 주목할만한 점이다. COVID-19 팬데믹 상황이 오기 전까지는 1년에 3~5회 국제 학술회의에 참석하였고, 출장 등을 통해 반복적이고 빈번한 현지 실사를 진행하였다.
- 이러한 과정은 신규과제를 선정하거나 기획할 때뿐만 아니라 기존 과제를 확장시켜 나갈 때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어 매우 중요하게 사료된다.
- 그러나 한중연에서도 선정한 과제들에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데 그쳐, 해외 연구자들이 자료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 직접적 도움을 줄 수 없다는 점은 역시 한계점으로 남아 있다.
- 해외 연구자들은 한국학 관련 자료 접근을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부분은 많은 양의 자료를 수집하는 국립중앙도서관이 연구팀이나 개인 연구자들에게 자료를 제공하는 데 도움을 주면서 한중연과의 협업 접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② 국립중앙도서관의 강점

- 대한민국에서는 도서관법 제20조(도서관자료의 납본)에 의거하여, 누구든 자료를 발행 혹은 제작하면 그 발행일 혹은 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게 되어 있다.
- 즉, 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대표도서관이기 때문에, 국내 발간자료 예컨대, 학술지, 단행본, 보고서 등을 망라하여 수집하고 일부는 국가지식자원공유서비스를 통해 자료를 디지털화하여 이용자들에게 제공한다.
- 이는 국립중앙도서관 이외에 대한민국 어느 기관도 하지 못하는 차별화된 점

이다. 해외 한국학 연구기관, 연구팀, 연구자들이 구하기 힘든 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 한국학 발전을 위해서는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유럽연합(EU) 내 저작물을 무료로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 “유로피아나(https://www.europeana.eu/en)”와 같은 기획을 추진함으로써 해외 한국학의 발전을 위한 **한국학 관련 자료 원문 접근성을 높일 것이 시급하다.** 해외 한국학 연구기관, 연구자들도 누구나 쉽게 자료를 검색하고 원문 이용이 가능한 진정한 전자도서관(K-Library)으로 거듭나는 것을 제안한다.

(2) 한국학중앙연구원과의 협업 방안

①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지원기관 네트워크 적극 활용하여 한국자료실 설치

- 한중연에서 지원하면서 이미 성과를 본 곳(한국학센터, 연구소, 중핵대학이나 전략연구소 등)은 이미 인력과 아이디어와 의지가 있으므로, 이러한 지원기관 네트워크를 파트너로 적극 활용하여 한국자료실을 운영하는 아이디어를 제안한다.
- 위 방안은 한국학 연구자들에게는 원문 DB와 인쇄자료를 활용한 한국 관련 자료로의 접근성을 높여주고, 국립중앙도서관 입장에서는 이용자와 잠재이용자들이 일부 확보가 되는 상태이기에 사업을 잘 운영해가기 위한 밑거름으로 작용할 수 있다.
- 한중연 관계자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한중연에서 선발하여 지원한 기관들은 이미 사업 의욕이 있으므로, 국립중앙도서관에서 타 기관이 제안하지 않은 새로운 아이템을 제안하면 긍정적으로 생각할 것으로 예상한다.
- 한중연에서도 이런 부분이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한다. 이러한 두 기관의 협력은 시너지 효과를 내는 방안이라고 사료된다.

- 나아가 이렇게 설치된 한국자료실과 연계된 각종 문화 프로그램들(예컨대, 한국문화/역사 특강)을 진행하는 것도 필요하다.
- 뿐만 아니라, 국립중앙도서관이 진정 해외 주요도서관을 통한 한국학 발전에 목표를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한중연에서 조사한 해외 한국학 동향을 정보원으로 면밀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이 아직 국립중앙도서관이 하지 못해 온 단점이자 취약한 점이기도 하다.

②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 컬렉션에서 한중연의 연구 성과물을 수집·제공

- 한중연에서 선정하고 지원하는 과제 중 연구기관 및 연구 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이 많은데, 이러한 사업들을 통해 나오는 학술지 논문이나 단행본 형태의 연구 성과물들을 수집 및 목록화하여 국립중앙도서관의 디지털 컬렉션에서 제공하는 것을 제안한다.
- 현재 한중연 지원과제로부터 나온 연구 성과물을 모은 컬렉션 한국학진흥사업단 성과포털(http://waks.aks.ac.kr/)이 존재하지만 전 세계 이용자들이 쉽게 자료로 접근할 수 있는 통로로 국립중앙도서관이 활용되면 협업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한중연의 한 관계자와의 면담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아카이브인 국립중앙도서관에 한중연 지원과제 결과물 자료를 별도의 디지털 컬렉션으로 만들어서 전 세계 학자들에게 체계적으로 보급한다면 한국학 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 본 연구의 한국학 연구자 그룹의 설문 및 인터뷰에 따르면, 그들은 온라인 학술자료에 대한 수요가 가장 높다. 이어서 인터넷 검색, 인쇄자료, 전자책 순으로 자료를 검색한다. 따라서 한국학 연구자들에게 한중연 과제의 연구 성과물들을 온라인상에서 접근할 수 있는 서비스의 도입이 시급하다.

-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사서들이 이 결과물들을 전문적으로 목록화하고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국내외 한국학 연구자들에게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도서관 홈페이지 안에서 제공해 준다면 그들이 해외에서도 쉽게 디지털자료를 열람하여 접근의 기회를 크게 확대할 수 있다.
- 이는 한중연의 지원을 받는 해외 한국학 연구자들에게 디지털자료로의 접근을 확대한다는 장점과, 국립중앙도서관에서도 한국학 관련 가치 있는 최신 자료들을 수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너지를 일으킬 것으로 생각한다.
- 다만, 연구결과물들의 저작권과 관련된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필수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부분이다.

2) 한국문학번역원

(1) 한국문학번역원과의 차별성

① 한국문학번역원의 강점 및 한계점

- 한국문학번역원은 한국문학의 발전과 세계화라는 설립목표 아래 다양한 국제사업을 통해 한국작가와 한국문학, 그리고 한국 자체를 알리고 세계문학 안에서 한국문학이 자리매김하며 위상을 확립해 나가도록 차별화된 사업을 운영중이다.
- 2007년 설립 당시부터 세계문학 속 한국문학이 굳건히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가치를 확산한다는 목표 아래 현지 기관들과 직접 접촉하고 협업하며 사업을 체계적으로 확장시켜 왔다.
- 주요 사업은 문학행사 지원, 한국 작가 초청 수업과 같은 소규모 행사뿐만 아니라, 국제도서전 한국문학 행사 전체적 기획, 원어민 번역가양성사업, Hub library, 한국문학 디지털도서관 등 한국문학 관련 행사 및 사업에 특화되어 있

다.

- 원어민 번역양성사업은 기관의 본질적 목적과 사명에 충실한 기획이다. 해외 교류도 중요하지만 번역의 질적인 수준도 중요하므로 이런 부분을 차별화하여 진행하고 있다.
- 나아가, 한국문학 디지털도서관 같은 전자책(e-book) 서비스는 2015년부터 오픈되어, 오늘날과 같은 언택트(untact)시대에 최적화되어 있는 서비스이다. 한국문학과 관련된 다양한 콘텐츠를 수집하여 이용자들이 물리적 공간에 제한되지 않고 시·공간을 초월하여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된다.
- 그러나 기관의 성격상 한국문학이라는 주제에 특화되어 있어, 다른 주제에 대한 서비스나 사업으로 확장하는 데에는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

② 국립중앙도서관의 강점

- 상대적으로 국립중앙도서관은 한국 관련 모든 자료의 대표적인 집합지이다. 해외 이용자들에게 한국문학과 관련한 자료들뿐만 아니라, 한국 정치, 경제, 역사, 교육, 문화, 예술, 지리, 한국어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자료제공이 폭넓게 가능하다.
- 나아가, 한국문학 작품들을 전 세계 작가와 독자, 그리고 잠재적 독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한국문학 작품들의 이용 플랫폼이자 확산 통로가 된다. 국립중앙도서관과 한국문학번역원이 협업한다면 적은 홍보비로도 폭넓은 잠재독자들에까지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비용 절감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2) 한국문학번역원과의 협업 방안

① 한국문학글로벌플랫폼을 통해 만들어진 콘텐츠 배포

- 한국문학번역원에서는 2020년 한국문학글로벌플랫폼 구축 사업을 시작했다.
- 한국문학과 관련하여 깊이 있게 연구하고 사업을 운영해온 한국문학번역원의 디지털 플랫폼을 국립중앙도서관이 협업하여 자료의 디지털화 및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등의 필요한 부분을 지원해준다면 두 기관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사업이라 생각된다.
- 이러한 협업을 통해 체계적으로 만들어진 콘텐츠들을 두 기관의 다양한 이용자층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사업의 타겟 이용층은 번역가, 한국문학 연구자뿐만 아니라 국내외 잠재적인 독자까지 다양할 것이다.
- 특히, 한국문학번역원과 국립중앙도서관은 2017년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한국문학 및 문화관련 해외교류를 상호 협력하는 데 함께 노력한 경험이 있다. 그 결과, 한국문학 디지털도서관에서 관리 중인 한국문학작가 영문명에 ISNI를 부여받아 국제기구 웹사이트에 한국문학 콘텐츠를 연계 제공한 바 있다. 이러한 긍정적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문학글로벌플랫폼을 만드는 데에도 협력할 것을 제안한다.

② Hub Library에 국립중앙도서관의 자료선정리스트를 지원해 주는 방안

- 한국문학번역원에서는 Hub library 사업을 통해 해외 대학 소속 한국학과, 동아시아학연구소, 한국학/동아시아도서관, 공공도서관 등과 협정을 체결하여, 교육 및 연구 과정에 필요한 한국문학번역서를 지원하고 있다. 협정 기관에 첫 회 기증 시 기증 가능한 해당 언어권의 모든 한국문학번역서(도서 목록 협의 가능)를 지원하며, 이후 매년 설문조사 등의 간단한 확인 절차를 통해 신간 한국문학번역서를 지원하고 있다.
- 국립중앙도서관은 한국문학번역원과 협업하여 WOK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자료 리스트를 공유한다면, 한국어로 된 문학자료 외에도 다른 다양한 주제 분

야의 자료에 대한 해외 독자들의 수요를 충족해 줄 수 있을 것이다.

3) 세종학당재단

(1) 세종학당재단과의 차별성

① 세종학당재단의 강점 및 한계점

- 세종학당재단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 한국문화 보급을 위해 세종학당을 지정하고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한다.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 한국어 및 한국문화를 배울 수 있도록 학생들을 지원하고 있다.
- 2012년 설립 당시 예산은 연간 약 70억으로 시작했지만, 2020년 현재 연간 예산 300억 규모로 크게 성장했다.
- 세종학당과 협업하는 경우, **WOK를 이용할 수 있는 잠재 이용자가 확보된다는 것이 큰 장점이 될 수 있다.** 예컨대, 2020년 10월 기준, 전 세계 76개국 213개소에 설치된 세종학당의 교원 수는 600~700여 명이며, 학생 수는 2019년 한 해에만 5만여 명에 달했다.
- 세종학당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연 3회 3개 국가를 선정하여 지역별 워크숍도 진행한다. 권역에 있는 세종학당 운영자들이 모이는 자리이기 때문에 운영상황을 공유하기도 하고 한국어 교육에 관련한 부분도 공유한다. 이는 200여 개가 넘는 세종학당이 서로 소통하고 네트워킹하는 정보 공유의 장을 만들어준다는 점에서 잘 활용되고 있는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 교육내용을 세분화하고 학생들에게 맞춤형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큰 장점이다. 또한, 코로나 시대(언택트 시대)에 세종학당의 학생들에게 한국어 교육지원이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도 강점이다. 일례로, '온라인 세종학당'에서는 실시간 화상강의, 과제에 대한 피드백, 적극적인 교육 등

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 세종학당 운영자들의 지역별 워크숍을 벤치마킹하여 WOK 사서들의 워크숍을 전체워크숍(연 1~2회), 지역별워크숍(연 3~4회)으로 온라인상에서 진행하는 것을 제안해 볼 수 있다. 이는 6.3.5)에서 제안하는 K-Library의 한 전략이다. 6.3.5)에서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한다.
- 그러나 세종학당에서 제공하는 자료의 주제 역시 한국어 및 한국문화와 관련한 교재에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 한계점이다.

② 국립중앙도서관의 강점

- 국립중앙도서관은 한국 정치, 경제, 역사, 교육, 문화, 예술, 지리, 한국어 등 다양한 주제의 인쇄자료와 전자자료들을 해외 이용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 차별화 지점이 된다.

(2) 세종학당재단과의 협업 방안

① 세종학당의 해외 대학 네트워크 활용하여 한국자료실 설치

- 전 세계 곳곳에 설치된 세종학당 가운데 해외 대학에 설치된 세종학당들을 활용하여 한국자료실을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 이는 세종학당에 어학 프로그램을 등록하여 수강하고 있는 학생들의 한국에 관한 관심을 증진시킬 수 있으며, 자연스럽게 자료로 접근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시너지를 낼 수 있다.
- 원래 WOK 사업은 해외 주요도서관과의 교류를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따라서 세종학당의 다양한 유형 전반을 활용하여 자료실을 설치하면 취지에 벗어난다는 점이 지적될 수 있다. 그러나 세종학당의 여러 유형 가운데 해외 대학에 위치한 세종학당에 대해 그 대학도서관에 한국자료실을 설치하는 것을 제안한다.

- 본 연구에서 수행한 WOK 이용자와 비이용자 인터뷰에 따르면, 한류 문화(K-pop/K-culture)에 관심을 가진 대중들이 한국어를 배우려는 경향이 있고, 그 관심이 심화되는 경우 한국어학과 및 한국학과로의 진학 또는 한국학중앙연구원으로의 유학으로 연결되는 사례들을 무수히 발견할 수 있었다.
- 또한 세종학당 관계자와의 인터뷰에서 파악한 바, 세종학당 학생들의 경우 한류열풍을 통해 처음 한국을 접하고,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한국어 강의를 수강하게 된 학생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세종학당의 경우 문화원 내에 위치하는 예도 대다수이기 때문에, 같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 간의 협력은 정부 내 타부서와의 협력보다 더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② 세종학당의 출판 교재들을 WOK 이용자들에게 디지털자료로 제공

- 세종학당에서는 해외에 거주하면서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세분화된 맞춤형 교육서비스를 개발한다. 예를 들어, 이전에는 '세종한국어'라는 일반 어학 학습교재를 만들었다면, 2020년 기준 현재는 비즈니스 한국어, 여행 한국어, 문화로 배우는 한국어 등으로 세분화하여 교재를 개발하고 있다.
- 그런데 세종학당 관계자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교재 배송에 따른 예산상의 부담이 크다고 한다. 교재나 영상자료 기증자들이 있는데, 높은 배송비로 인하여 교재를 현지로 배송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한다.
- 따라서, 세종학당의 출판 교재들을 디지털화하는데 세종학당의 학생들뿐만 아니라,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하는 전 세계 잠재이용자들에게 전자책(e-book) 형태로 제공할 수 있는데, 이 때 국립중앙도서관을 통한 배포를 고려해 볼 수 있다. WOK 이용자들의 빈번한 요구가 한국어 학습교재이며 지원 자료를 전자책으로 보다 확대해 줄 것이었음을 고려할 때, 세종학당 출판교재는 WOK 이

용자들에게도 매우 유용한 자료지원이 될 것이다. 전자책 구매와 관련해서는 국립중앙도서관이 판권을 구매하지는 않더라도 전자책 이용량(이용자의 수)에 따라 비용을 세종학당재단에 지불할 수 있고, 기타 여러 실무적 방법은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 디지털 한국어 학습교재 배포는 팬데믹의 시대적 흐름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방안일 뿐만 아니라, 높은 배송비로 인해 애로사항을 경험한 국립중앙도서관과 세종학당재단 두 기관의 고민을 경감시키는 유용한 방안이 될 수 있다.

4) 한국국제교류재단

① 한국국제교류재단의 강점 및 한계점

- 한국국제교류재단(KF)은 외교부 산하의 기관으로서 1991년에 설립되어 지난 30여 년간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리고 상호 우호적인 국제 민간 네트워크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공공외교를 수행하고 지원하는 국제사업을 다방면에서 성공적으로 이루어내 왔다.
- 특히, KF는 공공외교 전문기관으로 특화되어 있고, 글로벌 한국학진흥, 국제협력 네트워킹, 문화예술교류 및 출판과 미디어 사업은 물론 도서관 분야에서도 외국과의 다양한 교류 사업을 체계적으로 확장해 왔다.
- 출판 및 영상과 관련한 주요사업으로 한국연구자료지원, 한국연구전자자료지원, 코리아 코너(Korea Corner), 북미도서관 특화 컨소시엄, 사회과학자료 온라인서비스 등이 있다.
- 특히, 북미도서관 특화 컨소시엄은 북미지역의 한국학 거점 대학도서관에 1994년부터 자료지원금을 제공하여 현재까지 진행되어오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해외 한국자료실의 가장 모범적인 형태로 컨소시엄 내의 장서개발협력, 상호대차, 참고서비스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사항들을 통해 재단

에서 장기적 안목을 갖고 오랜 기간 동안 도서관 사업을 지원하고 지속해 와서 현재 많은 결실을 보고 있다. 이러한 KF의 도서관 사업은 하루아침에 성공할 수 없으므로 장기적으로 투자해야 할 사업임을 확인시켜 주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된다.

- 한국연구자료지원사업의 경우, 연간 예산 약 3억으로 연평균 168여 개의 국외 대학, 국·공립도서관, 연구소 및 박물관을 기관 당 최대 2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다. 한국연구전자자료지원사업의 경우, 연간 약 3억의 예산으로 연평균 60여 개의 대학도서관 및 공공도서관을 기관 당 최대 $5,000선에서 지원하고 있다.
- 자료 지원뿐만 아니라 한국국제교류재단의 〈글로벌챌린저〉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자료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KF 도서관 인턴십을 지원하는 것 역시 높이 평가된다. KF 도서관 인턴들은 세계 유수 도서관에서 도서관 운영시스템 현장 경험하고, 현지 한국학 사서의 지도하에 한국학 장서 개발 및 관리를 보조하며, 도서관에서 진행하는 특정 프로젝트(예컨대, 코리아 코너 등)에 참여하며 현장 경험을 쌓는다. 자료지원과 인적자원의 상호보완적 지원은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는데 도움이 된다.
- 그러나 한국국제교류재단의 경우 지원 자료를 선정하는데 정보자원 전문기관이 아닌 한계로 자료선정을 위한 목록이 국립중앙도서관의 목록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평가가 있기도 하다.

② 국립중앙도서관의 강점

- 국립중앙도서관이 한국국제교류재단과 차별화할 수 있는 가장 큰 부분은 (1)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양질의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여 이용자들에게 효과적으로 폭넓게 제공할 수 있다는 점과 (2) 전문사서 인력의 지식과 경험에 기반

한 사업을 통해 질적 수준이 담보된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 첫 번째로, 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한국국제교류재단보다 보유하고 있는 자료의 양이 방대하다. 정보의 수요가 다각화되어 있고 한국과 관련한 자료들을 구하기 힘든 해외 이용자들에게 원하는 양의 자료를 쉽고 편리하게 제공할 인쇄자료 및 디지털자료가 존재한다.
- 두 번째로, 사서의 전문 지식을 활용한 양질의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예컨대, 국립중앙도서관 WOK 사업에서는 주무관급 사서 직원이 보조사서와 협력하여 2단계에 걸쳐 체계적으로 지원 자료를 선정한다.
- 세 번째로, 국립중앙도서관의 사서 전문 인력을 충분히 활용하여 참고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점이 차별화된 점이다.
- 한국국제교류재단과 국립중앙도서관은 기관의 성격, 설립목표, 예산 등의 측면에서 서로 상이하다. 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대표도서관으로 양질의 문헌정보 인프라와 인력이 있다. 오랜 시간 국제교류사업을 바탕으로 다져진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사업의 성공요인과 노하우, 그리고 그간 성장시켜 온 해외 한국학 지원사업의 열매들은 국립중앙도서관이 향후 해외 사업을 확장해 가는데 활용하고 참고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다.

5) 국립중앙도서관의 특장점을 활용한 차별화 방안(K-Library)

앞서 살펴본 바, 국립중앙도서관은 해외 자료지원과 한국학 육성에 기여하는 정부의 여러 해외사업과 분명히 차별화된 지점과 상대적 장점을 갖고 있다. 향후 해외 자료지원 사업에서는 이러한 특장점을 살리면서 한국 대표도서관으로서 세계를 향한 정보자료 지원 서비스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에 그러한 비전을 K-Library로 명명하며 그 사업 방향으로 다음 네 가지의 차별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1) 국립중앙도서관 내 디지털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전자도서관 구축, (2) 해외 연구자와 이용자를 위한 레퍼런스 서비스 제공, (3)

국내 유관 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한 WOK 사업 확대, 그리고 (4) WOK 사서들을 위한 계속 교육 및 네트워크 구축 등이 포함된다.

(1) 국립중앙도서관 내 디지털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전자도서관 구축

- 국립중앙도서관의 WOK 사업은 자료지원방식의 측면에서 팬데믹 시대 이후의 시대적 요구에 따라 더불어 한국자료실 이용자 및 잠재이용자들의 정보수요에 맞추어 전자자료의 제공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
- 독일문화원의 전자도서관(Onleihe)을 벤치마킹하여, 국립중앙도서관도 전 세계 한국과 관련한 개인 및 연구자들이 국립중앙도서관의 디지털화된 자료들을 신속하고 시의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도서관을 만들어 디지털자료를 폭넓게 제공할 것을 제안한다.
-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 스칼라십 정보서비스 개발 연구에 따르면, 국립중앙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원문 디지털 자료는 고서, 고문서, 고지도, 교과서, 국내발간 한국관련 외국어자료, 관보, 단행자료, 독도관련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발간자료, 신문학 대표소설, 악보, 어린이·청소년 자료, 연속간행물, 우수학술도서, 학위논문 등 22개 유형으로 매우 다양하다. 게다가 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지식자원공유서비스를 통해 전자자료를 이용자들에게 이미 제공하고 있어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확대할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국립중앙도서관의 부서 간 원활한 협력과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부분이다.
- 무엇보다 위의 서비스를 구축하고 확대해 나갈 때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부분은 기술적 장벽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이다. 본 연구의 WOK 이용자 및 잠재이용자의 설문과 인터뷰 결과에 따르면, 해외 이용자들은 도서관 내 지정 PC에서만 가능한 원문서비스에 대한 불편함, 보안시스템(휴대전화 인증)의 복잡화, e-book 뷰어의 복잡화, 애플 운영시스템에서 이용 불가 등의 기술적인 문제로 국립중앙도서관의 전자자료 컬렉션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즉, 국립중앙도서관 전자도서관은 이러한 장벽을 최소화하여 해외 이용자들이 자료로 접근할 때 쉽게 도와줄 필요가 있다.

- 자료를 검색할 때도 다양한 언어(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베트남어, 스페인어, 독일어, 프랑스어 등)로 자료가 검색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 필요하다.
- 위의 제안이 현실화된다면, 이는 분명 국립중앙도서관 이외에 대한민국 어느 기관도 하지 못하는 서비스가 될 것이다. 해외 이용자 누구나가 쉽게 자료를 검색하고 원문 이용이 가능한 전자도서관 시스템을 구축하여 진정한 디지털도서관으로 거듭나는 것을 제안한다.

(2) 해외 연구자와 이용자를 위한 레퍼런스 서비스 제공

- 현재 WOK 설치 및 지원 사업에서는 한국에 관련한 연구를 하지만 WOK 자료실에 물리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잠재 이용자에 대한 정보서비스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자료실 잠재 이용자들 특히 한국(학) 관련 연구자들은 외국에서 한국에 관련한 자료를 구하기 힘든 상황임을 절박하게 호소한다.
- 국립중앙도서관의 전자도서관이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연구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 준다면 이는 국내 유관 기관과 분명 차별화하는 방안이 된다.
- 뿐만 아니라, 현재 WOK 자료실에 한국어 구사 능력을 갖춘 사서가 극히 드물기 때문에 전문적인 참고서비스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가 크다.
- 해외 연구자들이 한국 자료를 검색할 때 어려움에 직면하는 경우, 국립중앙도서관내의 전문 인력이 총괄하고 WOK를 포함한 전 세계 한국학 사서들이 참여하는 협력형 레퍼런스 서비스(Ask a librarian)를 제공하는 한편 한국자료포털을 구축한다면 해외 한국학 발전에 큰 촉매로 작용할 것이다.

(3) 국내 유관 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한 WOK 사업 확대

- 국내 유관 기관과의 협업 방안에서 반복적으로 언급했다시피, 한국학중앙연구원과 세종학당재단은 해외에 네트워크가 잘 구축되어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이러한 국내 유관기관의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협업하여 WOK 설치를 효과적으로 확대시켜 나갈 것을 제안한다.
- 2007년부터 현재까지 국립중앙도서관 WOK 설치 및 지원 사업은 재외공관과의 협력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다양한 층위의 정보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재외공관뿐만 아니라 국내 관계 기관과도 협력하여 기관을 선정하고 자료실을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
- 예컨대,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선정되어 지원을 받고 성공적으로 연구 과제를 완료한 해외 대학의 연구팀과 연구기관은 자료에 대한 잠재적 이용자들이 확보된 기관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적극 활용하면 자료실을 성공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
- 또한 전 세계 대학 내에 위치한 세종학당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대학도서관에 WOK를 설치하면 어학 프로그램을 등록하여 수강하고 있는 학생들의 한국에 관한 관심을 증진할 수 있으며, 자연스럽게 자료로 접근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세종학당에서도 학생들의 정보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국립중앙도서관이 도와주기에 서로 유기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4) WOK 사서들을 위한 계속 교육 및 네트워크 구축

- 본 연구에서 진행한 WOK 사서들의 설문 결과에 따르면, 약 67%의 사서들이 한국자료와 관련하여 근황을 파악하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받기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를 희망한다. 이러한 정보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국립중앙도서관은 WOK 사서들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업데

이트하여 공유할 것을 제안한다.

- 특히 2020년 11월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의 국제교류홍보팀 내의 〈해외 한국학 사서 워크숍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ODA국가의 사서들을 대상으로 4개월간 연수 및 한국어 교육을 진행하는 〈문화동반자사업〉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활용 가능한 자원들이 존재한다.
- 더불어, WOK 사서들의 워크숍을 전체 워크숍(연 1~2회), 지역별 워크숍(연 3~4회)으로 온라인으로 진행할 것을 제안한다. 현재는 WOK 사서들의 네트워킹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WOK 사서들의 인터뷰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지역별·관종별로 WOK 사서들 간의 네트워크나 파트너십을 구성해서 그들 간의 업무 교류나 참고서비스를 공동으로 진행하는 것 등에서 높은 수요가 발견된다.
- 이 때 세종학당 운영자들의 지역별 워크숍을 벤치마킹하는 것도 가능하다. 세종학당 운영자들은 각 학당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역별 워크숍을 연 3회 3개국에서 진행하여 학당 운영뿐만 아니라 한국어 교육에 관한 부분에서도 교육훈련을 진행한다. 이는 200여 개가 넘는 세종학당이 서로 소통하고 네트워킹하는 정보 공유의 장(場)을 만들어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또 다른 예로, 독일문화원(괴테 인스티튜트)의 경우에도 동아시아 지역 문화원 도서관 사서들 간의 네트워킹이 활발하다. 연 1회 대면으로 미팅을 진행하고, 1~2달에 한 번 온라인상에서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각 도서관에서 하는 일들을 브리핑하고 성공 사례를 교환하며 끊임없이 협력의 기회를 만들어 간다. 이러한 부분들이 국립중앙도서관 WOK 사업에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 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 현재 팬데믹 이후의 변화된 정보환경을 감안하면 대면 컨퍼런스, 미팅, 워크숍보다는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WOK 사서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과 네트워크 구축이 시급하다고 판단된다.

4. 효율적인 사업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 및 매뉴얼 제안

1) 효율적 사업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

(1) 사업 목표

본 연구에서 조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현재 국립중앙도서관 WOK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조사 결과, 본 WOK 사업은 한국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해외 도서관과의 교류협력이라는 기존의 두 가지 사업 목적의 틀을 유지하면서, 현재 전 세계적인 한류 열풍과 그로 인한 한국어에 대한 관심과 한국학 발전에 신속하게 부응하도록 한국자료실을 빠르게 설치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사업 방향 하에, 효율적인 사업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2) 사업 범위

현재 WOK는 주로 유럽과 아시아 지역에 분포되어 있으나 해외 전 지역의 도서관을 대상으로 하면서 한국자료실이 미비한 지역별로 그 범위를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 때 지역별 안배보다는 실질적인 수요가 있는 곳에 적극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참고가 될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전략을 제안한다.

- 아직 설치가 되지 않았거나 미비한 지역인 아메리카 대륙과 오세아니아 및 아프리카로도 확대해 한국 자료에 대한 수요를 파악한 후에 설치
- 유럽과 아시아 및 북아메리카 지역에서도 수요가 있는 곳이라면 한 국가 내에 한 기관만으로 제한하지 않고 한국자료실 설치를 추가 증대
- 국립도서관이나 공공도서관의 경우보다는 한국학이 개설된 대학도서관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자료실의 지속적 운영이나 직접적인 수요를 충당하는

데에 훨씬 타당함
- 대학이라는 기관을 통한 한국학의 기반은 없으나 한국에 관심이 높은 국가나 지역의 공공도서관에도 한국을 알리고 홍보하기 위해 설치
- 한국자료실 설치는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으나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부진했던 중동과 아시아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 기관과 협의한 후 존속 여부를 결정
-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문학번역원, 세종학당 등이 이미 활발하게 지원하고 있는 국가와 지역 및 기관을 대상으로 한국자료실 설치

(3) 정보자원

코로나 이후 언택트 시대를 맞아 한국자료실에 제공하는 자료의 범위를 종이책에서 전자자료까지 확대시켜야 하며, 다양한 포맷의 자료를 제공하고 자료가 신속하고 배포될 수 있도록 개방형 한국학 전자도서관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 기존의 종이책과 비도서자료를 계속 지원하되, 전자책과 전자저널 및 전자자료 이용을 희망하는 도서관에 자료지원의 폭을 넓힘
- 인쇄자료 이외의 다양한 포맷으로 자원 확장하며, 온라인 콘텐츠와 오픈액세스 자료 안내 강화
- 국립중앙도서관에서 해외 한국학을 위한 한국자료 온라인 포털을 구축해 해외에서도 누구나 쉽게 자료를 검색하고 원문 이용이 가능한 기반을 마련해 진정한 전자도서관의 면모로 탈바꿈
- 현재 제공하고 있는 자료 리스트에서 어떤 자료들을 각 자료실에서 신청하고 있는지 패턴을 검토한 후에 기관의 특성과 니즈를 반영한 맞춤형 자료 제공
- 국립중앙도서관의 원문자료 이용의 접근성을 높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적극적으로 홍보
- 국립중앙도서관이 직접 서비스하지 않지만, 한국문학번역원, 세종재단, 한국국제교류재단 등 국내 유사기관이 해외에 제공하는 도서, 전자책, 전자저널 지원

에 대한 정보도 한국자료실에 제공해 시너지효과 제고
- 자료의 신속한 지원을 위해 수시로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배포 역시 연 2회 이상으로 보다 신속한 지원 시스템 가동

(4) 운영 방식

단일 매뉴얼로 지역, 국가, 문화, 사회적 배경이 상이한 다양한 기관을 운영 관리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사업을 지역별, 관종별, 자료신청 권수와 종류별, 또는 한국자료실의 발전 단계별로 차별화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사업진행에 있어서도 재외 공관의 협조를 받아서 운영해야 하는 제약이 있지만, 이를 잘 활용해 국가기관 간의 사업 시너지 효과를 높이도록 한다.

- 재외 공관에 전적으로 의지하기 보다는 국립중앙도서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설치기관의 수요를 파악 조사하고 사업 홍보 및 운영 관리에 노력
- 주체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서는 한 명의 담당 사서가 26개 기관을 혼자 관리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크므로 국제교류홍보팀의 해외한국자료실 프로젝트 인력 보강
- 한국학중앙연구원, 세종재단, 한국국제교류재단 등 해외 사업에서 앞서 가는 국내 기관과의 협업 또는 구축 정보를 활용하여 해외 한국학의 상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해 한국자료에 대한 수요를 정확히 진단하여 신규기관 선정 시 활용
- 가능한 경우 단독 공간 내에 한국자료실 설치를 우선으로 하되, 기관의 형편에 따라 또는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물리적 공간을 벗어난 전자 자료실의 개념으로 전환하기 위한 모색 필요
- 특정 장소에 국한된 특정 이용자층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자료실의 개념에서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개개 이용자가 모두 자유롭게 접근 이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
- 온라인으로 자료실을 확장하고 디지털 자료를 확대할 경우, 운영 및 관리는 물

론 활용성에 효율성 향상 가능성 높음

(5) 서비스

각 기관에서 한국자료 이용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국립중앙도서관이 가진 재원을 활용해 서비스의 다양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국가도서관으로서 한국자료 서지 목록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정립해 두며, 자료 선정 목록을 위해선 영어로 번역해 자료에 대한 이해를 높여 해당 기관에서 필요한 자료 선정에 활용케 함. 최소한 핵심 메타데이터(서명, 주제어, 콘텐츠 내용 기술)에 대한 영문 번역 제공
- 해외에서 한국자료 목록이 수월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 MARC 서지데이터와 로마자 서비스 제공
- 국립중앙도서관의 전문 사서 인력을 활용하여 해외 이용자에게도 자료 검색 및 활용을 돕기 위한 참고서비스를 제공하고, 해외에 없는 자료에 대해서는 상호대차 서비스 제공
- 담당 사서의 한국자료실 운영을 돕기 위해 전문 지식을 온라인상에서 공유하거나 매년 실시되는 해외한국학사서워크숍을 통해 업무에 직접적인 도움을 제공함과 개선 방안을 함께 찾아주고 그로 인한 도서관 간의 교류 증진 기반 제공
- 담당 사서의 한국어 능력을 높이기 위해 한국어 온라인 강의 제공
- WOK 인력 지원을 위한 KF와 같은 도서관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한 사서 파견
- WOK이 설치된 국가의 해외 한국문화원의 자료실과 연계해 문화원 내 한국자료를 업데이트하고 담당직원 안내 및 교육
- 지역별, 관종별 WOK 담당 사서 간에 업무 교류 및 네트워킹 강화를 위한 지역별 워크숍 지원

(6) 평가

사업을 체계적이며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평가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 시스템을 사업 종료 시 운영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도 활용한다.

- 연간 사업보고서를 필수로 제출하도록 하여 매년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후속 지원에 있어 개선할 방안이나 기관의 요구에 부응하는 기준으로 활용
- 담당 운영자 설문과 함께 한국자료실 이용자 설문을 통해 이용자의 목소리를 직접적으로 듣고 피드백을 반영하여 운영 지침으로 활용
- 기관마다 자료실의 발전 상태에 따라 차별화된 평가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제 막 시작한 낮은 단계의 한국자료실 경우에는 평가 기준을 너무 높이게 되면 한국자료실 운영 자체를 아예 포기할 수도 있으니 적절하게 평가 기준을 맞출 필요가 있음
- 재외 공관과 협력해 현장 실사를 통한 평가를 내리되, 재외 공관에도 평가 지침을 마련해서 객관적인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
-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파악되는 자료실은 사업 담당자가 직접 현지방문해 문제 상황에 대한 정확한 조사 수행
- 평가 내용을 토대로 사업 지속 여부 결정에 활용

(7) 협력

재외 공관과의 협력이 사업의 성패를 가늠하므로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더불어 국내 유사 기관과 협력해 WOK 발전을 꾀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 신규기관 선정과 MOU 체결, 현장 실사와 지속적 운영 및 문화프로그램 사업 진행을 위해 재외 공관의 협력은 필수이므로 공관 담당자와는 원활한 소통을 유지하면서 업무 교류를 증진해 공동의 목적을 이뤄 나가도록 함

- 한국학중앙연구원과 신규기관 선정 시 협력하는 방안, 한국문학번역원과의 자료 제공 협력, 세종학당에서 필요한 교재 지원, 해외 한국문화원의 도서관 자료실 업데이트 및 도서관 전문성 강화 등의 다양한 협력 추진
- WOK 자료실과도 커뮤니케이션 및 운영 개선을 위한 제안 및 피드백을 살려 함께 협력
- 북미의 한국학 사서들과 협력해서 해외 한국학자료실의 온라인 포털 구축 및 상호대차에 협업할 수 있는 방안 모색

(8) 투입자원

현 사업 규모인 연 1~2개의 한국자료실 개실을 유지할 경우 크게 투입자원을 확대할 필요는 없겠으나, 규모를 넓힐 경우와 각 분야에서 서비스를 확대할 경우 추가 자원은 절대적이다. 이를 위한 재원 확보가 수반되어야 한다.

- WOK 개실 증가에 따른 설치비용과 자료지원비용의 증액
- 매년 총 WOK의 숫자가 늘어나고 그에 따른 원활한 지원과 운영을 위하여 국립중앙도서관의 사업 인력 증원 수반
- 전자자료 확충을 위한 재원 확보
- 문화프로그램 확대에 따른 예산 증액
- 선정 자료의 영문 기술과 목록을 위한 마크데이터 및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건비 추가 배정
- 담당 사서들 간의 네트워킹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지역별 사서 워크숍을 제공할 경우 추가 재원 확보
- 한국학 자료 온라인 포털 구축을 위한 인력 배치 및 시스템 구축 재원 확보

2) 효율적 사업관리를 위한 매뉴얼

효율적인 사업 관리를 위한 매뉴얼을 6개 영역으로 구성하여 개발하였다. 그 영역은 (1) 신규기관 선정기준과 절차, (2) 자료실 설치와 자료/인력 지원, (3) 실태조사와 평가, (4) 지원연장 및 종료, (5) 문화 프로그램 지원, (6) 홍보 및 안내 등으로 구성된다. 먼저 효율적 사업관리를 위한 기본적인 개선방안을 수록한 매뉴얼을 제시하였다. 이어서 현재 26개 자료실의 운영 상태와 현 실태에 따른 기관별로 차별화된 서비스 지원을 위한 지표를 제시하였다.

(1) 신규기관 선정기준과 절차

〈표 VI-1〉 신규기관 선정기준과 절차 개선방식

	현 방식	개선 방식
신규 기관	연 1~2 기관	**수요가 있는 모든 곳에 지원**
신규 기관	예산에 한정	**예산의 융통성을 발휘**
수요 조사	재외 공관에 절대적 의존	**국립중앙도서관의 주체적이고 적극적 참여**
사업 홍보	INKSLIB과 공관에 보내는 공문	**한국학 학회나 컨퍼런스 또는 도서관 컨퍼런스에 한국자료실에 대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
사업인지도	낮음	**홍보를 통해 해외에서 한국자료실의 인지도를 높임**
선정 기준	독립 공간 설치 여부	**담당 사서의 자질과 능력**
선정 기준	도서관 교류 협력, 공관 협력여부 및 지역/기관별 안배	**한국학 자료 수요가 있는 곳을 최우선(지원 누락을 통해 한국학 성장이 멈추지 않도록), 도서관 간의 국제교류협력은 다른 방식으로도 가능함**
발전 속도	천천히 점진적으로	**현 한류의 세계적 흐름에 부응해 빠르고 신속하게**
포커스	전략적으로 필요한 곳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필요한 곳**
협력 기관	재외 공관(한국문화원, 외교부)	**재외 공관 및 국내 유사기관과의 협력 확대**

- **신규기관 수요조사**
  - 수요조사에 있어 재외 공관의 도움은 매우 중요하지만 국립중앙도서관에서 한국자료실 설치가 필요한 도서관을 사전에 파악해 둘 필요가 있다. 기관에 대한 이해가 클수록 기관에서 진행할 사업 운영에 대한 이해도 높아져서 전반적으로 운영에 도움이 된다.
  - 재외 공관에서 추천하는 기관에만 의존해서 신청을 받지 말고, 자체 조사를 통하거나 한국학중앙연구원으로부터 자료실 수요가 있는 기관을 파악한 후, 가장 필요한 기관을 타겟화해서 기관이 직접 수요조사에 참여하도록 독려해야 한다.
  - INKSLIB에 홍보하는 것을 포함해 해외 한국학 도서관 사서들이 모이는 학회(북미 아시아 학회, 유럽의 한국학 학회 등) 또는 국제 도서관 컨퍼런스에 국립중앙도서관 담당자가 참석해 직접 홍보하도록 한다.

- **모집 기관 수**
  - 매년 1~2개의 기관에 한국자료실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필요하다면 기관 수를 늘려 지원하여야 한다.
  - 단지 한정된 예산 때문에 한국자료실의 지원이 시기적으로 꼭 필요한 기관에 지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경쟁력 있는 한국학 자료 지원을 위해서 모집 기관 수를 대폭 늘릴 필요가 있다. 참고로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코리아 코너는 매년 5~6개 기관을 모집하며, 대만의 경우 대만학 자료 지원을 위해 매해 다수의 기관에 빠르고 신속하게 자료실을 넓히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비해 한국자료실은 지난 수년간의 노력에 비해 비교적 적은 수의 자료실을 설치했고, 아직 그 인지도도 해외에서 크지 못한 것이 현실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 한류가 언제까지 지속적으로 세계인의 관심을 받을 수 있는지는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현재 한류 르네상스의 시기를 놓치지 않고 최대한 활용하는 관점에

서 WOK의 수를 증대할 필요가 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이 되지 않기 위해 시기적 상황을 적극 반영해서 적시 적소에 한국자료실 개실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 **선정 심사방법**
  - 신청기관에서 보내온 신청서 및 참고자료를 토대로 한국자료실 설치 필요성 및 운영가능성, 활용도 및 재외 공관 지원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 독립 공간 설치가 가능한 기관에만 치중하지 말고, 혹여 독립 공간이 어렵더라도 기관 내 한국자료를 담당하는 사서의 자질과 역할 능력이 한국자료실의 존속 여부를 판가름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이므로 여러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 **선정 기준**
  - 네 분야의 선정기준(한국자료실 설치 필요성, 지속적 운영가능성, 자료 활용도 및 파급효과, 재외 공관 등 지원가능성) 중에서 대륙별·국가별·관종별 안배에 집착하기보다는 현재 한국학의 발전 정도와 도서관의 운영 가능성에 더 초점을 맞춰야 한다.
  - 현재 한국자료 수요와 한국자료 담당 인력의 기반이 있는 곳은 재외 공관의 협조가 부족해도 지속적으로 운영이 될 가능성이 높다.
  - 이미 한국학 수요가 어느 정도 있는 곳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줌으로써 한국학 발전에 직접적인 기여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 **재외 공관 협조**
  - 신규기관 수요조사뿐만 아니라, 자료실 신규 설치 시 예산 집행, 파우치 지원 등 재외 공관 협조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협의한 후에 추진한다.

(2) 자료실 설치와 자료/인력 제공

〈표 Ⅵ-2〉 자료실 설치와 자료/인력제공 개선 방식

	현 방식	개선 방식
설치비	첫 해 일회성	**MOU 갱신 기점으로 설비 추가 지원**
홍보물	제공하지 않음	**자료실 홍보용 홍보물/기념품 제작 배포**
자료 지원 권수	한 해 200권 제한	**200권 이상 제공(원하는 기관에 한해서)**
자료 지원 횟수	연 1회	**연 1회 이상 또는 수시로 지원**
지원 자료 포맷	종이책과 비도서자료	**전자자료로 확대(전자책, 전자저널, 원문 데이터베이스 및 오픈액세스 자료 총 망라)**
지원 자료 주제	WOK 사서 개인의 판단에 근거하여 선정	**한국어 학습 자료, 한국학 전반의 심도있는 자료, 다양한 외국어 자료, 해외 출간 한국학 관련 자료를 우선적으로 고려**
자료 최신성	최소 1년 이상 된 자료	**최신간 자료 제공**
자료 선정 목록	한국어로 기술된 목록 제공	**영어 번역 및 로마자 제공**
목록 제공 방식	이메일로 담당 사서에게	**INKSLIB에 목록 공유하며 수시로 업데이트해서 목록을 온라인상에서 제공**
자료 신청 방식	엑셀 파일로 선정해 주고 받음	**온라인상에서 주문/선정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한 플랫폼 마련**
서지 목록	MARC 데이터 제공	**OCLC에 MARC 데이터 업로드**
인력 지원	기관 비용 부담	**도서관 인턴쉽/사서연수 프로그램 개발로 인력지원비 충당**
사서워크숍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매년 개최	**한국자료실 담당 사서를 위한 전체 사서 워크숍, 지역별 워크숍 개최 또는 온라인 워크숍 제공**

- **설치비용 지원**
  - 첫 해 지원된 자료실 설비 중에서 기관이 원하는 경우 또 필요에 따라 MOU 갱신 때 설비를 업그레이드시켜 줄 것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 한국자료실 홍보를 위한 홍보물(배포용 기념품 포함)을 설치 비용에 넣어서 제작 사용하거나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대신 제작해서 매년 자료와 함께 제공해 준다.

- **자료제공 지원**
  - 설치 후 5년간 매년 200책 내외로 제공하는 것을 기관의 요청에 따라 추가 제공도 고려한다.
  - 연 1회 제공에서 그 이상 제공이 필요한지 수요 조사한다.
  - 수시로 신청 자료를 제공하는 방법과 신간 자료를 좀 더 신속하게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 가장 수요가 높은 한국어 관련 학습 자료의 폭넓은 지원이 제공되어야 한다.
  - 도서와 비도서에 자료를 국한하지 말고 언택트 시대를 시작으로 전자책과 전자저널에 대한 수요를 감안해 전자자료 지원을 확대한다.
  -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구축해 둔 원문 자료 및 국내 오픈액세스 자료 중에서 해외 한국학에 도움이 될 자료를 수집해 온라인 포털을 만들어 제공한다.
  - 신간 자료 지원을 수시로 보강한다.

- **자료선정대상 목록**
  - 현재 리스트를 기반으로 자료에 대한 주제 및 서명을 영문으로 번역해서 제공한다.
  - 주제별로 자료를 소구분해서 필요한 분야의 자료를 쉽게 접근 가능하게 한다.
  - 중요한 한국 도서에 한해서는 국제적 홍보차원에서 영문으로 서지사항을 기술해 준다(중국 자료의 경우 영어로 된 기술이 온라인에서 쉽게 검색 가능하다고 한다. 한국 자료의 글로벌 홍보를 위해서 영문 서비스가 요구됨)
  - WOK에서 자료 정리를 신속하게 하기 위해 MARC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서 OCLC에 업로드 한다.
  - 자료 선정 목록을 1년에 1회 제작에서 그 이상으로 빈도수를 높여서 최신 신간자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온라인상에서 제공도 가능)

- **인력 지원**
  - 인력 파견에 소요되는 예산이 부담스러운 기관을 위해 도서관 인턴십을 만들어 단기간 파견 지원하는 방법을 고려한다.
  - 국내 대학의 문헌정보학과와 연계해서 WOK 인턴십 파견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 수 있다. (e.g. 한국국제교류재단의 도서관 인턴십) 또는, 국립중앙도서관이나 국내도서관 직원들의 해외 연수로 기획해 볼 수도 있다.
  - 인력 지원의 한 방법으로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해외한국학사서워크숍을 보다 한국자료실 담당 사서에 맞춘 프로그램으로 개발해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 사서 심층 인터뷰를 통해서도 한국자료실 담당 사서 모두가 함께 워크숍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제안 사항이 있었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 하는 해외한국학사서워크숍에 참석하는 것이 재정적으로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지역별로 출장 워크숍을 개최하는 방법,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워크숍 진행, 온라인 트레이닝 세션을 만들어 자료 운영의 업무를 돕고 한국학 자료와 관련한 업데이트 및 전문 지식을 넓힐 수 있도록 돕는 방법도 구상해 본다.

(3) 실태조사와 평가

〈표 Ⅵ-3〉 실태조사와 평가 개선방식

	현 방식	개선 방식
현장 실사	재외 공관에 의존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매해 지역별로 나눠 직접 현장 실사하고 평가**
실태 조사	담당 사서 설문으로 대체	**연례 사업보고서 제출**
설문 조사	담당 사서만	**이용자 설문 추가**
평가 기준	없음	**다양한 평가 기준을 만들어 적용; (담당사서의 운영 관리, 이용자 설문, 현장 실사, 자료 이용률, 한국학 발전 정도, 기관 내 관심 등등)**

- **실태조사**
  - 운영실태 조사 및 개선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연 1회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회수율이 높지 않아 제대로 파악이 힘든 상태이므로 기관마다 매년 사업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할 것을 제안한다. 보고서 미제출 기관에 대해선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문제점을 찾아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
  - 개실 이후 최소 1회 이상의 현장 조사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개선방안을 강구한다.
  - 재외 공관의 협조를 통해 1년에 한 번 이상 기관 방문을 통해 사업 운영을 체크하는 방법도 고려한다.
  - 한국자료실 지원 연장 양해각서 체결 시 자료실 운영실태 파악을 위해 재외 공관의 협조를 요청한다.

- **평가**
  - 지원된 자료가 신속하게 정리 목록되어 이용되고 있는지 자체 기관 평가를 사업 보고서에 포함시키고, 현장 방문 시에 국립중앙도서관이나 재외 공관에서 운영 상태를 현장 실사 평가해서 운영이 미비한 경우 자료 지원을 중단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한다.
  - 이용 평가에 있어서는 기관 내 한국학 관련 교수나 학생들을 상대로 이용에 관해 설문 조사를 병행한다.
  - 평가 기준을 만들어서 적용한다.
  - 평가 기준의 예로는 기관 담당사서의 보고서 제출여부, 담당사서 및 이용자 설문 회수율, 자료 선정 권수, 자료 목록과 정리 신속성, 전자자료 이용률, 상호대차 빈도수, INKSLIB 이용률, 참고봉사 빈도, 국립중앙도서관 해외사서 워크숍 참여도, 커뮤니케이션의 원활함, 재외 공관의 현장 보고, 국립중앙도서관 원문데이터베이스 활용도, 기관 내 한국학 학생 및 교수진 증감, 기관

내의 한국학 장서 예산 및 인력 충당, 타 기관으로부터의 지원 여부, 기타 등 등을 포함할 수 있다.

〈표 Ⅵ-4〉 평가대상별 평가기준과 평가방식

평가 대상	평가기준	평가 방식
한국자료실 담당 사서	**연간 사업 보고서 제출**	연간 보고서
	설문 응답률	자료실 설문
	담당 사서직의 풀타임/파트타임 여부	자료실 설문
	담당 사서의 한국어 능력	자료실 설문
	한국자료실 관련 홍보 페이지 기관 내 제공여부	자료실 설문
	재외 공관 및 국립중앙도서관과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평소 업무 시 관찰
	참고서비스 여부 및 INKSLIB 활용도	자료실 설문
	국립중앙도서관 해외한국학사서 워크숍 참석	참석여부
도서관 자료 운영	**자료 신청 권수, 신청 횟수**	선정자료 신청
	자료 목록 정리의 신속 정확성	목록상태 조사
	전자자료 이용률(국립중앙도서관 원문데이터베이스 사용유무)	이용통계
	상호대차 이용률	자료실 설문
기관 내 이용자	**이용자 설문 응답률**	이용자 설문
기관 도서관	**한국자료를 위한 지원내역(자체 예산 여부, 업무를 위한 장비제공)**	자료실 설문
	독립 공간 제공	자료실 설문
	유사 기관으로부터의 지원여부(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문학번역연구원, 한중연 등)	자료실 설문
기관 내 한국학	**한국학 프로그램(교수진, 학생, 프로그램 내용)의 활성화 여부**	자료실 설문 이용자 설문
재외 공관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해 기관에 미친 재외 공관의 영향력과 기여도**	자료실 설문, 평소 업무 관찰, 재외 공관 면담 및 인터뷰

(4) 지원 연장 및 종료

〈표 VI-5〉 지원 연장 및 종료 개선방식

	현 방식	개선 방식
지원 연장	명문화된 평가기준 없이 지원 연장	**명문화된 평가기준에 입각한 지원 연장**
사업 종료	수동적 종료	**능동적이고 주체적 사업 종료 결정**
종료 원인	재외 공관에서의 지원 부족	**재외 공관 없이도 운영 지속이 원활할 수 있도록 기관과의 지속적이고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유지**
종료 이후	무관리	**종료 이후 관리를 통한 사업의 지속성 추진**

- **지원 연장**
  - 명확한 평가기준이 없이 지원연장 MOU를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명문화된 평가기준에 따라 사업 기간 동안의 운영 내용과 성과를 검토한 후 향후 지원 연장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한국자료실 지원 연장 양해각서 체결 시 자료실 운영실태 파악을 위해 재외 공관의 협조를 구할 필요가 있다.

- **사업 종료**
  - 한국자료실 설치 이후 운영이 미비하거나,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지 못하거나, 기관내의 한국자료실에 대한 관심 부족 및 실질적으로 이용이 저조한 경우에는 사업을 종료한다.
  - 재외 공관을 통해 사업 종료의 여부를 파악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얻고, 이미 종료된 기관에 대해서도 앞으로 사업을 다시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파악해 둔다.
  - 운영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지 못한 이유 중에 재외 공관의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해 볼 필요도 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재외 공관의 도움이 없이는 어려운 부분이기도 한다. 그래서 재외 공관에만 의지하지 않고, 기관과의 직접적인 소통 창구를 마련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 종료된 기관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한국자료실의 변화하는 수요를 파악하고 필요할 경우 앞으로 개선해서 사업을 다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5) 문화행사 프로그램 지원

〈표 Ⅵ-6〉 문화행사 프로그램 지원 개선방식

	현 방식	개선 방식
문화프로그램 지원	재외 공관과 연계	재외 공관 외에 다른 유사기관과도 연계해 문화프로그램을 확대시켜 다양한 방면으로 제공
지원 기관 수	연 5~6 기관	기관마다 연 1 회 가능하도록 지원 유도
지원 기관 선정	재외 공관의 결정	지원 신청서를 받아 선정하는 방식 시도
지원 계획	단기 계획	수요 조사에 따른 장기 계획

- **문화프로그램**
  - 도서관 공간은 복합문화공간으로 변모하고 있으므로 문화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지극히 높다. 대부분의 한국자료실에서 문화행사를 원하고 있으며 문화행사는 기관 내 한국자료실 홍보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한국학에 대한 관심을 증진시키는 데 매우 효율적이고 그 파급효과도 상당함으로 자료지원 만큼이나마 중대한 사업이다.
  - WOK도서관들을 지역별로 연계하여 공동 활용할 수 있는 순회 문화프로그램을 협력하여 기획한다.
  - 재외 한국문화원과 연계한 문화행사 프로그램 지원을 앞으로 대폭 넓힐 필요성이 있다.
  - 한국문화원 외에도 해외 문화행사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국내 기관과 연계해서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지원을 확장시켜 나간다.
  - 매년 5~6개 기관에 지원하는 것을 늘려서 보다 많은 기관에 기회를 부여한다.
  - 문화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홍보를 통해 기관으로부터 지원 신청서를 받는 방

식도 시도한다.

- 어떤 문화프로그램이 필요한지 기관마다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한다.

(6) 홍보 및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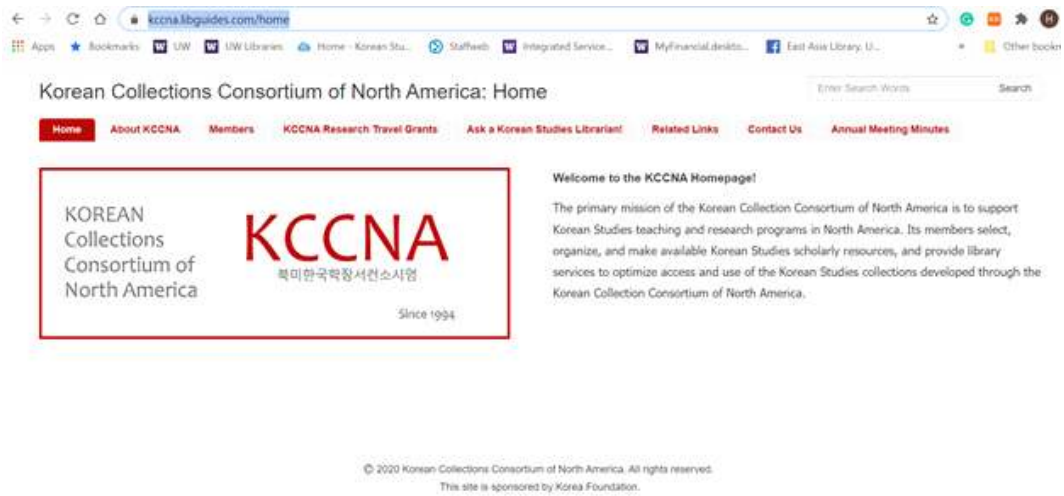
〈표 VI-7〉 홍보 및 안내 개선방식

	현 방식	개선 방식
국립중앙도서관의 한국자료실 홍보	INKSLIB 내 두 페이지 정보	**INKSLIB에 한국자료실 관련 내용 및 국립중앙도서관의 서비스까지 포함해 전폭적으로 페이지 재구축**
각 기관의 홍보	일부 기관에는 홈페이지에 안내	**기관별로 페이지 구축을 장려**
재외공관의 홍보	파악된 바 없음	**재외 공관 홈페이지나 한국문화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신규기관 선정과 해당 지역 내 이용자를 위해)**

- 현재 WOK에 관련한 홍보물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만든 INKSLIB (International Network for Korean Studies Librarians) 내에 NLK 프로젝트 중의 하나로 두 페이지에 불과한 내용밖에 찾아볼 수 없는 실정이다. 단 12줄의 매우 간략한 안내 정보 한 페이지와 전체 도서관 리스트를 개실 연도에 맞춰 홈페이지와 사진을 링크해 둔 것이 전부이다.
- 한국자료실에 좀 더 주목해 안내 홍보할 필요가 있다. 특히 담당 사서와 연결하기 위한 담당자 이름과 연락처를 제시한다거나 매년 각 기관에서 있었던 문화프로그램 안내 및 앞으로 사업 보고서를 제출하게 될 경우 그 해 하이라이트 업적들을 자세히 명시해 주면 사서들 간의 교류의 장으로 또 이용자에겐 정보 취득의 창으로 활용될 수 있다.
- 한국에서 출판된 자료와 서지를 세계적으로 알리고 홍보할 수 있는 장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 한국자료실만의 독자적 페이지를 만들어서 해외 한국학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국립중앙도서관과의 연계 및 서비스 창구로 발전시킬 수도 있고, 해

외 한국학 이용자를 위한 종합적인 디지털 포털 사이트를 구축해 원문 자료, 전자자료, 상호대차서비스 및 참고 서비스 등의 서비스를 한 곳에 모아서 안내 홍보함으로써 물리적 공간의 제약을 넘어서 이용의 효율을 대폭 확대할 수 있는 이점을 살릴 수 있다.

- 자료 선정 목록이나 그 외 한국자료실 담당 사서의 업무를 돕기 위한 여러 가지 안내를 온라인상에서 쉽게 검색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 효율적인 업무가 가능하다.
- 벤치마킹할 수 있는 사이트로는 대만의 TRCCS(Taiwan Resource Center for Chinese Studies)나 북미의 한국학도서관 컨소시엄(KCCNA)이 있다.
- 북미 한국도서관 컨소시엄의 경우에는 컨소시엄 멤버들이 직접 사이트를 관리하며 컨소시엄으로 활동하는 각종 사업과 서비스에 대한 안내 및 컨소시엄의 역사와 매년 열리는 연례회의의 보고서까지 오픈해서 사업을 홍보하고 있다.
- 대만의 TRCCS의 웹사이트의 경우에는 중국학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를 자세히 잘 설명해 주고 직접 자료를 검색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전체적인 중국학 관련한 뉴스와 행사를 온라인을 통해 제공해 줌으로써 해외 중국학 연구자들에게 좋은 홍보자료가 되고 있다.
- 기관 자체 내에서의 홍보를 돕기 위해 한국자료실 관련한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하거나 기관에 한국자료실 관련한 정보를 홈페이지에 구축해서 올린다.
- 한국자료실이 있는 재외 공관의 홈페이지나 한국문화원의 홈페이지에 적극적으로 한국자료실에 대한 홍보를 함으로써 신규 기관 모집에 활용되고 현지 주민들과 이용자 및 연구자에게 한국자료실의 존재를 알려서 직접적인 이용을 높이는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림 VI-7] 북미 한국학도서관 컨소시엄 홈페이지 https://kccna.libguides.com/home

[그림 VI-8] 대만 TRCCS 중국학 자료센터 홈페이지 https://ccs.ncl.edu.tw/EN/index.aspx

(7) 기관별 차별화된 서비스 지원을 위한 지표들

- **설문응답에 따른 차별화**
  - 지난 3년간 매해 실행된 설문 조사와 이번 2020년도에 시행한 설문조사를 포함 총 네 번의 질의에 1번이라도 응답한 기관 16개 기관의 대체적인 자료실 운영 상태(목록, 정리, 자료 입수 및 이용 활용도)와 사업 만족도 그리고 사서의 한국어 실력을 비교해 기관별로 차별화된 서비스 지원과 관리를 구상해 보았다.
  - 네 번의 설문에 모두 성실하게 답변해 준 5개 기관은 공통적으로 사업만족도가 높은 편에 운영상태도 비교적 우수하다. 반면, 설문 응답률이 저조한 기관일수록 사업 전반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다.
  - 설문 응답률에 따라 저조한 기관과 보다 긴밀한 커뮤니케이션을 가지면서 재외 공관으로부터의 도움을 받아 보다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힘쓸 필요가 있다.
  - 자료실 사업에 부분적으로만 만족(설문 응답 중 가장 낮은 만족도)한다고 응답한 인도의 델리대학도서관, 미국의 퀸즈공공도서관, 필리핀 아테네오대학도서관과 엘살바도르대학도서관의 운영 상태를 면밀히 파악해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고 지원을 강구한다. 최근 2020년도 설문에 따르면 한국자료실 이용자가 많이 없는 편이며 자료 정리에 필요한 기반 시설과 인력이 부족한 것을 공통적으로 호소한 것을 주시해야 한다. 이런 기관들을 대상으로 자료실 운영을 도울 인력과 자원을 보충할 것을 고려해야 한다.
  - 설문 응답률과 사서의 언어 능력 그리고 자료실 운영 상태 간에 큰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다. 대부분 기관의 사서가 한국자료실 전담 사서가 아니고 도서관의 다른 업무와 병행해서 자료실을 운영하고 있기에 언어 능력이 많이 부족한 상태이다. 또, 자료 정리와 운영 면에서 응답자 대부분이

스스로 높게 평가하고 있기에 이 부분은 설문의 한계로 보여진다. 사서와의 심층 인터뷰에 의하면 사서의 한국어 언어 능력이 없는 기관에서도 자료실 운영을 성실하게 해 온 것을 볼 수 있으므로, 이런 기관일수록 국립중앙도서관의 참고서비스 및 한국어 외의 영어로 자료를 번역해서 제공하는 등의 적극적인 안내와 실질적인 협조를 통해 관리해 줄 필요가 있다.

- 매우 예외적으로 북경대학교의 경우에는 사서가 아닌 대학 내 한국관련 교수에 의해 운영되고 있어서 담당자의 한국어 실력은 높지만 그에 비해 설문 응답률이 저조하며 만족도에 있어서도 크게 두드러지지 않음을 볼 수 있다. 북경대학의 설문 응답 중에 자체 기관 내의 관심과 지원이 부족하다고 호소한 것을 보면 운영이 왜 미비한지 이해해 볼 수 있고, 사서의 지원이 없는 것 자체도 전반적인 만족도가 떨어지는 이유일 수 있다. 반면 자료지원에 있어 더 많은 자료와 서비스 지원을 희망하고 있으며, 전자자료 포함 국립중앙도서관의 원문 자료 지원 등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으므로 중국 내 거점 대학의 한국자료실인 점을 감안해 국립중앙도서관에서의 별도 인력 지원을 통해 한국자료실 이용을 활성화시켜 볼 필요가 있다.
- 엘살바도르 대학의 경우는 모든 면에서 저조함을 나타내는데 어떤 면에서 만족도가 떨어지는 면밀히 파악해서 취약한 부분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표 Ⅵ-8〉 지난 3년간 설문지 조사 응답기관

	지역	국가	도서관	관종별	사서만족도	설문응답	운영상태	사서 한국어
1	유럽	러시아	국립도서관 동양센터	국립*	**매우만족**	**4**	**우수**	**고급**
2	아시아	미얀마	양곤 외국어대학 도서관	대학	대체로 만족	**4**	보통	**중급**
3	유럽	폴란드	돌노쉬롱스키 주립도서관	공공*	대체로 만족	**4**	보통	없음
4	유럽	스페인	말라가 대학	대학	**매우만족**	**4**	**우수**	없음
5	아시아	베트남	호치민 인문사회대학교 도서관	대학	**매우만족**	**4**	**우수**	없음
6	유럽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 도서관	대학	대체로 만족	3	**우수**	**중급**
7	아시아	인도	델리대학 도서관	대학	**일부만족**	3	보통	없음
8	아메리카	미국	뉴욕퀸즈 공공도서관	공공*	**일부만족**	2	**우수**	n/a
9	유럽	이탈리아	로마 라 사피엔차 대학교 동양학부 도서관	대학	**매우만족**	2	**우수**	없음
10	아시아	베트남	국립도서관	국립*	대체로 만족	2	보통	초급
11	유럽	벨기에	루벤 카톨릭대학 도서관	대학	**매우만족**	2	**우수**	초급
12	아시아	필리핀	마닐라 아테네오대학 도서관	대학	**일부만족**	2	**우수**	초급
13	아시아	중국	북경대학교 도서관	대학	대체로 만족	1	보통	**고급**
14	유럽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도서관	국립*	**매우만족**	1	신설	**중급**
15	유럽	헝가리	ELTE 대학교 도서관	대학	대체로 만족	1	신설	없음
16	아메리카	엘살바도르	엘살바도르 대학 도서관	대학	**일부만족**	1	**취약**	없음

- 지난 네 번의 설문에 한 번도 응답하지 않은 기관들은 재외 공관의 협조를 통한 현장 실사나 기관과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운영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향후 운영 지속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 설문 조사에 응답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매해 자료신청을 꾸준히 해 왔는지 아닌지로 밖에 자료운영 실태를 판단할 수 없었으나 비교적 매해 자료를 신청해서 제공받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몇몇 기관이 한 두 해 정도 자료 신청을 하지 않은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기관에서 자료를 매해 신청해 자료를 받아왔다. 심지어 종료나 중단된 기관도 사업운영기간 동안에는 자료 신청을 매해 꾸준히 해 왔던 것으로 파악된다.

- 이를 근거로 자료 지원에 대한 수요는 대부분 모든 자료실에서 확실히 있는 것으로 파악되므로 지속적으로 자료 지원을 유지할 필요가 충분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표 VI-9〉 지난 3년간 설문에 한 번도 응답하지 않은 기관

	지역	국가	도서관	관종별	자료신청	운영 상태
1	유럽	덴마크	코펜하겐대학	대학	**우수**	
2	유럽	영국	옥스포드대학	대학	**우수**	
3	중동	이스라엘	히브리대 인문사회과학도서관	대학	**우수**	
4	중동	이란	국립도서관	**국립**	**우수**	
5	중동	터키	국립도서관	**국립**	양호	
6	아시아	우즈베키스탄	국립도서관	**국립**	양호	
7	아메리카	멕시코	콜멕스대학	대학	**우수**	
8	아시아	카자흐스탄	국립아카데미도서관	**국립**	**우수**	**지원기간 만료**
9	아시아	태국	국립도서관	**국립**	중단	**중지(2015 리모델링)**
10	아시아	몽골	국립도서관	**국립**	중단	**중지(2014 리모델링)**
11	아시아	중국	상해 장녕도서관	**공공**	**우수**	**종료(2015)**
12	아시아	인도네시아	국립도서관	**국립**	**우수**	**종료(2015)**
13	중동	이집트	국립도서관	**국립**	**우수**	**종료(2016)**
14	중동	UAE	아부다비 국립도서관	**국립**	**우수**	**종료(2019)**

- **자료 신청 내역에 근거한 차별화**
  - 기관에서 매해 신청하는 자료의 수를 통해 한국자료의 수요를 파악해 볼 수 있다. 그에 따라 자료지원의 양을 차별화해서 제공할 수 있다.
  - 컬렉션 사이즈로 한국자료실의 순위를 매겨보면 1만 권 이상을 소장한 기관과 1천여 권을 소장한 기관으로 장서 수에 있어 많은 차이를 보여준다. 북미 한국학도서관 컨소시엄의 장서와 비교해 봤을 때 월등히 부족한 현실이므로,

앞으로 자료지원의 수에 있어서 증감할 필요가 있을 뿐 아니라 기본 장서를 확충해 나가고 한국학 연구에 실질적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꾸준히 자료지원 사업을 발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참고로 1994년 북미 한국학도서관 컨소시엄이 발족되었을 때 전제 조건 중의 하나가 최소 1만권 이상의 한국장서를 기존에 소장하고 있는 도서관이었다. 현재 지원하고 있는 한국자료실의 한국장서 수준이 얼마나 미흡한지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라 할 수 있다.

- 베트남 하노이국립도서관, 폴란드 돌노쉬롱스키주립도서관, 스페인 말라가대학, 미국 뉴욕퀸즈공공도서관,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 카자흐스탄 국립아카데미도서관의 경우 200권 이상 자료를 신청한 해가 5회 이상으로 자료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기에 위 기관에 지원 자료의 수를 증가해서 선정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한국자료실 개실이 먼저 된 곳이 가장 많은 장서를 소장하고 있는 것이 당연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은 현상을 볼 수 있다. 그 예로 러시아의 국립도서관 동양센터의 경우 2008년 상대적으로 일찍 시작되었지만 가장 적은 수의 장서를 소장하고 있고, 그 직접적인 원인으로는 첫해 지원받은 장서 수도 비교적 적고 매해 신청한 장서도 200권에 훨씬 못 미치는 적은 수인 것으로 파악된다. 멕시코의 콜멕스 대학도 매해 신청 자료의 수가 매우 저조한데, 그만큼 한국자료에 대한 직접적인 수요와 이용이 적은 것으로 판단해 볼 수 있다.
- 자료 신청 수가 적은 도서관에는 문화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한국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데 치중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일 수 있다.
- 눈에 띄게 적은 수의 자료를 신청한 두 기관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200권 안팎으로 자료를 신청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비교적 기관의 수요를 적절하게 충족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제한된 범위 내에서 선정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더 많은 자료를 지원받기 희망했던 기관들을 좀 더 자세히 파악해서 요구에 부응할 필요가 있다.

- 2020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200권 이상 지원받기를 희망하는 기관으로는 벨기에 루벤카톨릭대학, 중국 북경대학, 이탈리아 로마 라사피엔차대학, 미얀마 양곤외국어대학, 베트남 호치민인사대, 베트남 국립도서관, 필리핀 마닐라 아테네오대학이 있다.
- 지원하는 자료의 권수와 총 장서 수에 따른 차별화 외에도 카테고리(한글자료, 영어자료, 한국어교재, 아동도서, 미디어)별로 기관마다 자료를 차별화해서 지원하는 방법도 강구해 볼 수 있다.
- 예를 들어 2019년 각 기관에서 신청한 자료의 카테고리를 살펴보면 한글 자료를 아예 신청하지 않은 기관이 무려 5곳으로 카자흐스탄 국립도서관, 이란 국립도서관, 필리핀 아테네오 대학, UAE 아부다비 국립도서관이 있다. 한글 자료를 전혀 필요로 하지 않는 기관인 경우, 영어자료의 선정 리스트가 종합적인지 검토해서 자료선정 리스트를 보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위 다섯 기관 외에도 비교적 한글자료를 선정한 비중이 50권 이하로(전체 200권 한정의 25% 미만) 낮은 기관도 다수 발견되었는데, 이탈리아 라사피엔차대학, 러시아 국립도서관동양센터, 우즈베키스탄 국립도서관, 폴란드 돌노쉬롱스키주립도서관, 엘살바도르 대학, 미국 뉴욕퀸즈도서관이 속한다. 무려 총 11개관에서 한글 자료 신청이 낮고 따라서 한글 자료의 수요가 낮다는 것은 전체 26개관 중에 절반에 가까운 기관이 아직 한국어로 된 자료를 볼 수준이 아니라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만큼 한국자료실이 아직 걸음마 수준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직접적인 이용수요와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한글 자료를 많이 신청하는 기관 모두 대학도서관인 것도 참고할 사항이다. 한글로 된 자료의 이용이 높을수록 기관 내 한국자료 이용자의 이용 현황 및 한국학 프로그램 발전 수준의 깊이를 파악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 이 외에도 한국어 교재가 더욱 필요한 기관, 미디어를 선호하는 기관, 아동도서에 관심이 많은 기관 등을 구별해서 차별화된 자료선정 목록리스트를 발전시켜 지원할 필요가 있다.
- 자료 지원과 관련된 전문가 자문위원으로 참여한 영국 쉐필드 대학 한국학 도서관의 이윤희 사서 역시 기관별 차별화된 서비스 방안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다음과 같은 안을 제시한다.

종이도서의 전자도서화, 아카이브 자료의 디지털화, 그리고 자료의 디지털 정보화가 되어 가고 있고, 도서관의 복합문화공간으로 브랜드화 되어 가고 있는 현상에, “해외 한국학 자료실” 설치 후 초기에 수령하는 3,000 권의 도서는 해당 도서관으로서 인력 그리고 비용면에서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한국학 자료실 설치를 계획하는 도서관은 두 그룹으로 분류가 될 수 있는데,

1) 한국학 자료가 미흡하고 한국학 전담사서가 없으나, 한국학 부흥으로 한국학 자료개발을 희망하는 도서관 그룹과
2) 한국학 도서기반이 갖춰져 있고 전문사서도 있는 도서관 그룹이다.

WOK는 주로 전자의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다량의 한국어 도서를 수용할 능력이 없고, 대량 도서 선택에 있어서 전문성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한국국제교류재단의 “Support for Libraries with Korean Collection” 프로그램도 연계하여 지원을 확대할 수도 있다고 본다.
한편, 후자의 경우 도서지원에 대한 유동적인 지원방법으로 대체해 “해외한국학 자료실”의 특성을 살려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실물인 도서 자료 지원을 전자도서로 대체하는 방법, 기존의 자료실을 upgrade 할 수 있는 지원, K-drama/film steaming 관련된 집중지원 등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고 본다. 도서관의 공간 확보문제로, 지속적인 도서자료 개발은 한정된 공간에 도서관측으로부터 큰 부담을 느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디지털 자료의 장점은 언제 어디서나 자료가 필요할때 접속하여 사용할 수 있는 혜택이 있다. 해외 한국학 자료실에 지원되는 자료는 해외에서 한국학을 하는 연구원들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데 즉시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본다. 지원 되는 자료들은 필요한 자료가 아닌 미래에 사용가능성이 될 수 있는 자료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본다. 실물의 도서자료 보급을 전자도서로 대체하여 한국학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실물인 도서들을 연중으로 받는 방법에서 필요할때 받을수 있는 시스템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본다. 국립중앙도서관과 해외 대학에 연계된 한국의 출판사(e.g.경인출판사, 판문, KSI 등) 와 연계하여,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직접 자료를 선정, 구매 그리고 배송을 하지 않고, 해외한국학 자료실 설치 기관에서 직접 구매하여 도서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시스템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시스템은 경제성장에도 다소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본다. 또한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도서선정/구매/배급에 할당된 인력을 해외한국학 자료실 관리에 보다 집중을 해야 한다고 본다.

〈표 Ⅵ-10〉 WOK 자료실의 연도별 자료 신청 여부와 수량(권)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TOTAL
(태국) 국립도서관	3,636	221	217	162	117	187	0	132	0	0	0	0	0	4,672
(베트남) 하노이국립도서관	7,846	112	200	163	211	216	0	109	0	566	304	213	88	10,028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	798	0	0	175	267	243	0	260	439	130	274	217	217	3,020
(미국) 뉴욕 플러싱퀸즈도서관	2,601	235	179	190	175	269	0	159	231	179	313	205	218	4,954
(중국) 상해 장녕도서관		699	200	223	194	297	155	160	0	0	0	0	0	1,928
(러시아) 국립도서관 동양센터		640	209	158	53	228	131	57	0	144	72	17	38	1,747
(몽골) 국립도서관		3,188	236	247	237	233	146	0	0	0	0	0	0	4,287
(카자흐스탄) 국립아카데미도서관			592	163	135	240	147	271	395	233	469	0	330	2,975
(폴란드) 돌노쉬롱스키주립도서관			3,549	221	195	250	196	417	380	158	263	216	220	6,065
(인도네시아) 국립도서관			2,598	371	166	209	144	244	0	0	0	0	0	3,732
(이란) 국립도서관				3,843	151	335	148	324	161	119	112	157	0	5,350
(터키) 국립도서관				3,223	217	206	144	351	131	0	159	0	230	4,661
(이집트) 국립도서관				3,847	158	148	11	357	170	0	0	0	0	4,691
(스페인) 말라가대학					2,909	243	145	275	164	324	524	184	210	4,978
(벨기에) 루벤 카톨릭대학					2,771	146	110	101	142	128	360	96	139	3,993
(덴마크) 코펜하겐대학					2,094	143	146	342	39	134	152	79	167	3,296
(필리핀) 아테네오대학						1,631	227	142	194	36	407	241	75	2,953
(멕시코) 콜멕스대학						790	148	20	16	72	51	0	0	1,097
(영국) 옥스퍼드대학						2,563	208	286	153	89	141	146	155	3,741
(인도) 인도 델리대학							1,693	158	185	192	164	0	0	2,392
(베트남) 호치민인문사회과학대학							2,504	123	169	253	146	158	184	3,537
(UAE) 아부다비국립도서관								1,931	182	129	335	192	207	2,976
(우즈베키스탄) 국립도서관								2,848	220	191	323	194	187	3,963
(엘살바도르) 엘살바도르대학									1,994	146	0	0	327	2,467
(중국) 북경대학									1,391	222	248	195	200	2,256
(미얀마) 양곤외국어대학										2,311	470	201	195	3,177
(이스라엘) 히브리대 인문사회과학도서관											1,648	244	224	2,116
(이탈리아) 라 사피엔차대학												2,873	205	3,078
(러시아) 국립도서관(상트)													2,688	2,688
(헝가리) ELTE대학													2,486	2,486
	14,881	5,095	7,980	12,986	10,050	8,577	6,403	9,067	6,756	5,756	6,935	5,828	8,990	109,304

〈표 VI-11〉 WOK 자료실별 장서 규모 및 신청 현황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TOTAL
(베트남) 하노이국립도서관	7,846	112	200	163	211	216	0	109	0	566	304	213	88	10,028
(폴란드) 돌노쉬롱스키주립도서관			3,549	221	195	250	196	417	380	158	263	216	220	6,065
(이란) 국립도서관				3,843	151	335	148	324	161	119	112	157	0	5,350
(스페인) 말라가대학					2,909	243	145	275	164	324	524	184	210	4,978
(미국) 뉴욕 플러싱퀸즈도서관	2,601	235	179	190	175	269	0	159	231	179	313	205	218	4,954
(이집트) 국립도서관				3,847	158	148	11	357	170	0	0	0	0	4,691
(태국) 국립도서관	3,636	221	217	162	117	187	0	132	0	0	0	0	0	4,672
(터키) 국립도서관				3,223	217	206	144	351	131	0	159	0	230	4,661
(몽골) 국립도서관		3,188	236	247	237	233	146	0	0	0	0	0	0	4,287
(벨기에) 루벤 카톨릭대학					2,771	146	110	101	142	128	360	96	139	3,993
(우즈베키스탄) 국립도서관								2,848	220	191	323	194	187	3,963
(영국) 옥스퍼드대학						2,563	208	286	153	89	141	146	155	3,741
(인도네시아) 국립도서관			2,598	371	166	209	144	244	0	0	0	0	0	3,732
(베트남) 호치민인문사회과학대학							2,504	123	169	253	146	158	184	3,537
(덴마크) 코펜하겐대학					2,094	143	146	342	39	134	152	79	167	3,296
(미얀마) 양곤외국어대학										2,311	470	201	195	3,177
(이탈리아) 라 사피엔차대학												2,873	205	3,078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	798	0	0	175	267	243	0	260	439	130	274	217	217	3,020
(UAE) 아부다비 국립도서관								1,931	182	129	335	192	207	2,976
(카자흐스탄) 국립아카데미도서관			592	163	135	240	147	271	395	233	469	0	330	2,975
(필리핀) 아테네오대학						1,631	227	142	194	36	407	241	75	2,953
(러시아) 국립도서관(상트)													2,688	2,688
(헝가리) ELTE대학													2,486	2,486
(엘살바도르) 엘살바도르대학									1,994	146	0	0	327	2,467
(인도) 인도 델리대학							1,693	158	185	192	164	0	0	2,392
(중국) 북경대학									1,391	222	248	195	200	2,256
(이스라엘) 히브리대 인문사회과학도서관											1,648	244	224	2,116
(중국) 상해 장녕도서관		699	200	223	194	297	155	160	0	0	0	0	0	1,928
(러시아) 국립도서관 동양센터		640	209	158	53	228	131	57	0	144	72	17	38	1,747
(멕시코) 콜멕스대학						790	148	20	16	72	51	0	0	1,097

〈표 Ⅵ-12〉 WOK자료실의 2019년도 자료 유형별 신청 내역

	한글 자료	영어 자료	한국어교재	타 언어	아동도서	미디어	Total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	201						201
(이스라엘) 히브리대 인문사회과학도서관	170					11	181
(중국) 북경대학	143	17	30				190
(베트남) 호치민인문사회과학대학	102	12	15	1			130
(스페인) 말라가대학	85	70	3	7	8	9	182
(벨기에) 루벤카톨릭대학	71	42					113
(영국) 옥스퍼드대학	58	69					127
(덴마크) 코펜하겐대학	56	1	84			1	142
(미얀마) 양곤외국어대학	52	22	54		30	9	167
(미국) 뉴욕 플러싱퀸즈도서관	43	6	4		39	123	215
(엘살바도르) 엘살바도르대학	42	24	39	14		59	178
(폴란드) 돌노쉬롱스키주립도서관	39	44	6		45	33	167
(우즈베키스탄) 국립도서관	30	24	98			17	169
(러시아) 국립도서관 동양센터	16	12	1	9			38
(이탈리아) 라 사피엔차대학	11	55	9	11	44	49	179
(카자흐스탄) 국립아카데미도서관	0	52	108	1		2	163
(인도네시아) 국립도서관							0
(이란) 국립도서관	0	75	14	30		8	127
(터키) 국립도서관							0
(이집트) 국립도서관							0
(필리핀) 아테네오대학	0	68	1				69
(UAE) 아부다비 국립도서관	0	56	94				150
(중국) 상해 장녕도서관							n/a
(몽골) 국립도서관							n/a
(멕시코) 콜멕스대학							n/a
(인도) 인도 델리대학							n/a
(태국) 국립도서관							n/a
(베트남) 하노이국립도서관							n/a
TOTAL	1119	649	560	73	166	321	2888
이하 2019년 신설기관 첫해 신청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도서관	1686	426	96		35	157	2400
(헝가리) ELTE 대학	1599	259	513	16	39	29	2455

- **지역별/관종별 기반에 따른 차별화**
  - 현재 26개 기관의 한국자료실 지역분포는 유럽과 아시아에 각각 10개관으로 가장 많이 개설되어 있고, 나머지 6개관은 각각 3개관씩 중동과 아메리카에 분포되어 있다. 아시아 지역은 현재 지원이 중단된 곳도 있고, 기관과의 커뮤니케이션과 운영이 다소 저조한 반면, 유럽 지역 내의 10개관은 총 8개 기관에서 응답을 보였고 운영상태가 매우 우수한 것을 감안해 유럽 내 한국자료실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네트워킹으로 인한 사업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
  - 유럽의 지역적 특성과 언어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의 공동체적 환경으로 인한 응집력 및 정치 문화 사회적으로 밀접한 상황과 주로 대학도서관이라는 점, 유럽 내 이미 한국학 결집(예 European Association for Korean Studies)이 존재하고 있는 점 등등을 고려해 볼 때 한국자료실 내에서 차별화시켜 발전시키기에 가장 이상적인 그룹으로 판단된다.
  - 특히 7곳은 모두 한국학이 개설된 대학 내에 한국자료실이 운영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공통적인 관심사 및 서로 공조할 수 있는 분야도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 벤치마킹하기에 적절한 북미지역 내에 한국학도서관 컨소시엄의 경우를 보면, 지난 1994년 미국 내 6개 대학도서관으로 시작해 현재에 이르기까지 장서개발, 상호대차, 참고서비스 및 이용자 지원 등 도서관 사업에 있어 많은 업무를 함께 지속적이면서 성공적으로 유지해 왔다. 이를 참고해 유럽 내 한국학 컨소시엄을 구축해 지역 내 한국학 발전을 증진시키고 도서관 네트워킹을 통해 한국자료실 운영의 토대를 세우고 발전시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 이와 같이 이미 유럽 내 한국학도서관 사서들의 네트워킹 모임이 2년 전부터 영국 쉐필드대학과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에서 시작되었으므로(2020년 계획은 코로나사태로 연기된 상태), 이 기반을 활용해 네트워킹을 강화시키고 유럽

내 한국자료실간의 협업을 촉구하며 앞으로 한국학 발전의 토대로 삼을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보인다. 사서 심층 인터뷰를 통해서도 네트워킹에 대한 수요와 그로 인한 장점이 이미 파악된 케이스이다. 다만, 한국국제교류재단에서 앞서 두 번의 모임을 지원해 주었기 때문에 사업을 확장시키기 전에 사전 조사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다.

- 본 연구를 위해 자문의견을 제공해 준 쉐필드대학 한국학컬렉션의 이윤희 사서 역시 이에 대한 의미 있는 제안을 하고 있다.

원문자료 스캔보급이나 도서상호대출서비스의 절차를 간단히 하여 해외에서 자료를 용이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해외에서 진행되는 한국학관련 기관들의 컨퍼런스나 워크숍 등에 참석을 하여, 해외에서 국립중앙도서관 자료이용에 대해 전문인식을 높이고, 필요하면 training 이나 webinar 등을 별도로 진행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일본의 국립도서관 (the National Diet Library of Japan) 은 유럽의 일본학 사서들을 위해 필요한 training 을 비정기적으로 실행하고 있다. COVID 로 인하여 모든 컨퍼런스가 virtual 로 진행이 되어가고 있고, 모든 사용들이 virtual conference/webinars 등의 사용에 친숙해진 이 현상을 이용하여, 국립중앙도서관의 webinar/training 등을 virtual 로 유동적으로 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이를 확대해야 한다고 본다.

해외 한국자료실 설치 후, 각 기관별로 문화 행사 이벤트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런 한 문화행사를 기관별로 진행하지 않고, 국가별 아니면 세계적으로 통합 진행을 하면 보다 광대한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본다. 국립중앙도서관과 각 해외 한국학 자료실 기관과 공동으로 문화행사/이벤트를 진행함으로서, 해외 한국학 자료실 기관과의 공동 진행 의미부여와, 자료실 홍보 그리고 한국학 자료 보급에도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본다. 이와 같은 행사는 한국문화번역원에서 매해 진행되고 있다.

- 현재 유럽 내 7개관 외에도 유럽 내 한국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점 대학을 타켓화해서 한국자료실 설치를 기획해 네트워킹을 더 확장해 갈 수 있다. 국가별 대학교 리스트는 아래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거점 대학 내에 코리아 코너가 이미 설치되었을 수도 있겠으나, 그와 별도로 유럽 내 한국학 사서들을 위한 네트워킹을 조직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하다.
- 유럽 내의 한국자료실 중에서 대학도서관이 아닌 곳은 러시아의 국립도서관 2개관과 폴란드의 공공도서관 1개관이다(〈표 VI-13〉). 러시아의 경우, 각기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에 1개관씩 설립되어 있는데, 지리적 거리는 있으나 한국자료실 담당 사서 간의 상호 협력과 협업을 구상해 볼 것이 필요해 보인다. 사서 인터뷰를 통해서 상트의 담당사서가 모스크바에 있는 한국자료실에 대해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감안해 이미 오래전에 개실한 모스크바의 담당 사서와 연계해 줌으로써 서로 협력하는 관계를 만들어 줄 필요해 보인다.

〈표 VI-13〉 유럽 내 WOK 자료실 10개 기관

	한국자료실	관종	개실	설문 응답	만족도	한국어	운영
1	독일 베를린자유대	대학	2007	Y	대체로 만족	중급	우수
2	벨기에 루벤카톨릭대학	대학	2011	Y	매우 만족	초급	우수
3	스페인 말라가대학	대학	2011	Y	매우 만족	없음	우수
4	덴마크 코펜하겐대	대학	2011	N	n/a	n/a	우수*
5	영국 옥스포드대	대학	2012	N	n/a	n/a	우수*
6	이탈리아 로마라사피엔차대	대학	2018	Y	매우 만족	없음	우수
7	헝가리 ELTE대학교	대학	2019	Y	대체로 만족	없음	신설
8	러시아 국립도서관 동양센터	국립	2008	Y	매우 만족	고급	우수
9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도서관	국립	2019	Y	매우 만족	중급	신설
10	폴란드 돌노쉬롱스키 주립도서관	공공	2009	Y	대체로 만족	없음	보통

* 설문자료는 없었으나, 매년 신청자료 내용을 검토한 결과 우수한 것으로 판단하였음.

〈표 Ⅵ-14〉 유럽 내 한국학 거점 대학교

	국가	대학	대학	대학
1	오스트리아	빈 대학교		
2	체코	카렐대학교(프라하)	팔라츠키 대학교(올로마우크)	
3	덴마크	코펜하겐대학교		
4	핀란드	헬싱키대학교		
5	노르웨이	오슬로대학교		
6	프랑스	파리7대학	사회과학대학원	
7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대학		
8	독일	보쿰대학교	프랑크푸르트 대학	튀빙겐 대학
9	영국	런던대학교	쉐필드대학교	캠브리지 대학

(참고문헌: 정진헌. (2016). 유럽에서의 한국학 동향과 전망. *한국문화연구*, 31, 271-287)

- 아시아의 경우, 유럽과 같은 기관 간 결집력이 훨씬 떨어진다. 〈표 Ⅵ-15〉의 아시아 소재 총 10개관을 보면, 대학도서관과 국립도서관이 각각 5개관이다. 국립도서관 2곳은 이미 운영 중지 상태이며, 5개 대학도서관 간에도 네트워킹을 추진할 만한 연계가 다소 부족해 보인다. 그 이유는 (1) 기관마다 언어의 장벽이 높고, (2) 국가간 정치·사회·문화적 여건이 현저하게 다를 뿐만 아니라 (3) 지리적 근접성도 떨어지며, (4) 도서관을 둘러싼 네트워크 환경도 아직 서구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시아 내에 좀 더 많은 한국자료실이 구축된 뒤에 네트워킹을 추진해도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아시아 지역에서 추가적으로 개설을 고려할 수 있는 대상으로, 재외공관인 한국문화원은 설립되어 있으나 한국자료실이 아직 개설되지 않은 일본이나 홍콩 등에 개실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표 VI-15〉 아시아 지역 내 WOK자료실

	국가	한국자료실	관종
1	베트남	호치민 인문사회대학교	대학
2	중국	북경대학교	대학
3	인도	델리대학교	대학
4	미얀마	양곤외국어대학교	대학
5	필리핀	아테네오대학교	대학
6	베트남	국립도서관	국립
7	우즈베키스탄	국립도서관	국립
8	카자흐스탄	국립아카데미도서관	국립
9*	태국	국립도서관	국립
10*	몽골	국립도서관	국립

*현재 사업 중단된 상태

- 중동 지역의 경우, 현재 터키, 이란, 이스라엘의 세 지역에 한국자료실이 설치되어 있으나 이스라엘 히브리대학과 터키와 이란의 국립도서관 간의 네트워킹은 적합해 보이지 않다. 정치·종교적인 갈등이 크며, 중동 지역 내에 이미 이집트와 아부다비도서관이 종료되었음을 고려할 때 도서관 관련 문화 기반이 약한 곳에 한국자료실을 운영해 나가는 것은 쉽지 않은 일로 판단된다.
- 아메리카 지역의 경우, 북미에 뉴욕퀸즈 공공도서관과 남미에 엘살바도르 대학과 멕시코의 콜멕스대학 총 세 곳에 한국자료실이 설치되어 있으나 이 세 기관도 따로 네트워킹이 필요해 보이지는 않는다.
- 지역을 떠나 관종별 네트워킹을 위해서는 국립도서관 간의 네트워킹을 강화하는 방법도 강구해 볼 수 있다. 한국학과 한국자료 지원의 목적도 일부 달성하면서 동시에 한국자료실이 구축된 국립도서관 간의 국제교류를 위한 네트워킹을 강화해 국가 대표도서관으로서의 국립중앙도서관의 위상을 높이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 자료지원 외에도 문화프로그램을 활용해 해외 국립도서관을 무대로 한류와 한국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

Ⅶ.
해외 한국자료 지원 및 이용 활성화 방안

1. 국립중앙도서관의 해외 한국자료 지원 사업 효율화 방안
2. 중장기 발전을 위한 전략 모델
3. 국립중앙도서관 해외 한국자료 지원 사업의 중장기 발전 로드맵
4. 연구 요약
5. 결언

Ⅷ. 해외 한국자료 지원 및 이용 활성화 방안

- 본 장에서는 국립중앙도서관 해외 한국자료실(Window on Korea, 이하 WOK)의 현 지원정책과 사업관리 체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본 연구의 조사 내용을 토대로, 국립중앙도서관의 해외 정책고객 중심의 한국자료지원 사업의 향후 추진 방향을 정비함으로써 사업의 효율화 방안을 제시하고, 국가대표도서관의 역할에 적합한 해외지원 사업의 중장기 발전방안 및 구체적 실행전략을 제안하였다.

1. 국립중앙도서관의 해외 한국자료 지원 사업 효율화 방안

1) 기존 사업 확장에 따른 새로운 목표 및 원칙 수립

- 국정홍보처(2006)는 “정책고객서비스”를 국민이 고객이라는 기본인식하에 민간의 고객관리기법을 도입하여 정책고객별 수요에 맞추어 보다 세분화된 정책정보를 제공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서비스 체계로 정의한다. 정책고객서비스는 분류기준에 따라 고객을 계층화하고 세분화하여 고객에게 맞춤형 정보제공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 현재까지 진행된 국립중앙도서관의 WOK 지원 사업은 사업의 성격이나 내용이 매우 단순한 단일 사업이다. 공공외교의 일환으로 재외공관을 통해 해외 도서관과 연계하는 서비스이지만, 그 궁극적 정책고객은 분명 한국 관련 정보 수요자라 할 수 있다. 한국자료에 대한 수요를 갖고 있는 전 세계 정보이용자들에게 WOK사업은 그 자체로 의미는 있지만 이미 디지털이 주류가 된 21세기 정보환경에서 그 물리적 공간은 너무 협소하며 인쇄 매체로만 제공되는 지식정보자원은 너무 제한적이다. 한국 관련 지식정보에 대한 수요를 갖고 있는 다

양한 층위의 사람들에게 그들의 수요에 부응할 보다 세분화된 정보 요구를 제대로 수렴하지 못하고 있다. 정책고객 중심의 해외 한국 자료 지원과 서비스 제공이라는 관점에서 현재 WOK을 보았을 때, 그 물리적 기반에서 인쇄자료로만 제공되는 WOK 서비스의 성과는 단지 부분적이라 할 수 있다.

- 향후 국립중앙도서관의 해외 도서관 및 자료지원사업의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사업 목표를 설정하고, 설정된 목표 아래 사업 진행의 핵심 원칙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사업목표는 사업의 방향성과 내용 범위를 명시화하는 것이고, 핵심 원칙은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의 한국자료 지원사업의 수월성을 높이고 향후 중장기 발전 전략을 도출해 내는 개념틀이 된다.
- 기존 국립중앙도서관의 “WOK 설치 및 운영사업“의 사업목표는 다음과 같이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① 해외 주요도서관에 한국자료실을 설치하여 한국 관련 자료들을 지속적으로 제공한다.
  ② 해외 도서관과의 교류협력을 통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평가하면 현 사업목표는 2007년 당시로는 적합했지만 현재는 매우 협소하다고 판단된다. 한류문화 르네상스라고 불리는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도서관 간 국제교류사업적 성격을 띤 현재의 사업 내용을 전향적으로 확대하여, 물리적 매체와 공간에 한정하지 않고 한국과 관련한 연구를 진행하는 전 세계 개인이나 연구자들에게 국립중앙도서관이 축적한 한국의 지식정보를 디지털 매체를 포함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폭넓게 제공하는 것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 현재 사업에 대한 확장의 필요성에 따라 최근의 변화를 반영하여 국립중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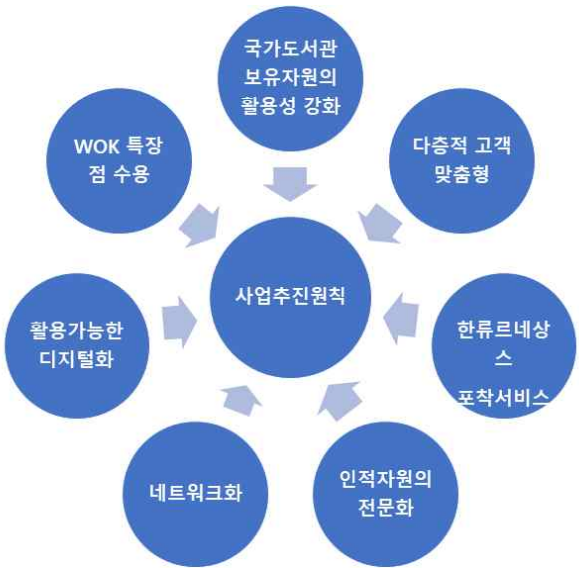
서관 해외 한국자료 지원 사업의 명칭을 변경하는 한편, 사업의 목적과 목표를 개정하고, 확장된 사업 관리를 위한 7대 추진 원칙을 〈표 Ⅶ-1〉에 제시하였다.

〈표 Ⅶ-1〉 사업의 명칭, 목적, 목표, 사업 관리를 위한 7대 추진 원칙

사업 명칭	“국립중앙도서관 해외 한국자료 지원 사업(Window on Korea*)” *사업 범위를 제대로 반영하도록 한글 사업 명칭을 변경하였음. 영문 명칭은 해외 고객의 혼돈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행 유지가 낫다고 판단함.
사업 목적	국가도서관으로서 해외 도서관과의 글로벌 교류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한국 관련 지식정보에 대한 해외 접근성을 최적화함으로써, 한국에 관한 국제 사회의 문화적 관심과 이해를 증진하고 나아가 한국학 연구 진흥을 위한 지식정보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다.
사업 목표	해외 주요 도서관에 한국자료실 설치 및 한국관련 자료의 지속적 제공으로 한국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증진시키고 한국문화 활성화 기반을 조성한다.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과 한국어 학습을 위한 자료를 지원하며, 나아가 한국학으로 발전할 수 있는 지식정보 기반을 마련한다.
7대 추진 원칙	해외 도서관 및 자료지원 사업의 확대 발전을 위한 7대 추진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다층적 정책고객을 위한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2. 기존 WOK의 특장점 최적화 3. 국가도서관의 풍부한 보유자원 활용성 강화 4. 자원과 서비스의 활용 가능한 디지털화 5. 네트워크화 6. 국립중앙도서관 인적자원의 전문화와 정보서비스 고도화 7. 한류문화 르네상스 기회를 포착한 창발적 서비스 개발 이 7대 원칙은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의 한국자료 지원사업의 수월성을 높이고 향후 중장기 발전 전략을 도출해 내는 개념틀이 된다.

2) 사업 관리를 위한 7대 추진 원칙의 세부 내용

- 확장된 해외 한국자료 지원 사업 관리를 위한 7대 추진 원칙을 [그림 VII-1]에 도식화하였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VII-1] 효율적 사업 관리를 위한 7대 추진 원칙

(1) 맞춤형 고객지원체계 구축

- WOK 운영은 현재 인쇄매체를 중심으로 물리적 도서관에 머물고 있으나, 전 세계적으로 급속한 미디어 환경의 변화 속에서 정보 이용자들은 인쇄자료와 전자 자료를 동시에 활용하고 있다. 한국에 대한 대중문화 소식이나 여행 등 일상 정보는 일상화된 SNS활용으로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어 학습 관련 자료 또는 한국 관련 연구 자료를 찾기 위해 한 층만 깊게 들어가도 곧 각종 이유로 정보접근의 장애를 경험하며 그로 인해 정보 빈곤에 처하게 된다. 이는 해외 한국학 육성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직결된다. 기존의

획일화된 인쇄자료 지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전 세계 이용자를 향한 보다 적극적인 디지털도서관 서비스로의 이행은 필연적이며, 다양한 층위의 이용자들의 정보 수요에 맞는 세분된 맞춤형 지원을 펼쳐나가야 한다.

- 한국 자료를 찾는 사람들은 단일 특성을 가진 고객이 아니라 매우 다양한 층위의 스펙트럼을 갖고 있다. 따라서 그 집단별 특성을 파악하여 계층화하고 세분화하여 맞춤형 정보 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먼저 WOK 이용자를 포함한 한국자료 수요자들을 그들을 둘러싼 여러 환경을 중심으로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이 범주화할 수 있다.

〈표 VII-2〉 한국자료 수요자 특성에 따른 범주 분류

구분 기준	범 주		
WOK설치여부	WOK 이용자	WOK 밖의 한국자료 이용 고객	
공간	물리적 공간	디지털 도서관	
정보유형	인쇄 자료	디지털 자료	
설치도서관	국가도서관/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거주 지역 도서관 기반	취약(아시아, 중동, 동유럽, 남미)	성숙(북미, 서유럽)	
한국에 대한 관심	초기 단계	성숙 단계	
관심분야	한류 집단	한국어 학습 집단	한국학 연구 집단

- 지역적 특성 측면에서 보면, 전반적으로 문화기반이 강한 지역(북미, 유럽)과 약한 지역(아시아, 중동, 동유럽, 아프리카)의 한국학 연구 기반에 차이가 있고 그에 따라 요구와 기대 수준, 현지도서관의 정보제공 수준이 다르다. 관심분야 측면에서 보면, 한류 문화 향유 집단, 한국어 학습 집단, 한국학 연구 집단으로 구분되는데, 각 집단별로 한국 관련 자료 요구가 크게 다르다. 일반 대중과 대학의 연구학습 집단 간에 정보 소비 패턴이 다르므로, 그들이 요구하는

자료의 포맷과 내용의 깊이에도 많은 차이가 있다. 또한 디지털 정보원으로 충분한 집단이 있는 반면, 물리적 공간이 제공될 때 공동체형성과 지식교류를 통해 더 활발한 지식 활용과 생산을 이끌 집단도 있다. 이용자별 특성에 따라 그들이 주로 찾는 정보원과 선호하는 자료 유형(인쇄자료, 전자자료, 스트리밍서비스 등)과 한국자료실에 대한 기대치도 달라지게 된다.

- 이와 같이 다양한 층위의 고객이 존재하므로, 각 집단의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지원체계가 설계되어야 한다. WOK 자료실을 지원할 때 역시 일괄적으로 지원하기보다 이러한 차이를 인지하고 지원 정책을 펴야 한다. WOK 사서들의 경우 대다수가 한국어에 능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이 일하는 자료실의 상황과 그 자료실 이용자들의 요구를 제대로 대변하여 국립중앙도서관과 소통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WOK 사업담당자는 본 연구 보고서에서 제시한 WOK 자료실 현황 조사 결과와 이용자 특성에 대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각 WOK 자료실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갖추고, 사업에 대한 평가를 체계화함으로써 맞춤형 고객지원 체계를 마련해 나가야 한다.

(2) WOK의 특장점 최적화

① 자료실 설치: 물리적 공간에서의 인쇄 장서 구축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본 사업은 분명 한류문화 르네상스라고 불리는 이 시기에 꼭 필요한 사업이다. 디지털 자료에 대한 수요가 절대적이지만, 물리적 공간에서 접할 수 있는 인쇄책과 그 공간 자체로 또는 문화프로그램을 통해 창출해 내게 되는 인적교류는 해외 한국학을 증진시킬 수 있는 중요한 매개체가 된다. 특히 북미와 서유럽 이외의 아시아, 아프리카, 동유럽, 남아메리카 등 경제적, 문화적 기반이 취약하여 한국자료에 접근하기 힘든 지역에 한국자료실을 설치하여 신뢰할 수 있는 핵심

한국자료컬렉션으로 구성된 지식정보 허브를 마련해 주는 것은 전 세계 한국 문화 확산과 한국학 증진에 매우 유용하다. 따라서 이들 지역의 WOK 설치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다만 일률적인 지원보다는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방식으로 WOK 자료실 운영을 다각화하고 지속적인 평가 모니터링을 수반해야 한다.

② 문화 프로그램 지원: 전 세계적으로 도서관은 이제 복합문화공간으로 기능하는 시대로 접어들었다. 자료와 함께 전시, 저자와의 만남 등 문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은 WOK 사업 내용 중 그 수요도 높고 중요성이 커지는 영역이다. 따라서 지원기관 수를 대폭 늘려 더 많은 국가의 한국자료실 및 재외 공관에서 한국을 소개하고 경험하는 기회를 폭넓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나 자료가 많지 않은 초기 단계에는 실질적인 한국학 자료에 대한 수요가 적기 때문에 문화 프로그램을 통한 한국 알리기는 그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문화 프로그램은 개별 도서관이 할 수도 있지만, WOK 자료실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순회, 협업으로 기획하면 개별 도서관의 부담도 낮추고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

(3) 국가도서관으로서의 지위적 위상과 보유자원의 활용성 강화

- 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대표도서관이기 때문에, 국내 발간자료를 망라하여 수집하고 일부는 디지털화하여 제공하고 있다. 현재 소장하고 있는 원문 디지털 자료는 모든 주제 분야에 걸쳐 고서, 고문서, 고지도, 교과서, 국내발간 한국관련 외국어자료, 관보, 단행자료, 독도 관련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발간자료, 신문학 대표소설, 악보, 어린이·청소년 자료, 연속간행물, 우수학술도서, 학위논문 등 22개 유형으로 다양하게 구축되어 있다, 이러한 지식정보 인프라는 국립중앙

도서관 이외에 어떤 기관도 갖지 못하는 독보적인 것으로, 국가도서관으로서 이 지위적 위상에 따라 수집된 자료를 국내외 연구자들에게 제대로 알려 이용하도록 하는 것은 기관의 사명이자 본분이다.

- 국립중앙도서관이 갖추고 있는 인적, 재정적, 기술적 재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가동시켜, 보유한 각종 자료의 활용성을 강화시킴으로써 해외 한국학 발전에 보다 주도적으로 참여하도록 한다.

(4) 디지털화

- 디지털화는 원문DB 확대, 법적·기술적 장애 유형 진단과 대응, 팬데믹 시대 대비 측면에서 추진한다.

① 원문 DB 확대

- 국립중앙도서관의 디지털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으나, 이용자들은 디지털화되지 않은 한국자료가 여전히 많다고 주장하며 특히 전근대 역사 자료에 대한 해외에서의 접근성을 높일 것을 요구한다. 또한 디지털화하는 과정에서 규장각, 한중연, 국립중앙도서관, 국립민속박물관의 자료들을 결합하거나 주요 개인 컬렉션과 대학 도서관들을 결합하여 통합창구를 희망하는 요구가 크다. 본 사업의 영문 명칭인 “Window on Korea”가 의미하는 대로, 즉 해외에서 각종 국내 사이트와 도서관을 방문해야 하는 외국인 입장에서 국립중앙도서관이라는 하나의 창을 통해 한국의 신뢰할 수 있는 기관들을 접근하게 된다면 큰 편의를 제공하는 일이 될 것이다.
-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유럽연합(EU) 내 저작물을 무료로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 “유로피아나(https://www.europeana.eu/en)”와 같은 기획을 추진함으로써 한국학 관련 자료 원문 접근성을 높이는 작업도 함께 수반되어야 한다.

② 법적·기술적 장애 유형 진단과 대응

-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이 150만여 점 이상의 자료를 디지털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 이용자들은 여전히 국중의 원문 접근이 안 된다는 어려움을 공통적으로 호소하고 있다. 이 문제의 원인은 디지털 자료 접근에 따르는 각종 장애 요인과 연결되는데, 그 유형을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 현재 협약기관들에게만 부분 제공되는 국립중앙도서관 원문 서비스와 도서관내 지정된 PC에서만 원문 이용을 하게 하는 문제
  - 해외에서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나 휴대폰 인증을 요구하여 외국인 신분으로서 접근이 불가능하게 하는 문제
  - 윈도우 체제가 아닌 시스템에서의 접근성 문제
  - 전자책이 매우 제한적이며, 공급되어도 e-book 뷰어 프로그램 설치로 인해 발생하는 장애

- 국립중앙도서관은 이용자는 물론 해외 도서관 사서들도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여러 기술적 장애를 전향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우선적으로는, 장애 유형별 원인 진단과 그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 당장 해결이 어려운 법적·제도적 문제에 대해서는 이용자와 명확히 소통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와 불신을 막아야 한다. 이용자와 국립중앙도서관 간 인식의 간극이 큰 상황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철저한 이용자 중심의 접근이 필요하다. 정책고객 중심의 서비스에서는 이용자를 도서관 시스템에 맞추려 하는 태도는 철저히 지양한다.

③ 코로나 이후에 대한 대비

- 현 팬데믹 상황에 한국학의 정보 및 자료 교류 역시 인터넷을 매개로 이루어지며 디지털 자료에 대한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학과 도서관

이 폐쇄된 상황에서 전자책, 전자저널,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등 전자 자료의 가치와 유용성이 커지므로, 디지털 자료 구축과 공유를 가속화하여 추진해야 한다.

(5) 네트워크화

- 네트워크화는 WOK 자료실 간 협력체계와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축 측면에서 추진한다.

① WOK 자료실 간 협력체계

- 해외 연구자들이 한국 자료를 검색할 때 어려움에 직면하는 경우, 국립중앙도서관 내의 전문 인력이 총괄하고 WOK를 포함한 전 세계 한국학사서들이 참여하는 협력형 레퍼런스 서비스(Ask a librarian)를 제공하는 것은 한국학 발전에 큰 촉매로 작용할 것이다. 현재의 레퍼런스 서비스(Ask a librarian)는 INKSLIB의 홈페이지 아래 위치하여 해외 한국학 사서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 당면한 한국 자료와 정보의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는 이 서비스를 해외 연구자들에게 대폭 확대해야 한다.
- 이미 구축되어 있는 북미지역한국학컨소시엄, 유럽한국학도서관협회 등의 기존 네트워크를 잘 활용하여 유능한 파트너로 협력 사업을 모색하는 한편, 관종 또는 지역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정기적 온/오프라인 워크숍을 통한 사서 계속교육과 협력 문화프로그램을 개최한다.

② 국내 유관 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축

- 본 보고서의 제VI장 3절의 유관 기관과의 협업방안에서 언급한 바, 국립중앙

도서관의 가장 큰 장점은 국가도서관이라는 지위적 위상으로 인해 국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지식정보자원의 집합지라는 사실이다.

- 해외 사업에서 이미 높은 성과를 보여준 한국학중앙연구원 등 여러 유관 기관들이 풍부한 재원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해당 영역에서 매우 의미 있는 성과들을 만들어냈으나, 각자의 고유 영역 안에서 사업을 추진하므로 제한된 확장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모든 자료가 도서관에 있을 것이라는 정책고객들의 높은 기대를 배경으로,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지식정보자원이라는 키워드를 갖고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문학번역원, 세종학당 등 유관 기관의 해외사업관리의 노하우와 그들이 개척한 시장을 활용하며 각 기관의 성과를 엮어 국립중앙도서관을 중심으로 집합시키는 역할을 담당해 나가야 한다.

(6) 인적자원의 전문화와 정보서비스 고도화

- 인적자원의 전문화는 국립중앙도서관 사업관리자들의 역량 강화, WOK 사서들을 위한 계속교육을 포함하며, 인적자원의 전문성 강화를 통해 고도화된 정보서비스를 추진해 나간다.

- 현재의 WOK 사업은 주무관급 담당자 한 명으로 추진되며, 그나마 잦은 순환보직으로 전문성이 취약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반면 해외 사업의 특성상 지속성과 전문성이 필요하며 업무추진에 있어서는 개방성과 융통성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국립중앙도서관의 국제교류사업 중 해외 자료지원사업이 고도화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개방직 공무원 채용 또는 양질의 공무직 채용을 통한 전문 인력 배출 방안 등을 추진해야 한다. 본 보고서의 VI장 2절에 사업 효율화를 위한 조직 개편안들을 제시하였으나, 향후 WOK 사업을 어디까지 확장할 지를 결정한 후, 그 범위에 따라 필요한 인적 자원의 규모를 판단해

야 할 것이다.

- 본 연구에서 수행한 설문조사에 참여한 WOK 사서 중 약 67%가 한국자료 동향 파악과 지속적인 업데이트, 그리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를 희망함으로써 계속교육에 대한 높은 필요성을 보여주었다. 한국어에 능숙하지 못한 WOK 사서가 대부분임을 고려할 때, 사서를 위한 지원은 절실하다. 따라서 사업의 내실을 위해서는 한국자료와 관련한 전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자료 개발과 프로그램이 추진되어야 한다.

(7) 한류 르네상스 기회를 포착한 창발적 서비스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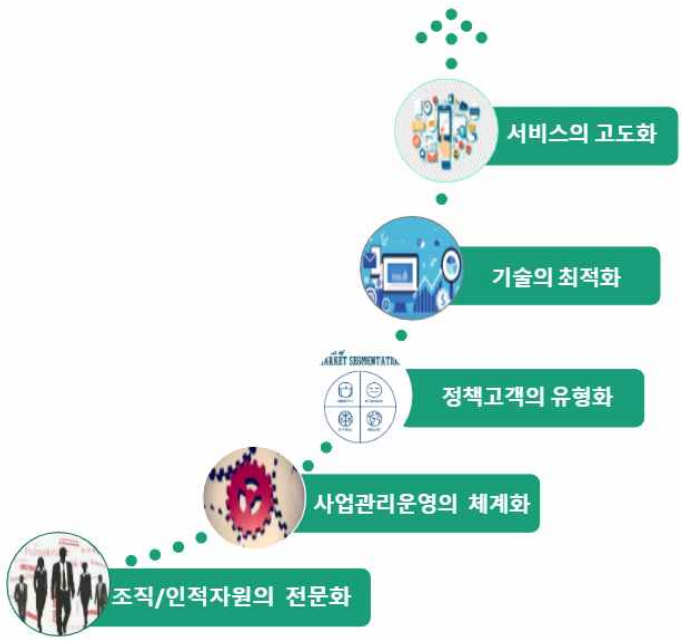
- WOK 자료실은 지난 14년간 단 30개관의 개설로 매우 더디게 진행되어 왔다. 이는 한류 르네상스라 불리는 전 세계적 한류 열풍과는 매우 대조적인 움직임이다. 유관기관인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코리아 코너는 1년에 5~6개 기관을 모집하며 빠르고 신속하게 자료실을 넓혀 왔다. 현재 WOK는 그 수나 해외 인지도에서 크게 부족하다. 한류 르네상스 물결을 잘 타며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사업 규모를 확대해 가야 한다.

- 본 연구에서 이용자 조사 및 선행 연구에 따르면, 한류문화 소비->한국어 학습->한국학 연구 등의 관심의 진화 과정 중에서 한류문화 소비에서 한국어 학습으로의 진화는 매우 신속하고 보편적으로 이루어지는 반면, 한국학 연구로 심화되기는 쉽지 않다. 상위 단계로의 발전이 보다 원활히 전개되게 하기 위해서 풍부한 재정적 지원과 함께 유용한 학습 및 연구 자료의 가용성이다. 풍부한 연구정보로 연구학습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보다 많은 학습자/연구자들이 흥미를 잃지 않고 연구자로 진입할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 타 문화권 학습자들에게 한국어나 한국학을 강의하는 교수자들에게서 수요가 높은 디지털 포맷의 시청각 문화적 자료들을 수집, 재구성하여 Youtube와 같은 비디오 공유 채널을 통해 유통하거나, 인포그래픽 자료 등의 디지털 라이브러리 구축 역시 한류 르네상스에서 새로운 수요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전통적 방식의 자료지원 방식과 더불어 보다 창발적 서비스를 개발함으로써 해외 한국학 연구 인력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 필요하다.

2. 중장기 발전을 위한 전략 모델

국립중앙도서관의 해외 한국 자료 지원 사업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전략 모델은 다음 5가지 전략 방향으로 접근할 것을 제안한다.



[그림 VII-2] 사업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전략모델

1) 조직/인적자원의 전문화

- 사업목표를 현재 사업에서 확장하여 개인이나 연구자들에게 국립중앙도서관이 가진 전자 자료를 폭넓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조직체계와 인적 자원 투입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 경우, 본 보고서에서 제안한 조직/인적자원의 전문화를 위한 5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한다. 사업추진을 위

해 디지털자원의 국제 활용을 위한 저작권 문제와 오픈액세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협동디지털레퍼런스 서비스를 수행할 전문 역량을 개발해야 한다.

- 인력과 조직의 전문화에서 국제교류홍보팀 내 인적자원의 지역전문 역량 개발과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다음과 같이 제안할 수 있다.
- 우선 국제교류홍보팀원 간 업무 연계성과 협조를 강화해야 한다. WOK 사업은 〈해외한국학사서 워크숍 프로그램〉 및 〈문화동반자사업〉과 더 강한 업무연계를 갖고 추진되어야 하며, 두 사업에 참여했던 해외 사서들을 해당국 현지정보 파악에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화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기해야 한다.
- 또한 사업담당 직원의 전문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개방직 공무원 채용 또는 양질의 공무직 인력 채용을 통한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 해외 사업을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 유관기관의 성공요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벤치마킹이 필요하다. 기관의 목적,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 예산규모, 조직문화 등이 모두 다름에도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문학번역원, 한국국제교류재단, 세종학당재단 등의 사업성과의 기저에 있는 것은 조직구성원의 전문성과 개방성이라 보인다. 지식정보전문가 사서들의 집단인 국립중앙도서관이 이러한 전문성과 개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조직문화의 변화가 필요하고, 국제 업무에서는 더욱 필요하다.

2) 사업 관리운영의 체계화

- Ⅵ장 4절에 제시한 “효율적인 사업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 및 매뉴얼”에 제시한 상세한 개선안을 참고하여 사업을 체계화한다.
- 사업 목표의 재설정과 구체화 작업, 사업계획의 전략성 강화, 사업방식의 체계

화 등이 추진되어야 한다.

- 신규 기관 선정에서 재외 공관에 대한 절대적 의지에서 벗어나 보다 주체성을 갖고, 전략적이고 적극적인 기획이 필요하다. 한정된 자원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하므로, 지역별 안배보다는 실질적인 수요가 있는 곳에 적극적으로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
- 실효성이 높은 곳에 우선적으로 선별 투자하고, 투자한 기관에 대해서는 온라인, 오프라인, 문화 향유, 한국어 학습, 한국학 연구 지원 등 다층적 층위에서 높은 고객만족을 이끌 양질의 서비스를 지향한다.
- 전 세계에 뻗어 있는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국제교류재단 및 세종학당의 해외사업성과를 참고하여 탄탄한 지역분석을 함으로써 한국학 발전의 성장가능성 있는 곳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도록 한다.
- 또한 선정된 사업을 관리할 때, 자료선정과정, 문화프로그램 기획, 유관기관과의 협력 측면에서 본 보고서 VI장 4절에 제시한 여러 개선 방안들을 참고하여 추진한다.
- 평가의 내실화 및 환류는 사업 효율화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업무로 반드시 개선해야 할 영역이다. 연 1회 필수로 연간사업보고서(사업결산/계획서)를 제출, 공통된 문항으로 모든 WOK 자료실이 공동 활용 가능한 이용자 설문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5년간의 사업기관 중 중간/최종 평가 시 사업담당자가 현장 실사방문을 통해 담당자 면담을 함으로써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구체적 평가지표는 VI장 4절에 제시되어 있다.
- 이 밖에 조직개선안에서 제안한 국제교류홍보팀의 지역전문성 강화 및 업무간 공조체계 개선을 통해 신규 사업 선정 등에서 사업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한다.

3) 정책고객의 유형화

- 본 보고서의 VI장 1절에 제시한 정책고객의 유형화를 참고하여 이용자 특성별로 세분화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국자료 이용자 그룹은 크게 한국 문화, 한국어 학습, 한국학 연구 집단으로 유형화될 수 있고, 이들의 정보요구와 정보이용패턴에 차이가 있다. WOK 자료실마다 보다 주류를 이루는 집단이 있으므로 이러한 특성을 반영해 자료지원 서비스를 맞춤화 한다.
- 매년 필수로 제출하는 사업계획보고서에 이용자 설문을 통해 요구 및 만족도 조사를 수행하여 변화하는 요구에 민감히 반응하도록 한다.
- 기존의 종이책과 비도서자료를 계속 지원하되, 전자책과 전자저널 및 전자자료 이용을 희망하는 도서관에 자료지원의 폭을 넓히며, 비도서자료의 자원을 더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
- 자료신청 현황을 보면, 한국어자료 신청이 극히 낮다. 한국어자료 신청이 높을수록, 한국 관련 프로그램이 성숙한 대학도서관이라는 특성이 있다. 한국어 능력이 없는 사서나 이용자를 위한 영문 메타데이터 작업도 추진해 나가야 한다.
- 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WOK 자료실을 중심으로 보다 활발한 한국학 커뮤니티를 만들 수 있다. 이러한 니즈가 큰 WOK 자료실을 위해 자료지원 비중을 문화프로그램 지원으로 옮기는 융통성을 둔다.

4) 기술의 최적화

- 디지털자료 지원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기술 문제를 파악하고 그 해결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디지털자료의 접근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 서비스를 구축하고 확대해 나갈 때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부분은 기술적 장벽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이다. 지정 PC에서만 가능한 원문서비스에 대한 불편

함, 보안시스템(휴대전화 인증)의 복잡화, e-book 뷰어의 복잡화, 애플 운영 시스템에서 이용 불가 등의 기술적인 문제로 국립중앙도서관의 전자자료 컬렉션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 이러한 장벽을 최소화하여 해외 이용자들이 자료로 접근할 때 쉽게 도와줄 필요가 있다.

- 자료 검색에서도 다국어 자료가 검색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5) 서비스의 고도화

① 해외 한국자료 이용자를 위한 서비스: K-Library 구축

- **해외 한국자료 이용자를 위한 K-Library**를 구축한다. 그 주요 내용은 (1) 한국관련 종합 디지털 포털 사이트, (2) 국내 유관기관 사업 성과물 공유 포털 서비스, (3) 한국학 관련 협력형 참고정보서비스 등이다.
-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자료 및 한국학 관련 자료들을 종합하여 해외에서 누구나 쉽게 검색과 원문이용 가능한 종합적인 디지털 포털 사이트를 구축한다. 국중 소장 원문 자료, 전자자료, 상호대차서비스 및 참고 서비스 등의 서비스를 한 곳에 모아서 안내 홍보함으로써 물리적 공간의 제약을 넘어 막힘없는 이용을 돕는다.
- 유관기관 연구 및 사업 성과물(한중연의 한국학진흥사업단성과포털, 한국문학번역원의 한국문학글로벌플랫폼 및 한국문학번역원 HUB Library의 한국도서 번역서 발굴, 세종학당의 어학 출판교재 접근성 향상)에 대한 포털서비스를 구축한다.
- 현재 WOK 자료실에 한국어 구사 능력을 갖춘 사서가 드물어 전문적인 참고서비스가 불가능하고 연구자들의 한국 자료 검색에 어려움이 많다. 국중 내의 전문 인력이 총괄하고 WOK 사서, 북미와 유럽의 한국학 사서 네트워크들을

연결하여 협력형 한국학 레퍼런스 서비스(Ask a Korean librarian)를 제공한다.

② WOK 사서 지원 서비스

- WOK 자료실 담당사서는 WOK 이용자를 가장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 주체이다. 자료선정 목록이나 그 외 한국자료실 담당 사서의 업무를 돕기 위한 여러 가지 안내를 온라인상에서 쉽게 검색하고 이용하도록 도움으로써 업무 효율을 높여야 한다.
- 서지정보 영문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전문 번역인력을 보강한다. 또한 한국자료실 인턴십 프로그램을 국내 사서의 해외연수프로그램으로 기획하여 현지 WOK 사서의 업무지원에 활용한다.
- 네트워크를 만들어 WOK 사서 간 업무 시너지를 높일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 준다.

3. 국립중앙도서관 해외 한국자료 지원사업의 중장기 발전 로드맵

본 연구에서 제안한 확장된 국립중앙도서관 해외 한국 자료 지원사업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단계별 로드맵은 다음 표와 같다. 기존 사업 유지 및 확장 사업, 신규 사업으로 구분하여 세부 사업 개발 항목을 단기(2021), 중기(2022-2023), 장기(2024-2025)별로 나누어 로드맵을 제시하였다.

〈표 VII-3〉 "해외 한국자료 지원 사업(Window on Korea)" 중장기 발전 로드맵

	구 분	단기	중기	장기
		2021	2022-2023	2024-2025
기존 사업 유지 및 확장	사업관리 운영	• 사업목표 재설정 및 구체화 작업 • 목표 재설정에 따른 조직 및 인력 체제 정비 • 사업계획의 전략성 강화 (예: 100 WOK 설치 목표로 한 10개년 계획. 연간 7개관 설치) • 운영방식 정비 • 기관평가 강화	• 목표 재설정에 따른 조직 및 인력 체제 정비(계속) • 사업관리 운영팀의 교육훈련 강화(예: 연수, 지역연구, 워크숍 등) • 유관 해외사업기관의 사업동향 파악 • 해외 한국학 동향 파악을 위한 워크숍 개최(연 1회) • 사업보고서 제출을 통해 운영실태조사(연 1회)	• 사업보고서 평가 • 해외 한국학 동향 파악을 위한 워크숍 개최(연 1회)
	재외 공관과의 협업	• 재외 공관과의 업무협약관계 검토 및 개선책 도출	• 재외 공관과의 협력업무 개선 착수	• 재외 공관과의 업무개선에 따른 평가

	구 분	단기	중기	장기
		2021	2022-2023	2024-2025
기존 사업 유지 및 확장	기관 선정	• 신규기관 선정업무의 체계화 및 매뉴얼 정비	• 한중연 지원기관 네트워크를 활용한 한국자료실 설치 • 한국학 거점대학 중심으로 신규 기관 설치 • 세종학당 유치 대학/도서관 파악	• 신규 선정기관에 대한 평가 • 기관선정 매뉴얼 개정
	자료실 설치	• 자료실 설치 현행방식 점검	• 재외 공관(외교부, 한국문화원)을 위한 기관조사 체크리스트 제작 제공	• 재외 공관(외교부, 한국문화원)을 위한 기관조사 체크리스트 갱신
	자료 선정	• 자료 선정 방식의 체계화	• WOK 도서관 기관별 신청 패턴 분석과 그에 따른 맞춤형 지원 착수 • 자료신청시스템 구축 및 상시적 자료 신청 개시	• 계속
	문화프로그램	• 기존사업 검토 및 개선안 도출	• 개별, 기관 간 협력을 통한 문화프로그램 기획	• 계속
	WOK 기관평가	• 평가 내실화 계획 수립 (예: 연 1회 필수, 공동이용 이용자 설문 개발, 연간사업보고서 제출 의무화)	• 부실 WOK 정리 • WOK도서관 연간사업보고서 제출시행 • 전체 사업 기간 중 최소 2회(중간, 최종) 현지방문 평가, 현장담당자 면담 시행	• 사업보고서 내용별 추가지원 내용 파악 및 총괄사업보고서 작성 및 회원기관 배포 • 평가결과에 따른 컨설팅

	구 분	단기	중기	장기
		2021	2022-2023	2024-2025
신규사업	국립중앙도서관 보유 자원 활용	• 해외자료 지원사업에 활용가치 높은 국중 기관 내 자원 파악 • 기존 국중 사업을 통해 형성된 개인/조직 차원의 네트워크 파악	• 국중 보유자원 및 사업 모니터링을 통해 WOK 가용자원 확대 • 국제교류홍보팀 내 업무공조체계 수립 및 강화(예: (<해외한국학사서 워크숍 프로그램>과 <문화동반자사업> 등)	• 계속
	서지정보서비스 및 정보 접근서비스 고도화	• 외국 도서관과 상호대차서비스 체계 구축 검토	• 한국자료 서지목록의 영어 키워드 추가 작업 • 서지정보 영문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력수급계획 (한국자료실 인턴프로그램; 국내사서의 해외연수프로그램으로 기획)	• 계속
	정보서비스 강화		• 국중에 WOK 한국학 정보서비스 총괄사서 배치 • WOK 사서/ INKSLIB 사서로 구성된 “Ask a Korean Librarian”서비스 개시	• 계속
	국내 유관기관과의 업무협력	• 국내 우수 해외지원사업 기관과의 협업계획 수립(본 보고서의 ”VI.3. 유관기관과의 차별성 확보 및 협업방안” 참조)	• 한중연의 한국학진흥성과포털, 한국문학번역원의 한국문학글로벌플랫폼 등의 사업과 사업연계 • 신규기관 선정 시, 한중연 기관리스트활용 • 한국문학번역원 HUB Library 사업에 국중의 WOK 배포용 선정자료 리스트 제공	• 세종학당의 전자도서 제공 • 유관기관과 문화프로그램 공동기획 • 유관기관(재외 공관, 한국문화원, 한중연, KF, 세종학당 등) 홈페이지에 WOK정보 연계 및 홍보

	구 분	단기	중기	장기
		2021	2022-2023	2024-2025
신규사업	WOK 전용 홈페이지 구축		• WOK 전용 웹사이트 구축 (WOK 사서 업무지원을 위한 각종 기능 탑재)	• WOK 전용 웹사이트 유지
	WOK 사서 네트워크 구성	• WOK 사서 네트워크 구성 • 전체, 대륙별 네트워크 계획 수립 • 북미한국학사서들과 협력계획 • 유럽 European Association for Korean Studies와 협력계획	• 온/오프라인 WOK 지역네트워크 구축 • 지역 네트워크 중심의 문화 프로그램 개발 • WOK 사서 간 비대면 컨퍼런스, 워크숍을 통한 계속교육	• WOK 사서간 공동 홍보, 공동 문화프로그램 기획 추진
	디지털자원 제공 및 활용성 향상	• 디지털자원 지원서비스 개선을 위한 총괄 계획 수립	• 디지털자원 국내외 활용의 저작권 문제, OA이해 교육	• “한국 자료 종합 포털서비스” 구축 • 포털서비스에 유관기관 연구 및 사업 성과물 탑재 (예:한중연의 한국학진흥사업단성과포털)
	디지털자료 지원 기술 개선사업	• 디지털자원 지원기술 개선사업 중장기 개선 계획 수립	• 기술문제 유형별 개선 사업 추진	• 계속

4. 연구 요약

- 본 연구는 해외 한국자료실을 둘러싼 환경 변화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의 WOK 설치 및 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한 한국자료 지원서비스의 방향성을 재정립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현재의 사업관리 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해외 한국자료실의 운영현황 및 이용 현황을 문헌조사와 관계자 심층면담을 통해 전수조사하며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또한 해외 한국자료의 정책고객의 변화하는 정보요구와 정보이용, 정보이용의 장애, 그리고 WOK 이용에 대한 만족도 등을 조사하고자 각국의 WOK 이용자는 물론 잠재적인 이용자를 대상으로 조사하여 26명에 대한 심층면담과 총 467명이 참여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나아가 자료지원 사업을 실행하고 있는 국내외 기관들을 대상으로 벤치마킹할 수 있는 사례를 조사하여 현재 WOK 사업의 관리 개선 방향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 조사 내용을 토대로 WOK 지원 사업의 개선 방안을 4가지 측면에서 도출하였다. 구체적으로 (1) 정책 고객 중심의 해외 한국자료 지원 및 서비스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고, (2) WOK 사업 및 운영 방식의 타당성을 검토하였고, (3) 국내외 유관 기관과의 차별성을 견지하며 협력할 수 있는 사업 어젠더를 도출하였고, (4) 향후 보다 효율적인 해외 한국자료 지원 사업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과 상세한 관리 운영 매뉴얼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해외 한국자료 지원 사업의 효율화 방안으로 기존 사업을 확장하여 발전시킨 새로운 사업 목적과 사업 목표를 설정하여 제시하는 한편 효율적 사업 관리를 위한 7대 추진 원칙을 제시하였다. 사업명칭을 “해외 한국자료 지원 사업(Window on Korea*)”으로 변경하였다. 사업 확장과 더불어 사업 목적도 수정하였는데, “국가도서관으로서 해외 도서관과의 글로벌 교류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한국

관련 지식정보에 대한 해외 접근성을 최적화함으로써, 한국에 관한 국제 사회의 문화적 관심과 이해를 증진하고 나아가 한국학 연구 진흥을 위한 지식정보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으로 제시하였다. 사업 목표로는 (1) 해외 주요 도서관에 한국자료실 설치 및 한국 관련 자료의 지속적 제공으로 한국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증진시키고 한국문화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고, (2)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과 한국어 학습을 위한 자료를 지원하며, 나아가 한국학으로 발전할 수 있는 지식정보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 사업 추진을 위한 전략 방향으로 7대 추진 원칙을 제시했다. 그 내용은 (1) 다층적 정책고객을 위한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2) 기존 WOK의 특장점 최적화, (3) 국가도서관의 풍부한 보유자원 활용성 강화, (4) 자원과 서비스의 활용 가능한 디지털화, (5) 네트워크화, (6) 국립중앙도서관 인적자원의 전문화와 정보서비스 고도화, (7) 한류문화 르네상스 기회를 포착한 창발적 서비스 개발이다. 이 7대 원칙은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의 한국자료 지원사업의 수월성을 높이고 중장기 발전 전략을 도출해 내는 개념틀로 사용하였다. 또한 사업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전략 모델을 제시하며 다음 5가지 전략 방향으로 접근할 것을 제안하였다. 5가지 전략 방향은 (1) 조직/인적자원의 전문화, (2) 사업관리운영의 체계화, (3) 정책고객의 유형화, (4) 기술의 최적화, (5) 서비스의 고도화이다. 마지막으로 국립중앙도서관 해외 한국자료 지원사업의 5개년 중장기 발전을 위한 단계별 로드맵을 연차별로 제안하였다.

5. 결언

- 2007년 이후 현재까지 진행된 국립중앙도서관의 “해외 한국자료실(Window On Korea) 설치 및 지원 사업”은 사업의 성격이나 내용이 단순한 단일 사업이다. 재외 공관과의 협력으로 진행되는 공공외교의 한 유형이라는 성격을 띠고 있으며, 해외 주요 도서관과 협력을 체결하여 그 도서관에 한국자료실을 설치하고 5년간 자료를 지원해 주는 교류활동을 그 사업 내용으로 한다. 이 사업은 궁극적으로는 세계를 향했지만, 주로 관적(官的) 성격이 강한 기관 간 교류사업의 성격이 강하다. 지난 14년간 총 27개국에 30개관을 개실하였고 현재 4개관이 종료되었고, 2개관이 지속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 그간 WOK 사업은 해외 도서관과의 교류협력을 통한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국가대표도서관의 위상 강화 및 도서관 발전에 기여해 왔다. WOK 사업이 처음 시작된 2007년과 2020년 현재 사이에 한국의 국력과 문화력은 괄목할 성장을 하였고, 해외에서의 한국에 대한 관심과 수요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다. 2020년 현재 전 세계 한국어학, 한국학 전공 개설 대학은 107개국 1,390개교에 달하며, 한국어능력시험(TOPIK) 지원자가 지난 20년 동안 140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세계 속 한국의 위상 역시 높아졌고, 특히 문화적 수요가 가히 전례 없는 르네상스기에 들어선 것이다. 국립중앙도서관의 핵심 해외교류협력사업이라 할 수 있는 WOK가 국내 타 기관과 유사하여 중복적 사업 양상을 보이는 현재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아 보인다. 왜냐하면 본 연구를 통해 확인된 바, 한국에 대한 관심은 해외 한류문화 향유, 한국어 학습에서 한국학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발전적 연계성을 지니고 있고, 이렇게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에 힘입어 한국에 관해 진지하게 연구하는 해외 연구자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국

가도서관으로서 책무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 실제로 본 연구를 수행하면서 이들 해외 한국자료 수요자들이 겪고 있는 정보 빈곤 현상이 한국의 지식문화자원의 대표성을 갖는 국립중앙도서관에 대한 그들의 일방적이며 무한한 기대로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자료에 대한 수요 급증과 그러한 기대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는 국가적 현실은, WOK로 시작된 국립중앙도서관의 해외 한국 도서관 설치 및 지원 사업이 다음 단계로 도약, 발전해야 할 분명한 시점에 있음을 시사한다.

- 현 시점에서 해외 한국자료 지원 사업의 방향성은 해외 도서관과의 교류협력이라는 기존의 사업 범위에 머물지 말고 더 확장, 발전되어야 한다. 현재 전 세계적인 한류 열풍과 그로 인한 한국어와 한국학 발전에 신속하게 부응하도록 한국자료실 설치와 자료지원 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다층위의 해외 정책고객을 지원할 수 있는 디지털 기반의 한국자료지원 서비스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 한국 역사에 가히 전례 없는 문화 부흥기를 맞아, 원활한 지식정보제공은 한국문화와 한국학을 성장시키는데 절대적으로 중요한 기반이 된다. 국립중앙도서관은 국제적으로 지속가능한 한국학 성장의 초석을 마련하는데 타 기관이 결코 모방할 수 없는 독보적인 지위적 위상과 고유한 자원을 갖고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국가도서관으로서 긴 호흡과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보유하고 있는 국가지식정보자원을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해외 자료지원 사업에 투자를 확대하는 것은 그 가치와 필요성 그리고 실현가능성 측면에서 모두 실효성이 크다. 관건은 이에 대한 투자를 결정할 의지와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합당한 전략이다.

- 해외 한국학 연구 커뮤니티 중에서 그 뿌리를 가장 튼튼히 내린 북미지역에서 1994년에 출발한 북미지역 한국학도서관 컨소시엄에 초창기부터 참여한 한국학 사서의 경험은 해외 한국자료 지원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자 하는 국립중앙도서관이 반드시 경청하여야 할 조언이 될 것이다.

> 해외에 한국자료실 개실이라는 가시적인 목표와 그로 인한 단기간의 성과를 성급하게 기대하기 보단 국가도서관의 위상에 걸맞는 장기적인 안목과 비전을 가지고 해외에 한국자료실을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발전 성장시킨다는 의지가 필요하다. 자료실 또는 도서관은 하룻밤에 신속하게 지어질 수 있는 건물이 아니라 양질의 콘텐츠를 이용자에게 꾸준히 제공하며 이용의 활용을 돕는 서비스 사업임을 명심하여야 한다. 자료실 개실은 겨우 씨앗을 뿌린 것에 불과하며 앞으로 씨앗이 자라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오랜 기간의 물주기와 적절한 양분을 제때 공급하며 사랑으로 가꾸는 인내의 시간이 필요한 것에 비유할 수 있다. 때로는 토지나 기후라는 외부 환경의 열악함으로 잘 자라지 않는 경우에는 그 원인을 파악해 과감히 다른 곳으로 씨앗을 이동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 본 연구 결과의 기대 효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국립중앙도서관이 2007년 이래 14년간 실시해 온 해외 한국 자료지원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을 통해 향후 사업추진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국립중앙도서관의 한국학 지원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타 기관의 유사 사업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국립중앙도서관의 한국자료 지원 사업의 차별성을 갖는 지점과 협업을 통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였다. 이를 통해 국립중앙도서관이 국내 유관 기관들과의 협력 체계 하에서 국가 차원의 한국학 육성사업의 시너지와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국립중앙도서관이 해외 주요 도서관들과의 유기적 협조 체계를 토대로 국가 및 지역별 다양한 정보 환경과 수요에 맞춤형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한국자료 지원방안을 도출함으로써 국립중앙도서관이 한국학 발전과 한국문화 확산의 거점이 되는 공고한 기반을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참고문헌

국내문헌

곽수민. (2012). “해외한국학 동향 분석 및 발전요인 연구”. 『한국학』, 35(3), 211-241.국립중앙도서관. (2019). 『『2020년 해외 한국자료실 설치 지원사업』 수요조사 신청 안내』.

국립중앙도서관. (2012). 『해외 한국학도서관 동향 보고서 7』.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연구소.

국립중앙도서관. (2012). 『해외 한국학도서관 동향 보고서 8』.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연구소.

국립중앙도서관. (2014). 『해외 한국학도서관 동향 보고서 11』.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연구소.

국립중앙도서관. (2014). 『해외 한국학도서관 동향 보고서 12』.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연구소.

국립중앙도서관. (2016). 『해외 한국학도서관 동향 보고서 15』.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연구소.

국립중앙도서관. (2017). 『해외 한국학도서관 동향 보고서 17』.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연구소.

국립중앙도서관. (2017). 『해외 한국학도서관 동향 보고서 18』.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연구소.

국립중앙도서관. (2019). 『해외 한국학도서관 동향 보고서 20』.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연구소.

김기덕, 배상준. (2017). “한류인문학을 제창한다” I advocate the humanities of the Korean Wave. 『인문콘텐츠 Humanities Contents』. 6(45), 9-30.

김용락, 최경희, 김지연, 김아영, 김장우, 조소영. (2020). 『2020 해외한류실태조사 (요약본)』.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김훈태. (2020). “한류와 한국어교육의 관계, 그리고 미래: 학습 자료로서 한류콘텐츠의 가치, 현지 한국 전문가 양성의 중요성”. 『한류나우』, 1-2월호, 23-30.

목수정. (2020). “2020케이팝 월드리포트- 프랑스에서 본 케이팝의 양면.” 오마이뉴스. http://m.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2681177&CMPT_CD=MRA17

박태균. (2018). “해외 한국학 연구의 질적 도약을 위하여”. 『역사비평』, 122, 2-12.

설혜윤. (2015). 『국내외 자료 기증 사업 비교를 통한 「한국의 창」 사업 발전 방안』. 국회도서관.

신진호. (2020). 중국 현대를 읽는 키워드 100: 공자학원.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390107&cid=62067&categoryId=62067

양기웅, 유승금. (2020). “국제 언어로서 한국어의 위상”. 『한류나우』, 1-2월호, 8-16.

윤은하. (2013). “해외 한국학 제3세대를 바라보며: 박사학위논문을 중심으로 (2007-2012)”. 『역사와 담론』, 67, 113-150.

이귀옥, 손승혜, 강필임. (2016). “중국의 학술문헌을 통해 본 중국한류 15년: 한류 관련 학술문헌 키워드의 언어네트워크분석”. 『미디어, 젠더 & 문화』, 31(1), 153-195.

이성민, 김경만, 이규탁, 최경희, 원종원, 강신규, … 김아영. (2020). 『2019 한류백서』.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KOFICE).

이영준. (2020). “한국학 현황과 한국문화 이해도 증진을 위한 과제: 해외 한국학 호황, 세계 문화 발전의 증거.” 『한류나우』, 1-2월호, 31-38.

이완범. (2009). 『해외 한국학 현황 및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교육과학기술부.

이정현. (2009). “북미주 한국학도서관 1990-2009: 회고, 현황, 전망,”. 『Journal of East Asian Libraries』, 149, 56-111.

이해영, 양정, 신리리. (2011). “한국의 해외 한국학 지원 정책과 중국의 한국학 - 중국해양대학의 한국학과 중핵대학사업”. 『한중인문학회 국제학술대회』, 39-43.

장성일. (2018). “중국에서의 한국학 연구 동향 및 전망-연변대학교를 중심으로”. 『동서인문학』, 55, 177-197.

장윤희. (2018). “베트남 한류문화 연구의 전개와 현황: 한국과 현지 학자의 한류연구

주제와 접근법 비교를 중심으로". 『음악과 문화』, 38권0호, 109-133.
조성택, 김동택, 박재술. (2009). 『한국학 발전의 제도적 기반 확립을 위한 종합계획』.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주한독일문화원. (2018). 『Goethe-Institut Korea』. [브로슈어].
한국어능력시험. (2020). TOPIK 한국어능력시험 시험 안내 https://www.topik.go.kr/usr/cmm/index.do
한국국제교류재단. (2019). 『2019 한국국제교류재단 연차보고서』. 한국국제교류재단.
Kim, J-S. (2020). "A Study of Koreanists' Areas of Interest and Their Access to the Relevant Resources in Australia (호주 한국학 연구자들의 자료 접근 및 연구 분야에 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31(3), 151-167.

해외문헌

Ho, D. (2012). "The K-pop wave hits libraries!". Young Adult Library Services, 10(4), 11-16.
Hong, S-K. (2019). "Geography of Hallyu Studies: Analysis of Academic Discourse on Hallyu in International Research". Korea Journal, 59(2), 111-143.
Japan Foundation. (2020). The Japan Foundation Annual Report 2018-2019. https://www.jpf.go.jp/e/about/result/ar/2018/pdf/dl/ar2018e.pdf
Song, S. (2020). "The Evolution of the Korean Wave: How Is the Third Generation Different from Previous Ones?". KOREA OBSERVER, 51(1), 125-150.
Yoon, T-J., & Kang, B. (2017). "Emergence, Evolution, and Extension of "Hallyu Studies": What have scholars found from Korean pop culture in the last twenty." In The Korean Wave: Evolution, Fandom, and Transnationality. Lanham: Lexington Books, 3 - 21.
한국국제교류재단 통계센터 해외대학한국학현황 (2020). http://www.kf.or.kr/koreanstudies/koreaStudiesList.do

웹사이트

구글 지도 검색 홈페이지 (2020).
https://www.google.com/maps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도서관 블로그 (2020).
https://blog.naver.com/dibrary1004

국제일본문화연구센터. (2020). Greetings from the director.
http://www.nichibun.ac.jp/pc1/en/about/

덴마크 코펜하겐대학(북유럽아시아연구소도서관) 홈페이지 (2020).
http://www.nias.ku.dk/nias-library

독일 베를린자유대학도서관 홈페이지 (2020).
https://www.geschkult.fu-berlin.de/e/oas/korea-studien/index.html

러시아 국립도서관 동양센터 홈페이지 (2020).
http://nlr.ru/nlr_visit/RA2647/Kabinet-Koreyskoy-Kulturyi

러시아 국립도서관(상트) 홈페이지 (2020).
http://nlr.ru/nlr_visit/RA2647/Kabinet-Koreyskoy-Kulturyi

멕시코 콜멕스대학도서관(다니엘 코시요 비예가스 도서관) 홈페이지 (2020).
https://biblioteca.colmex.mx/

몽골 국립도서관 홈페이지 (2020).
http://nationallibrary.mn/mn/

미국 뉴욕 플러싱퀸즈도서관 홈페이지 (2020).
https://www.queenslibrary.org/

미얀마 양곤 외국어 대학교 홈페이지 (2020).
https://www.yufl.edu.mm/demo/library-eng/

벨기에 루벤카톨릭대학도서관(동아시아도서관) 홈페이지 (2020).
https://www.arts.kuleuven.be/koreanstudies/korean-collection

세종학당재단. (2020). 재단소개.
https://www.ksif.or.kr/index.do

스페인 말라가대학도서관(사회무역학 동아시아 도서관) 홈페이지 (2020).
https://jabega.uma.es/discovery/search?vid=34CBUA_UMA:VU1&lang=es

엘살바도르대학교 홈페이지 (2020).
https://biblioteca.ues.edu.sv

영국 옥스포드대학교 홈페이지 (2020).
https://www.bodleian.ox.ac.uk/bodley

우즈베키스탄 국립도서관 홈페이지 (2020).
https://www.natlib.uz/

위키피디아 백과사전 홈페이지 (2020).
https://en.wikipedia.org/

이란 국립도서관 홈페이지 (2020).
http://www.nlai.ir/

이스라엘 히브리대 인문사회과학도서관(블룸필드 도서관) 홈페이지 (2020).
https://en.libraries.huji.ac.il/mslib

이집트 국립도서관 홈페이지 (2020).
http://www.darelkotob.gov.eg/ar-eg/Pages/Home.aspx

이탈리아 라사피엔차대 동양학부도서관 홈페이지 (2020).
https://web.uniroma1.it/bibiso/sala-coreana/sala-coreana

인도 델리대학교 홈페이지 (2020).
http://crl.du.ac.in/

인도네시아 국립도서관 홈페이지 (2020).
https://www.perpusnas.go.id/

일본국제교류기금 서울문화센터. (2020). 사업소개: 일본어교육.
https://www.jpf.or.kr/index/s2/s2_2.php

주 아랍에미리트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 (2020).
http://overseas.mofa.go.kr/ae-ko/index.do

중국 북경대학교 홈페이지 (2020).
https://www.lib.pku.edu.cn/portal/

중국 상해 장녕도서관 홈페이지 (2020).
http://www.cnqlib.sh.cn/international/index.html

카자흐스탄 국립아카데미도서관 홈페이지 (2020).
http://nabrk.kz/

태국 국립도서관 홈페이지 (2020).
https://www.nlt.go.th/

터키 국립도서관 홈페이지 (2020).
http://www.millikutuphane.gov.tr/

폴란드 돌노쉬롱스키주립도서관 홈페이지 (2020).
https://www.wbp.wroc.pl/wbp/index.php/pl/?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301

필리핀 재외한국문화원 홈페이지 (2020).
http://rizal2.lib.admu.edu.ph/aiksportal/

한국국제교류재단. (2020). KF 소개.
http://www.kf.or.kr/?menuno=3307

한국문학번역원. (2020). 기관소개: 설립목적 및 비전.
https://www.ltikorea.or.kr/kr/contents/about_inst_1/view.do

한국문학번역원. (2020). 한국문학 디지털 도서관.
https://library.ltikorea.or.kr/

한국학진흥사업단. (2020). 사업안내.
http://ksps.aks.ac.kr/hpjsp/hmp/

헝가리 ELTE대학교 홈페이지 (2020).
https://www.konyvtar.elte.hu/szolgaltatasok/e_szolg/online_db.html

Nippon Foundation. (2020). What we do.
https://www.nippon-foundation.or.jp/en/what/projects

UAE 아부다비국립도서관 홈페이지 (2020).
https://library.dctabudhabi.ae/

[부 록]

1. WOK 운영기관 30개관 개요
2. 인터뷰 가이드
3. 이용자 설문지

1. WOK 운영기관 30개관 개요

(1) 태국 국립도서관 (운영지속 여부 검토중)

- 구분: 국립도서관
- 영문명(현지어명): National Library(หอสมุดแห่งชาติ)
- 개관연도: 1905년
- 국가/도시: 태국/방콕(주소: Thanon Samsen, Wachira Phayaban, Dusit District, Bangkok)
- WOK 개관연도: 2007년
- 홈페이지 주소: https://www.nlt.go.th/

- 태국 국립도서관은 1905년 왕립도서관을 시작으로 1966년 현재의 위치에 문화부의 순수미술부 소속으로 정식 개관하여 태국의 국내외 인쇄자료 및 시청각 자료, 전자자료 등 국가 지적 문화유산에 해당하는 자료들을 수집, 보존, 보관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 별도의 국립도서관법은 존재하지 않으나, 납본법이 제정되어 태국 내 출판물 관리, 출판물 ISBN, ISSN 발행 및 국가종합도서목록을 관리하고 공공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 도서관은 5층으로 구성되며, 태국어 외에도 다양한 언어의 출판물을 포함하여 300만권의 방대한 자료를 소장하고 있으며 이를 온라인 목록화하고 또한 고서, 희귀본, 음악 자료 등의 디지털화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공공에게 제공하고 있다.
- 2008년 도서관 2층에 WOK를 설치하여 한국에 관한 자료들을 공공에 제공하고 있었으나, 도서관 리모델링 등의 이유로 2015년부터 WOK지원을 중단한 상태이다. 2017년 이후 실시된 설문조사에도 전혀 참여하지 않았다.

태국 국립도서관 WOK 지원자료 수량 및 설문참여 현황

년도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총계
자료	3,636	221	217	162	117	187	0	132	0	0	0	0	0	0	4,672
설문															

(2) 베트남 국립도서관

- 구분: 국립도서관
- 영문명(현지어명): National Library of Vietnam(Thư viện Quốc gia Việt Nam)
- 개관연도: 1917년
- 국가/도시: 베트남/하노이(주소: 31 Trang Thi Street, Hoan Kiem District, Hanoi)
- WOK 개관연도: 2007년
- 홈페이지 주소: http://nlv.gov.vn/

- 하노이국립도서관은 1917년 개관한 이후, 1958년 베트남 국립도서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2000년 베트남을 대표하는 중앙도서관으로 지정되어 베트남 국내외에서 발간되는 정보와 국가의 기록문화 유산을 수집 및 보존하고자 디지털화하여 국가 기관과 국민의 지식 활동을 돕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도서관은 30개국의 도서관과 협력을 맺고 있으며 2007년 한국·베트남 수교 15주년을 맞아 도서관 2층에 WOK를 설치하여 현재까지 서비스하고 있다.
- WOK의 운영목적으로는 1) 한국국립중앙도서관과의 국제협력 2) 이용자들의 요구 충족 3) 한국문화프로그램 운영으로 하고 있다.
- WOK에 입수된 모든 자료는 열람부서의 풀타임사서가 맡아 정리 및 온라인 목록(MARC 21)을 제공하여 도서관 내부 열람을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한국 도서 및 사진 전시와 같은 문화프로그램을 국립중앙도서관의 지원과 한국문화원의 협력으로 제공하고 있다.
- 설문조사에 2017년과 2020년 두 차례 참여하였다.

베트남 국립도서관 WOK 지원자료 수량 및 설문참여 현황

년도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총계
자료	7,846	112	200	163	211	216	0	109	0	566	304	213	88	235	10,263
설문											참여			참여	

(3) 독일 베를린자유대학

- 구분: 대학도서관 (캠퍼스 한국학과 도서관)
- 영문명(현지어명): Free University of Berlin(Freie Universität Berlin)
- 개관연도: 2015년(대학설립: 1948년)
- 국가/도시: 독일/베를린(주소: Otto-von-Simson-Straße 11, Berlin)
- WOK 개관연도: 2007년
- 홈페이지 주소: https://www.geschkult.fu-berlin.de/e/oas/korea-studien/index.html

- 1964년 베를린자유대학교 일본학과 내에서 한국어 강의를 시작으로, 1987년 한국학 커리큘럼을 개발, 2003년 독립적인 한국학 기관 설립, 2008년 정규 한국학 학사 프로그램 개설되어 한국어, 한국문화, 사회, 역사, 정치, 경제에 관한 강의를 제공하며, 2013년부터 석·박사 및 박사 후 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 2007년 대학 내 24개 학과 도서관을 공동분류법과 함께 도서관 통합을 시도하여 한국학 장서는 교육학 및 심리학과 도서관으로 통합되어 있으며 2014년부터 한국학 장서를 위한 풀타임사서가 근무(급여 50% KF 지원)하고 있다.
- 한국국제교류재단, 국립중앙도서관, 한국영화진흥위원회, 국회도서관, 한국문학번역원, 대법원·헌법재판소와 협력을 맺어 자료지원 및 교환을 진행하고 있다.
- 2007년 WOK가 설치된 이후 처음의 4배 이상의 한국학 장서를 소장하고 이를 모두 정리하여 한국어로 검색이 가능한 온라인 목록을 제공하고 있으며 도서관 내부와 외부대출, 상호대차, 참고서비스 등을 지원하여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다.

베를린자유대학도서관 WOK 지원자료 수량 및 설문참여 현황

년도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총계
자료	798	0	0	175	267	243	0	260	439	130	274	217	217		3,020
설문											참여	참여		참여	

(4) 미국 뉴욕 플러싱퀸즈도서관

■ 구분: 공공도서관
■ 영문명: Queens Public Library at Flushing
■ 개관연도: 1858년
■ 국가/도시: 미국/뉴욕(주소: 41-17 Main St, Flushing, NY)
■ WOK 개관연도: 2007년
■ 홈페이지 주소: https://www.queenslibrary.org/

- 미국 내 최대 이민자 지역으로, 1858년 플러싱 도서관을 설립한 이후로 지역 내 여러 도서관을 설치와 통합하면서 지역 주민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언어 자료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이민자들의 정착을 위한 다양한 도서관 지원 프로그램들이 있다.
- 도서관은 한국 유관기관으로 뉴욕한국교육원, 한국국립중앙도서관 그리고 한인 커뮤니티와 협력을 맺고 문화프로그램과 자료지원 등을 받고 있다.
- 2007년 WOK를 설치하였으며 입수된 모든 한국 자료는 한국인 풀타임사서를 통해 정리 및 온라인 목록을 제공하여 이는 퀸즈지역의 공공도서관 시스템 어디서든 대출이용이 가능하며 또한 참고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 정기적인 문화프로그램으로는 뉴욕한국교육원의 지원으로 한국어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 WOK의 운영목적으로는 1) 도서 및 미디어 자료지원 2) 한류에 대한 수요 충족 3) 한국문화프로그램 운영으로 하고 있다.

뉴욕 플러싱퀸즈도서관 WOK 지원자료 수량 및 설문참여 현황

년도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총계
자료	2,601	235	179	190	175	269	0	159	231	179	313	205	218		4,954
설문											참여			참여	

(5) 중국 상해 장녕도서관 (종료기관)

- 구분: 공공도서관 (홍차오 국제 도서실)
- 영문명(현지어명): Changning Library(长宁 图书馆)
- 개관연도: 년
- 국가/도시: 중국/상해(주소: 356 Tianshan Rd, Tian Shan, Changning District, Shanghai)
- WOK 개관연도: 2008년
- 홈페이지 주소: http://www.cnqlib.sh.cn/international/index.html

- 외국 영사관과 외교관 거주지역으로 알려진 상하이 서부의 국제도시에 위치하고 있는 장녕도서관은 정부의 지원으로 12층의 규모의 건물과 50만 권의 도서, 특별 컬렉션, 멀티미디어 자료 등을 소장하고 있다.
- 장녕도서관과 장녕어린이도서관 아래에는 10개의 분관이 있으며 이 도서관들은 1956~1993년 사이에 설립되어 공공에 제공되고 있다.
- 2008년 도서관의 국제교류 코너인 8층에 WOK를 설치하여 다른 외국 자료와 함께 이용자들에게 제공되고 있으나, 중국이라는 나라의 특성상으로 자료에 대한 검열과 보안으로 지원된 모든 자료에 대한 정리 및 목록은 제공되지 않고 있다. 이것 등의 이유로 2015년부터 WOK지원을 종료하였다.

상해 장녕도서관 WOK 지원자료 수량 및 설문참여 현황

년도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총계
자료	699	200	223	194	297	155	160	0	0	0	0	0		1,928
설문														

(6) 러시아 국립도서관

- 구분: 국립도서관 (동양센터)
- 영문명(현지어명): The Russian State Library(РОССИЙСКАЯ ГОСУДАРСТВЕННАЯ БИБЛИОТЕКА)
- 개관연도: 1862년
- 국가/도시: 러시아/모스크바(주소: Moscow, Vozdvizhenka str., 3/5)
- WOK 개관연도: 2009년
- 홈페이지 주소: https://www.rsl.ru/

- 러시아 국립도서관의 동양센터는 '동양어는 동양센터의 모든 활동과 기능의 토대이며, 동양권 국가의 문자체계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해야 하며 동양학 전문가의 지식과 기술을 관리해야 한다.'는 기본원칙으로 운영하고 있다.
- 1990년 한국과 러시아가 수교를 맺은 후 한국의 도서관들과 협력관계를 형성하기 시작하여 2005년 국립중앙도서관과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2009년에는 WOK 설치와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지원으로 한국학 장서의 디지털 목록을 구축하였고, 2012년 한국 고문헌 디지털화 공동 프로젝트를 통해 한국 희귀서를 디지털화하였으며 이외에도 한국영화진흥위원회와 협력하고 있다.
- WOK의 운영목적으로는 1) 도서 및 미디어 자료지원 2) 한국문화프로그램 운영 3) 이용자 요구 충족으로 하고 있다.
- 동양센터 1층 독립적인 공간에 설치된 WOK는 한국어가 유창한 1명의 파트타임사서로 입수된 자료를 정리 및 온라인(MARC 21)과 카드목록을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참고서비스와 문화프로그램을 서비스하고 있다.

러시아 국립도서관 동양센터 WOK 지원자료 수량 및 설문참여 현황

년도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총계
자료	640	209	158	53	228	131	57	0	144	72	17	38	69	1,816
설문										참여	참여	참여	참여	

(7) 몽골 국립도서관 (운영지속 여부 검토중)

- 구분: 국립도서관
- 영문명(현지어명): National Library of Mongolia(Монгол улсын үндэсний номын сан)
- 개관연도: 1921년
- 국가/도시: 몽골/울란바타르(주소: Chinggis Ave 4, Ulaanbaatar)
- WOK 개관연도: 2009년
- 홈페이지 주소: http://nationallibrary.mn/mn/

- 몽골 국립도서관은 1921년 왕의 소장 도서를 기증받아 설립한 과학학술연구소의 도서관으로 시작하며 1940년 공공도서관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 1952년부터 몽골 내 출판물은 5부씩 국립도서관에 납본하는 제도가 시작되고 1996년 몽골의 도서관에서 온라인 목록 서비스 시작되었다.
- 2005년 도서관 정보화 시행과 도서관 소장 희귀본에 대한 디지털화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2008년 몽골 내 도서관들의 교육과 협력을 위한 몽골도서관 컨소시엄을 운영하고 있다.
- 2009년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한국국립중앙도서관의 지원으로 WOK가 설치되어 KOICA 봉사단 한국인 사서 1명이 입수된 자료를 정리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할 때는 입장료와 대여비를 별도로 지불해야 한다.
- 이 외에도 도서 전시회, 도서관 투어, 저자와의 만남, 동화 암송대회 등의 문화프로그램을 진행하였으나, 도서관 리모델링 등의 이유로 2014년부터 WOK 지원을 중단하고 있다.

몽골 국립도서관 WOK 지원자료 수량 및 설문참여 현황

년도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총계
자료	3,188	236	247	237	233	146	0	0	0	0	0	0		4,287
설문														

(8) 카자흐스탄 국립아카데미도서관

- 구분: 국립도서관
- 영문명(현지어명): Natioanl Academic Library of Republic of Kazakhstan(ҚАЗАҚСТАН РЕСПУБЛИКАСЫНЫҢ ҰЛТТЫҚ АКАДЕМИЯЛЫҚ КІТАПХАНАСЫ)
- 개관연도: 2004년
- 국가/도시: 카자흐스탄/누르술탄(주소: Astana, ul. Dostyk 11)
- WOK 개관연도: 2009년
- 홈페이지 주소: http://nabrk.kz/

- 카자흐스탄 국립아카데미도서관은 2004년 과학, 교육, 문화 분야의 발전을 위해 정부 주도로 카자흐스탄의 수도에 설립하여 다양한 자료를 소장하고 있으며 카자흐스탄의 독서 진흥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 매년 3만 명 넘는 이용자가 도서관을 이용하고 있다.
- 도서관에서는 카자흐스탄의 유명 인물 30인을 선정하여, 해당 인물의 저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간행물실, 학술 논문자료실, 예술 자료실 등으로 자료를 나눠 효율적인 자료이용을 돕고 있다.
- 다민족 국가로서 세계 여러 나라의 문학자료를 갖춘 외국 문학관이 설치되어 다양한 민족들의 자료 수집 전시하고 있으며, 이곳에 2009년 WOK를 설치하여 한국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입수된 모든 한국 자료들은 정리하여 온라인 목록(MARC 21)을 제공하여 도서관 내부에서 이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상호대차, 참고서비스 등을 지원하여 이용되고 있다.

카자흐스탄 국립아카데미도서관 WOK 지원자료 수량 및 설문참여 현황

년도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총계
자료	592	163	135	240	147	271	395	233	469	0	330		2,975
설문									참여				

(9) 폴란드 돌노쉬롱스키주립도서관

- 구분: 공공도서관
- 영문명(현지어명): Lower Silesian Public Library(Dolnośląska Biblioteka Publiczna)
- 개관연도: 1947년
- 국가/도시: 폴란드/브로츠와프시(주소: 50-116 Wrocław, Rynek 58)
- WOK 개관연도: 2009년
- 홈페이지 주소: https://www.wbp.wroc.pl/wbp/index.php/pl/?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301

- 돌노쉬롱스키 주립도서관이 있는 브로츠와프시는 폴란드의 4대 도시이자 한국 회사들과 교민들이 거주하고 있다.
- 도서관은 ALEPH 자동 라이브러리 시스템, 카탈로그, 주제별 DB를 제공할 뿐 아니라 돌노쉬롱스키와 카르파츠 도서관이 주축이 되어 로어 실레지아 지역의 공공도서관, 기록관, 박물관 등이 함께한 디지털화 공동 전자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
- 도서관은 다양한 국가의 문화 대중화를 위해 독일 코너, 아메리칸 코너, 로마 도서관, WOK가 설치되어 있으며, 한국 자료는 풀타임사서가 맡아 정리하고 있으나, 한국어의 경우는 브로츠와프 한국학 대학과의 협력으로 정리 및 온라인 목록(MARC 21)을 제공하여 도서관 외부대출, 상호대차를 지원하고 있다.
- 문화프로그램으로는 한국문화원과 협력하여 '한국의 날' 행사 등을 진행하였다.
- WOK의 운영목적으로는 1) 도서 및 미디어 자료지원 2) 한국문화프로그램 운영 3) 한류에 대한 수요 충족으로 하고 있다.

폴란드 돌노쉬롱스키주립도서관 WOK 지원자료 수량 및 설문참여 현황

년도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총계
자료	3,549	221	195	250	196	417	380	158	263	216	220		6,065
설문									참여	참여	참여	참여	

(10) 인도네시아 국립도서관 (종료기관)

- 구분: 국립도서관
- 영문명(현지어명): National Library of the Republic of Indonesia(Perpustakaan Nasional Republik Indonesia)
- 개관연도: 1980년
- 국가/도시: 인도네시아/자카르타(주소: Jl. Medan Merdeka Selatan No.11 Jakarta)
- WOK 개관연도: 2010년
- 홈페이지 주소: https://www.perpusnas.go.id/

- 인도네시아 국립도서관은 1980년 국립박물관 도서관과 병합하여 설립되었으며 대통령 직속 독립 정부 기관으로 인도네시아의 도서관 개발센터, 지방도서관을 지원하고 개발하고 있다.
- 도서관은 디렉터리(신문사/정부/보건/도서관/외국 자문기관), 디지털 컬렉션, 온라인 용어사전, 링크 등의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국가서지, 국가연합 온라인 목록을 국립도서관 웹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다.
- 다양한 민족들로 구성된 인도네시아는 국가적으로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사본, 신문, 잡지, 사진, 지도 등을 디지털화하여 제공하고 있다.
- 2010년 도서관 분관 1층에 WOK를 설치하여 인도네시아의 한국어학과와 교민들을 지원하고 있으며, 부족한 자료는 한국의 국립중앙도서관의 디지털 도서관(dibrary)를 통해 지원하였으나 2016년부터 WOK지원을 종료하였다.

인도네시아 국립도서관 WOK 지원자료 수량 및 설문참여 현황

년도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총계
자료	2,598	371	166	209	144	244	0	0	0	0	0		3,732
설문													

(11) 이란 국립도서관

- 구분: 국립도서관
- 영문명(현지어명): National Library and Archive of I.R. IRAN(مرکز اسناد و کتابخانه ملی فارس)
- 개관연도: 1937년
- 국가/도시: 이란/테헤란(주소: Fars Province, Shiraz, Hafez)
- WOK 개관연도: 2010년
- 홈페이지 주소: http://www.nlai.ir/

- 이란 국립도서관은 1898년 국립과학도서관을 설립한 이후 이를 병합하여 1941년 국가도서관으로 국립도서관을 개관하였으나 1937년 국립도서관의 건물 완공시점을 개관연도로 보기도 한다. 1999년 이슬람 혁명 문화 자료 기구(TEBROC)와 통합되어 이슬람 공화국의 기록보존소를 겸하는 역할로 변화됨에 따라 〈이슬람 혁명 이후, 이란과 이슬람의 문어 및 구어 작품을 수집 및 보존, 배포하는 것〉으로 설립 목적을 가진다.
- 도서관은 25만 권의 도서와 특별 컬렉션을 소장하고 있으며, 온라인 서비스로서지 검색, 디지털 도서관(고대의 필사본과 책, 논문, 신문, 그림, 음성 및 영상 자료와 TV 프로그램), 'Faslname-ye Ketab'(국립도서관 e잡지)를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공하고 있다.
- 2010년 도서관 1층의 독립적인 공간에 WOK를 설치하여 파트타임사서에 의해서 입수된 자료를 모두 정리하고 한국어가 지원되는 온라인 목록을 제공하여 관내 대출과 참고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이란 국립도서관 WOK 지원자료 수량 및 설문참여 현황

년도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총계
자료	3,843	151	335	148	324	161	119	112	157	0		5,350
설문								참여	참여	참여		

(12) 터키 국립도서관

■ 구분: 국립도서관
■ 영문명(현지어명): National Library of Turkey(Milli Kütüphane)
■ 개관연도: 1946년
■ 국가/도시: 터키/앙카라(주소: Bahçelievler, İsmet İnönü Blv. No:4, 06490 Çankaya/Ankara)
■ WOK 개관연도: 2011년
■ 홈페이지 주소: http://www.millikutuphane.gov.tr/

- 터키 국립도서관은 1946년 수도 앙카라에 8,000점의 자료로 시작하여 1983년 새건물과 함께 독립기관으로 승격되어 국내외 국가 지식을 수집하여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 도서관은 열람실, 마이크로필름 자료실, 멀티미디어실, 이벤트 홀, 시각 장애인을 위한 'Talking Library'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을 구축한다.
- 또한, 이용자 편의를 위한 도서관서비스로 열람실 이용률 현황, 터키의 모든 도서관의 종합 온라인 목록(TO-KAT: TOPLU KATALOG), 연구자들을 위한 터키(과학관련) 기사 서지, 온라인 DB를 제공하고, 디지털 도서관(Dijital Kütüphane)에는 디지털화되어 있는 필사본, 정기간행물, 포스터 컬렉션을 제공하고 있다.
- 2010년 국립도서관 2층에 WOK를 설치하였으며, 입수된 모든 자료는 2명의 풀타임사서와 2명의 기타 인력과 한국문화원의 도움으로 정리되어 한국어가 지원되는 온라인 목록(MARC 21)을 제공하여 관내 대출을 지원하고 있다.

이란 국립도서관 WOK 지원자료 수량 및 설문참여 현황

년도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총계
자료	3,223	217	206	144	351	131	0	159	0	230		4,661
설문								참여	참여			

(13) 이집트 국립도서관 (종료기관)

- 구분: 국립도서관
- 영문명(현지어명): Egyptian National Library and Archives(دار الكتب والوثائق القومية)
- 개관연도: 1870년
- 국가/도시: 이집트/카이로(주소: 121 Nile Corniche, RAMLET BOULAK، Bulaq, Cairo)
- WOK 개관연도: 2011년
- 홈페이지 주소: http://www.darelkotob.gov.eg/ar-eg/Pages/Home.aspx

- 이집트 국립도서관은 1870년 주로 술탄(Sultan), 왕족, 학자, 성직자, 문인들의 가치 있는 저술을 보관하는 목적의 고문서 보관실로 설립한 후, 1903년 공식적으로 이집트 최대의 국립도서관이자 고문서 보관소로 개관한다.
- 도서관은 최신 정보체제를 도입해서 약 57,000여 점의 파피루스, 고문서, 희귀도서를 전산화하고 있으며, 소장 도서 및 서류를 온라인으로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이집트에는 2005년에 중동·아프리카 최초로 명문 아인샴스 대학에 한국어학과가 개설되는 등 한국에 관한 관심이 높아져 이에 따라 2011년 도서관 5층 인류관에 WOK가 설치되어,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한국인 사서의 도움으로 입수된 자료의 정리와 목록을 제공 및 운영하였으나 2015년 WOK 지원을 종료하였다.

이집트 국립도서관 WOK 지원자료 수량 및 설문참여 현황

년도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총계
자료	3,847	158	148	11	357	170	0	0	0	0		4,691
설문												

(14) 스페인 말라가대학교

■ 구분: 대학도서관 (사회무역학 동아시아도서관)
■ 영문명(현지어명): University of Malaga(Universidad de Málaga)
■ 개관연도: 1991년(대학설립: 1972년)
■ 국가/도시: 스페인/말라가시(주소: Av. de Cervantes, 2, 29016 Málaga)
■ WOK 개관연도: 2011년
■ 홈페이지 주소: https://jabega.uma.es/discovery/search?vid=34CBUA_UMA:VU1&lang=es

- 말라가대학교는 2005년 인천대학교와 업무 협약 후 2011년 한국학을 중심으로 하는 동아시아학과가 개설되고, 인천테크노파크와 안달루시아 테크놀로지파크를 통해 한국과 스페인 기업 간의 지식공유를 위한 정기 회의를 진행하였다.
- 말라가대학은 총 14개의 도서관이 있으며 그 중 사회무역학 동아시아도서관 2층에 WOK가 설치되어 있고 모든 도서관 자료는 하나의 검색시스템(Jabega)을 통해서 어디서든 확인할 수 있다.
- 2011년 설치된 WOK의 장서는 기존의 한국문학번역원과 한국영화진흥위원회의 기증자료와 함께 배치되어 있으며, 자료들은 10명의 기타인력으로 정리되어 한국어가 지원되는 온라인 목록(MARC 21)을 제공하여 대출과 상호대차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 또한, 한국 도서를 소개하는 등 한국을 알리는 문화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 WOK의 운영목적으로는 1) 이용자들의 요구 충족 2) 한류에 대한 수요 충족 3) 한국국립중앙도서관과의 국제협력으로 하고 있다.

말라가대학도서관 WOK 지원자료 수량 및 설문참여 현황

년도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총계
자료	2,909	243	145	275	164	324	524	184	210		4,978
설문							참여	참여	참여	참여	

(15) 벨기에 루벤카톨릭대학교

- 구분: 대학도서관 (동아시아도서관)
- 영문명(현지어명): Catholic University of Leuven(Katholieke Universiteit te Leuven)
- 개관연도: 1996년(대학설립: 1425년)
- 국가/도시: 벨기에/루벤시(주소: Oude Markt 13, 3000 Leuven)
- WOK 개관연도: 2011년
- 홈페이지 주소: https://www.arts.kuleuven.be/koreanstudies/korean-collection

- 루벤대학교는 유럽에서 오래된 역사를 가진 대학 중 하나로, 벨기에에서 가장 큰 규모이며, 한국학과 관련해서는 일본학 학부 과정에 한국어와 한국문화가, 대학원과정에 현대한국사회와 정치가 개설되어 있다.
- 루벤대학교 동방도서관은 벨기에에서 유일하게 동아시아 지역의 자료를 수집 보존 하고 있으며, 한국학장서는 1990년대에 자매대학의 복본 기증으로 시작되어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자료 기증과 2011년 WOK 설치로 확장된다.
- 입수된 한국학 장서는 동아시아도서관의 일본과 한국 담당 풀타임사서와 한인 자원봉사자와 학생들의 지원으로 정리하고 한국어가 지원되는 온라인 목록(MARC 21)을 제공하여 대출과 상호대차, 참고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한국대사관, 문화원과의 협력을 통해서 전시 등의 행사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 이외에도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영화진흥위원회, 한국의 대학과 협력하고 있다.
- WOK의 운영목적으로는 1) 이용자들의 요구 충족 2) 한인커뮤니티 제공 3) 기타로 하고 있다.

루벤카톨릭대학도서관 WOK 지원자료 수량 및 설문참여 현황

년도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총계
자료	2,771	146	110	101	142	128	360	96	139		3,993
설문							참여			참여	

(16) 덴마크 코펜하겐대학교

- 구분: 전문도서관 (북유럽아시아연구소도서관)
- 영문명(현지어명): Copenhagen University(Københavns Universitet)
- 개관연도: 1968년
- 국가/도시: 덴마크/코펜하겐(주소: Nørregade 10, 1165 København)
- WOK 개관연도: 2012년
- 홈페이지 주소: http://www.nias.ku.dk/nias-library

• 북유럽아시아연구소도서관(NIAS LINC)은 1968년 북유럽아시아연구소와 함께 설립되어 코펜하겐대학교의 운영으로 북유럽에서 한국에 관한 가장 방대한 자료를 소장하고 있으며 북유럽 지역의 20여 개 대학과 연구기관의 아시아학 연구자와 학생들을 위한 네트워킹 학습·연구 시스템 지원하고 있다.
• 도서관은 덴마크 국립데이터베이스(Bibliotek.dk)와 왕립도서관 DB REX, 저널과 전자저널 원문서비스, 북유럽 국가들의 도서관과 상호대차, 논문복사 서비스도 제공하며, 2006년에 구축된 아시아포털(Asia Portal)을 통해 아시아 언어의 전자DB를 지원한다. 또한, 한국 연구 및 정보센터(KRiC)를 통해 북유럽 기관에 한국과 관련한 전자 및 인쇄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도서관의 한국 관련 장서는 한국국제교류재단과 2012년에 설치된 WOK의 기증 자료로 구성되며 1명의 파트타임사서에 의해서 정리하고 한국어가 지원되는 온라인 목록(MARC 21)을 제공하여 대출과 상호대차를 지원하고 있다.

코펜하겐대학 WOK 지원자료 수량 및 설문참여 현황

년도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총계
자료	2,094	143	146	342	39	134	152	79	167		3,296
설문							참여				

(17) 필리핀 아테네오대학교

- 구분: 대학도서관 (리잘도서관)
- 영문명(현지어명): Ateneo de Manila University
- 개관연도: 1967년(대학설립: 1859년)
- 국가/도시: 필리핀/마닐라(주소: Katipunan Ave, Quezon City, 1108 Metro Manila)
- WOK 개관연도: 2012년
- 홈페이지 주소: http://rizal2.lib.admu.edu.ph/aiksportal/

• 아테네오 드 마닐라대학교는 2008년 아시아학센터에서 비학위과정으로 한국어를 개설한 후 2012년 한국학연구소가 설립되고 2014년 한국학 과정이 현대어학과 내의 부전공으로 지정되고 2015년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해외 한국학 씨앗형 사업'의 지원을 받아 필리핀 내, 최대의 한국 관련 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 대학에는 3개의 도서관이 있으며 그 중 리잘도서관 4층의 독립적인 공간에 2012년부터 WOK가 설치되었으며 1명의 파트타임사서와 기타인력으로 입수된 장서를 정리하고 한국어가 지원되는 온라인 목록(MARC 21)을 제공하여 대출 및 상호대차, 참고서비스와 한국학 세미나, 문화교류 등의 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 또한, 한국학포털을 통해 필리핀 내의 한국학 자료의 통합 및 상호대차 서비스 지원하기 위한 종합목록을 제공하고 있다.
• WOK의 운영목적으로는 1) 이용자들의 요구 충족 2) 도서 및 미디어 자료지원 3) 한국국립중앙도서관과의 국제협력으로 하고 있다.

아테네오대학 WOK 지원자료 수량 및 설문참여 현황

년도	'12	'13	'14	'15	'16	'17	'18	'19	'20	총계
자료	1,631	227	142	194	36	407	241	75	90	3,043
설문						참여			참여	

(18) 멕시코 콜멕스대학

- 구분: 대학도서관 (다니엘 코시요 비예가스 도서관)
- 영문명(현지어명): The College of Mexico A.C(El Colegio de México)
- 개관연도: 1940년(대학설립: 1940년)
- 국가/도시: 멕시코/멕시코시티(주소: Carretera Picacho Ajusco 20 Ampliación, Fuentes del Pedregal, 14110 Tlalpan, CDMX)
- WOK 개관연도: 2012년
- 홈페이지 주소: https://biblioteca.colmex.mx/

- 대학의 한국학은 1997년 아시아·태평양 연구프로그램 일환으로 도입된 후 석사학위 학생들을 배출했지만 2007년 교수진이 충원되지 않아 한국학 과정 전체가 잠정폐쇄되고 2011년 재개되었지만, 한국어 수업 외에 한국학 과정은 확인할 수 없다.
- 대학과 함께 설립된 인문사회과학분야 전문 연구 도서관은 총장의 이름을 따 다니엘 코시요 비예가스로 불리며, 멕시코뿐 아니라 라틴 아메리카에서 손꼽히는 도서관으로 교수, 연구원, 학생 및 공무원에게 개방되어 있다.
- 도서관에서는 70만 점 이상의 도서와 컬렉션, DB, 전자 및 디지털 리소스를 보유하고 출판물 관리국,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 및 컴퓨터 서비스하고 있다.
- 2012년 도서관 3층에 설치된 WOK는 1명의 풀타임사서가 입수되는 모든 자료를 정리 및 온라인 목록(MARC 21)을 제공하여 대출, 상호대차, 참고서비스하고 있다.

콜맥스대학도서관 WOK 지원자료 수량 및 설문참여 현황

년도	‘12	‘13	‘14	‘15	‘16	‘17	‘18	‘19	’20	총계
자료	790	148	20	16	72	51	0	0		1,097
설문						참여				

(19) 영국 옥스포드대학교

- 구분: 대학도서관 (보들리안 동양학부 도서관)
- 영문명(현지어명): University of Oxford
- 개관연도: 1602년(대학설립: 1096년?)
- 국가/도시: 영국/옥스포드(주소: Oxford OX1 2JD)
- WOK 개관연도: 2013년
- 홈페이지 주소: https://www.bodleian.ox.ac.uk/bodley

- 영어권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의 옥스퍼드대학은 1994년 한국국제교류재단의 강사직 지원을 시작으로 2006년 한국어 및 언어학 영역에서 종신재직권을 획득하여 지속적인 한국학 강의 및 연구를 보장하게 되었다.
- 대학에는 107개의 도서관이 있으며, 한국 장서로는 연구/강의/일본 한국학/미술 및 고고학/필사본 및 인쇄본 고서적/지도/선교활동자료/목록과 2013년 동양학부도서관에 WOK가 설치되어 확대되고 있다. 모든 자료는 옥스퍼드 도서관 카탈로그(SOLO)에 목록화되어있으며 서양어와 한국어, 한자 검색을 지원한다.
- WOK로 입수되는 자료는 한국어에 능숙한 1명의 파트타임사서와 기타인력을 통해 모든 자료를 정리 및 온라인 목록(MARC 21)을 제공하여 대출, 상호대차, 참고서비스하고 있다. 또한, 한국국립중앙도서관, 한국문화원과 협력하여 정기적인 북클럽 이벤트 등 매년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 이외에도 국사편찬위원회, 규장각, 동북아역사재단, 문화재청,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등의 지원과 협력을 맺고 있다.

옥스퍼드대학교 WOK 지원자료 수량 및 설문참여 현황

년도	'12	'13	'14	'15	'16	'17	'18	'19	'20	총계
자료	2,563	208	286	153	89	141	146	155		3,741
설문						참여	참여			

(20) 인도 델리대학교

■ 구분: 대학도서관 (동아시아학 도서관)
■ 영문명(현지어명): University of Delhi (युनिवर्सटिीऑफदल्लि)
■ 개관연도: 1964년(대학설립: 1922년)
■ 국가/도시: 인도/델리(주소: Art Faculty, University Enclave, Delhi)
■ WOK 개관연도: 2013년
■ 홈페이지 주소: http://crl.du.ac.in/easl/

- 델리대학의 한국학은 2009년에 동아시아학과에서 개설되어 4명의 교수진이 석·박사 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 대학은 델리 곳곳에 캠퍼스가 위치하고 있어 37개의 도서관으로 구성되며, 도서관의 서비스는 캠퍼스 네트워크를 통해 교수 및 학생 그리고 연구자에게 제공되고 있다.
- 2013년 동아시아학 도서관 1층에 WOK를 설치하였으며, 입수되는 자료는 3명의 풀타임사서와 1명의 파트타임사서를 통해 정리 및 온라인 목록을 제공하여 대출, 상호대차, 참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또한, 한국국립중앙도서관, 한국문화원과 협력하여 전인도 한국어 말하기 대회 등의 문화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 이외에도 한국국제교류재단과 한국문학번역원의 자료지원을 받고 있다.
- WOK의 운영목적으로는 1) 도서 및 미디어 자료지원 2) 이용자들의 요구 충족 3) 한국국립중앙도서관과의 국제협력으로 하고 있다.

델리대학교 WOK 지원자료 수량 및 설문참여 현황

년도	‘13	‘14	‘15	‘16	‘17	‘18	‘19	’20	총계
자료	1,693	158	185	192	164	0	0		2,392
설문					참여	참여		참여	

(21) 베트남 호치민 인문사회과학대학교

■ 구분: 대학도서관 (인문사회과학 대학 도서관)
■ 영문명(현지어명): The University of Social Sciences and Humanities Vietnam National University Ho Chi Minh City(Trường Đại học Khoa học Xã hội và Nhân văn – Đại học Quốc gia TP.HCM)
■ 개관연도: 년(대학설립: 1957년)
■ 국가/도시: 베트남/호치민시(주소: Linh Trung, Thủ Đức, Ho Chi Minh City)
■ WOK 개관연도: 2014년
■ 홈페이지 주소: http://lib.hcmussh.edu.vn ; https://opac.vnulib.edu.vn

- 호치민 인문사회과학대학교는 베트남국립대학교의 인문사회과학 분야를 연구하는 단과대학으로, 1994년 동양학부에 한국학과 개설하였고, 2010년에 독립학과, 2015년에 독립학부로 개편, 현재 25명의 정규 강사진으로 구성되어 동남아 지역에서 한국학의 선도적인 교육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 1992년 한국과 베트남 수교를 맺은 후 통일연구원, 한국국립중앙도서관,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국제협력단, 한국문학번역원, 대학과 협력을 맺고 있다.
- 특히, 2013년 도서관 1층 독립적인 공간에 WOK가 설치되었고 입수된 자료는 2명의 정규직사서를 통해 정리하고 한국어가 지원되는 온라인 목록(MARC 21)을 제공하여 관내 대출 및 참고, 한국문화원과 협력하여 문화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 WOK의 운영목적으로는 1) 한국국립중앙도서관과의 국제협력 2) 도서 및 미디어 자료지원 3) 이용자들의 요구 충족으로 하고 있다.

호치민 인문사회과학대학 WOK 지원자료 수량 및 설문참여 현황

년도	'13	'14	'15	'16	'17	'18	'19	'20	총계
자료	2,504	123	169	253	146	158	184		3,537
설문					참여	참여	참여	참여	

(22) UAE 아부다비국립도서관 (종료기관)

- 구분: 국립도서관 (Khalifa Park Library)
- 영문명(현지어명): Abu Dhabi National Library(دار الكتب الوطنية)
- 개관연도: 1981년
- 국가/도시: 아랍에미레이트/아부다비(주소: Sheikh Zayed Bin Sultan St, Khalifa Park, Abu Dhabi)
- WOK 개관연도: 2014년
- 홈페이지 주소: https://library.dctabudhabi.ae/

- 아랍에미레이트는 중동지역 중 우리나라 교민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국가로 아부다비국립도서관은 1981년 설립되어 모든 국가 문학 정보의 수집, 보관 및 정리 담당, 1984년 대중에게 서비스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 2014년 아부다비 국립도서관의 분관인 칼리파 파크 도서관에 WOK를 설치하였으며 입수된 모든 자료는 한국문화원의 도움을 통해 정리하고 한국어가 지원되는 온라인 목록(MARC 21)을 제공하여 대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으나, 한국어가 가능한 직원이 없는 등의 운영 문제로 2020년 WOK 지원을 종료하였다.

UAE 아부다비국립도서관 WOK 지원자료 수량 및 설문참여 현황

년도	‘14	‘15	‘16	‘17	‘18	‘19	'20	총계
자료	1,931	182	129	335	192	207		2,976
설문				참여				

(23) 우즈베키스탄 국립도서관

- 구분: 국립도서관
- 영문명(현지어명): National Library of Uzbekistan(Alisher Navoiy nomidagi O'zbekiston Milliy Kutubxonasi)
- 개관연도: 1870년
- 국가/도시: 우즈베키스탄/타슈켄트(주소: 1 Navoi Avenue, Tashkent)
- WOK 개관연도: 2014년
- 홈페이지 주소: https://www.natlib.uz/

- 우즈베키스탄 국립도서관은 1870년 타슈켄트 공공도서관이라는 이름으로 개관한 후 1948년 우즈베키스탄의 유명한 시인 겸 작가 Alisher Navoi로 도서관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2002년 〈국가 문화와 우즈베키스탄 국민의 영적 유산을 위한 중추적 존재로서의 역할과 더불어 우즈베키스탄의 도서관 발전을 위한 기관〉에 관한 법령이 제정되어 국가도서관의 역할을 맡고 있다.
- 국립도서관은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자료를 보관하고 있으며 1999년부터 디지털화를 시작하여 5만 점이 넘는 자료를 온라인 목록으로 제공하고 또한 도서관의 행사와 토론회도 진행하고 있다.
- 2014년 도서관 4층의 독립적인 공간에 WOK를 설치하였으며 한 명의 풀타임 사서가 입수되는 자료를 정리 및 온라인목록(MARC 21)을 제공하여 대출을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문화프로그램을 통해서 한국을 알리는 역할을 활발히 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 국립도서관 WOK 지원자료 수량 및 설문참여 현황

년도	‘14	‘15	‘16	‘17	‘18	‘19	'20	총계
자료	2,848	220	191	323	194	187		3,963
설문				참여	참여			

(24) 엘살바도르대학교

■ 구분: 대학도서관 (과학 및 인문 학부 도서관)
■ 영문명(현지어명): University of El Salvador(Universidad de El Salvador)
■ 개관연도: 년(대학설립: 1841년)
■ 국가/도시: 엘살바도르/산살바도르(주소:Avenida Don Bosco, San Salvador)
■ WOK 개관연도: 2015년
■ 홈페이지 주소: https://biblioteca.ues.edu.sv

- 엘살바도르대학교(UES)는 엘살바도르의 유일한 국립대학으로 1841년 수도에 설립되어 현재 9개의 단과대학 내 169개 학과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관련 수업은 학부 선택과목으로 개설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확인할 수가 없다.
- 대학에는 13개의 도서관이 있으며 이는 UES 라이브러리 시스템으로 관리되고 도서관 포털을 통해서 통합 검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2015년 설치된 WOK는 과학 및 인문학부 도서관에 소속되어 있으며 풀타임사서를 통해서 입수된 자료를 정리 및 온라인 목록을 제공하여 대출과 참고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 WOK의 운영목적으로는 1) 이용자들의 요구 충족 2) 한국국립중앙도서관과의 국제협력 3) 한국문화프로그램으로 하고 있다.

엘살바도르대학교 WOK 지원자료 수량 및 설문참여 현황

년도	‘15	‘16	‘17	‘18	‘19	'20	총계
자료	1,994	146	0	0	327		2,467
설문						참여	

(25) 중국 북경대학교

- 구분: 대학도서관 (외국어대학 조선(한국)언어학부 도서관)
- 영문명(현지어명): Peking University(北京大学 外国语学院)
- 개관연도: 년(대학설립: 1898년)
- 국가/도시: 중국/북경(주소: No. 5, Yiheyuan Road, Haidian District, Beijing)
- WOK 개관연도: 2015년
- 홈페이지 주소: https://www.lib.pku.edu.cn/portal/ http://libsfl.pku.edu.cn/

- 북경대학교는 중국 최초의 현대 국립대학으로 청나라말기에 설립하였으며, 한국학관련 수업은 1945년부터 시작하여 현재는, 외국어대학의 조선(한국)언어학부에서 7명의 교수진과 한국어 강사진으로 한국어학 및 한국학 수업을 학부에서 대학원과정까지 제공하고 있다.
- 또한 1993년에 한국연구센터가 설립되었으며, 북경대학 내의 한국학에 대한 열정이 2015년 WOK설치에 이르게 되었으며, WOK는 조선(한국)언어학부 도서관 내에 위치하고 있다.
- 입수된 모든 한국 자료는 한국어에 능숙한 조선(한국)언어학부 부교수의 풀타임 작업을 통해서 정리와 한국어가 지원되는 온라인 목록을 제공하여 도서관 내부에서 이용을 지원하고 있다.
- WOK의 운영목적으로는 1) 도서 및 미디어 자료지원 2) 이용자들의 수요 충족 3) 한류에 대한 수요 충족으로 하고 있다.

북경대학교 WOK 지원자료 수량 및 설문참여 현황

년도	‘15	‘16	‘17	‘18	‘19	'20	총계
자료	1,391	222	248	195	200	210	2,466
설문						참여	

(26) 미얀마 양곤외국어대학교

■ 구분: 대학도서관
■ 영문명(현지어명): Yangon University Of Foreign Languages
■ 개관연도: 1984년(대학설립: 1964년)
■ 국가/도시: 미얀마(주소: University Avenue Road, Yangon)
■ WOK 개관연도: 2016년
■ 홈페이지 주소: https://www.yufl.edu.mm/demo/library-eng/

- 양곤외국어대학(YUFL)은 1996년 대학으로 승급되었으며 이때 한국어학과를 설치하여 18명의 교수진이 한국어과 학·석·박사 과정을 지원하고 있다.
- 도서관 역시 1996년에 대학도서관 형태로 변모하여 다양한 언어 자료와 컬렉션을 수집하기 시작하였으며, 2001년부터 도서관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기 시작하여 온라인 카탈로그를 제공하였다.
- 2016년 도서관 2층의 독립적인 공간에 WOK를 설치하여 '한국열람실'로 불리우고 있으며 한국어가 가능한 1명의 풀타임사서가 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의 도움으로 입수되는 모든 자료를 정리 및 온라인 목록을 제공하여 대출을 지원하고 있다.
- 양곤외국어대학은 다른 기관과 달리 한국의 대학과 MOU를 맺고 업무 및 교환학생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 WOK의 운영목적으로는 1) 이용자들의 요구 충족 2) 도서 및 미디어 자료지원 3) 한국국립중앙도서관과의 국제협력으로 하고 있다.

양곤외국어대학교 WOK 지원자료 수량 및 설문참여 현황

년도	'16	'17	'18	'19	'20	총계
자료	2,311	470	201	195		3,177
설문		참여	참여	참여	참여	

(27) 이스라엘 히브리대학교

- 구분: 대학도서관 (인문사회과학도서관)
- 영문명(현지어명): The Hebrew University of Jerusalem(אוניברסיטה העברית בירושלים)
- 개관연도: 1981년(대학설립: 1918년)
- 국가/도시: 이스라엘/예루살렘(주소: Bloomfield Library Hebrew University of Jerusalem, Mt. Scopus Campus Jerusalem)
- WOK 개관연도: 2018년
- 홈페이지 주소: https://en.libraries.huji.ac.il/mslib

- 히브리대학교는 7개 단과대학과 14개 학부, 200여 개의 전공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1992년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지원으로 한국어 강의가, 2016년 학부 전공, 2019년 한국학 연구자의 종신재직권을 획득하였다.
- 인문사회과학대학 블룸필드도서관은 자체개발한 ALEPH 프로그램(이후 Alma)을 통해 24개의 학과 도서관의 소장자료를 통합하여 관리 및 제공하고 있다.
- 2016년 도서관 4층에 WOK를 설치하였으며, 기존의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지원 자료들과 함께 위치하고 있다.
- 입수된 한국 자료들은 아시아학과의 WOK 전담 풀타임사서와 한국학과 학생의 지원으로 정리와 온라인목록(MARC 21)을 제공하여 대출과 상호대차를 지원하고 있다.
- 또한, 도서관에서는 한국대사관과 아시아학과와 협력하여 한국의 문화를 알리기 위한 다양한 전시와 행사 및 한국학 강의들을 진행하고 있다.

히브리대 인문사회과학도서관 WOK 지원자료 수량 및 설문참여 현황

년도	‘17	‘18	‘19	'20	총계
자료	1,648	244	224		2,116
설문		참여	참여		

(28) 이탈리아 라 사피엔차대학교

■ 구분: 대학도서관 (동양학 도서관)
■ 영문명(현지어명): Sapienza University of Rome(Sapienza Università di Roma)
■ 개관연도: 1905년(대학설립: 1303년)
■ 국가/도시: 이탈리아/로마(주소: Piazzale Aldo Moro, 5, 00185 Roma RM)
■ WOK 개관연도: 2018년
■ 홈페이지 주소: https://web.uniroma1.it/bibiso/sala-coreana/sala-coreana

- 라사피엔차대학(사피엔자)은 유럽에서 규모가 큰 대학 중에 하나로 11개 학부와 59개 학과가 있으며, 2001년 한국어 강의개설 후 한국어문학과 교수 1명, 연구자 1명, 강사 2명으로 연평균 7개의 학·석사 강의를 제공하고 있다.
- 도서관은 50개로 구성되며, 사피엔자 도서관시스템(SBS)으로 관리하고 있다. 동양학과 도서관의 한국학장서는 15세기 지도부터 찾을 수 있으며 COR섹션과 WOK 섹션에 소장되어, 국가 카탈로그 SBN을 통해 온라인 목록이 구축된다.
- 2018년 도서관의 독립공간에 WOK를 설치하고 볼로냐 아동도서전의 기증도서와 함께 입수된 모든 자료들은 3명의 파트타임사서를 통해 정리와 온라인목록(MARC 21)을 제공하여 대출과 상호대차, 문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 이외에도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문화원, 한국문학번역원, 한국영화진흥위원회과 협력하고 있다.
- WOK의 운영목적으로는 1) 이용자들의 수요 충족 2) 도서 및 미디어 자료지원 3) 한류에 대한 수요 충족으로 하고 있다.

라사피엔차대 동양학부도서관 WOK 지원자료 수량 및 설문참여 현황

년도	‘18	‘19	'20	총계
자료	2,873	205		3,078
설문		참여	참여	

(29) 러시아 국립도서관(상트)

- 구분: 국립도서관
- 영문명(현지어명): National Library of Russia(РОССИЙСКАЯ НАЦИОНАЛЬНАЯ БИБЛИОТЕКА)
- 개관연도: 1795년
- 국가/도시: 러시아/상트페테르부르크(주소: Sadovaya St, 18, St Petersburg)
- WOK 개관연도: 2020년
- 홈페이지 주소: http://nlr.ru/nlr_visit/RA2647/Kabinet-Koreyskoy-Kulturyi

- 러시아 국립도서관은 러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도서관으로 소련 붕괴이전에는 레닌국립도서관으로 불리었다.
- 국립도서관은 러시아의 대규모 디지털화 프로젝트로 모스크바에 있는 국립도서관과 함께 약 8만 권의 도서를 전자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디지털도서관, 보테르도서관, 온라인전시회를 제공하여 직접 도서관에 가지 않아도 어디서든 도서관 자료에 접근을 지원하고 있다.
- 한·러 수교 30주년을 맞아 러시아 내 한국문화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2019년 한국국립중앙도서관의 WOK를 아시아·아프리카 자료실 3층에 설치하였으며 2020년 6월부터 개관하여 운영하고 있다.
- 입수된 자료에 대해서는 한국자료실 담당의 풀타임사서와 상트국립대학의 지원을 받아 정리와 온라인 목록을 제공하여 관내 대출만을 지원하고 있다.
- WOK의 운영목적으로는 1) 한국국립중앙도서관과의 국제협력 2) 한국문화프로그램 운영 3) 이용자들의 요구 충족으로 하고 있다.

러시아국립도서관 WOK 지원자료 수량 및 설문참여 현황

년도	'19	'20	총계
자료	2,688		2,688
설문		참여	

(30) 헝가리 ELTE대학교

■ 구분: 대학도서관 (극동연구소 동아시아학부 한국학과)
■ 영문명(현지어명): Eötvös Loránd University(Eötvös Loránd Tudományegyetem)
■ 개관연도: 1959년(대학설립: 1635년)
■ 국가/도시: 헝가리/부다페스트(주소: Budapest, Egyetem tér 1-3, 1053)
■ WOK 개관연도: 2020년
■ 홈페이지 주소: https://www.konyvtar.elte.hu/szolgaltatasok/e_szolg/online_db.html

- ELTE대학교는 1635년에 가톨릭대학교로 설립되었고, 1950년 헝가리 물리학자 Varon Lorand Eotvos의 이름으로 변경하였으며, 대학은 2008년 인문학부 극동연구소 소속으로 개설되어 9명의 교수진이 비학위과정과 학석사, 박사과정까지 지원하고 있다.
- 대학의 도서관은 부다페스트에서 3번째로 큰 규모로 2009년 EEAS라는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대학의 소장자료와 컬렉션을 관리 및 제공하고 있으며, 1996년 이후에 입수된 자료는 모두 온라인 카탈로그에서, 1995년 이전의 자료는 디지털 카탈로그를 통해 검색을 지원하고 있다.
- 한국 장서는 한국국제교류재단에서 지원한 자료와 2020년 설치된 WOK의 자료로 구성되어, 동아시아학부 한국학과 세미나실의 독립적인 공간에 있으며, 풀타임사서가 통해 정리 및 온라인 목록을 제공하여 대출을 지원하고 있다.
- WOK의 운영목적으로는 1) 이용자들의 요구 충족 2) 도서 및 미디어 자료지원 3) 한국 국립중앙도서관과의 국제협력으로 하고 있다.

ELTE대학교 WOK 지원자료 수량 및 설문참여 현황

년도	'19	'20	총계
자료	2,486		2,486
설문		참여	

2. 인터뷰 가이드

1) 국문

한국자료의 해외 수요 조사 인터뷰 질문지

안녕하세요! 본 조사는 한국의 **국립중앙도서관**의 의뢰로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행하는 연구의 일환으로 수행됩니다. 해외 한국자료 서비스를 개선하고자 수행하는 연구이므로, 외국에서 오신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도움이 필요합니다. 문의가 있으시면, 언제든 명지대 문헌정보학과 권나현 교수 연구팀(nkwon@mju.ac.kr)에 문의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Part A. 기본 질문

1. 간단한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이름, 소속, 국적, 직업, Ethnic background 등)

2. 한국에 대해 언제, 어떤 계기로 처음 관심을 갖게 되셨습니까?

3. 혹시 한국과 관련하여 학업, 일, 연구 등의 경험이 있으십니까?

4. 한국어 구사 능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None, Novice, Intermediate, Advanced)

5. 만약 한국어를 배워 본 경험이 있다면, 왜 배우려고 하셨고 또 어디에서 배웠습니까? 한국어를 못하신다면, 혹시 앞으로 배울 계획이 있으십니까?

6. 한국에 대한 관심은 주로 어떤 분야들입니까?

7. 한국에 관해 주로 찾게 되는 정보도 그 분야이십니까? 혹시 앞으로 좀 더 알아 보고 싶은 분야/주제가 있으십니까?

Part B. 본국에서의 한국 정보 이용 경험

8. 한국에 오시기 전 고국이나 다른 외국에서 한국자료가 필요했던 상황 중에서 가장 최근의 경험이나, 또는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을 떠올려 보세요.

   1)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즉 어떤 상황에서 한국 관련 자료를 찾아보려 하셨습니까?

   2)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들을 찾아보고 싶으셨습니까?

   3) 찾은 자료들은 만족스러웠습니까?

   4)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어떤 부분이 만족스럽지 않았습니까?

   5) 한국자료를 찾는데 어려움을 느끼거나 원하는 자료를 못 찾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6) 만약 원하는 자료를 못 찾았을 때 누군가에게 도움을 구해보았는지요? 그 도움이 유용했나요? 그렇지 않았나요?

   7) 결국 원래 해결하려고 했던 문제가 해결되었나요?

Part C. 한류

9. 국제적인 한류의 확산이 자신의 한국자료 이용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까? 만약 그렇다면, 어떤 점에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10. 흔히 한국에 대한 관심이 "**한류에 대한 관심 ⇒ 한국어 학습⇒ 한국학 공부**"로 진화, 발전한다고 말합니다.
    a.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만약 동의하신다면, 어느 단계에 있으십니까?

    b. 각 단계에서 어떤 자료가 주로 필요하셨습니까? 각 단계에서 한국자료를 쉽고 충분히 찾을 수 있었습니까?

11. 한국 바깥 지역에서 한국관련 정보는 주로 어디에서 어떤 형태의 자료를 통해 찾아 보셨습니까?
    (종이책/정기간행물, 전자책/전자매거진, 오디오북, 온라인 학술자료(DB/논문), CD/DVD, 스트리밍 서비스 등, 인터넷 검색, 소셜미디어 등)

12. 선호하는 한국자료의 지원형식는 어떤 것입니까?
    (종이책, 전자책, 온라인 학술자료 [DB/학술논문], 음원, 영상 스트리밍서비스 등)

Part D. 해외 한국관련 자료 지원 도서관

13. 인터넷 검색을 제외하고, 한국자료 이용을 위해 자료실/도서실/도서관을 방문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있으시다면 특별히 더 이용하신 곳은 어디입니까?

a. 위 기관을 이용하면서 특별히 만족스러웠거나 아니면 개선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알려주세요.

14. WOK(Window On Korea)는 한국의 역사·문화에 관심 있는 해외 이용자를 위해 한국의 국립중앙도서관이 외국의 국립도서관이나 대학도서관에 설치한 한국 관련 자료실입니다. 혹시 들어보거나 이용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a. 만약 없었다면, WOK와 같은 자료실이나 여타의 해외 한국자료실을 앞으로 이용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15. 앞으로 국립중앙도서관과 같은 한국 기관들이 해외에서 한국 관련자료를 찾는 사람들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16. 향후 해외 한국자료 지원 및 서비스의 향상을 위해 도서관이 어떻게 지원해 드리면 좋을까요? 개선할 점이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점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예: 한글검색, 한국도서/정보에 대한 종합안내, 한국 주요 도서관에 대한 안내 등)

/아래 질문들은 *WOK*를 이용해 보신 분들께만 해당되니 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Part E. WOK 이용자 Only

17. Window on Korea (WOK)에 대해 처음에 어떻게 알게 되셨습니까? 어떤 목적으로 이용하셨습니까?

22. WOK 이용하실 때 어떤 인상을 받으셨습니까?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23. 이용하면서 좋았던 점(흥미로웠던 점)이나 아쉬웠던 점은 무엇이었습니까?

2) 영문

Interview Guide: Foreign Access to Korean material Overseas

Hello! We are a group of researchers who are asked by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to conduct for a study. The study aims at improving the Korean material services outside Korea. Thus, it's important to learn about the current uses and needs of Korean material from people like you. Your response will be essential in developing future plans to support Korean materials overseas. If you have any questions about this study, please let us know at woksurvey20@gmail.com. Thank you!

Part 1. Preliminary Questions

1. Please tell us about yourself (Name, affiliation, nationality, gender, current situation in life, ethnic background)

2. When did you first become interested in Korea? What was the motivation?

3. Are you currently doing Korea-related work or study?

4. What is the level of proficiency in Korean?(advanced, intermediate, novice, none)

5. If you have an experience of learning Korean, what was the motivation? Where did you learn it? If you don't speak Korean at all, are you planning to do it?

6. What are your main interests in Korea?

7. Is that the same subject that you look for information about Korea? Do you have any other subjects you consider learning more about in the future?

Part B. Korean Information Search Experience at Your Home Country

8. Please think about your recent memory or the most memorable situation when you attempted to find out Korea-related materials overseas.

   1 In what situation did you look for information or materials related to Korea?

   2 What kind of materials did you want to find specifically?

   3 How satisfied were you with the materials you were trying to find?

   4 If not, what were you not satisfied with?

   5 When you faced problems in accessing Korean materials, how did you handle the situation?

   6 When you failed to find the sources you need, have you tried to ask someone for help? If you did, was it helpful? Wasn't it that case?

   7 Did you get the problem resolved at the end?

Part C. Hallyu (Korean Wave)

9. Do you think that the global spread of Hallyu (Korean Wave) impacts your use of Korean materials? If YES, do you think that supporting Korean sources on Hallyu overseas should be expanded? What part of Hallyu are you most interested in personally?

10. People say that the interest in Korea gets developed in this order: Starting from Hallyu ⇒ Korean language learning ⇒ Korean studies in many subject fields.

    a. Do you agree or disagree to this viewpoint? If agreed, where are you?

    b. What types of Korean-related material were needed in each stage ? Where and how did you find them? Is it easy to get enough information?

11. Where did you obtain Korea-related information, and what type of information sources do you use to obtain Korea-related information?
    (※*information sources examples: paper book/periodical, e-book/ e-journal, Online databases/thesis, CD/DVD, streaming service, social media platform, internet search*)

12. Do you have any preference in material formats among various information sources?

Part D. Needs for Korean Library Collection Overseas

13. Except for internet search, have you visited any kind of library to access Korean materials? If YES. what type of source or topic primarily did you use at the institution?

14. How satisfied were you with using the institution (library)? Or do you have a comment or any suggestion that you think would help improve the way they offer?

15.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opens a WOK (Window on Korea) in major libraries overseas in order to help those who want to access Korean materials and to promote Korean culture around the world. Have you ever heard of used it?

16. If no, would you be interested in using such library or other Korean libraries outside Korea?

17. What could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or other government institutes do more to assist people who are looking for Korean materials outside Korea?

18. If you have anything you would like to add or which you feel may improve the services on Korean materials overseas, please write a comment or suggestion below (e.g., search in Korean, a one-stop, comprehensive guide to Korean libraries and material exchange, An Internet Portal that collects information about Korea and Korean Materials)

[Questions below are only applicable to people who have used WOK before. If you have not used WOK, the interview ends here. Thank you so much for your kind answers.]

Part E. WOK (Window on Korea) users Only

19. When was the first time that you have learned about Window on Korea (WOK)? What has made you use it?

20. What was your impression of WOK?

21. What were the things you liked and disliked?

The interview ends here. Thank you so much for your kind answers.

3. 이용자 설문지

1) 국문

한국관련자료는 어떻게 찾아 보고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저희는 한국의 국립중앙도서관의 의뢰를 받아 해외 한국자료 서비스의 개선 방안을 연구하는 명지대학교의 연구진입니다.

한국자료 이용에 관해 여러분께 몇 가지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답변은 앞으로 여러분과 같은 해외 이용자들이 더 편하게 한국자료를 이용하도록 돕고 국립중앙도서관의 해외 서비스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설문은 단 5분-10분 정도 걸립니다. 익명으로 응답하시게 되며, 응답하신 내용은 오직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입니다. 이 설문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이메일 (woksurvey20@gmail.com)로 문의주십시요.

설문에 참여해 주시는 분들께는 감사의 표시로, 세 분을 추첨하여 애플 에어팟을 드립니다.
그럼 참여에 동의하시면, 바로 아래 질문부터 시작해 주십시요.

이 조사를 위해 기꺼이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설문에서 "한국관련자료" 또는 "한국자료"는 주제나 언어 등의 측면에서 한국과 관련있는 모든 자료를 의미합니다.)
* Required

한국에 대하여

1. 한국에 대한 귀하의 관심은 대략 어느 정도입니까? *

Mark only one oval.

	1	2	3	4	5	6	7	8	9	10	
전혀 관심이 없다	◯	◯	◯	◯	◯	◯	◯	◯	◯	◯	매우 관심있다

2.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대략 몇 년도부터입니까? (예: 2020)

_____

3. 한국과 관련된 일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해당하는 곳에 모두 체크해 주세요.

Check all that apply.

- ☐ 언어 관련 (language)
- ☐ 연구 관련 (research)
- ☐ 비영리 목적으로 공공 또는 민간 교류 (non-profit exchanges)
- ☐ 영리 목적의 비지니스 (business for profit)
- ☐ 해 본적이 없다

Other: ☐ _____

4. 한국 관련해 어떤 분야에 가장 관심이 많으십니까? 관심이 큰 순서대로 3개를 선택해 주세요. (참고로, K-컬처는 K-팝, K-드라마, K-시네마, K-푸드, K-뷰티, 패션, e스포츠 등을 포함합니다) *

Mark only one oval per row.

	K-컬처	한국어 학습	예술 & 역사	철학 & 종교	문화 & 문학	사회과학	과학 & 기술	Others
1순위	◯	◯	◯	◯	◯	◯	◯	◯
2순위	◯	◯	◯	◯	◯	◯	◯	◯
3순위	◯	◯	◯	◯	◯	◯	◯	◯

5. 귀하의 한국어 실력은 어느 정도이신지요? *

Mark only one oval.

- ◯ 전혀할 줄 모름
- ◯ 초급
- ◯ 중급
- ◯ 고급

6. 한국어를 배워본 경험이 있습니까? *

Mark only one oval.

- ◯ 예
- ◯ 아니오

7. 만약 배워본 경험이 있었다면, 어떤 목적으로 배우셨는지요?

_____

8. 조만간 한국어를 배우거나 더 배울 계획이 있으십니까? *

Mark only one oval.

- ◯ 예
- ◯ 아니오

9. 세계적으로 한국에 대한 관심이 커졌습니다. 한국에 대한 관심은 대체로 한류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해 한국어 학습과 한국학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이 말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

Mark only one oval.

- ◯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 동의하지 않는다
- ◯ 대체로 동의한다
- ◯ 매우 동의한다

10. 현재 귀하는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해당하는 곳에 모두 체크해 주세요. *

Check all that apply.

- ☐ 한류
- ☐ 한국어 학습
- ☐ 한국학
- ☐ 특별한 관심이 없음

한국 관련 정보 찾기

이 설문에서 "한국 관련 정보" 는 주제나 언어 측면에서 한국과 관련있는 모든 정보를 의미합니다.

11. 한국 관련 정보를 찾을 때 귀하가 가장 잘 이용하는 정보원은 무엇입니까? 3개를 선택해 주세요. *

Check all that apply.

- [ ] 종이책 / 종이잡지
- [ ] 전자책(e-book)
- [ ] 전자 잡지
- [ ] 온라인 학술 자료 (DB, 논문)
- [ ] 인터넷
- [ ] 주변 사람 (가족, 친구, 동료 등)
- [ ] 교사 / 교수
- [ ] 온라인 커뮤니티 / 소셜미디어 (예: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 [ ] 온라인 음원, 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한국의 국립중앙도서관의 한국자료실(Window on Korea)

'한국자료실 (WOK: Window on Korea)'은 해외에서 한국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한국의 국가대표도서관인 국립중앙도서관이 세계 주요 도서관에 설치, 운영하고 있는 한국 자료 컬렉션입니다.

12. 귀하는 한국의 국립중앙도서관이 제공하는 "Window on Korea"를 이용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

Mark only one oval.

- ◯ 예 *Skip to question 13*
- ◯ 아니오 *Skip to question 24*

WOK 이용 경험에 대하여

13. 귀하는"Window on Korea"를 어떻게 알게 되셨습니까? *

Mark only one oval.

- ◯ 지인 소개
- ◯ 도서관을 방문했을 때 우연히
- ◯ 자료를 찾아보다가 우연히
- ◯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 ◯ 홍보를 통해
- ◯ 어학기관/대학교를 통해
- ◯ 한국대사관/한국문화원/한국파견 공공기관 (예: 세종학당, KF, 한국학중앙연구원)
- ◯ Other: _____

14. 대략 몇 년도에 처음 "Window on Korea"를 이용하셨습니까? (예: 2020)

_____

15. 평균적으로 "Window on Korea"를 얼마나 자주 이용하십니까? *

Mark only one oval.

- ◯ 연 1회 또는 그 미만
- ◯ 6개월에 1~2회 정도
- ◯ 3개월에 1~2회 정도
- ◯ 1개월에 1~2회 정도
- ◯ 주 1회 이상

16. "Window on Korea"를 한번 방문할 때 평균적으로 얼마 동안 이용하십니까? *

Mark only one oval.

- ◯ 10분 미만
- ◯ 10~30분 정도
- ◯ 30분~1시간 정도
- ◯ 3시간 미만
- ◯ 3시간 이상

17. 주로 어떤 목적으로 "Window on Korea"를 이용하십니까? 해당하는 곳에 모두 체크해 주세요. *

Check all that apply.

- ☐ 자료 이용
- ☐ 공간 이용
- ☐ 도서관 직원/사서에게 도움이나 질문하기 위함
- ☐ 문화 프로그램 / 전시 참여
- ☐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Other: ☐ _____

18. "Window on Korea"에서 주로 이용하는 주제 분야는 무엇입니까 ? 해당하는 곳에 모두 체크해 주세요. *

Check all that apply.

- [ ] 한국어 관련
- [ ] 한국 대중문화 (K-팝 / K-드라마 / K-시네마 / K-푸드 / K-뷰티 / 패션 / e-스포츠)
- [ ] 예술 & 역사
- [ ] 철학 & 종교
- [ ] 문화 & 문학작품
- [ ] 사회과학
- [ ] 과학 & 기술
- Other: [ ] _____

19. "Window on Korea"을 이용하시면서, 도서관 직원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

Mark only one oval.

- ◯ 예 *Skip to question 31*
- ◯ 아니오 *Skip to question 31*

20.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받으셨습니까? 해당하는 곳에 모두 체크해 주세요. *

Check all that apply.

- [ ] 일반적인 자료실 이용 안내
- [ ] 자료검색 방법 / 검색시스템 이용 안내
- [ ] 연구 / 업무에 필요한 자료 안내
- [ ] 한국에 대한 일반적인 안내
- [ ] 도움받은 적이 없다
- Other: [ ] _____

21. 전반적으로 "Window on Korea"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Mark only one oval.

- ◯ 매우 불만족
- ◯ 불만족
- ◯ 만족
- ◯ 매우 만족

22. "Window on Korea"를 이용하시면서, 아래 각 항목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고 계십니까?

Mark only one oval per row.

	매우 불만족	불만족	만족	매우 만족
자료의 양(Quantity)	◯	◯	◯	◯
자료의 질 (Quality)	◯	◯	◯	◯
자료의 최신성	◯	◯	◯	◯
주제의 다양성	◯	◯	◯	◯
자료 이용의 편리성	◯	◯	◯	◯
검색 시스템	◯	◯	◯	◯
자료실 시설	◯	◯	◯	◯
사서 / 직원의 도움	◯	◯	◯	◯

23. 귀하의 이용 경험을 토대로, "Window on Korea"서비스를 개선하는데 도움될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용하면서 느꼈던 좋았던 점이나 불편했던 점들을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Skip to question 31

한국자료실에 대한 의견 조사

24. 귀하는 "Window on Korea"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

Mark only one oval.

◯ 예
◯ 아니오

25. 알고 계셨는데 이용해 보지 않으셨다면, 실례지만 그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26. 한국자료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도서관이 귀하에게 얼마나 필요하십니까? *

Mark only one oval.

	1	2	3	4	5	6	7	8	9	10	
전혀 필요하지 않다	◯	◯	◯	◯	◯	◯	◯	◯	◯	◯	매우 필요하다

27. 만약 필요하다고 느끼셨다면, 어떤 서비스를 기대하십니까?

28. 현재 한국 자료를 이용하기 위해 주로 사용하는 도서관이나 서점, 혹시 다른 기관이 있으십니까?

Mark only one oval.

◯ 있다
◯ 없다 *Skip to question 31*

29. 있다면, 어떤 기관입니까?

30. 위의 기관을 이용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기관에서 한국 자료를 이용하면서 느꼈던 좋았던 점이나 불편했던 점들을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한국자료실에 대한 기대

여러분이 한국 관련 자료를 찾으실 때 무엇을 원하시는 지 알고 싶습니다.

31. 귀하가 거주하시는 지역에 이상적인 한국자료실이 제공된다면 어떤 도서관일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자료실을 기대하십니까? 매우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다섯 항목에 체크해 주십시오. *

Check all that apply.

- [ ] 한국에 관한 최신 자료를 빨리 제공한다
- [ ] 높은 퀄리티의 자료를 엄선해서 제공한다
- [ ] 나의 모국어로 된 자료가 많다
- [ ] 한국어로 된 자료가 많다
- [ ] 영어로 된 자료가 많다
- [ ] 내 나라에 관한 한국어 자료가 있다
- [ ] 전자책, 전자저널, DB가 많다
- [ ] 온라인으로 집에서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 [ ] 전자기기를 대여받을 수 있다
- [ ] 자료 접근에 도움을 줄 사서가 있다
- [ ] 다양한 영상매체 (음악,영화)를 즐길 수 있다
- [ ] 문화 프로그램 / 전시가 열린다
- [ ] 함께 토론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 [ ] 한국 사회 각 분야에 관한 최근 동향 정보들을 얻을 수 있다
- [ ] 자료실을 통해 다른 한국에 있는 또는 한국 관련 도서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Other: [ ] _____

32. 한국 관련 자료를 찾을 때, 어떤 형태의 자료를 선호하십니까? 가장 선호하시는 세 개를 선택해 주세요. *

Check all that apply.

- [ ] 종이책
- [ ] 종이 잡지
- [ ] 전자책
- [ ] 전자 잡지
- [ ] 오디오북
- [ ] 온라인 학술자료 (논문 DB)
- [ ] 온라인 음원, 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 [ ] CD / DVD

Other: [ ] _____

33. 한국 관련 자료를 찾을 때, 도서관 직원이나 사서가 어떻게 도와드리면 좋으실까요? 제시된 각 항목의 중요도를 평가해 주세요. *

Mark only one oval per row.

	전혀 중요하지 않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관심분야 자료 안내와 수집	◯	◯	◯	◯
자료 이용 및 검색에 대한 도움	◯	◯	◯	◯
한국에서 생산된 자료에 대한 지식	◯	◯	◯	◯
한국 문화에 대한 깊이있는 이해	◯	◯	◯	◯
신속한 자료 입수	◯	◯	◯	◯

34. "한국자료실"을 알리는 가장 효과적인 홍보 경로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Mark only one oval.

- ◯ 온라인 커뮤니티 / 소셜미디어
- ◯ 어학 기관 / 학교
- ◯ 대학 도서관
- ◯ 국립 도서관 또는 공공도서관
- ◯ 한국에서 파견된 공공기관 (예: 한국문화원, 한국대사관)
- ◯ 한국 민간 기업
- ◯ 아는 사람
- ◯ Other: _____

참여자에 대하여

이 설문에는 전 세계에서 한국에 대해 관심있는 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참여자들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고자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편하게 대답해 주세요.

35. 귀하의 국적은 어디입니까?

_____

36. 현재 거주하고 계신 국가는 어디입니까? *

_____

37. 귀하는 어떤 연령대입니까?

Mark only one oval.

- ◯ 10대 이하
- ◯ 20대
- ◯ 30대
- ◯ 40대
- ◯ 50대
- ◯ 60대 이상

38. 다음 중 귀하를 가장 잘 나타내는 그룹은 무엇입니까?속하는 그룹이 없으면 "Other" 을 선택하신 후 그 옆에 직업 또는 현재 하시는 일을 써 주십시요. *

Mark only one oval.

- ◯ 초, 중, 고등학생
- ◯ 대학생
- ◯ 대학원생
- ◯ 한인교민 및 한국인
- ◯ 연구자 / 교수
- ◯ 교사
- ◯ Other: _____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9. 저희는 한국 바깥 지역에서 한국 관련 정보를 찾는 분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 환경을 만들고자, 여러분의 생각을 조금 더 듣고 싶습니다. 혹시 연락을 드려 의견을 여쭈어 봐도 될지요? 참여해 주신 분들께는 작은 감사 선물을 드립니다.

Mark only one oval.

- ◯ 예
- ◯ 아니오

40. 끝까지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설문을 완성해 주신 분 중에서 세 분을 추첨하여 애플 에어팟을 드립니다. 참여하실 분들은 이메일 주소를 남겨 주십시오.

_____

This content is neither created nor endorsed by Google.

Google Forms

한국자료에 대한 해외의 수요 조사 (후속조사)

안녕하세요! 한국의 국립중앙도서관 의뢰로 수행되는 본 연구에 관심을 갖고 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해진 질문에 답하게 되는 설문과 다르게, 저희는 본 서면인터뷰 질문을 통해 해외 한국자료 이용자들의 구체적이고 생생한 이용경험, 희망사항들을 파악하고 싶습니다.

질문 중에서 선생님께 해당되지 않는 질문이라 생각되시면 건너뛰셔도 전혀 문제없으니, 해당하시는 질문에만 답해 주시면 됩니다.

본 조사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명지대 문헌정보학과 권나현 교수 연구팀 (nkwon@mju.ac.kr)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쁜 시간 내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이 설문에서 "한국관련자료" 또는 "한국자료"는 주제나 언어 등의 측면에서 한국과 관련있는 모든 자료를 의미합니다.)

기본 질문

1. 간단한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현재 하고 계시는 일, 연구분야, 국적, 모국어, 한국관련 경험 등).

2. 현재 어떤 한국자료들을 주로 이용하십니까? 또한 앞으로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료들도 말씀하여 주십시오.

기억에 남거나 가장 최근에 한국 자료를 찾아본 경험

한국자료를 찾아 본 경험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이나 가장 최근의 경험을 하나 떠올려 보십시오.

3.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한국 관련 자료를 찾아 보려 하셨습니까? 자료를 찾은 목적, 이용한 기관, 자료의 주제와 유형 등을 자유롭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4. 한국 자료를 찾는데 어려움을 느끼셨거나 또는 원하는 자료를 못 찾으셨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국립중앙도서관의 Window on Korea (WOK)

'한국자료실 (WOK: Window on Korea)'은 해외에서 한국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한국의 국가대표도서관인 국립중앙도서관이 세계 주요 도서관에 설치, 운영하고 있는 한국 자료 컬렉션입니다.

5. WOK를 방문하여 이용하셨을 때 어떤 인상을 받으셨습니까?

6. WOK를 이용하시면서 특별히 좋았던 점이나 아쉬웠던 점, 또는 더 희망하시는 점은 무엇인지요?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점들을 생각하시는 대로 자유롭게 말씀해 주십시요.

한국 자료 지원 서비스에 대한 기대와 요청

7. 한국 자료를 찾거나 이용하실 때 주로 어떤 점에서 어려움을 느끼십니까?

8. COVID19 상황이 앞으로 귀하의 한국자료 이용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9. 앞으로 국립중앙도서관과 같은 한국 기관들이 선생님과 같이 해외에서 한국 자료를 찾는 분들을 위해서 추가했으면 좋을 지원과 서비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자유롭게 말씀해 주십시오.

한국어로 자료를 찾을 수 있는 검색 서비스	한국 도서관과 한국자료에 대해 한 번에 알 수 있는 종합 안내
한국에 관한 정보와 한국 자료들을 모아 놓은 신뢰할 수 있는 포털사이트	원스톱 참고 서비스 ("사서에게 물어보세요"와 같은 서비스)
상호 대차 서비스 또는 원문 복사/스캔 서비스	번역 서비스

10. 귀하의 이메일을 알려주세요. (적어주신 이메일을 귀하의 설문응답과 연결시키고자 합니다.)

인터뷰 질문에 긴 시간을 내시어 성심껏 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This content is neither created nor endorsed by Google.

Google Forms

2) 영문

How do you find information on Korea?

Hello! On behalf of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we are conducting a research to improve its overseas services. We are interested in learning about your needs for Korean materials and the way you look for them.

The survey takes only about 5~10 minutes and is entirely anonymous. Your responses will be used only for research purposes. In case you have any questions regarding the survey, please send us an email at woksurvey20@gmail.com.

Upon completion of the survey, you will be entered for a chance to win one of three pairs of Apple AirPods.

Now, if you agree to participate, please go to Question 1. We thank you for your time and help.

(*"Korean materials" in this survey means any material that relates to Korea in terms of topics, languages, etc.)
* Required

About Korea

1. How would you describe your level of interest in Korea on a scale of 1 to 10? *

Mark only one oval.

	1	2	3	4	5	6	7	8	9	10	
Not interested at all	◯	◯	◯	◯	◯	◯	◯	◯	◯	◯	Very interested

2. When did you become interested in Korea? Please write an approximate year (e.g., 2020)

_____

3. Has your job ever been related Korea? Please check all that apply.

Check all that apply.

- ☐ Language education and learning
- ☐ Research
- ☐ Non-for-profit, public sector
- ☐ For profit, business sector
- ☐ Not at all

Other: ☐ _____

4. Of the following Korea-related areas, please rank the top three topics that interest you most. (*K-Culture includes K-Pop / K-Drama / K-Film / K-Food /K-Beauty / K-Fashion / e-Sports) *

Mark only one oval per row.

	K-Culture	Korean Language Learning	Arts & History	Philosophy & Religion	Culture & Literature	Social Sciences	Science & Technology	Othe
Top 1	◯	◯	◯	◯	◯	◯	◯	◯
Top 2	◯	◯	◯	◯	◯	◯	◯	◯
Top 3	◯	◯	◯	◯	◯	◯	◯	◯

5. What is your level of proficiency in Korean language? *

Mark only one oval.

- ◯ None
- ◯ Beginner
- ◯ Intermediate
- ◯ Advanced

6. Have you ever learned Korean? *

Mark only one oval.

- ◯ Yes
- ◯ No

7. If yes, what has motivated you to learn it?

_____

8. Do you plan to study Korean in the near future? *

Mark only one oval.

- ◯ Yes
- ◯ No

9. More people around the world are interested in Korea. It is said that the such interest starts from Hallyu (Korean Wave) and move onto learning Korean and Korean Studies in various subject fields. Do you agree or disagree with the statement? *

Mark only one oval.

- ◯ Strongly disagree
- ◯ Somewhat disagree
- ◯ Somewhat agree
- ◯ Strongly agree

10. What is your current interests? Please check all that apply. *

Check all that apply.

- ☐ Hallyu (Korean Wave)
- ☐ Learning Korean
- ☐ Korean studies
- ☐ No or little interest

Looking for information on Korea

11. Which of the following sources do you mostly use to find information that relates to Korea. Please select three most important sources to you. *

Check all that apply.

- ☐ Printed books / Printed magazines
- ☐ e-book
- ☐ Online magazines
- ☐ Online scholarly databases
- ☐ Web
- ☐ Family, friends, or colleagues
- ☐ Teachers or professors
- ☐ Online community/Social media(e.g., YouTube, FB, Instagram, Twitter)
- ☐ Music and video streaming services

"Window on Korea (WOK)" of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opens a 'Window on Korea (WOK)' collection in major libraries overseas in order to help those who want to access Korean materials and to promote Korean culture around the world.

12. Have you ever used "Window on Korea" before? *

Mark only one oval.

- ◯ Yes *Skip to question 13*
- ◯ No *Skip to question 24*

Using "Window on Korea (WOK)"

13. Where did you learn about "Window on Korea"? *

Mark only one oval.

- ◯ People that I know of
- ◯ At the library
- ◯ While looking for information
- ◯ Online community / Social media
- ◯ PR
- ◯ Language school / College / School
- ◯ Korean Embassy, Korean Cultural Center, or other Korean public institutes
- ◯ Other: _____

14. What was the year you visited "Window on Korea" for the first time? (e.g., 2020)

_____

15. On average, how often do you use "Window on Korea"? *

Mark only one oval.

- ◯ Less than once a year
- ◯ 1-2 times every 6 months
- ◯ 1-2 times every 3 months
- ◯ 1-2 times per month
- ◯ Once a week or more

16. On average, how long do you stay at "Window on Korea" in one visit? *

Mark only one oval.

- ◯ About 10 minutes or less
- ◯ About 10 to 30 minutes
- ◯ About 30 minutes to 1 hour
- ◯ Less than 3 hours
- ◯ About 3 hours or more

17. When do you go to "Window on Korea" in general? Please check all that apply. *

Check all that apply.

- ☐ To use library materials
- ☐ To use library space
- ☐ To ask for personal assistance
- ☐ To attend cultural programs and exhibitions
- ☐ To meet with people

Other: ☐ _____

18. Which of the following topics do you look for at "Window on Korea"? Please check all that apply.

Check all that apply.

- ☐ Korean Language
- ☐ K-culture (K-pop/K-drama/K-Film/K-Food/K-Beauty/Fashion/e-Sports)
- ☐ Art & History
- ☐ Philosophy & Religion
- ☐ Culture & Literature
- ☐ Social Sciences
- ☐ Science & Technology

Other: ☐ _____

19. Have you ever got help from a library staff *

Mark only one oval.

- ◯ Yes
- ◯ No

20. What specific assistance did you get? *

Check all that apply.

- [ ] How to use the library in general
- [ ] How to search information or how to use search system
- [ ] Guide to information to help my research or my business
- [ ] General information about Korea
- [ ] Not applicable to me

Other: [ ] _____

21. In general, how satisfied are you with the "Window on Korea" services? *

Mark only one oval.

- ◯ Very dissatisfied
- ◯ Dissatisfied
- ◯ Satisfied
- ◯ Very satisfied

22. How satisfied are you with each of the following services at "Window on Korea"?

Mark only one oval per row.

	Very dissatisfied	Dissatisfied	Satisfied	Very satisfied
Collection size	◯	◯	◯	◯
Collection quality	◯	◯	◯	◯
New materials	◯	◯	◯	◯
Subject coverage	◯	◯	◯	◯
Easy to use	◯	◯	◯	◯
Easy search system	◯	◯	◯	◯
Comfortable spaces and facilities	◯	◯	◯	◯
Library staff	◯	◯	◯	◯

23. Based on your experiences, please feel free to share your opinions or suggestions for "Window on Korea" services. You may talk about things you liked and disliked about its materials, staff, space, etc.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Skip to question 31

About Korean Library Collection

24. Have you ever heard about "Window on Korea" before? *

Mark only one oval.

- ◯ Yes
- ◯ No

25. If you answered "Yes" above, please feel free to comment on the reasons why you didn't use.

_____

26. How important is it to you to have a library that provides services with Korean materials? *

Mark only one oval.

	1	2	3	4	5	6	7	8	9	10	
Not important at all	◯	◯	◯	◯	◯	◯	◯	◯	◯	◯	Very important

27. If you feel it important, what kinds of services would like to have from the library?

_____

28. Is there any library or other institutions you go to look for Korean materials?

Mark only one oval.

- ◯ Yes
- ◯ No

29. If yes, which library or institution is it?

_____

30. Could you tell us why you visited the library or institution? You may talk about what you liked or disliked about using it.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Your Expectations on Korean Collection

Now, we'd like to ask you about your needs for Korea resources and library services.

31. Imagine briefly what it would be like if an ideal Korean library collection were offered to you in your area. What would you expect from from it? Please select the five most important things from the following list: *

Check all that apply.

- [ ] Provides newly published Korean materials quickly
- [ ] Provide carefully selected materials with high quality
- [ ] Has good amount of materials in my mother tongue
- [ ] Has lots of materials in Korean
- [ ] Has lots of materials in English
- [ ] Provides information on my country written in Korean
- [ ] Provides online database, journals, e-books
- [ ] Allows to access online materials at home
- [ ] Can check out electronic devices
- [ ] Has a librarian or staff to assist library users
- [ ] Can enjoy various multimedia (music, movies)
- [ ] Offers cultural programs and exhibitions
- [ ] Provides a space for discussions and seminars
- [ ] Learn about the current information on Korean society and culture
- [ ] Can connect to other Korean library collections via the library

Other: ☐ _____

32. 28. When you find materials on Korea, what type of materials do you prefer? Please select three from the list below. *

Check all that apply.

- [ ] Printed books
- [ ] Printed magazines
- [ ] E-Books
- [ ] Online magazines
- [ ] Audio books
- [ ] Online journals (WebDBs)
- [ ] online streaming services
- [ ] CDs /DVDs

Other: ☐ _____

33. What kind of personal assistance would you like to have from the library staff or a librarian when you look for Korean materials? Please rate the importance of each of the following. *

Mark only one oval per row.

	Not important at all	Slightly important	Important	Very important
Providing information for my research	◯	◯	◯	◯
Helping to search and use information properly	◯	◯	◯	◯
Good command of Korean materials	◯	◯	◯	◯
Good knowledge of Korean culture and society	◯	◯	◯	◯
Quick delivery of information	◯	◯	◯	◯

34. What might be the most useful channel to promote the library?

Mark only one oval.

- ◯ Online community /social media
- ◯ Language schools / School / College
- ◯ College llibary
- ◯ National library / Public library
- ◯ Korean public institutions (e.g., Korean Embassy, Korean Cultural Center)
- ◯ Korean private companies
- ◯ Word of mouth
- ◯ Other: _____

Skip to question 35

About you

People who are interested in Korea around the world are participating in this survey. We'd like to ask a few things about you just to learn about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rvey participants.

35. What is your nationality?

_____

36. Which country do you live in now? *

_____

37. What is your age group?

Mark only one oval.

- ◯ 10s or younger
- ◯ 20s
- ◯ 30s
- ◯ 40s
- ◯ 50s
- ◯ 60 years old or above

38. Which of the following categories best describes you? If none of the categories applies to you, please write your occupation next to "Other". *

Mark only one oval.

- ◯ K-12 students (i.e., Elementary, Middle, or High School Students)
- ◯ Undergraduate students
- ◯ Graduate students
- ◯ Korean Immigrants / Korean residents in the area
- ◯ Professors / Researchers
- ◯ Teachers
- ◯ Other: _____

Thank you for responding to the survey

39. We are currently looking for people who could tell us more about their experience of using Korean materials outside of Korea. Would you please be willing to help us? (We'll send a small gift to all participants.)

Mark only one oval.

- ◯ Yes
- ◯ No

40. This ends the survey. Thank you so much for taking your precious time. As a token of our appreciation, we give out three pairs of Apple Airpods via sweepstakes. Please write your email address below if you want to enter into the Sweepstakes.

_____

This content is neither created nor endorsed by Google.

Google Forms

Follow-up Interview : Access to Korean Material Overseas

Hello! Thank you for kindly expressing your willingness to help our research!

Below, we listed a set of questions that relate to Korean material use outside Korea. Please feel free to answer only those questions that are applicable to you. In this set of questions, different from the quantitative survey you have already answered, we'd like to hear more about the real life, personal stories of accessing Korean materials outside Korea and your expectations toward Korean libraries and information centers.

All your response, together with survey answers, will be essential in developing future services for Korean materials users overseas.

We sincerely appreciate your very generous time and thoughts in advance.

(*"Korean materials" in this survey means any material that relates to Korea in terms of topics, languages, etc.)
* Required

Preliminary Questions

1. Please tell us about yourself (e.g., your job, areas of study, current situation in life, previous experience, Korea-related experience, native language, Korean language proficiency, etc.)

2. What Korean materials do you mainly use now? And, what materials you'd expect to use in the future?

One Memorable Experience of Looking for Korean Materials

Please think about your recent memory or the most memorable situation when you were looking for Korea-related materials outside Korea.

3. In what situation were you looking for information or materials that relate to Korea? What kind of materials did you want to find specifically?

4. When you faced with problems in accessing Korean materials, how did you handle the situation?

Window on Korea (WOK) of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 If you have never used WOK, please do not answer the two questions below and move on to the next section ★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opens a 'Window on Korea (WOK)' collection in major libraries overseas in order to help those who want to access Korean materials and to promote Korean culture around the world.

5. What was your impression of WOK? Please feel free to comment.

6. To better shape its services, what should WOK do? Please tell us about the things you liked about WOK and the things you desire to have from WOK: for example, collection size, collection quality, availability of new materials, subject coverage, ease of use, search system, space, etc.

Your Expectations and Needs

7. When looking for or using Korean materials, what are the biggest challenges to you?

8. How would you think the COVID-19 pandemic will affect your use of Korean materials in the future?

9. What could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or other Korean government agencies do to assist people like you who look for Korean materials outside Korea? Below lists some of the ideas. Please feel free to tell us your thoughts and ideas.

searching available in Korean language	one-stop, comprehensive guide to Korean libraries and Korean materials
a trustworthy Internet portal that collects information about Korea and Korean materials	one-stop reference service point (like Ask a Librarian service)
interlibrary loan services or document delivery services (scanning services)	translation services

10. Your email please (Note: We could link it to the answers you've already provided via earlier questionnaire.) *

The interview ends here. Thank you so much for your precious time for this study.

This content is neither created nor endorsed by Google.

Google Forms

연구진

▌연 구 기 관 :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 권나현 (명지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공동연구자 : 이효경 (미국 워싱턴주립대학 사서부장)
서지영 (캐나다 브리티시콜롬비아대학교 아시아학부 강사)
이한슬 (명지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조교수)
▌연구보조원 : 최유진 (미국 텍사스주립대학교 박사과정)
임기령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석사과정)
▌보조원 : 김경현 (명지대학교 문헌정보학과 학부과정)

2020년 연구보고

해외 한국자료실 지원 개선방안 연구

인쇄 : 2020년 12월 15일
발행 : 2020년 12월 15일
발행처 : 국립중앙도서관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01(반포동)
Tel. 02-590-6328 Fax. 02-590-6329
http://www.nl.go.kr
연구기관 :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ISBN 979-11-6513-112-8 [비매품]

국립중앙도서관

비매품/무료

93020

9 791165 131128

ISBN 979-11-6513-112-8